

# 2021년 겨울 국어사학회 전국 학술 대회

사역원 간행 역학서의 국어학적 연구

일시: 2022년 1월 12일(수) 10:00~18:40

장소: 온라인(Zoom)

주최: 국어사학회

주관: 국어사학회



## 2021년 겨울 국어사학회 전국 학술 대회 세부 일정

□ 일시: 2022년 1월 12일(수)

□ 장소: 온라인(줌)

일 시		발 표 및 내 용	사 회	
개 회	10:00~10:10	개회사: 황선엽(국어사학회장)	김현주 (공주교대)	
	10:10~10:20	학회 일정 및 공지		
제1부  개인 발표	10:20~11:00	[개인 발표 1] 발표 주제 : 부사 ‘일절(一切)’의 통시적 의미 정찰 시론 발 표 : 마원걸(서울대) 토 론 : 황금연(전남대)		
	11:00~11:40	[개인 발표 2] 발표 주제 : 『병자일기』의 국어사적 접근에 따른 작성과정과 시기 연구 발 표 : 신성철(순천대) 토 론 : 배영환(제주대)		
	11:40~12:20	[개인 발표 3] 발표 주제 :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에 대한 한 국어학적 고찰 발 표 : 서엽(절강대) 토 론 : 김성주(동국대)		
	12:20~13:20	점심 식사		
제2부  주제 발표	13:20~14:00	[주제 발표 1] 발표 주제 : 한국의 역학서(譯學書) 연구 현황과 과제 발 표 : 정승혜(수원여대)		조재형 (전남대)
	14:00~14:40	[주제 발표 2] 발표 주제 : 漢語 학습서의 국어학적 가치에 관하여 발 표 : 이준환(전남대)		
	14:40~15:20	[주제 발표 3] 발표 주제 : 청학서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특히 만주어와 한국어의 시상체계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발 표 : 박상철(서울대)		
		15:20~15:30		휴식
	15:30~16:10	[주제 발표 4] 발표 주제 : 왜학서에 대한 한국어학적 연구의 회고와 전망 발 표 : 허인영(고려대)	장요한 (계명대)	
	16:10~16:50	[주제 발표 5] 발표 주제 : 『蒙語類解』 몽골어 표기에 대하여 - 장모음과 모음 사이의 $\gamma/g$ 탈락을 중심으로 - 발 표 : 을지바트(한국외대)		
	16:50~17:00	휴식		

	17:00~18:00	[종합 토론] 좌장: 김양진(경희대) 연구동(경성대), 신용권(인천대), 최계영(서울대), 박기영(서울시립대), 이용(서울시립대)	
총회 / 폐회	18:00~18:30	연구 윤리 교육	김현주 (공주교대)
	18:30~18:40	폐회사: 황선엽(국어사학회장)	

# 목 차

## 제1부 개인 발표

마원걸 ▶ 부사 '일절(一切)'의 통시적 의미 정착 시론 .....	9
황금연 ▶ "부사 '일절(一切)'의 통시적 의미 정착 시론"에 대한 토론문 .....	19
신성철 ▶ 『병자일기』의 국어사적 접근에 따른 작성 과정과 시기 연구 .....	21
배영환 ▶ "『병자일기』의 국어사적 접근에 따른 작성 과정과 시기 연구"에 대한 토론문 .....	35
서 엽 ▶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에 대한 한국어학적 고찰 .....	37
김성주 ▶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에 대한 한국어학적 고찰"에 대한 토론문 .....	43

## 제2부 주제 발표

정승혜 ▶ 한국의 역학서(譯學書) 연구 현황과 과제 .....	47
이준환 ▶ 漢語 학습서의 국어학적 가치에 관하여 .....	59
박상철 ▶ 청학서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특히 만주어와 한국어의 시상체계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	79
허인영 ▶ 왜학서에 대한 한국어학적 연구의 회고와 전망 .....	105
을지바트 ▶ 『蒙語類解』 몽골어 표기에 대하여 - 장모음과 모음 사이의 $\gamma/g$ 탈락을 중심으로 - .....	127

## 종합토론

연구동 ▶ "한국의 역학서(譯學書) 연구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	139
신용권 ▶ "漢語 학습서의 국어학적 가치에 관하여"에 대한 토론문 .....	143
최계영 ▶ "청학서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특히 만주어와 한국어의 시상체계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	145
박기영 ▶ "왜학서에 대한 한국어학적 연구의 회고와 전망"에 대한 토론문 .....	147
이 용 ▶ "『蒙語類解』 몽골어 표기에 대하여 - 장모음과 모음 사이의 $\gamma/g$ 탈락을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	149
국어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	151



제1부

개인 발표





## 부사 ‘일절(一切)’의 통시적 의미 정착 시론

마원걸(서울대)

### 1. 서론

본고는 부사 ‘일절(一切)’의 의미 정착 과정을 상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지하듯 현대의 ‘일절’은 ‘일체’와 함께 ‘一切’에 대응하는 한자어이지만, 다음의 (1)과 같이 독법의 차이뿐 아니라 그 용법에 있어서도 구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 “싱싱청과물의 주인 사내는 이제 막 이사 와서 동네 형편은 전혀 모르는 듯하였다. 무작정 과일 전만 벌였으면 혹시 괜찮았을 것을 눈치도 없이 ‘부식 ①일절 가게 안에 있음’이란 종이쪽지를 붙여놓고 파·콩나물·두부·상차·양파 따위 ②부식 일절이 아닌 부식 일체를 팔기 시작하였다.” —양귀자(1987:213), <원미동 사람들: 일용할 糧食>

위의 (1)은 종이쪽지에 적힌 ①‘부식 일절’이라는 표현이 마땅히 ②‘부식 일체’와 같이 정정되어야 함을 보인 것이다. 그렇다면 ‘일체’와 ‘일절’의 용법을 구분 짓는 ‘변별 요소’는 무엇일까? 아래 <표 1>을 통해 여러 사전의 해석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표 1> 현대어 사전의 ‘일체’와 ‘일절’<sup>1)</sup>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사</li> <li>①모든 것</li> <li>¶도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다.</li> <li>②(‘일체로’ 꼴로 쓰여) ‘전부’ 또는 ‘완전히’의 뜻을 나타내는 말.</li> <li>¶오늘부터는 장군한테 병정 단속하는 권한을 일체로 맡길 테니, 장군은 나를 버리지 마시오. &lt;&lt;박종화, 임진왜란&gt;&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사</li> <li>①모든 것</li> <li>¶일체의 관계를 끊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사</li> <li>①[‘~ 일체’의 꼴로 쓰이어] 특정한 것 모두.</li> <li>¶ 그가 수술비와 입원비 일체를 대납해 준 데 대해 감사할 따름이다.</li> <li>②[‘일체의 ~’의 꼴로 쓰이어] 모든 것, 온갖 것.</li> <li>¶ 그녀가 대학원 공부하는 데 드는 일체의 비용은 그 장학재단에서 제공된다고 한다.</li> <li>③[관형사적으로 쓰이어] 모든, 온갖.</li> <li>¶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빈부, 상하, 귀천을 망라한 일체 중생을 뜻하는 것이다.</li> </ul>
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사</li> <li>①모든 것을 다</li> <li>¶걱정 근심일량 일체 털어 버리고자, 즐겁게 술이나 마시자.</li> <li>②→일절<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사</li> <li>①모든 것을 다</li> <li>¶그 스님은 식사를 일체 거부하고 안거(安居) 중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사 ‘일체’의 잘못</li> <li>• 부사</li> <li>부인하거나 금지하는 말과 어울려서] 아주, 도무지, 결코, 전혀.</li> </ul>
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사</li> <li>아주, 전혀, 절대로의 뜻으로, 흔히 행위를 그치게 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에 쓰는 말.</li> <li>¶ 출입을 일절 금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사 ‘일체’의 비표준어</li> <li>• 부사 ‘일체’의 비표준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사 ‘일체’의 잘못</li> <li>• 부사</li> <li>부인하거나 금지하는 말과 어울려서] 아주, 도무지, 결코, 전혀.</li> </ul>

1) 이하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사전>, <연세한국어사전>을 각각 <표준>, <고려>, <연세>로 지칭할 것이다. 도표 속의 밑줄과 陰影은 필자가 추가한 것이며, 예문은 일부만 제시하였다.

			¶ 다른 얘기도 일절 하지 말아야 해.
--	--	--	-----------------------

<표 1>에서 확인되는 ‘일체’와 ‘일절’의 異同을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사전에서는 명사로 [전부]를 뜻하는 ‘일체’만을 인정하며, ‘일절’의 명사적 용법은<sup>2)</sup>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일체’와 ‘일절’의 부사적 용법에 있어서는 인정 여부가 서로 엇갈린다. ‘일체’의 경우, <표준>과 <고려>에서는 [전부]의 의미를 갖는 부사 ‘일체’를 인정하지만, <연세>에서는 부사로서의 ‘일체’를 제시하지 않았다. ‘일절’의 경우, <표준>과 <연세>에서는 [전반 금지]나 [전반 부정]의 부사 ‘일절’을 인정하였으나 <고려>에서는 [전부]를 뜻하는 부사 ‘일체’의 ‘비표준어’라 하여 해당 용법을 배제하였다. 특히 <표준>에서는 부사 ‘일체’의 두 번째 義項으로 ‘→일절<sup>2)</sup>’을 제시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표준>의 ‘일러두기’ 제4조 ‘뜻풀이/뜻풀이 번호’에 따르면 ‘→’는 ‘표준어 뜻풀이 참고’를 지시한다. 이는 [전반 금지]나 [전반 부정]을 내포하는 부사적 용법에 있어 ‘일절’을 ‘일체’의 ‘참고’ 또는 ‘표준어’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고려>의 기술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상의 비교 결과를 도식화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현대어 ‘일체’와 ‘일절’의 기술 양상 비교

	일체			일절	
	명사	부사		명사	부사
<표준>	[전부]	[전부]	[전반 금지/부정]	∅	[전반 금지/부정]
<고려>	[전부]	[전부]	∅	비표준어	비표준어
<연세>	[전부]	∅		비표준어	[전반 금지/부정]

요컨대 현대의 ‘일체’와 ‘일절’은 대체로 통사 범주와 어휘적 의미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일절’은 흔히 [전반 금지]나 [전반 부정]을 내포하는 부사로 쓰이는 반면, ‘일체’는 대개 [전부]를 뜻하는 명사 또는 부사로 쓰인다는 것이다. 그중 ‘일절’의 의미 자질인 [전반 금지]나 [전반 부정]은 ‘전부에 대한 금지나 부정’으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부사 ‘일절’과 ‘일체’는 [전부]라는 자질을 공유하면서도 그에 대한 ‘금지나 부정의 유무’에 의해 대별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부사 ‘일절’이 ‘일체’와 달리 [전부]에 대한 [금지]나 [부정]으로 특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본고는 ‘일절’의 통시적인 출현 양상을 살피고, 그에 따른 내적 動因을 찾아 보려 한다.

## 2. 기존 연구 개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일절’이 포함된 기존의 史的 연구를 짚어 봄으로써 문제 의식을 좀 더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찍 金鍾埙(1967), 南廣祐(1973, 1993) 등의 연구가 선행된 바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된다.

먼저 金鍾埙(1967:59-61)에서는 (3)에 제시된 <恨中錄>, <癸丑日記>, <意幽堂日記>, <謝氏南征記> 등의 용례(일부만 제시, 이하 동일)에 근거하여 고문헌의 ‘일절’이 전부 ‘부사’로서

2) <표준>에는 <고려>나 <연세>에 제시되지 않은 명사 표제어 ‘일절<sup>1</sup>(一切): 종이 따위를 한 번 끊음.’이 보인다. ‘일절<sup>1</sup>(一切)’과 ‘일절<sup>2</sup>(一切)’은 어깨 번호가 구별된다는 점에서 별개의 동음이의어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참고 어휘로서의 ‘일체(一切)’는 이들 중 부사 ‘일절<sup>2</sup>(一切)’에만 제시되어 있다.

‘사물을 부인하거나 금지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언급했다.

- (3) 가. 선친은 일절(一切) 그리하오신 배 아니 겨오시고 <李秉岐 註解 恨中錄>
- 나. 일절(一切) 입밖기 내디 아니하고 놔모르논 근심을 근심을 하디 <姜漢永 校註 癸丑日記>
- 다. 세간 사정을 일절(一切) 모르고 글 넓기만 도화하되 <李秉岐 校註 意幽堂日記>
- 라. 일절(一切) 원수를 미즌 곳시 업더니…[후략] <謝氏南征記>

한편, ‘일체’에 대해서는 (4)의 용례에<sup>3)</sup> 근거하여 ‘일체’가 과거에도 명사와 부사로 두루 쓰였으며, 그것이 문장 내에서 갖는 기능적인 가변성에 비추어 독음과 의미면에서 ‘일절’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밖에 <倭語類解>, <新增類合>, <石峰千字文> 등에 ‘切’이 ‘절(>절)’로 표기된 사례도 있지만, 한국어사 자료를 기준으로 ‘一切’가 <普皆廻向歌>에서 ‘一切善陵頓部叱廻良只’와 같이 최초로 문증된다는 점, 여러 佛經諺解에 나타나는데 그 어원이 불교 용어에 있다는 점 등에 기초하여 ‘一切’의 독음을 ‘일체’로 統一 是正할 것을 제안했다.

- (4) 가. 차시 육궁비빙(六宮妃嬪)이 짐작하여 의복하여 올리니 휘 일체(一切) 받지 아니하시니 <李秉岐 註解 仁顯王后傳>
- 나. 크며 저근 명상(名相)이 일체(一切) 서디 아니호미 <楞嚴經卷一·八>
- 다. 일체 법을 냐 삼망왕을 득하리니(得出生一切法三昧王) <蒙法四八>
- 라. 일체(一切) 즐거븐 것 봉싱(布施)홀만하야 공득(功德)이 그지 업스니 <釋譜一九·七>

다음, 南廣祐(1973:51-52, 1993:341-343)은 金鍾埴(1967)을 한층 더 발전시킨 논의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임진왜란 前後의 문헌을 통틀어 명사, 관형사, 부사로 쓰인 ‘一切’가 (5)에서 보듯 ‘일체’로 실현되었다는 점, 英·正祖代(18~19세기)의 <三韻聲彙>·<奎章全韻>에서도 ‘割也·急也·大凡’의 뜻으로는 ‘일체/一切’가 제시되었음을 언급했다.

- (5) 가. 一切 | 眞實하야 <六祖上 20>
- 나. 一切 種種 智慧를 일워 <月釋1:10>
- 다. 문득 저근 名相이 一切 서디 아니호미 <楞解1:8>

이밖에 특히 ‘임진왜란’ 이후의 문헌에서 부사 ‘一切’이 (6)과 같이 ‘일절’로도 적잖이 나타나 ‘일체’와 혼동됨을<sup>4)</sup>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아울러 南廣祐(1973, 1993) 역시 ‘일체’가 더 ‘일절’에 비해 더 일찍, 더 광범위하게 문증될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사용되며, 兩音의 併用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체’로 고정할 것을 제안했다.

- (6) 가. 일절 나디 아니하느니 <痘瘡方 5>
- 나. 일절 두려 써리지 아니하더라 <三譯總解1:12>
- 다. 일절 절 切 <倭解下 40>

위에서 언급된 내용 가운데 ‘일절’의 通時性和 연관되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

3) 이 가운데 (4나, 다, 라)의 ‘일체’는 原典에 ‘일체’로 되어 있다. 그 당시 인쇄의 편의를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한다.

4) 해당 논의에서 비록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일절’의 예시로 든 용례들은 전부 ‘일절’이 ‘아니’와 같은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경우였다.

다. ①‘일체’는 이른 시기부터 명사·부사·관형사로 두루 쓰인 반면, ‘일절’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비로소 문중되며, 부사로만 사용되었다는 점, ②‘일절’의 의미폭은 ‘일체’보다 좁아서 ‘사물을 부인하거나 금지하는 뜻’으로만 사용되었다는 점, ③‘일체’는 불교 용어에 기원을 두고 있는 ‘일절’의 선대형이라는 점 등이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에서는 ‘일체’가 용법상 ‘일절’을 대신할 수 있다는 논지 하에 ‘일절’보다는 ‘일체’에 비중을 두고 논의되어 온 듯하다. 그러나 ‘일절’이라는 어형에 대해 통시적으로 재고해 볼 만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일절’이 ‘일체’에 의해 온전히 대체될 수 있는 것이라면 부사 ‘일절’이 별도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며, 서론에서 제기하였듯 부정 표현과 특히 밀접한 호응 관계를 형성하게 된 연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요컨대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부사 ‘일절’ 중심의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 3. ‘일절’ 출현의 動因 분석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부사 ‘일절’은<sup>5)</sup> 17세기부터 확인되며, 통시적으로 ‘일절, 일절이, 일절히, 일저리, 일덜, 일절’ 등의 다양한 형태(이하 ‘일절’류 어휘)를 보인다. 참고로 각 형태의 출현 시기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부사 ‘일절’의 통시적 출현 시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일절	○	○	○	○
일절이	○	○	○	○
일절히	○	○	○	○
일저리	○			
일덜		○		
일절			○	○

위 도표에 제시된 ‘일절’류 어휘들의 용례를 관찰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정’이나 ‘금지’ 표현과 공기하여 나타나는 것이 유세하였으며, 17세기~20세기全般에 걸쳐 두루 확인되었다. 일례로 이 모든 시기에 확인되는 ‘일절’의 보편적인 용례를 들면 (7)과 같다.

- (7) 가. 상시 훈회에 던교 나오신 일이나 일절 승순티 아니 호고 <16xx 계축일기上:3a>  
 나. 괴운 편안<sup>호</sup>흡산 기별 일절 듣줍디 몬호와 일시도 닛줍디 몬호오며 <16xx현풍곽씨언간, 130-3>  
 다. 상검이 일절 누설티 말 뜻으로 손을 잡고 신신히 당부<sup>호</sup>더이다 <1756천의소감언해2:51a>  
 라. 다만 고루<sup>호</sup> 소견은 일절 맛디 아니코 오직 손오<sup>호</sup>병법을 유자의 호번 보<sup>호</sup>암죽 호 글이라 호노라 <1765을병연행록14,102>  
 마. 요스<sup>호</sup>이 손<sup>호</sup>히지 당<sup>호</sup>중을 드리고 화<sup>호</sup>렴산을 못 넘어 호드 호니 부 치를 빌나 와도 일절 호지 말고 호 깃히 간<sup>호</sup>슈<sup>호</sup>라 <1856서유기(경판59장본),상20a>  
 바. 방경이 설<sup>호</sup>중의 동<sup>호</sup>스<sup>호</sup> 거<sup>호</sup>술 호지기가 구<sup>호</sup>한 말은 일절 제<sup>호</sup>기치 아니코 다만 니<sup>호</sup>르디 <1884진주탑, 3:28a>

5) 통시적으로 ‘일절’이 부사로만 쓰인 것은 아니다. 다만 본고는 부사로서의 ‘일절’을 연구 대상으로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언급되는 일부 내용과 ‘쇼제의 집네<sup>호</sup>시미 야<sup>호</sup>행(夜行)의 무<sup>호</sup>촉(無觸)이면 일절 호계정을 밟지 아니<sup>호</sup>시고’ <17xx완월회맹연권20, 33a>처럼 통시적으로 ‘일절’이 명사 또는 관형어로 쓰인 사례가 소수 확인된다는 점만 언급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일절’은 부사적 용법을 지칭한다.

사. 또 과거 보이논디 서양 학문을 일절 쓰지 말고 이전 복구레만 허라고 허엿다논디 <1900제국신문, 0307>

아. 역토외에 민스를 일절 간섭지 못하게 하라 하엿더라 <1902제국신문.0821>

(7)에서 보듯 현대어 ‘일절’의 선대형인 ‘일절’은 서로 다른 시기에 ‘아니’, ‘못’ 등의 부정 표현과 ‘말-’ 등의 전형적인 금지 표현에 선행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필자의 과문일 수도 있겠으나 이처럼 ‘일절’과 ‘부정’ 또는 ‘금지’ 표현의 공기 현상은 적어도 17세기 중·후반부터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19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확고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17세기 前半期부터 산견되는 용례 가운데는 ‘일절’과 관련하여 그 이전 시기에 쉽게 확인되지 않던 독특한 언해 양상이 포착되어 흥미롭다. <언해두창집요>(1608)에서 발췌한 다음의 예문 (8)을 보자.

(8)     hing역홀 제 여러가짓 더러운 내며…③훈글궂든 비린내 누린내 머리터럭 손 내들홀 갖가이 마티디 ①말라 의혹정년의 곱오디 hing역이 궂장 더러운 내를 두려호느니 밧그로셔 온 사롭이며 빌 중이며 도스들로 경 날기며 왕니호기를 ②일절이 기휘하라(痘瘡①切忌諸般臭穢…③一切腥躁燒頭髮等氣 醫學正傳曰 痘瘡最怕穢惡之氣 ②切忌外人及僧道看經往來) <1608언해두창집요下:42b-43a>

(8)에서 밑줄 그은 ①‘말라’와 ②‘일절이 기휘하라’는 공히 원문의 ‘切忌’에 대응하는 대역어이다. ‘切忌’는 ‘반드시/절대 삼가다, 극력 피하다’ 정도에 해당하는 [徹戒]의 동사로, 이때의 ‘切’은 ‘반드시/절대’ 정도의 [당위성]을 의미하는 부사 ‘切’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컨대 (8)의 ‘일절이 기휘하라’에서 ‘기휘하라’가 ‘忌’에 대응함을 감안하면, ‘일절이’는 자연히 ‘切忌’ 내의 부사적 요소 ‘切’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한문 원문의 總括代詞 또는 부사 ‘一切’를 흔히 ‘일체(>일체)’ 등으로 처리해 오던 기존의 언해 방식과는 달리 한자어 ‘一切’의 내적 구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즉 [당위성]의 부사 ‘切’을 ‘일절(一切)’로 표상하는 ‘재분석’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8)에서 원문에 ③一切: 훈글궂든이 존재함에도 ‘切忌’의 ‘切’을 ‘일절이’로 처리한 것은 이러한 재분석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용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한편, <두창경험방>(1633)의 여러 용례들은 이에 더욱 풍부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먼저 예문 (9)를 보자.

(9)     삼가 풍한을 피하고 ①일절 침녕 을 금궂호디…또 금궂는 비홍시 슈박 납설슈 대초 건시 등은 물…부치졸 침강 향내 사오나온 내 ②일절 금궂호며 물읷 스로손 내 굽지지는 내 길뜸의 초호는 내…③일절히 갖가이 말고…또 밧사람과 쥘 거스와 무당을 ④일절히 문뎡의 드리디 말고…⑤일절히 잡디 말고 그 호는 대로 두라(謹避風寒①切忌生冷…又②∅忌生梨红柿西茺臘雪水棗子乾柿沉水…韭薤生薑香臭惡臭 凡燒煮油炒烟臭 ③一切不可近…且禁外人僧尼巫覡 ④∅勿入門庭…⑤切勿把持任其所爲) <1633두창경험방, 14a>

(9)에서 밑줄 그은 ①은 (8)의 사례와 같이 ‘금지’ 표현 동사 ‘切忌’를 부사 ‘일절[切]’과 동사 ‘금궂호-[忌]’로 나누어 언해한 것이다. ⑤의 ‘切勿’ 역시 ‘切忌’와 비슷하게 ‘절대/결코(…하지 마라)’ 정도의 ‘금지’를 나타내는 부사로,<sup>6)</sup> 이때의 ‘切’ 또한 [당위성]을 지닌 부사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컨대 해당 언해에서 ‘切勿’을 ‘일절히[切]’와 ‘말-[勿]’과 같이 양분하여 그 중의 [당위성] 부사 ‘切’을 ‘일절히’로 처리한 것은 ①의 재분석 과정과 동귀의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⑤에서 부사 ‘切’의 대역어로 사용된(또는 재분석을 거친) ‘일절히’가 ③에서 한문 원문 ‘一切’의 대역어로 쓰인 ‘일절히’와<sup>7)</sup> 형태상의 구별 없이 동시에 등장함은 해당 재분석의 확고함을 가늠케 한다.

더욱이 (9)의 ②와 ④는 한문 원문에 시현되지 않은 요소를 ‘일절’ 관련 어형으로 추가하여 언해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②의 경우, 원문에 나타난 ‘피하다/ 금기하다’ 정도의 동사 ‘罷’를 ‘금기는…금기하며’와 같이 두 번에 걸쳐 대역하였다. 그런데 서술어 ‘금기하며’에 선행하여 부사 ‘일절’을 추가하여 언해한 것이다. ④에서도 마찬가지로 원문에는 금지를 나타내는 부사 ‘勿’뿐인데 언해에서는 여기에 부사 ‘일절히’를 前置하여 ‘일절히…말-’과 같이 처리하였다. 이는 다른 한 측면에서 해당 시기의 ‘일절’류 어휘가 금지 표현과 상당히 밀접하게 호응할 수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처럼 ‘일절’류 어휘가 언해에서 추가로 의역되는 양상과 관련하여 <두창경험방>(1633)의 예문 (10)을 더 보기로 한다.

(10) 가. 그 티독을 업게 흐면 후에 일절 두창이 나디 아니흐노니(以去其胎毒 洗後不生痘也) <1633두창경험방,5a>

나. 황겁흐야 일절 고기를 머기디 아니흐야(痘家惶懼不敢與小許魚肉) <1633두창경험방,11b>

위에서 보듯 (10가)는 한문 원문에 ‘일절’과 직접 대응하는 요소가 시현되지 않았음에도 언해에 추가로 반영된 사례이고, (10나)는 한문 원문 ‘不敢與小許魚肉’에서 부정 표현 ‘不(敢)’과 호응하여 ‘조금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小許’가 ‘일절’로 의역된 경우이다. (10)과 앞서 본 (9)의 ②, ④ 등 용례에 비추어 재분석의 산물로 추정되는 ‘일절(히)’이 부정 또는 금지 표현과 긴밀히 호응하게 된 데는 그 原形이 되는 부사 ‘切’이 [당위성]을 지닌 채 부정 또는 금지 표현들과 자주 호응 내지는 쉬이 단일어화하는 특성과 연관되는 것으로<sup>8)</sup> 파악해 봄 직하다.

이처럼 원문의 [당위성] 부사 ‘切’이 ‘일절’류 어휘로 재분석되어 나타난 문례 또는 그것이 의역어로 등장한 사례는 (11)과 같이 18~19세기의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1) 가. 일절히 그릇 用心흐여 術을 假흐여 家計를 營티 말라(切莫錯用心 假術營家計) <1721오륜전 비언해, 45b>

나. 삼을 비고 모시를 삼으되 굴그며 7는 거슬 굳디 아니케 흐며 車機로 紡織흐기를 일절 勿勿이 말올디니라(紉麻絹苧흐되 粗細를 不同흐며 車機紡織을 切勿勿勿이니라) <1736여사서언해2, 4a><sup>9)</sup>

6) 견해에 따라서는 ‘切勿’을 동사로 보기도 한다.

7) 이처럼 원문의 ‘一切’을 ‘일절’류 어휘로 언해한 경우는 17세기 및 그 이후의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약간의 예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 만일 일절히 브어 알프기날 환흐거든 흰 침으로 송송 주면 독헌 괴운을 흐터 슬와 브리노니라 (如患一切腫痛이어든 白針鍼消散毒氣흐노니라) <1682마경초집언해上:69b>

가'. 프른 풀과 녹두를 물의 둠가 먹기고 일절히 싱노를 금기흐라(罷一切生料흐라) <1682마경초집언해上:85b>

나. 밋머리로 언는 제도를 일절이 금지흐올져(本髮加首之制 一切禁止) <1788가체신금사목 9a>

다. 우리 병이 일절 경이히 나아가디 못흐리니 만일 한 번 드러가면 반드시 사르잡히물 만날디라 (我兵一切勿輕進 若一殺人 必遭其擒) <개벽연의-규장2:85>

8)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는 아래에 17세기 이전의 언해 양상과 비교하면서 좀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 다. 이거시 구려의 계괴라 우리 통[동]티 아니믄 보고 짐짓 이 말로 널위를 격동하니 일절 통티 말라(此乃九黎之計 見我不動 故出此言 以激列位 切不可動) <개벽연의-규장2:86>
- 라. 네 일절 당관인을 들먹이디 말고(你千萬莫說出張官人來) <17XX선진일사12:95>
- 마. 상각건디 대군이 오면 힐문치 못홀 줄 알고 일절 브려두미라(都是大兵來 盤詰不得 索性撤了) <1884여선외사>

아울러 17세기 및 그 이후의 용례 가운데는 위에서 살펴 본 경우와 다른 방식으로 재분석되는 사례들도 확인되어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우연한 공백일 수도 있겠으나 이들은 [당위성] 부사 ‘切’이 ‘일절’류 어휘로 재분석된 경우보다는 양적으로 적은 듯했다. 그러나 이 또한 ‘一切’을 이해하는 다양한 인식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다음의 예문 (12)를 보자.

- (12) 가. 빗 지촉하여 일절 다 바드려(催切) <1657초간 어록해, 26b>
- 가'. 빗 지촉하여 일절 다 바드려 하다(催切) <1669개간 어록해, 30b>
- 나. 성이 지극한 효되러니 부모 상소 만나 일절이 가례를 좃고 삼 년 죽 머그니라(性至孝遭父母喪一遵家禮啜粥三年) <1617동국신속삼강행실도4, 35b>
- 나'. 상장과 제수를 훈글?티 네문을 조차 하더라(喪葬祭祀一遵禮文) <1617동국신속삼강행실도5, 5b>
- 다. 高氏는 一절히 禮經을 써서 襲歛애 옷 쓰기를 하게 홀 거시라 故로 襲애 冒ㅣ 잇고(高氏二用禮經 而襲歛用衣之多 故襲有冒) <1632가례언해5, 18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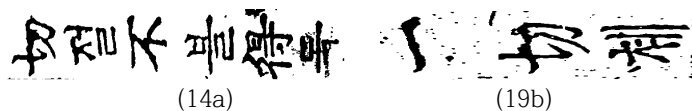
위의 (12가)는 [재촉하여 꺾박함] 정도의 의미를 갖는 ‘催切’에서 [꺾박함]으로 분석되는 동사 ‘切’을 ‘일절’로 처리한 것이다. 여기에 부사 ‘다’가 공기하였다는 점으로부터 동사 ‘切’에서 재분석된 이때의 ‘일절’은 [전부]의 의미로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예는 동일 문헌 <어록해>의 개간본에 나타난 (12가')을 제외하고는 17~20세기를 통틀어 더 이상 찾기 힘들었다. 한편, (12나, 다)는 원문의 부사 ‘一’을 ‘일절이’로 처리한 것이다. 예컨대 (12나)의 ‘일절이’는 동일 문헌 속 동일 원문에 대응하는 (12나')의 ‘훈글?티’를 참고하여 ‘한결같이’ 정도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17세기 및 그 이후의 언해 자료에서 확인되는 ‘一切’의 재분석 과정을 살펴 보았다. 아래에는 17세기 이전의 자료에서 문증되는 ‘一切’라는 표현 및 부사 ‘切’의 용례를 제시함으로써 위의 재분석 과정과 비교해 보려 한다. 먼저 ‘一切’와 부사 ‘切’이 함께 문증되는 <초발심자경문>(1577)의 용례 (13)을<sup>10)</sup> 보자.

9) 이밖에 <여사서언해>에는 ‘받들어 훈 사롬을 勸호노니 切실이 規度를 의지홀씨니라(奉勸後人호노니 切依規度ㅣ니라)’<여사서언해2 1736:34a>와 같이 [절실함]을 나타내는 부사 ‘切’을 ‘切실이’로 언해한 예도 있다. 이와 동궤의 것으로 선대의 (가), (나) 등을 들 수 있다.

- 가. 어리迷惑호야 또 일홀까 저홀씨 卽히 救호니라(恐癡迷復失故로 切救之호니라) <법1463화경언해2, 138a>
- 나. 切히 問호고 近히 思호면 仁이 그 中에 인노니라(切問而近思호면 仁在其中矣니라) <1590논어언해4, 57a-57b>

10) 다음의 <그림 1>에서 확인되듯 <초발심자경문>(1577)의 부사 ‘切’과 ‘一切’ 속 ‘切’는 독음에 있어 각각 ‘절’와 ‘체’로 구분된다.



<그림 1> 『초발심자경문』(1577) 속 ‘切’의 독법

- (13) 가. 하다가 종시 좌애 올라 설법호물 맛나거든 모디 법에 어려운 혜물 지어 몬<sub>하</sub>리로다 하야 물러날 모습 내디 말며(若遇宗師 | 陞座說法이어든 切不得於法의 作懸崖想<sub>하야</sub> 生退屈心<sub>하며</sub>) <1577초발심자경문, 14a>
- 나. 일체 시중에 바르 모로매 방변을 모로매 더욱 헝<sub>하야</sub> 디헛 히물 써(一切時中에 直須用加行方便智慧之力<sub>하야</sub>) <1577초발심자경문, 19b>

위의 (13가)에서 보듯 16세기 문헌인 <초발심자경문>의 경우, [당위성]을 나타내는 부사 ‘切’은 ‘모디’로 실현되었으며, (13나)에서 總括代詞 ‘一切’의 대역어로 등장한 ‘일체’와 구분된다. 이러한 양상은 후대인 17세기의 재분석 양상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렇듯 ‘一切’에서 [당위성]의 부사 ‘切’이 재분석 되기 이전의 모습은 비단 16세기뿐 아니라 시기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다양하게 확인된다. 약간의 용례를 제시하면 (14~17)과 같다.

(14) ‘그장’

- 가. 이 經 닐글 사르몬 光明을 두르<sub>혀</sub> 제 비취요미 貴고 슌가락 자브며 筌 두미 그장 슬하<sub>니</sub>라(讀是典者는 所貴廻光以自照 | 오 切忌執指而留筌이나라) <1459월석서, 22a-22b>
- 나. 縣令 楊侃과 刺史 柳無忝과 글워를 得하<sub>야</sub> 그장 힘써 자브니 五日到 石角村에 도죽을 자바韶州 | 보내야 저조니(縣令楊侃과 刺史柳無忝과 得牒하야 切加擒捉하<sub>니</sub> 五日到 於石角村에 捕得賊人하야 送韶州하야 鞫問하<sub>니</sub>) <1496육조법보단경, 87a>
- 다. 썰리 光祿卿 徐興祖<sub>들</sub> 홀 브르샤 그장 외다 하시니 [光祿卿은 벼슌 일후미라] 興祖<sub>들</sub> 히 다 붓그려 降伏하<sub>니</sub>라(巫音棘召光祿卿徐興祖等하샤 切責之하<sub>시</sub>니 興祖等이 皆慚服하<sub>니</sub>라) <1573내훈2 하, 61a-61b>
- 라. 그르 아로물 그장 아쳐<sub>롤</sub>디어다(切忌錯會어다) <1482금강경삼가해언해2, 49a>

(15) ‘잡간도’

- 가. 하다가 가스미 듯하면 하릿 內는 어루 救하<sub>리</sub>니 잡간도 노 긋디 말오(若心上溫一日已上猶可救 切不可截斷繩) <1466구급방언해 상, 77a>
- 나. 子孫이 길리니 ②잡간도 제 믿고 德을 힘뿌디 아니<sub>하</sub>고 이리 偶然하<sub>니</sub>라 너기디 마물디니 네 ①잡간도 닛디 말라(乃可長世니 切不可自恃而不務德하<sub>고</sub> 謂事有偶然也 | 니 汝 | 切識之라하<sub>라</sub>) <1573내훈2 하, 57a>

(16) ‘모디’

- 가. 넛 聖人<sub>넛</sub> 보라물 보미 맛당컨<sub>던</sub> 모디 杜撰을 마물디니 아란다(宜觀先聖標格이언<sub>던</sub> 切忌杜撰이니 會麼아) <1460몽산법어언해, 20a>
- 나. 모디 文字를 잡디 말오 바르 모로매 쁘들 아라 一一히 自己에 나사가 本宗에 마즈면 스승 업슨 智慧 | 自然히 알피 나트며(切莫執文코 直須了義하<sub>야</sub> 一一歸就自己하<sub>야</sub> 契合本宗하<sub>면</sub> 則無師之智 | 自然現前하<sub>며</sub>) <1467목우자수심결, 42b>
- 다. 牧牛子 | 닐오디 브라<sub>는</sub> 돈 모습 닷길 사르미 모디 즈세히 슌퍼 이 뵈에 디디 마물디어다 (私曰호디 冀修心人이 切須審評하<sub>야</sub> 不墮此見이어다) <1522법집별행록, 41a>

(17) ‘모로매’

- 이 後에 漸修<sub>는</sub> 圓滿<sub>하</sub> 漸修 | 니 모로매 슬퍼 아롤디어다(此後에 漸修<sub>는</sub> 是圓漸이니 切須審詳이어다) <1522법집별행록, 71b>

위의 용례에서 보듯 재분석 되기 이전의 [당위성] 부사 ‘切’은 ‘그장’, ‘잡간도’, ‘모디’, ‘모로매’ 등으로 언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15나)에서 ①로 표시한 부분이 특히 주목된다. 물론 부정 표현이 후행할 것을 요구하는 ‘잡간도’ 자체의 통사적 특징과도 관계되겠지만,



②와 달리 원문의 [당위성] 부사 ‘切’에 부정이나 금지 표현이 없음에도 ‘잠깐도…말라’와 같이 금지 표현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특징, 이를테면 한문 부사 ‘切’이 [당위성]을 지닌 채 부정 또는 금지 표현들과 자주 호응하며, 쉬이 단일어화하는 특성이 언해에도 반영된 사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4. 결론

본고는 ‘一切’에 대응하는 한자어 부사 ‘일절’을 중심으로, 그 통시적인 출현 양상을 살피고, 특히 부정 및 금지 표현과 긴밀히 호응하게 된 내적 동인을 상정해 보았다.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와 일련의 분석을 거쳐 ‘일절’류 어휘는 그것이 문증되는 17세기부터 여러 가지 재분석 과정을 거쳤는바 그중에서도 [당위성] 부사 ‘切’을 ‘일절(>일절)’과 같이 재분석하여 표상하는 경우가 특히 많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러한 재분석의 산물로 파악되는 ‘일절’류 어휘가 한문 원문에 금지 표현만 시현된 경우에도 언해 과정에 추가로 의역되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 한문의 [당위성] 부사 ‘切’ 역시 금지나 부정의 표현과 쉬이 호응한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상기의 재분석 과정이 ‘일절’과 금지 및 부정 표현의 긴밀한 공기 양상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았다.

#### 참고문헌

- 權仁瀚(1999), 「한국 한자음의 표준안 연구」, 『새국어생활』(9:1), 국립국어원, 87-100.
- 權仁瀚(2009), 『中世 韓國漢字音의 分析的 研究(資料篇)』, 박문사.
- 김무림(2018), 「고대국어 한자음의 기층에 대하여」, 『2018년 한국어학회·우리말학회 공동 전국학술대회 논문집』, 153-174.
- 南廣祐(1973), 『朝鮮(李朝)漢字音研究』, 一朝閣.
- 南廣祐(1993), 「一切(일체) 차례(←次第) 주발(←鑰鉢) 수저」에 대하여, 『語文研究』(2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41-347.
- 南廣祐(1995), 『古今漢韓字典』, 仁荷大學校出版部.
- 盧明姬(2007), 「한자어의 어휘 범주와 내적 구조」, 『震檀學報』(103), 震檀學會, 167-191.
- 노명희(2008), 「한자어의 구성성분과 의미 투명도」, 『國語學』(51), 國語學會, 91-113.
- 박진호(2015), 「언어에서의 전염 현상」, 『언어』(40), 언어학회, 619-632.
- 성우철(2020), 「‘당최’의 의미 변화 과정과 그 기제에 관한 연구」, 『國語學』(96), 國語學會, 257-308.
- 신중진(2021), 「의미 변화 이론의 수용 그리고 새 관점」, 『한국어 의미학』(72), 한국어의미학회, 31-57.
- 연구동(1996), 「近代國語 語彙集 研究-類解類 譯學書を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광호(1995), 『類意語 通時論』, 以會文化社.
- 이용규(2021), 「김안국 편찬 <呂氏鄉約諺解>와 <正俗諺解>의 언해자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197), 국어국문학회, 73-110.
- 이준석(2003), 「漢譯 佛經 속의 古典梵語文法과 古代國語의 受容에 대하여」, 『한국어학』(20), 한국어학회, 191-219.
- 李孝允(2019), 「한국어 부사의 변천 연구-15세기 이후 자료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 이토 지유키 저·이진호 역(2011), 『한국 한자음 연구(자료편·본문편)』, 역락.
- 林玄烈·李燦揆(2008), 「한국 한자음과 중국 한자음의 대응에 관한 연구」, 『語文研究』(3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93-418.
- 劉昌惇(1971), 『語彙史研究』, 宣明文化社.
- 전영우(1995), 「발음을 정확히 익혀 쓰자」, 『사학』(74), 대한사립학교장회, 72-76.
- 鄭虎聲(2002), 「'일체(一切)'와 '경신(更新)」, 『새국어소식』, 국립국어원.
- 金鍾埜(1967), 「'一切'歪曲'의 讀音에 대하여」 『文耕』(22), 中央大 文理大, 59-64.
- 康 健(2012), 「《祖堂集》中的“VP一切了”及其歷史演變」, 『西南交通大學學報(社會科學版)』(13:4), 8-14.
- 王廷福(1987), 「“一切”釋解」, 『鎮江師專學報(社會科學版)』(4), 36.
- 劉紅妮(2007), 「“一律”的詞彙化、語法化以及認知闡釋」, 『玉溪師範學院學報』(23:11), 91-95.
- 徐 飄(2019), 「基於梵漢對勘的《十地經》(前三品)同經異譯代詞的比較研究」, 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邵麗麗(2015), 「佛源詞通俗化方式探析」, 『吉林廣播電視大學學報』(165), 143-144.
- 梁曉虹(1987), 「漢魏六朝佛經意譯詞初探」, 『語言研究』(12), 109-120.

“부사 ‘일절(一切)’의 통시적 의미 정착 시론(마원걸:서울대)”의 토론문

황금연(전남대)

이 발표문은 부사 ‘일절(一切)’의 통시적 출현 양상을 검토하여, [부정], [금지] 표현과 공기(共起)하게 된 요인을 살피고 있다. 발표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토론자의 능력 밖으로 생각하지만, 여러 문헌 자료에 나타난 ‘일절’의 통사적 구성(?)을 잘 포착하여 논의를 진척시킨 점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발표문의 내용에 대해 토론자가 궁금한 점,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한다(발표문의 순서에 따라 적음).

1. <표 1>의 ‘일절’의 <고려> “명사 ‘일체’의 비표준어”, <연세> “명사 ‘일체’의 잘못”의 ‘비표준어’, ‘잘못’의 기술이 ‘일절’의 명사적 용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맞는지. ‘비표준어’는 규범적 표기가 아니라는 뜻으로 보면, 용법은 인정되는 것이 아닌지. 두 사전의 ‘일러두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표준어:비표준어. 중앙어:지역어의 관계를 참고하면 논의가 달라질 수 있다. <표 2>에서는 보면 ‘비표준어’=‘잘못’으로 보인다.

참조: <조선말큰사전>(한글학회), <조선어사전>(문세영)의 일체와 일절의 기록(20세기 이후의 사전 기술 내용)도 참고하면 좋겠다.

<조선어사전> 일절(一切): ㉠ ① 아주. 도무지. ㉡ 일체(一切)에 보라.

일체(一切): ㉠ 모든. 온갖. 一竝.

<조선말큰사전>

일절(一切) [옛] ① “아주”, “도무지”의 뜻으로 사물을 부인하거나 금지할 때에 쓰는 말. ㉡ =일체(一切)

일체(一切) [이] 모든 것. 온갖 사물. [언] 모든. 온갖.

2. [전반 금지], [전반 부정]의 ‘전반’, ‘義項’, ‘徹戒’ 등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면 좋겠다.

3. 각주2)의 ‘일절(一切)1’의 언급은 불필요해 보인다.

4. 인용문 (8) 관련

① ‘말라’ ② ‘일절이 기휘하라’ 는 원문 ‘切忌’에 대응하는 대역어라 하였는데, ‘切忌’=‘∅~말다’는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9)의 ②, ④와 같은 양상인지((9)에는 앞에 切忌. 一切 나타나기 때문에 ‘切’이 생략(?)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절이 기휘하라’도 호응관계([부정], [금지])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참고: ‘기휘’는 기휘(忌諱)(꺼리고 싫어함, 꺼리거나 두려워 피함. 나라의 금령(禁令). 기휘(忌較) 한청문감(256b)

5. 인용문 (8) ③에 대해 “一切: ‘흔골궂튼’이 있음에도 ‘切’을 ‘일절이’로 처리한 것은 재분석이 안정적으로 수용되었고 있었음을 보여줌”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의 ‘흔골궂튼’은 ‘一切’에 초점이 놓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흔골궂튼’이 ‘切’을 변안(?)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더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흔골궂튼’이 ‘一切’이 대응하는 경우는 <소학언해(1586)>에 1회 확인되고, 그 외 대부분은 ‘一’과 대응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 앞서 제시한 문세영의 조선말사전의 ‘一竝’이 ‘한결(<흔골궂튼>이 관련되지 않는가. 다만 ‘궂’이 용언이라는 점은 문제다.[<우리말샘>의 ‘한결같이’ 역사 정보의 설명의 ‘궂’과 ‘궂’의 형태적 유사성에 기댄 사건임.]

6. (15) 나.子孫이 길리니 ②잠간도 제 믿고 德을 힘뿌디 아니호고 이리 偶然호니라 너기디 마롤디니 네 ①잠간도 닛디 말라(乃可長世니 切不可自恃而不務德호고 謂事有偶然也 | 니 汝 | 切識之라호라) <1573내훈2 하, 57a>

“ ① 네 잠간도 닛디 말라: 汝 | 切識之라호라”는 ‘切~(不)’의 호응이 되지 않는다. 앞에 나오는 ‘不’이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4.에서 질문한 (8, ①)과는 다른 양상으로 보인다.

한편론 (논의 내용과는 벗어나는 듯하지만) 의역과 직역의 차이에서 ‘잠간도 ~말다’의 호응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직역: 잠간도[切, 절대, 반드시] 알아라[識之, 알아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의역: 잠간도[切, 절대, 반드시] 잊[?識之]지 말아라.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알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반의어[[알다(이해하다):잊다(모르다)]를 통한 부정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해석도 가능할 듯하다.

②의 ‘잠간도’는 ‘~ 마롤디니’와 호응한다.

7. (17)에서 ‘切須’ = ‘모로매’로 보고 있음. ‘須=모로매’의 직접 대응되는 것으로 보이며, ‘부정’, ‘금지’의 표현과 공기하지 않는다.

같은 문헌인 (16 다)에는 “切須~不: 모디~ 마롤--”로 호응하며 (14~16)에는 다른 어휘로 번역되지만 공기현상이 나타난다. (13 나)에도 ‘須:모로매’가 대응이 확인된다.

토론자가 과문하여 질의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표자의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병자일기』의 국어사적 접근에 따른 작성 과정과 시기 연구

신성철(순천대학교)

## 1. 서론

이 글은 1636년부터 1640년까지 남평조씨, 즉 조애중(曹愛重, 1574~1645)<sup>1)</sup>이 작성한 『병자일기』의 국어사적 가치를 밝히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적 문헌 자료를 국어사 논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편찬되었는지에 대한 일차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간본 자료라면 간행 시기, 간행자, 간행지, 초간본 여부 등이 규명되어야 하며, 필사 자료라면 필사 시기, 필사자, 필사지 등의 규명과 이본 비교 등에 의한 원본 여부 등이 간본 자료보다 더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필사 자료는 원본의 내용을 옮겨 적으며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서, 필사 시기, 필사자, 필사지 등의 규명과 함께 필사자의 자필고본(自筆稿本, 지은이 자신이 직접 쓴 것) 여부를 밝힐 수 있다면 국어사 논의에 널리 이용될 가치를 얻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근래에는 조선시대 한글 편지가 국어사 자료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 국어사적 논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해당 편지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쓰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선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기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국어사 문헌 자료 목록에는 『계축일기』, 『산성일기』 등의 한글로 작성된 일기체 자료가 언급되지만, 일반적인 국어사 논의에서는 이들 자료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이들 자료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쓰인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며, 특히, 현전의 『계축일기』, 『산성일기』 이본 중에 자필고본(自筆稿本, 지은이 자신이 직접 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계축일기』가 비록 광해군 5년(1613년)을 기점으로 일어난 궁중의 비사(秘事)를 인조 반정(仁祖反正, 1623년) 뒤에 뒤에 수필 형식으로 적은 것이지만, 현전하는 이본들은 그 시기에 작성된 자료라 하기 어렵다. 또한 『산성일기』가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년) 등의 역사적 사건을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 또한 현전하는 이본들의 언어 실태가 해당 시기에 부합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전자는 낙선재본(樂善齋本) 「계축일기」와 홍기원본(洪起元本) 「서궁일기(西宮日記)」의 이본이, 후자는 낙선재본·국립중앙도서관본·구왕궁본(舊王宮本)의 세 가지 이본이 확인된다. 이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원본은 전혀 아니며,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도 않다.

그러나 『병자일기』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한 쓰인 것인지 비교적 소상하다. 『병자일기』는 조선 인조 때 좌의정을 지낸 춘성부원군(春城府院君) 남이웅(南以雄,

1) 남평조씨가 조애중(曹愛重, 1574~1645)이라는 성명을 가졌음을 밝힌 것은 문희순(2013:69)에서이다. 이 글에서는 '남평조씨'라 하지 않고, '조애중'이라 저자의 성명을 그대로 적는다.

1575~1648)의 정경부인(貞敬夫人) 남풍조씨, 즉 조애중(曹愛重, 1574~1645)이 작성한 한글 일기이다. 이 자료는 여러 이본이 함께 발견되는 다른 일기류와는 달리 남이웅(南以雄) 가문에서 전래된 수택본인 관계로 유일본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필사 시기와 필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므로 국어사적 자료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지닐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기류 문헌인 『계축일기』, 『산성일기』처럼 국어사 논의에서 그리 널리 이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현전의 『병자일기』가 필사자의 자필고본(自筆稿本, 지은이 자신이 직접 쓴 것)인지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지 하듯이 필사본은 손으로 써서 책을 형태로 만든 자료를 일컫는데, 현존 『병자일기』의 내용 어디에도 필사 시기와 필사자에 관련된 기록이 없다. 즉 ‘조애중’이 일기의 작성자임은 명확하지만 현존하는 『병자일기』의 최종 필사자인지 알 수가 없다. 『병자일기』의 국어사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종 필사자와 원작성자와의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병자일기』의 국어사적 애용을 위해서 원저자인 남풍조씨, 즉 조애중(曹愛重, 1574~1645)의 자필고본임을 밝히고자 한다. 현존의 『병자일기』가 원자료를 옮겨 적었던 세부 과정을 살펴보면, 이 문헌에 반영된 음운 현상을 분석하여 시기적 부합 여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17세기 전반기에 나타나는 음운 현상을 중심으로 이 문헌에 나타난 문헌 자료의 시기적 일치를 확인할 것이다. 17세기 국어에서 대표적인 음운 현상은 구개음화, ㄹ 비음화, 종성의 ㅅ과 ㄷ 교체 등이 나타나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병자일기』가 수택본으로 보관된 ‘충청남도 공주’ 지역의 언어가 아닌 ‘조애중’이 생활하던 중부 방언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는지 아울러 찾아볼 것이다.

## 2. 서지 및 작성자, 내용 논의 등

조선시대의 일기류는 사대부가 남성의 일기가 대부분이다. 아직까지 학계에 보고된 사대부가 여성의 일기는 『병자일기』가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것이며, 현전 한글 일기류 중에서도 가장 이른 듯하다<sup>2)</sup>. 『계축일기』, 『산성일기』를 일기류에 포함하곤 하지만, 일기 형식으로 적은 회고록일 뿐이며 ‘일기(日記)’ 즉 “날마다 그날그날 겪은

2) 제목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병자일기』보다 시대가 앞선 한글 일기류는 『임진록』, 『계축일기』 등이 있다. 『임진록』은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셋째 아들인 유진(柳袵, 1582~1635)이 임진왜란(1592~1598) 중에 체험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계축일기』는 저자가 명확하지 않으나 1613년을 기점으로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다. 『임진록』은 유진이 53세인 1635년에 지은 것이라 하지만 후손이 훼손을 우려하여 1849년에 베낀 전사본(轉寫本)이 현전하며, 『계축일기』는 낙선재본(樂善齋本) 『계축일기』와 홍기원본(洪起元本) 『서궁일기(西宮日記)』가 현전하는데, 두 책 모두 원본이 아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즉, 1592년이나 1613년 전후의 언어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병자일기』는 현전하는 한글 일기류 중에서 가장 이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병자일기』 이전에 존재했던 한글 일기에 대한 기록에 대한 논의는 정우봉(2012:213~217)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러나 그 존재에 대한 기록을 조사한 것이며, 각 해당 자료는 현전하지 않거나 당시의 것이 전래하지 않는다.

일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적는 개인의 기록”(『표준국어대사전』)으로 볼 수 없다.

### 2.1. 서지 논의<sup>3)</sup>

표지 1장과 본문 72장(114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병자일기』의 표지명은 『송정병자일기(崇禎丙子日記)』이다. 널리 퍼진 명칭이 『병자일기』이므로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표지에 적힌 표지명 등은 ‘조애중’의 친필이 아닌 듯하다.

『병자일기』 표지의 오른쪽에는 ‘春城府院君南相國夫人手澤’으로 세로로 내리쓰기가 되어 있고, 왼쪽에는 큰 글씨의 ‘崇禎丙子日記’가 내리쓰기로 되어 있다. 이를 고려하면 조선 인조(仁祖, 조선의 제16대 왕. 1595~1649.) 때 좌의정을 지낸 춘성부원군(春城府院君) 남이웅(南以雄, 1575~1648)의 정경부인(貞敬夫人) 남풍조씨, 즉 조애중(曹愛重, 1574~1645)이 작성한 것임이 알 수 있다. 단지, 수택(手澤)은 ‘물건에 남아 있는 옛사람의 흔적’(『표준국어대사전』)이므로, 표지의 기록은 ‘조애중’이 아니라 후손이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이웅이 춘성부원군(春城府院君)에 봉해진 시기가 1648년이고, ‘相國(상국)’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우의정에는 1646년, 좌의정에 1648년에 임용되므로 ‘春城府院君南相國夫人手澤’의 기록이 가능한 시기는 ‘조애중’의 사후이다(문희순 2019:360).

전형태·박경신(1991:24)에서는 후손이 합책하는 과정에서 표지를 만들어 붙인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문희순(2019)에서는 표지의 배접지에 사용된 ‘제문’과 ‘한문간찰’, ‘고목’ 등의 내용 등을 분석하여 1786년부터 1809년 사이에 ‘조애중’의 6대손 남필복(1729~1809)이 『송정병자일기』로 장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책의 크기는 대략 가로 27cm, 세로 28.2cm 정도이지만, 본문에는 종이의 크기가 다른 부분이 끼어 있다. 전형태·박경신(1991:24)서는 “원래 4책으로 분책되어 있던 것을 합책한 듯 크기가 다른 2책이 중간에 끼어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39장에서 60장까지는 세로 크기가 확실히 작은 종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즉 50장과 51장을 비교하면 다시 크기가 달라지며, 61장부터 책 앞부분의 종이 크기와 비슷해진다.

본문의 행수는 대체로 19행 내외를 모두 유지하지만, 각 행에 쓰인 글자수는 1책과 4책의 큰 종이에서는 21자, 2책의 중간 종이는 17자 내외, 3책의 제일 작은 종이에서는 15자 내외가 된다. 글씨체는 반흘림체인데, 어느 정도 이러한 자료를 읽었던 경험이 있는 연구자라면 무난히 읽을 수 있는 정도로 작성하였다. 판독이 잘 안 되는 곳은 본문 앞뒤에 마모된 부분과 각 면의 바깥 부분, 즉 목판본의 판심 부분에 해당하는 각 장의 접히는 부분에 주로 분포된다.

### 2.2. 작성자 논의

3) 이 문헌은 남이웅의 17대손인 남대현 씨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기탁하여, 현재 국립공주박물관에 위탁 보관되어 있다(문희순 2013).

전형태·박경신(1991:25)에서는 특별히 일기 작성 과정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기록은 반드시 매일매일 한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며칠 간의 일을 한꺼번에 기록한 흔적이 보이는 부분들도 있으며”에서 보듯이 조애중(曹愛重)이 직접 각 공책에 일기를 적은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붓글씨에 나타난 먹의 농담을 보면, 며칠 간의 사연을 한꺼번에 기록한 것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다른 곳에 작성된 내용을 옮겨 적으면서 짙고 옅음이 반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날짜가 바뀔 때마다 동그라미 ‘○’를 하고 해당 날짜를 적고 있는데, 매일매일 또는 며칠 간의 일을 한꺼번에 적었다고 한다면, 동그라미 ‘○’과 날짜 부분에 굵고 진한 붓글씨가 나타나는 일정한 유형이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그라미 ‘○’과 해당 날짜 앞뒤로, 즉 전날의 사연 끝부분부터 동일한 농담의 붓글씨가 이어지거나, 동일 날짜의 사연 속에서 붓글씨의 농담이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각 해당 날짜에 일기를 작성할 때 나타나는 붓글씨의 농담이라기보다는 이미 작성된 내용을 옮겨 적을 때 나타나는 붓글씨의 농담인 것이다.

또한 1책과 2책의 경계, 즉 58장과 59장에서 ‘여상 아들과 성참봉와 진’과 ‘여상 아들 성참봉와 진지’의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그날그날의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전본이 있었으며, 그 내용을 옮겨 적을 때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또한 <58b>에서는 8행만 채우고 11행은 공백으로 남겨 두었는데, 1책의 끝부분, 즉 1책의 끝에 들어나는 면이어서 훼손 등을 우려하여 더 이상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병자일기』의 붓글씨에 나타난 먹의 농담과 1책과 2책의 경계인 58장과 59장의 일부 내용 중복 등은 『병자일기』와 달리 이전본의 존재하였음을 알려 주는 증거인 것이다. 더불어 <53a>에서는 10행 하단 세 글자부터 11행과 12행 다섯 글자까지, 즉 ‘네 조………취혀 오시다’와 ‘차네 ㅎ읍다’를 지웠는데, 날마다의 기록을 적은 것이 아니라 이전본의 내용을 무심히 옮겨 적었다가 지운 것으로 보인다.

전형태·박경신(1991)에서는 어디에도 ‘조애중’의 자필고본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지 않는다. 단지, 이 책이 학계에 알려질 때까지 350여 년을 견딘 것이며, 풍양조씨, 즉 ‘조애중’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기술할 뿐이다(전형태·박경신 1991:25~29).

『병자일기』에 대한 국어학적 논의는 매우 적다. 이러한 경향은 한글 일기류인 『계축일기』, 『산성일기』에서도 일정 확인된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각 일기류에 관계된 시대적 배경과 일기류 자료에 사용된 언어 실태가 부합하지 않고, 즉 현전하는 이본들이 당대의 언어 모습과 이질적인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병자일기』에 나타난 17세기 국어의 모습을 논의한 것은 공교롭게도 김영춘(1994ㄱ,ㄴ)과 여은지(2006)의 석사 학위 논문에서이다. 두 논의 모두에서는 『병자일기』에 반영된 언어는 필사자 ‘조애중’의 저자물임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즉 그 어느 부분에서도 필사자에 대한 의구심은 표현되지 않는다.

『병자일기』에 대한 국어사적 가치가 확고하기 위해서는 문희순(2019:361)의 주장대로 ‘조애중’의 자필고본이라는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붓글씨의



농담, 1책과 2책의 내용 반복, <53a>에서 행 삭제 흔적 등은 이전본의 존재를 강화하는 증거가 될 듯하다..

특히, 현전하는 『병자일기』는 한 책으로 묶여 있으나, 본문 사용된 종이는 그 크기에 따라서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즉 6대손 남필복에 의해 각각 전래된 각 책을 하나의 책으로 합철한 것이다. 비록 본문에 사용된 종이의 크기가 달리 작성된 네 책을 하나로 합친 것이지만 네 책 모두는 한 사람의 글씨체로 되어 있다.

4책의 각 부분에서 모두 동일한 경향의 독특한 글씨체가 확인된다. 예를 들어, ‘못/긋’, ‘궁’, ‘굽’ 등을 쓸 때, 특이하게도 ‘一’ 아래에 ‘·’와 같은 점을 찍어서 ‘ㄴ’을 적는다. 이때 ‘一’와 ‘·’는 떨어지고<sup>4)</sup>, ‘·’와 ‘ㅅ’, ‘ㅇ’, ‘ㅂ’이 연결된다. 즉 ‘긋브다’<18b>, ‘긋길 제’<24a>, ‘무궁ᄃ고’<1b>, ‘닐굽’<52a> 등은 마치 ‘긋’, ‘굽’ 등을 쓰듯이 ‘ㅅ’과 ‘ㅇ’, ‘ㅂ’ 등 위에 ‘점(·)’을 찍어 놓은 형태로 ‘ㄴ’이 쓰인다. 그러나 ‘굴’, ‘군’ 글짜이거나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一’에 ‘ㅣ’가 이어진 일반적인 ‘ㄴ’의 형태를 따른다. 그러므로 본문을 이루는 4책 모두 한 사람의 글씨체가 사용된 것이다.

또한 역설적으로, 일필휘지의 붓글씨와 1책과 2책의 내용 반복, <53a>에서의 행 삭제 등은 『병자일기』가 ‘조애중’이 직접 옮겨 적었다는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상의 수택을 중요시하는 후손이라면 반흘림체의 글씨로 쪽 적기보다는 원본과의 확인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옮겨 적었을 것이며, 특히 1책과 2책의 일부 내용 반복, <53a>에서의 행 삭제 등의 실수를 최대한 조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첨기 등도 후손에 의한 정리보다는 ‘조애중’ 본인에 의한 정리 차원에서 옮겨 적은 것임을 지지해 준다. 비록, ‘조애중’이 날마다 쓴 일기 그 초고본은 아니기는 하지만, ‘조애중’이 이전의 기록물을 본인이 옮겨 적은 것이므로, ‘조애중’의 언어가 아닌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현전의 『병자일기』는 ‘조애중’의 자필고본에 버금가는 자료이며, 17세기 전반기 언어가 반영된 국어사 자료로서의 지위가 주어진다.

### 2.3. 내용 논의 등

전형태·박경신(1991)에 의해 『병자일기』가 학계에 널리 알려진 뒤에서도 국어학적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

특히, 국어사적 논의는 전무한데, 이 문헌은 그 가치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주무시다’는 국어의 높임법이 널리 나타나는 조선시대 한글 편지에서도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판본 자료나 다른 필사 자료, 즉 조선시대 한글 편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즈므시고’<3a, 21b, 37b>, ‘즈므시다’<8b, 14b> 등 총 22회에 걸쳐 나타나는 것은, ‘주무시다’가 일찍이 17세기 초반 시기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알려 준다. 조선시대 한글 편지에서 ‘주무시다’가 사용된 용례는 ‘즈므시고’<봉서-14>가 유일한데(황문환 외:2016),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 시기에 궁녀가 작성한

4) 모두 떨어진 것은 아니다. 연결획에 따라 가늘게 이어진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획이 아니라 다음 획을 쓰기 위해 이동하는 가는 선으로 이어진다.

편지에서 사용된 것이다.<sup>5)</sup>

『병자일기』는 국어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문학, 여성생활사, 민속, 역사, 민속, 농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게 연구가 이루어졌다. 국어학적 논의는 언어 실태가 중요하지만 문학 등의 연구에서는 언어 실태보다 내용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필사자의 자필고본 여부는 덜 중요하게 된다. 그리하여 문학과 관련된 朴敬伸(1991)의 논의에서 출발하여 근래의 김보현(2018, 2020)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여성생활사는 안숙원(1999), 문희순(2010) 등에서, 농업은 박근필(2004), 조혁연(2013) 등에서 꾸준히 다루어지고 있다.

### 3. 일기 작성 과정

일기(日記)가 개인이 날마다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적은 기록이라면, 한글 일기류라 할 때에도 날짜별로 그날에 겪은 일이나 생각 따위를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계축일기』, 『산성일기』가 전체적으로 시간과 사건의 선후 관계에 따라 내용을 쭉 적은 것이라면, 『병자일기』는 날마다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을 따위를 적은 것이다. 즉 전자의 두 개는 일기류 형식을 따른 문학 작품이라고 한다면, 『병자일기』는 개인의 일상사를 기록한 엄밀한 일기라 할 것이다.

『병자일기』는 저자와 작성 시기가 명확히 밝혀졌다. 사대부가 여성인 ‘조애중’이 1636년 12월 1640년 8월까지 기록한 기록한 일기이다. 현전의 표지 등의 장책은 ‘조애중’에 의한 것이 아니라 6대손 남필복(1729~1809)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본문은 ‘조애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병자일기』에서는 날짜가 바뀔 때마다 동그라미 ‘○’를 하고 날짜와 날씨, 사연 등을 적는데, 달이나 해가 바뀔 때에는 일정한 형식이 반복되어 사용된다.

해가 바뀌는 부분에서는 ‘덩툭 정월 대건 임인 신틱 삭’처럼 간지와 1월 등의 정보가 나타나며, 달이 바뀌는 곳에서는 ‘이월 쇼건 계묘 신미 삭’과 같이 간지가 빠진 나머지 내용이 나타나는데, 대체로 이러한 형식이 반복된다.

‘덩툭 정월 대건 임인 신틱 삭’에서 ‘덩툭 정월(丁丑正月)’과 ‘대건 임인(大建壬寅)’, ‘신틱 삭(辛丑朔)’은 각각 연월과 월건(月建), 즉 달의 간지, 그리고 날짜의 간지와 초하루라는 정보가 주어진다. 즉 정축년(丁丑年) 정월(正月), 즉 1637년 1월이며, 1월은 30일로 이루어진 임인에 해당하는 큰달<sup>6)</sup>이며, 해당 날짜가 신축에 해당하는 초하루임을 적은 것이다. 달이 바뀌는 곳에서는 연도 정보가 빠지고 월 정보 등이 주어진다. ‘이월 쇼건 계묘 신미 삭’은 ‘二月 小建 癸卯 辛未 朔’ 즉, 이월 작은달 계묘(에 해당하는 달) 등을 의미하다.

5) 대부분의 조선시대 한글 편지에서는 ‘자다’의 높임말로 주체높임법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한 ‘자시다’가 사용된다(황문환 외:2016).

6) 음력에는 29일과 30일로 이루어진 달이 있는데, 30일로 이루어진 음력 달을 대건(大建, 큰달)이라 하고, 29일로 이루어지면 소건(小建, 작은달)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은 조선시대의 달력, 즉 책력(冊曆)에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 조선시대의 모든 책력이 현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축년(1637년)의 책력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소장된 『大統曆(崇禎十年)』이 유일본으로 확인된다<sup>7)</sup>. 1월이 정보가 빠져 있으나 2월부터 12월의 해당 정보가 그대로 일치한다.

‘조애중’의 이전본은 ‘공책’에 일기를 적은 것이 아니라, 책력에 그날의 일기를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책력에 일기를 적은 것은 사대부가 남성의 일기에서 널리 행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성희(2007:106~107)에 의하면 조선 중기의 문신인 정경세(鄭經世, 1563~1633)가 사용한 1607년 대통력이 일기를 적어 놓은 대표적인 역서이다.

우복 종택에 소장된 1607년 역서를 정경세는 일기 혹은 오늘날의 수첩처럼 사용하였으며, 그날그날의 일기나 날씨, 대구부사로 가기 길에 숙박했던 곳, 지인 등의 왕래 등을 빈칸에 적는다. 또한 시기적으로 늦은 동춘당 송준길(宋浚吉, 1606~1672)도 책력을 간단한 일기장으로 활용하였는데, 이를 후손이 정서한 것이 『문정공부군일기』, 즉 『동춘당일기』 등으로 전한다(허경진 2003:98).

『동춘당일기』의 일부 시기가 『병자일기』의 시기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가 ‘조애중’이 병자호란으로 호서 등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이므로, 현재의 대전 대덕구와 날씨가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병자년, 즉 1636년 12월 21일의 날씨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병자일기』에는 ‘스므 흐르 스므이틀 대설이라’<2a>이라 적었고, 『동춘당일기』에서는 ‘21일 諸戚 皆會 多雪’<16>으로 적혀 있어서 날씨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조선시대의 사대부가 남성이 이처럼 책력을 일기 등처럼 사용한 경우는 조선시대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조애중’도 책력을 일기처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병자일기』의 이전본은 책력에 적힌 것으로 추정된다. 즉 사대부가 여성이 ‘책력’을 일기장으로 사용한 경우는 ‘조애중’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조애중’이 책력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 남이웅과의 사이에서 4남 1녀의 자녀를 두었으나 어린 나이에 죽었고, 집안의 대소사를 직접 경영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남이웅은 병자호란 이후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昭顯世子, 조선 인조의 맏아들. 1612~1645)와 함께 심양에 가게 되면서 남편과 자식 없이 홀로 집안을 이끌어야 하였다.

『병자일기』의 이전본은 책력에 작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병자년, 정축년, 무인년, 기묘년, 경진년 등의 여러 책력에 기록된 일기는 관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인쇄된 부분을 피하여 작성하였으나 기존 한문과 겹치는 부분 등으로 인하여 읽기가 그리 간단하지 않은 듯하다. 그리하여 노후의 어느 때쯤에 이를 옮겨 적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단지, 한꺼번에 옮긴 것은 아닌 듯하며, 『병자일기』가 본문이 종이 크기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뉘듯이 종이를 구할 때마다 해당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이다.

7) 이 책의 청구기호는 <奎中5567>이며, 1책 17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크기는 31.4×18.4cm이며 권두서명은 『大明崇禎十年歲次丁丑大統曆(대명송정십년세차정축대통력)』이다. 이 책에는 1월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그렇다면 ‘책력’에 일기를 작성한 사람도 ‘조애중’이며, 『병자일기』의 네 부분의 공책에 책력의 일기를 옮겨 적은 최종 필사자도 ‘조애중’인 것이다.

#### 4. 음운 현상 비교

현전의 『병자일기』는 ‘조애중’의 자필고본에 버금가는 자료이며, 17세기 전반기 언어가 반영된 국어사 자료로서의 가치가 확인된다.

17세기 전반기의 대표적인 음운 현상으로는 구개음화, ㄹ 비음화, 종성의 ㅅ과 ㄷ 교체, 비음동화, 원순모음화 등을 들 수 있다. 필사본에서는 자음 아래에 놓이는 모음이 표기를 판독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ㄴ’와 ‘ㄹ’의 판독, ‘ㄹ’와 ‘ㄴ’의 판독 등이 그러한데, 명확하기 구분되는 곳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ㄴ’인지 ‘ㄹ’인지 알기 어렵거나 ‘ㄴ’로 적어야 하는 곳인데, ‘ㄹ’의 형체가 사용되는 곳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모음과 관련된 변화를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다. 이곳에는 구개음화와 ㄹ 비음화, 종성 ‘ㅅ’과 ‘ㄷ’의 표기, 비음동화 등을 중심으로 17세기 국어의 경향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병자일기』는 전형태·박경신(1991)의 판독문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역주 병자일기』(1991)의 뒤쪽에 실린 영인본으로 비교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영인본이 너무나도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충남향토연구회(1989)의 『향토연구』 제6집에 실린 영인본과 대비하면서 판독을 다시금 진행하였다. 내용 해석은 전형태·박경신(1991)의 주해서를 중심으로 하면서, 김정시·김병륜(1991)의 주해도 참고로 하였다.

##### 4.1. 구개음화

‘ㄷ, ㅌ’이 ‘ㄷ, ㅌ’이 결합하여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ㄱ, ㅋ’이 ‘ㅈ, ㅊ’, ‘ㅎ’이 ‘ㅅ’으로 바뀌는 현상도 구개음화에 포함되지만, 이 문헌에서는 ‘ㄷ’의 구개음화만이 나타나므로, ‘ㄷ, ㅌ’의 경우만 살펴보기로 한다.

이 자료에서 구개음화나 과도교정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의 용례는 모두 4,135개가 검색된다. ㄷ→ㅈ은 943개, ㄷ→ㅊ이 1개, ㅈ→ㅊ이 1,689개, ㅌ→ㅊ이 264개, ㅌ→ㅊ이 1,238개가 나타나는데, 구개음화가 적용된 용례는 1개 나타나며, 과도교정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 ㄱ. 바리오지:

하인 술 머기다 {바리오지} 싱원 광쥬로 가다<57a>: 기묘년(1639년) 9월 8일

##### ㄴ. 바리오디<5b, 15b, 19b>

거리에 나오고 {바리오디} 싱원도 편쥬 ㅎ여 나와 겨시다<5b>: 정축년(1637년) 삼월 17일

초칠 청 풍 형님 {바리오디} 가시다 심양셔 시월 초ㅎ큰날<15b>: 정축년 11월 6일

형님 {바리오디셔} 오시고 두룩이 청쥬로 가다<19b>: 정축년 12월 19일

구개음화가 적용된 ‘바리오디(/지)’는 지명에 해당되는데, 전형태·박경신(1991:주30)에서도 현재의 충청남도 당진군 정미면 매방리에 속한 발이방리(鉢伊坊里)로 판단하

고 있으나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다. 지명의 어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원을 알 수 없으나, ‘바리오디’가 다수 나타나고 있고, 앞선 연도, 즉 ㄴ)은 모두 정축년(1637년)에 3월, 11월, 12월의 일기에서 나타나면, ㄱ)은 기묘년(1639년) 9월에 나타나고 있어서, 약 2년간의 사이에 구개음화가 적용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듯하나, ‘바리오디(/지)’가 정확히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단지, ‘조애중’에게 구개음화가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라도 근방이거나 근접한 어느 지역에서 구개음화가 발생하여 적용된 변화를 그 지역의 인물과 대면하면서 접촉하여 표기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자 한다.

중부지방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시기는 17세기 후기, 주로 17세기와 18세기의 교체기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병자일기』에 나타난 구개음화의 미적용 현황은 대체로 시기적으로 부합된다.

#### 4.2. ㄴ 비음화

조선시대의 ㄴ 비음화는 ‘자음+ㄴ’뿐만 아니라 휴지가 선행하는 ‘/ # ㄴ /’에서도 ‘ㄴ’이 ‘ㄴ’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포함하는 음운 현상이다(신성철 2019).

어두의 ㄴ 비음화에 관련된 용례는 590개이다. 이 중에서 ㄴ→ㄴ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583개이며, 어두에서 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3개인데, ‘량식’이 2회이고, ‘령감’이 1회이다. ‘량식’은 ㄴ→ㅇ의 변화로 볼 수 있는 ‘양식’이 4회 반복되는데, ㄴ→ㄴ인 ‘냥식’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 ‘양식’은 조선시대 한글 편지에서도 15세기의 <신창맹씨묘 출토 언간>이나 16세기 중후기의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 등에서도 확인된 것이다(신성철 2020).

##### ㄱ. #ㄴ: ㄴ 유지-3회

곡석 퇴화 량식 디허<1a>, 피란허라 허고 량식이 만히<1a>  
초혼의 령감 나오시니<60b>

##### ㄴ. ㄴ→ㅇ: ㄴ 변화-4회

제 양식 허여<20a>, 대복도 드려 양식 슬허<1a>  
두 바리 양식 마량<24a>, 오장에 양식 디허<4a>

ㄴ 유지된 ‘량식’은 이 문헌에서는 ‘양식’과 함께 나타날 뿐인데, ‘ㄴ 유지’의 경우에는 한자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ㄴ→ㅇ’은 휴지 환경에서 ‘ㄴ→ㄴ’이 발생한 이후에 ‘ㅣ, y’ 앞에서의 ‘ㄴ→ㅇ’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시대 한글 편지에서는 15,6세기 자료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필사자의 자필고본(自筆稿本, 지은이 자신이 직접 쓴 것)이라는 특징이 그래도 반영된 것이다. 즉 간행 자료보다 언어 사용자의 언어 실태가 더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이 조선시대 한글 편지인 것이다. 그런데 『병자일기』에서도 조선시대 한글 편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조선시대 한글 편지와 『병자일기』는 필사자의 자필고본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령감’은 1회 나타나지만 한자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ㄹ→ㄴ’이 적용된 용례가 100회 나타나고 있어서 어두의 ‘ㄹ→ㄴ’은 매우 강력히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중의 ‘ㄹ→ㄴ’도 예외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ㄷ. 자음+ㄹ→자음+ㄴ

/ㄱ+ㄹ/: ㄱ+ㄴ 20여 개/ㄱ+ㄹ 0개

/ㅁ+ㄹ/: ㅁ+ㄴ 51개/ㅁ+ㄹ 0개

/ㅂ+ㄹ/: ㅂ+ㄴ 60개/ㅂ+ㄹ 0개

/ㅇ+ㄹ/: ㅇ+ㄴ 58개/ㅇ+ㄹ 0개

어중에서 ‘자음+ㄹ’이 가능한 경우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이 가능하지만, 이 문헌에서는 ‘/ㄷ+ㄹ/’이나 ‘/ㅅ+ㄹ/’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용례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비음 ‘ㄴ’과 유음 ‘ㄹ’과 결합한 경우에는 예외가 나타난다. 그 중에서 ‘/ㄴ+ㄹ/’의 ‘ㄴ+ㄴ’으로 나타나는 용례가 11회이지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ㄴ+ㄹ의 용례가 27개이며, 역행적 유음화 적용된 ‘ㄹ+ㄹ’도 2개 확인된다. 그러나 그 빈도를 현대국어와 달리 혁행적 유음화의 위력보다는 ‘ㄹ 비음화’의 위력이 더 강했음을 알 수 있는데, 간본 자료나 조선시대 한글 편지에서도 나타났던 경향과 다름이 없다.

ㄹ. 자음+ㄹ→자음+ㄹ

/ㄴ+ㄹ/: ㄴ+ㄴ 11개/ㄴ+ㄹ 27개/ㄹ+ㄹ: 2개

/ㄹ+ㄹ/: ㄹ+ㄴ 0개/ㄹ+ㄹ 141개

/ㄹ+ㄴ/: ㄹ+ㄹ 1개/ㄹ+ㄴ 16개

그러나 근대국어에서 ‘ㄹ+ㄴ’의 표기가 주류로 나타나는 /ㄹ+ㄹ/에서는 변화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며, /ㄹ+ㄴ/에 순행적 유음화가 적용된 ‘ㄹ+ㄹ’이 1개 나타나고 있으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용례가 16개가 나타나서 선행적 유음화가 그리 강하지 않은 단계임을 보여 준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15,6세기 조선시대 한글 편지에서 나타났던 경향이며, 간본 자료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확인되지만 이러한 경향은 시대가 뒤진 16,7세기 문헌 자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병자일기』에 나타나는 어두와 어중의 ㄹ 비음화의 발생 시기와 그 경향은 조선시대 한글 편지에 매우 가까우며, 간본 자료와는 발생 시기와 과정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미 조선시대 한글 편지와 비교에서도 드러났던 것이다(신성철

2020).

#### 4.3. 종성 ‘ㅅ’과 ‘ㄷ’의 표기

현대국어의 음절말 평파열음화에 대응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런데 ㅈ, ㅊ, ㅌ 등이 ‘ㅅ’으로 합류하는 중세국어에서는 음절말 평파열음화라 할 수 없다. ‘ㅅ’은 평음이지만 조음 방법이 마찰음이기 때문이다.

종성의 ‘ㅅ’과 ‘ㄷ’의 직접적인 표기에 관련된 용례는 모두 843개이다.

이중에서 ㄷ→ㅅ의 표기 변화가 나타난 것은 57개이며, ㅌ→ㅅ은 20개, ㅈ→ㅅ은 595개, ㅊ, ㅌ→ㅅ은 43개가 나타난다. ㄷ→ㄷ은 128개이며, ㅅ→ㄷ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음운현상에서는 현대국어의 음절말 평파열음화의 방향처럼 ‘ㅅ→ㄷ’의 합류가 나타나지만, 표기에서는 그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된다. 특히, ‘ㅌ’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ㅅ’으로 모두 표기되었다.

#### 4.4. 비음동화

비음동화는 비음 앞에 ‘ㅅ, ㄷ, ㄱ, ㅂ’ 등의 장애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병자일기』에 나타난 비음동화는 적용 환경이 매우 확실하다.

##### ㄱ. 비음동화 적용

/ㅅ+ㄴ/: ㄴ+ㄴ 45개/ㅅ+ㄴ 3회  
/ㄷ+ㄴ/: ㄴ+ㄴ 260개/ㄷ+ㄴ 0회

##### ㄴ. 비음동화 미적용

/ㄱ+ㄴ/: ㄱ+ㄴ 18개, /ㅂ+ㄴ/: ㅂ+ㄴ 8개  
/ㅅ+ㅁ/: ㅅ+ㅁ 4개, /ㄷ+ㅁ/: ㄷ+ㅁ 0개  
/ㄱ+ㅁ/: ㄱ+ㅁ 15개, /ㅂ+ㅁ/: ㅂ+ㅁ 1개

장애음과 비음이 결합한 환경에서 비음은 ‘ㄴ, ㅁ’만이 가능하면, 선행하는 장애음은 ‘ㅅ, ㄷ, ㄱ, ㅂ’ 등이 가능한데, 비음동화는 후행하는 비음이 ‘ㄴ’인 결합하고 선행한 장애음이 ‘ㅅ, ㄷ’인 환경에서만 나타나며, 후행 비음이 ‘ㅁ’이거나 선행 장애음이 ‘ㄱ, ㅂ’인 경우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ㄴ 비음화를 겪은 ‘ㄱ+ㄴ’의 20여 개, ‘ㅁ+ㄴ’의 51개, ‘ㅂ+ㄴ’의 60개 등에서도 비음동화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휴지가 개재한 환경에서는 대부분 비음동화가 발생하지 않으나 /ㅅ#ㅁ/의 일정한 환경에서는 비음동화가 발생한다.

##### ㄷ. 비음동화 적용

/ㅅ#ㄱ/: ㄴ#ㄱ 14개 예) /닷#말/ → 단 말  
ㄴ#ㄱ 8개 예) /엣#말/ → 연 말

이들은 수 관형사에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가 결합한 경우이다. 이들 용례는 종성이 원래 ‘ㅅ’인 어휘와 의존 명사 ‘말’이 만난 경우에 발생한다. 그러나 원래 ‘ㅅ’이 어휘라 할지라도 ‘말’ 다른 의존 명사가 사용된 경우에는 비음동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의존 명사 ‘말’이 결합되더라도 원래 ‘ㅅ’이 아닌 어휘가 결합하면 또한 비음동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ㄹ. 비음동화 미적용

조그 닷 못<1636병자기, 21b>

조그 엣 못<1636병자기, 9a>

농쥬 꿏 말<1636병자기, 31a>

5. 결론



## 참고 논문

- 金正市·安炳輪(1991), 註解 崇禎丙子日記, 『향토사연구』 3,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 김경화(2004), 『丙子日記』에 대한 女性文學的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보현(2018), 『병자일기』 화자의 시간 인식과 기술 방식, 『기호학연구』 55, 한국기호학회.
- 김보현(2020), 『병자일기』의 독서 시간과 서사성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김영춘(1994ㄱ), <丙子日記>에 나타난 17세기 國語研究, 韓國敎員大學校 석사학위논문.
- 김영춘(1994ㄴ), 병자일기에 나타난 17세기 국어연구 : 음운 변화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12-1, 청람어문학회.
- 김정시·김병륜(1991), 註解 崇禎丙子日記, 『향토사연구』 3,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 문희순(2010), 남평 조씨 3년 9개월의 家政과 인간경영 -『병자일기』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75, 한국언어문학회.
- 문희순(2019), 조애중曹愛重의 『병자일기丙子日記』 배접지에 기록된 제문과 간찰, 『국학연구』 39, 한국국학진흥원.
- 朴敬伸(1990), <丙子日記> 研究, 『국어국문학』 104, 국어국문학회.
- 朴敬伸(1991), <丙子日記>의 隨筆的 性格, 『울산어문논집』 7,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 朴敬伸(1994), <丙子日記>에 나타난 1630년대 후반의 民俗, 『울산어문논집』 9,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 朴敬伸(2016), 『丙子日記』에 나타난 17세기 중엽 사대부집안 제사의 양상과 의미, 『진단학보』 127, 진단학회.
- 박근필(2004), 『병자일기』 시기 남이옹가의 경제생활, 『농업사연구』 3-1, 한국농업사학회.
- 박미해(2008), 유교적 젠더 정체성의 다층적 구조: 『미암일기』, 『목재일기』, 『쇄미록』, 『병자일기』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9, 한국사회사학회.
- 변순희(1999), 일기체 문학 『병자일기』 연구, 蔚山大學校 석사학위논문.
- 송준길(1995), 『동춘당일기』, 향지문화사.
- 신성철(2019), 어두와 어중 ㄹ→ㄴ 현상의 통시적 고찰: ㄹ 비음화와 통계적 방법론, 『국어문학』 71, 국어문학회.
- 신성철(2020), 조선 전기 한글 편지에 나타난 ‘ㄹ’ 두음법칙과 ‘ㄴ’ 비음화의 통시적 고찰, 『語文論集』 81, 중앙어문학회.
- 안숙원(1999), 역사의 총체성과 여성 담론 : 남평조씨의 『병자일기』를 대상으로, 『여

- 성문학연구』 2, 한국여성문학학회.
- 여은지(2006), <병자일기>의 표기와 음운 변화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경명(2000), <병자일기>와 <산성일기>의 비교연구 : 표기와 음운 현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화(2001), 『산성일기』와 『병자일기』의 비교 연구, 蔚山大學校 석사학위논문.
- 이숙인(2014), 남평조씨 애중(愛重) : 일기를 쓰다, 『내일을 여는 역사』 57, 재단법인 내일을여는역사재단.
- 이연순(2014), 한,일 고전 여성 일기문학의 최초 작품 비교 고찰 : 『병자일기』와 『청령일기(가게로일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26,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전형태·박경신(1991), 『주해 병자일기』, 예전사
- 정성희(2007), 조선시대 양반가문 소장 역서류의 현황과 가치, 『사학연구』 86, 한국사학회.
- 정우봉(2011), 조선시대 국문 일기문학의 시간의식과 회상(回想)의 문제, 『古典文學研究』 39, 한국고전문학회.
- 정우봉(2012), 남평조씨 『병자일기』의 성격과 작품 공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조혁연(2013), 『병자일기』에 나타난 17세기 전기의 私奴婢, 『중원문화연구』 21,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조혁연(2014), 『병자일기』에 나타난 17세기 충주 이안 지역의 農法, 『중원문화연구』 22,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최배영(2016), 조선후기 생신다례(生辰茶禮)에 관한 연구: 『병자일기』와 『무오읍혈록』을 중심으로, 『차문화·산업학』 33, 국제차문화학회.
- 충남향토연구회(1989), 병자일기(원문), 『향토연구』 6, 충남향토연구회.
- 함정옥(2007), 남평 조씨 <병자일기>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경진(2003), 『사대부 소대헌·호연재 부부의 한 평생』, 푸른역사.
- 황문환·김주필·배영환·신성철·이래호·조정아·조항범(2016),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 1~6, 역락.

“『병자일기』의 국어사적 접근에 따른 작성 과정과 시기 연구”  
토론문

배영환(제주대)

(별지 참조)



#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에 대한 한국어학적 고찰

徐燁 (浙江大學 漢語史研究中心)  
charlottexuye@hotmail.com

목차
1. 들어가기
2. 신라 인명과 지명
3. 신라인의 언어와 문서 내용
4. 신라식 講經禮懺 및 誦經儀式
5. 나오며
參考文獻

## 1. 들어가기

圓仁(794-864)은 9세기 중기 당나라에서 단기적인 유학 및 구법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일본의 請益僧이다. 그가 구법여행 경험을 여행기로 지은 『入唐求法巡禮行記』(838, 이하 『行記』라 약칭)는 法顯(337-422)의 『佛國記』(416), 玄奘(602-664)의 『大唐西域記』(646), 義淨(635-713)의 『大唐西域求法高僧傳』(691), 慧超(704-783?)의 『往五天竺國傳』(723-727?) 이후 9세기의 가장 위대한 여행기로 꼽히고 있다. 이 『行記』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과 불교학, 문학, 언어학(중국어학, 일본어학),造船학, 해양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사 분야에서 『行記』를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圓仁은 9세기 재당 신라인의 언어, 講經禮懺 및 儀式 등을 세밀히 관찰하였다. 그러므로 이 『行記』에 기록된 신라인의 언어 사용 상황은 한국어사 연구에 관한 1차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본고는 白化文 등(1992/2007/2019)이 교주한 『行記』를 저본으로 이용하며 정병준, 이유진, 조재우, 이진선 등의 한국어 역주를 참조하여, 圓仁이 기록한 9세기 재당 신라인의 언어 사용 상황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제2, 3소절에서는 각각 圓仁이 기록한 신라인의 인명 및 지명, 신라인의 구어 및 문서 내용을 수집하고 한국어학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제4소절에서는 圓仁이 신라인의 강경 예찬 및 강경 의식에 대한 관찰 및 묘사를 정리하고 한국어학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 2. 신라 인명과 지명

圓仁은 『行記』에서 여러 재당 신라인의 인명, 그리고 한반도 남쪽의 고지명을 포함한 고유명사들을 기록하였다. 신라인에 대한 기록은 300여 번 정도가 나타났고, 주로 재당 신라 譯語, 通事, 僧侶, 기타(船主, 상인) 등이었다. 한반도의 고지명이라 함은, 圓仁이 순례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갈 때 지나갔던 여러 섬이름들을 가리킨다. 본 소절에서는 신라와 관련된 여러 인명과 지명을 조사 및 정리하여 한국어학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재당 신라 역어와 통사는 기본적으로 일본과 중국, 중국과 신라 언어 간의 소통을 기본 업무로 하고 있었으며, 뛰어난 어학 능력과 회화 능력을 갖고 있다. 『行記』에 나타난 신라 역어와 통사 인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신라 역어 및 통사의 인명

金正南(卷一: 7/33/86/105/129/141/143), 朴正長(卷一: 33), 劉慎言(卷一: 131/132; 卷三: 447/453/460; 卷四: 483/507/508/509/510/527/530/531/538/556/557/558/562), 張寶高(卷一: 140; 卷二: 158/198/205/206/247; 卷四: 527/558/568), 道玄(卷一: 146/148; 卷二: 162/164/167/173/200/207), 林大使(卷二: 179/198), 張詠(卷一: 7; 卷二: 198/239/240/241/242/246/247/248/249/250/253; 卷四: 525/543/544/545/567/568), 王訓(卷一: 7; 卷二: 168/177/198), 崔暈(卷二: 206/246/247; 卷四: 510), 李元佐(卷四: 478/497)

金正南과 朴正長은 신라 역어이다. 劉慎言은 楚州(오늘의 江蘇省 淮安)에 살고 있는 신라인으로서 신라어, 일본어, 중국어를 할 수 있다. ‘慎言(신중하게 말하다)’이라는 이름은 유교 이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통역으로서 圓仁과 여러 번 만났으며 서신 왕래도 있었다. 張寶高(즉 張保皋)에 대해서 圓仁은 ‘張寶高, 張大使라고 칭하였고 ‘解日本國語, 便為通事(일본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통사로 했다)’라고 평가하였다. 장보고는 당시 신라의 海上王으로서 赤山(오늘의 山東 威海 榮成)에서 赤山法華院을 세웠고 圓仁이 법화원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道玄은 신라 역어, 閻梨(혹은 阿閻梨), 通事로서 신라어, 일본어, 중국어에 능통했다. 林大使는 신라 통사, 押衙이고 그의 이름은 『行記』에 나타나지 않았다. 大使라는 것은 都兵馬使 혹은 押衙 등 여러 중급 武官을 존칭하는 것이다. 張詠은 신라 통사, 군사 押衙이고 圓仁은 그를 ‘張押衙, 張大使’라고도 불렀다. 王訓은 신라 통사, 押衙이다. 崔暈은 押衙이고 圓仁은 그를 ‘崔兵馬司, 崔押衙, 崔十二郎’이라고도 불렀다. 그는 장보고 옆에 있는 유능한 조수이다. 李元佐는 押衙이고 당나라에서 벼슬을 한 신라인이었다. 圓仁이 長安에 머물렀을 때 李元佐가 圓仁에게 많은

편의를 봐주었기 때문에 圓仁은 李元佐와 ‘情分最親(정분이 가장 친밀하다.)’이라고 하였다. 재당 신라 역어와 통사의 인명을 분석해 보면 ‘金 씨, 朴 씨, 林 씨, 李 씨, 崔 씨’ 등 한반도에 흔히 있는 성씨들이 나타났다. 道玄이라는 것은 불교 법명이다. ‘正南, 正長, 慎言, 寶高/保皋, 詠, 訓, 暻, 元佐’라는 이름들은 차자표기로 된 고유 신라 이름이 아니고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지은 한문 이름들이다. ‘寶高’와 ‘保皋’는 다른 한자로 표기되었지만 신라한자음으로는 같은 독음이었음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2) 신라 승려의 인명

慶元(卷一: 143), 慧溢(卷一: 143), 教惠(卷一: 143), 聖林/聖琳(卷二: 214/232/237), 諒賢(卷二: 219/237), 法清(卷二: 215/221/237/248/249), 頓證(卷二: 232/237), 常寂(卷二: 232/245), 曇表(卷二: 237), 智真(卷二: 237), 軌範(卷二: 237), 明信(卷二: 237), 惠覺(卷二: 237), 修慧(卷二: 237), 金政(卷二: 237), 真空(卷二: 237), 法行(卷二: 237), 忠信(卷二: 237), 善範(卷二: 237), 道真(卷二: 237), 師教(卷二: 237), 師敬(卷二: 243), 詠賢(卷二: 237/244), (李)信惠(卷二: 237; 卷四: 527), 融濟(卷二: 237), 師俊(卷二: 237/244), 小善(卷二: 237), 懷亮(卷二: 237), 智應(卷二: 237), 弘仁(卷四: 527)

이상 여러 재당 신라 승려의 인명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은 불교의 법명으로 볼 수 있다. ‘聖林和尚’은 ‘聖琳和尚’으로도 기록되었다. 信惠라는 승려는 일본에서 10년 정도 거주한 적 있으며, 會昌法難(840-846) 사건 후 李信惠로 환속하였다.

(3) 기타 신라의 인명

王請(卷一: 95), 王長文(卷二: 229), 王憲(卷二: 245), 王宗(卷四: 534/535/537), 鄭客(卷四: 544), 陳忠(卷四: 546), 金子白(卷四: 557), 欽良暉(卷四: 557), 金珍(卷四: 557/558/561/564/566), 張從彥(卷四: 558;), 王可昌(卷四: 559/562)

王請이라는 신라인에 대하여 圓仁은 ‘頗解本國語(일본어를 잘 안다)’라고 평가하였다. 그렇다면 王請과 圓仁은 일본어로 대화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欽良暉은 재당 신라 상인이다. 張從彥은 張大使 張詠의 舍弟이다. 金珍은 적산 新羅坊의 선주로 추정된다. 王可昌은 초주 신라방의 선주이다.

『行記』에 나타난 신라 지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4) 신라 지명

西熊州(卷四: 573), 高移島(卷四: 573/575), 武州(卷四: 573/575), 黑山(卷四: 573), 黃茂島/丘草島(卷四: 575), 耽羅島(卷四: 575/577), 京城(卷四: 575), 雁島(卷四: 577)

西熊州는 백제의 熊川(오늘의 忠淸南道 公州)을 가리킨다. 신라 神文王 때는 熊川으로 개명되었고 景德王 때 熊州로 바꾸었다. 高移島는 皐夷島 혹은 皐衣島(오늘의 全羅南道 河衣島 혹은 荷衣島)로도 표기되었고 武州의 西南界에 위치해 있다. 武州는 원래 백제의 武珍州이었고 景德王 때는 武州로 개명되었고 高麗 太祖 때는 廣州(오늘의 全羅南道 光山縣)로 바꿨다. 黑山은 오늘 全羅南道 西南群島 一帶에 위치해 있고 북쪽은 大黑山이고 남쪽은 小黑山이라고 한다. 黃茂島, 혹은 丘草島라고도 한다. 오늘 全羅南道 남쪽, 濟州島 북쪽에 있고 巨次群島 중에 있는 제일 큰 鳥島일 가능성이 높다. 耽羅島, 혹은 ‘州胡島, 屯羅, 聃牟羅, 儋羅, 冬音, 耽律’이라고도 한다. 高麗 忠烈王 때는 濟州島로 개명되었다. ‘冬音’으로 표기된 것은 특이하다. 이 ‘冬’자는 구결자에 나타난 ‘冬’자와 같은 독음으로 추정할 수 있다. ‘耽羅島’는 ‘耽羅’와 ‘島’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京城은 신라의 수도 경주(오늘의 慶尙北道 慶州)를 가리킨다. 雁島는 구체적인 위치가 未詳이고 오늘 全羅南道 동남 쪽에 위치해 있는 섬일 가능성이 높다.

이상 『行記』에 나타난 신라 인명과 지명에 대한 한국어학적인 특징을 요약하자면 2가지가 있다. 첫째, 한자어화이다. 재당 신라인의 인명은 고대한국어의 차자표기법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다. 신라의 지명은 경덕왕 때 개명 이후 한자어의 특징이 더 뚜렷해졌다. 둘째, 불교어화이다. 이것은 재당 신라 승려의 법명에 나타난 용자를 통하여 엿볼 수 있다. ‘高移島, 皐夷島, 皐衣島’에 나타난 ‘高移, 皐夷, 皐衣’, 그리고 ‘耽羅島’에 나타난 ‘耽羅’만 차자표기자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9세기 재당 신라인들이 당나라의 漢人 문화, 律令制度, 불교 문화를 활발하게 수용하는 것을 통하여 한자, 한문 어휘, 漢譯 불교 어휘를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외에는 다른 2가지가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行記』에 나타난 백제계 일본인(혹은 渡來人)의 인명 高丘宿禰百興(卷一: 9)와 身人部貞淨(卷一: 118)이다. 高丘宿禰百興의 조상은 백제의 公族이다. 身人部貞淨의 성씨는 ‘身人部’이다. 《新撰姓氏錄》卷20에 의하면 한반도 삼국 시대 백제의 후예이다. 백제계 도래인의 인명을 통하여 백제어의 연구 자료로 간주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고유명사 뿐만 아니라 『行記』에 나타난 보통명사도 한국어 어휘사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굴뚝, 연통’을 뜻하는

‘埃/突(每房竈裏燒竹葉及草，從埃出煙。卷二：235)’자의 경우, 이미 한자어로서 신라어로 차용하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현대 한국어에 ‘온돌’을 의미하는 ‘돌[tol]’자의 어원도 추측할 수 있다.

### 3. 신라인의 언어와 문서 내용에 대한 기록들

圓仁이 『行記』을 작성했을 때 사용한 언어의 특징은, 董志翹(2000)에 의하면, 中晚唐 시기의 중국어 口語, 公文書에 나타난 문어, 고대 일본어가 섞여 있다는 것이다. 圓仁은 『行記』에서 주로 한문을 이용하여 신라인의 언어와 문서 내용을 기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5) 신라인의 언어와 문서 내용에 대한 기록들

- a. **金正南**(卷一：7)  
新羅譯語金正南申云：“聞道揚州掘港難過，今既踰白水，疑踰掘港歟？”
- b. **王請**(卷一：95)  
問漂流之由，申云：“為交易諸物，離此過海，忽遇惡風，南流三月，流着出州國。其張覺濟兄弟二人臨將發時同共逃，留出州。從北出州，就北海而發，得好風，十五個日流着長門國。”云云。
- c. **新羅水手**(卷一：139)  
申云：“自此北行一日，於密州管東岸有大珠山。今得南風，更到彼山修理船，即從彼山渡海，甚可平善。”
- d. **新羅僧**(卷一：143)  
僧等答云：“僧等本是新羅人，先住楚州，為往密州，有相議之由，暫架朝[貢]使船，隨相來。朝貢使船今日過海，所以下船留此。”云云。
- e. **新羅卅餘人**(卷二：164)  
新羅卅餘騎馬乘驢來，云：“押衙潮落擬來相看，所以先來候迎。”就中有一百姓云：“昨日從廬山來，見本國朝貢船九隻俱到廬山。人物俱損。其官人等總上陸地作幕屋在，從容候風。”云云。
- f. **道玄**(卷二：167)  
新羅譯語道玄作謀：“留在此間，可穩便否？”道玄與新羅人商量其事，卻來云：“留往之事，可穩便。”
- g. **王訓**(卷二：168)  
王訓等云：“如要住者，我專勾當和尚，更不用歸本國。”云云。
- h. **聖林**(卷二：214)  
“北臺在宋谷蘭若。先修法花三昧，得道。近代有進禪師，楚州龍興寺僧也。持《涅槃經》一千部入臺山，志遠禪師邊受法花三昧，入道場求普賢。在院行道，得見大聖，如今廿年來也。”依新羅僧聖林和尚口說記之。
- i. **諒賢**(卷二：219)  
問錄往臺山行李州名，里數：過八個州到五臺山，計二千九百九十來里。從赤山村到文登縣百三十里，過縣到登州五百里。從登州行二百廿里到萊州。從萊州行五百里到青州。過青州行一百八十里到淄州。從淄州到齊州一百八[十]里。過齊州到鄆州三百里。從鄆州行過黃河，到魏府一百八十里。過魏府到鎮州五百來里。從鎮州入山，行五日——約三百里——方到五臺山。依新羅僧諒賢口說記之。
- j. **常寂**(卷二：245)  
問事由，答云：“於此有新羅人王憲，夜夢有一僧來語云：‘我是文殊師利。古佛堂墮壞積年，無人修緝，佛菩薩埋沒土中，見汝信志，故來告報。若欲知實，掘家東南寶圖邊便得見者。’寤且驚怪，以夢中事語諸俗道。遂赴古圖邊，鋤掘地，深至胸上，尋得佛菩薩像。今見掘得彌勒佛像一體，文殊師利菩薩一體，普賢菩薩一軀，觀世音菩薩兩軀，大師子菩薩一體，羅睺羅一軀，佛骨鐵閣廿斤已上。諸人見之，奇異不少。”
- k. **張詠**(卷二：248)  
張押衙相見云：“適來得縣牒，擬差人報去。和上自來赴到此。誠知行李，甚有感應，深以相慶。”
- l. **劉慎言**(卷三：447/453; 卷四：483/508/530)  
又楚州新羅譯語劉慎言今年二月一日寄仁濟送書云：“朝貢使稍公水手前年秋回彼國，玄濟閣梨附書狀並砂金廿四小兩，見在弊所。惠尊和尚附船到楚州，已巡五臺山，今春擬返故鄉。慎言已排比人船訖。其尊和尚去秋暫往天台，冬中得書云：‘擬趁李鄰德四郎船取明州歸國。’緣尊和尚錢物衣服並弟子悉在楚州，又人船已備，不免奉邀，從此發送。”  
得譯語報云：“據圓載閣梨命，先已用矣。”書函封先已拆(拆)。  
得楚州譯語劉慎言書云：“天台山留學圓載閣梨稱：‘進表：遣弟子僧兩人令歸日本國。’其弟子等來到慎言處覓船，慎言與排比一隻船，着人發送訖。今年九月發去者。”  
譯語以三百文與家丁，私計會云：“和上等正熱之時遠涉道路，見已困乏。慎言欲得安置宅裏，令兩三日歇息。公等且歸本處，八日早來。”[중략]大使譯語竭力將養，見道：“從楚州到登州，道路盡是山坂曠野，

草木高深, 蚊虻如雨. 終日踰山行野, 村柵迢遠, 希見人家, 人心粗惡. 行七十八里方有一二家, 令人恐畏, 若將文書籠子隨身行, 將謂是物, 被人驚損, 恐不得全. 又敕斷佛教, 切令禁斷, 向北州縣人心粗惡, 見將佛教像隨身行, 的應作障礙, 罪及違敕.” [중략]苦囑云: “若到登州得停泊, 即將書請來. 未間在, 長意檢校, 勿令漏失”, 云云.

九日, 前遣楚州取文書功德等使大使家人高山到來, 得楚州譯語刘慎言書云: “有敕焚燒佛經論幡蓋及僧衣物銅瓶碗等. 焚燒淨盡. 有違者便處機法. 自家經幡功德等皆焚燒訖, 唯留和上文書等. 條流甚切, 恐鎮柵察知, 不敢將出寄付.” 又云: “近得的信: 李鄰德船回.” 兼云: “日本客相隨來, 因尋訪陶中等消息去. 次如有彼國信來, 即專付上”, 云云.

- m. **崔暈**(卷四: 510)  
 隅崔暈第十二郎曾為清海鎮兵馬使, 在登州赤山院時一度相見,  
 便書名留期云: “和上求法歸國之時, 事須將此名祇到漣水. 暈百計相送,  
 同往日本.”

- n. **金子白, 欽良暉, 金珍等**(卷四: 557; 唐化新羅人)  
 得蘇州船上唐人江長, 新羅人金子白, 欽良暉,  
 金珍等書云: “五月十一日從蘇州松江口發往日本國. 過廿一日, 到萊州界牢山.  
 諸人商量: ‘日本國僧人等今在登州赤山, 便擬往彼相取.’ 往日臨行,  
 以遇人說: ‘其僧等已往南州, 趁本國船去.’ 今且在牢山相待. 事須回棹來”,  
 云云. 書中又云: “春大郎, 神一郎等乘明州張支信船歸國也. 來時得消息: 已發也.  
 春大郎本擬僱此船歸國, 大郎往廣州後, 神一郎將錢金付張支信訖,  
 仍春大郎上明州船發去. 春大郎兒宗健兼有此, 兼有此物, 今在此船”, 云云.  
 又金珍等付囑楚州總管劉慎言云: “日本國僧人到彼中即發遣交來”, 云云.

- o. **金珍**(卷四: 561)  
 見留書云: “專在赤山鄉待.”

- p. **新羅投鷹人**(卷四: 575)  
 少時, 守島一人兼武州太守家投鷹人二人來船上, 語話云: “國家安泰.  
 今有唐敕使上下五百餘人在京城. 四月中, 日本國對馬百姓六人因釣魚漂到此處,  
 武州收將去, 早聞奏訖, 至今敕未下. 其人今在武州囚禁, 待送達本國.  
 其六人中一人病死矣.”

圓仁은 신라인의 대화 내용과 문서 왕래의 내용을 기록할 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문어보다는 주로 그 당시의 구어체로 기록했다. 예를 들면, ‘云(말하다), 申云(설명하면서 말하다), 答云(답하면서 말하다), 兼云(겸하여 말하다), 又云(또 말하다), 說話云(말하다), 留說云(남긴 말에 의하면), 語話云(말하다)’이라는 표현들은 구어로 된 직접 인용들이다. ‘依……口說記之(누가 말한 것에 의하여 기록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면 간접 인용된 내용이다. ‘送書云(편지를 보내서 말하다), 得……報云(누구의 어떤 소식을 받다), 得……書云(편지를 받아서 어떤 소식을 알게 되다), 書云(편지를 보내서 말하다), 留書云(편지를 남겨서 말하다)’ 등 표현들은 문서의 내용에 따라서 기록된 내용들이다.

이상 내용을 보면 신라인과 圓仁이 의사소통할 때 사용한 언어가 중국어 口語, 문어, 일본어인지 우리는 확정할 수 없다. 그리고 圓仁은 신라인들의 말한 내용과 문서 왕래의 내용에 근거하여 다시 편집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우리는 재당 신라인들이 뛰어난 중국어 구사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 4. 신라식 講經禮懺 및 誦經儀式

圓仁은 『行記』에서 9세기 재당 신라인의 講經禮懺, 一日講儀式, 誦經儀式 등을 세밀히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行記』의 내용에 의하면, 圓仁의 눈에 비친 赤山法華院의 대표적인 불교 행사로는 여름과 겨울에 각각 2개월 동안 『金光明經』과 『法華經』을 강설하는 강경법회 의례였다. 圓仁은 강경법회 의례가 진행했을 때 사용한 언어 및 발음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 新羅式講經禮懺、誦經儀式

- a. 其講經禮懺皆據新羅風俗. 但黃昏寅朝二時禮懺且依唐風,  
 自餘並依新羅語音. (卷二: 232)
- b. 講師上堂, 登高坐間, 大眾同音稱歎佛名——音曲一依新羅, 不似唐音——講師登座訖,  
 稱佛名便停. (卷二: 234)
- c. 一僧唱‘處世界如虛空’偈——音聲頗似本國. (卷二: 234)
- d. 音韻共唐一般. (卷二: 234)

6(a)에 의하면 적산법화원에 있는 신라인들이 강경예찬할 때 주로 신라의 풍속에 의하여 진행하였고 당나라의 풍속도 섞여 있었다. 그들이 사용한 언어는 신라어였다. 6(b)에 의하면 강경하는 과정에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신라한자음의 독법으로 예찬하였고 당나라의



자음으로 읽지 않았다. 즉 圓仁은 강경 의식에서 사용한 신라의 음곡이 唐音과 비교하여 달랐다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圓仁은 이미 당나라의 한자음과 신라의 한자음이 독법이 같지 않았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인지 圓仁은 언급하지 않았다. 6(c)에 의하면 圓仁은 ‘處世界如虛空’이라는 偈文의 독법이 신라와 일본이 같다고 기록하였다. 이 ‘音聲頗似本國(음성은 본국과 매우 흡사하다.)’이라는 것은 당시 신라의 한자음과 일본의 한자음이 같았다는 뜻이다. 6(d)에 의하면, 신라인들이 송경 예식을 진행할 때 唐人의 독법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재당 신라인들이 직접 당시 당나라의 한자음을 습득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 5. 나오며

본고는 圓仁이 지은 『行記』에 나타난 9세기 재당 신라인의 인명 및 지명, 신라인의 구어 및 문서 내용, 신라인의 강경 예찬 및 강경 의식의 관찰에 대하여 한국어학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선 우리는 圓仁이 뛰어난 중국어 구사 능력(문어와 구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재당 신라인들이 뛰어난 중국어 및 일본어 구사 능력(문어와 구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일의 문화 교류, 漢傳 불교의 전파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재당 신라인들이 언어 구사 능력이 탁월했다는 원인은 두 가지로 추측해본다. 하나는 장보고를 중심으로 한 신라인 집단이 당, 일본과 국제 무역을 할 때 뛰어난 중, 일 언어 구사 능력이 필수적이다. 다른 하나는 당의 선진 문물을 받아 들일 때 언어의 습득은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圓仁의 『行記』에 나타난 9세기 재당 신라인의 언어 사용 상황을 보면 신라인들이 적극적으로 당의 수준 높은 漢 문화, 불교 문화를 수용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圓仁의 『行記』는 우리에게 한국어의 음운사 및 어휘사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한계점을 말하자면 『行記』의 방대한 내용 중에서 재당 신라인의 언어 사용과 관련된 부분만 추출해서 한국어학의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중국어학 및 일본어학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저자는 일본 학자 小野勝年(1964-1969)의 『行記』 역주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어와 한국어 역주본만 사용했다는 한계도 있다. 그리고 『行記』에서 추려낼 수 있는 신라어에 대한 내용은 지엽적인 것이라, 9세기 신라어 전반을 알아가는 데 한계가 있음을 적어둔다. 신라어에 대한 문헌 발굴 작업은 어렵지만 계속 진행할 것이다.

## 참고문헌

- 白化文 李鼎霞 許德楠. 1992/2007/2019. 《入唐求法巡禮行記校注》, 北京: 中華書局.  
 陳建紅. 2009. 《試論新羅譯語及其歷史作用》, 延邊大學歷史學碩士論文.  
 董志翹. 2000. 《〈入唐求法巡禮行記〉詞彙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Edwin O. Reischauer. 1955. *Ennin's Travels in T'ang China*.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신복룡 역. 1991. 《入唐求法巡禮行記》, 정신세계사.  
 신복룡. 2007. 《역주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이유진. 2017. 입당구법순례행기 역주 (2) <838.7.19~8.3>, 『한국고대사탐구』, 27, 529-559.  
 조재우. 2018. 『入唐求法巡禮行記』 역주 (3) <838.08.04-08.30>, 『한국고대사탐구』, 29, 547-575.  
 이진선. 2018. 『入唐求法巡禮行記』 역주 (4) <838.09.01~10.19>, 『한국고대사탐구』, 29, 577-613.  
 정병준. 2017. 입당구법순례행기 역주 (1) <838.6.13~7.18>, 『한국고대사탐구』, 26, 233-268.  
 정병준. 2018. 입당구법순례행기 역주 (5) <838.10.22~11.24>, 『한국고대사탐구』, 30, 465-508.  
 조규태. 2020. 9세기 일본인의 중국 여행에 대한 재당 신라인의 역할: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4 (2), 19-35.



## 徐燁 선생님의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에 대한 한국어학적 고찰”의 토론문

토론: 金星周(東國大學校)

徐燁 선생님의 글의 읽고 느낀 점과 간단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이하 『巡禮行記』)는 저로서는 신라의 불교 법회 상황을 알아보는 자료로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인데 徐燁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어학적인 관점에서도 접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한국어학계에서 圓仁의 『巡禮行記』에 관심을 두지 못하였던 것은 한국어학 전공자들이 圓仁의 『巡禮行記』에 관심을 둘 만큼 여력이 없었거나 이런 문헌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는 소양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발표를 계기로 엔닌의 『巡禮行記』가 한국어학의 범위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이 토론문에서는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을 몇 가지 드리는 것으로 토론의 소임을 마칠까 합니다.

1. 엔닌의 『巡禮行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종합적인 문헌입니다. 이 중 발표자는 한국어학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학적으로 접근했다고 하기에는 논의 내용이 어딘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발표자의 발표문은 크게 1.인명, 2.지명, 3.신라인의 언어와 문서 내용, 4. 신라식 講經 禮懺과 誦經 儀式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어학적인 내용이 아니거나 어학적인 분석이 부족합니다. 특히 “4. 신라식 講經 禮懺과 誦經 儀式”은 엄밀히 말하면 한국어학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2. ‘3.신라인의 언어와 문서 내용’에서도 어떤 부분이 한국어학적인 접근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주변적인 내용[paratext]에 대한 접근 그 자체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그래도 한국어학적인 접근을 할 때는 좀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1.인명, 2.지명, 3.신라인의 언어와 문서 내용 등에 대한 내용도 한국어학적인 本領에 대해 접근하였다기보다는 주변적인 것들을 많이 언급하였습니다. 인명이나 지명 분석이 접근하기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엔닌의 『巡禮行記』에 대해서 한국어학적으로 접근한 글이라면 당연히 시도해야 할 분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4. 徐燁 선생님은 “白化文, 李鼎霞, 許德楠,(1992/2007/2019) 『入唐求法巡禮行記校注』, 北京: 中華書局.”을 『巡禮行記』의 저본으로 하셨다고 하셨고, “小野勝年(1989) 『(入唐求法)巡禮行記の研究 1~3』 京都: 法藏館, 平成元年[1989].”을 참고하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白化文 外(1992/2007/2019)를 보지 못하였지만 『巡禮行記』 연구에서 小野勝年(1989)은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5. 신라인 인명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재당 신라 譯語와 通事의 인명을 분석해 보면 ‘正南, 正長, 慎言, 寶高/保皋, 詠, 訓, 暈, 元佐’라는 이름들은 고유한 신라 이름이 아니고 한문 이름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6. 지명을 논하는 부분에서 “‘高移島, 皐夷島, 皐衣島’에 나타난 ‘高移, 皐夷, 皐衣’, 그리고 ‘耽羅島’에 나타난 ‘耽羅’만 차자표기자로 볼 수 있다.”라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7. 신라인의 언어와 문서 내용 부분에서 “신라인과 圓仁이 의사소통할 때 사용한 언어가 중국어 口語, 문어, 일본어인지 우리는 확정할 수 없다.”고 하셨고, “재당 신라인들이 뛰어난 중국어 구사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신라인과

圓仁이 의사소통을 할 때는 초기에 圓仁은 중국 문어(한문)와 일본어만 구사할 줄 알았으니까 당연히 대화 상대자인 신라인의 능력에 따라 중국 문어와 일본어를 사용했을 것이고, 圓仁이 중국 생활이 계속되면서 圓仁도 중국어를 배워나갔을테니까 나중에는 중국어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巡禮行記』를 면밀히 분석하면 圓仁이 중국어를 구사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당 신라인들 중에는 중국어 구어에 능통한 사람이 많았고, 또 중국어는 물론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언어 주변적인 부분 중에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학에서 역학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엔닌의 『巡禮行記』의 이런 부분들이 역학서 연구 또는 한국어의 통역, 번역 문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부

기획 발표



# 한국의 역학서(譯學書) 연구 현황과 과제

鄭丞惠(水原女大)

## 1. 서언(緒言)

역학(譯學)란 역관(譯官)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잡학(雜學)의 한 분야이다. 역학서(譯學書)란 이러한 역관들을 양성하는 데 사용한 외국어의 교재로서<sup>1)</sup>, 국어사 연구의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역학서 연구는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의 『朝鮮語學史』(1920)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발표의 주제가 “한국의 역학서 연구현황과 과제”이므로 여기서는 한국에서 출간된 연구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한다.

연구 목록의 작성은 2009년 이전 연구는 鄭丞惠·遠藤光暎 等編(2009) 『譯學書文獻目錄』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 2016년 7월까지의 연구는 정승혜(2016) 「韓國의 譯學書 研究 -回顧와 展望」, 『역학과 역학서』 7호의 내용을, 2019년 12월까지의 연구는 황선엽 외(2019)의 국립한글박물관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였다. 이후 2021년 12월까지의 연구는 각종 검색 엔진을 활용하여 추가하였다. 목록작성을 위해 검색한 엔진은 다음과 같다.<sup>2)</sup>

DBPIA <http://www.dbpia.co.kr/>

KISS (韓國學術情報) : <http://search.koreanstudies.net/>

KyoboScholar(교보 스킨) <http://scholar.dkyobobook.co.kr/>

eArticle(學術教育院) <http://www.earticle.net/>

KERIS (韓國學術情報教育院) <http://www.riss.kr/index.do>

KSI Kiss (韓國學術情報) : <http://search.koreanstudies.net/>

## 2. 역학서 연구 현황

본 발표는 그동안 한국에서 이루어진 역학서의 연구 현황을 살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로 한국에서 발간된 출판물을 중심으로 역학서 관련 연구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작성한 연구목록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사역원(司譯院) 사학(四學)의 학별(學別) 연구 현황을 고찰하였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가운데, 총론 및 학별 연구분포와 구체적인 연구대상을 살펴보았다.

둘째, 연대별, 전공별 연구 분포를 살펴보았다. 어느 시기에 어떤 전공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는지, 그 원인이 가능한 한 반영하려 했으나, 발표자가 미처 찾지 못한 논문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후 보완코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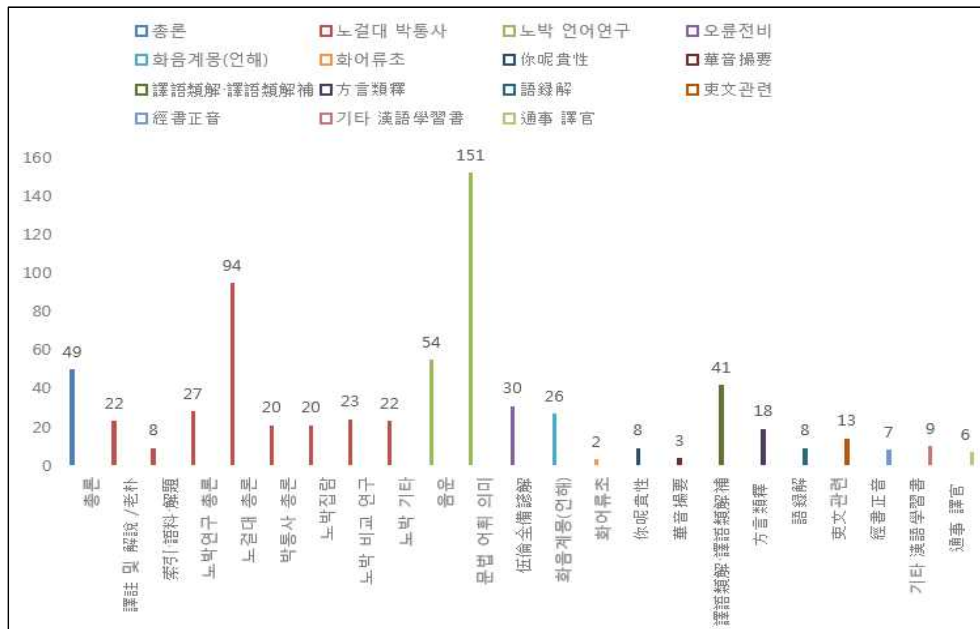
1) 여기서의 역학서란 주로 역관 양성기관은 사역원(司譯院)에서 사용된 교재를 의미하며, 정식 교재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외국어를 배우는 데 사용한 여타의 교재도 대상으로 삼았다.

2) 위의 검색 엔진에서 찾아지지 않는 논저도 가능한 한 반영하려 했으나, 발표자가 미처 찾지 못한 논문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후 보완코자 한다.

## 2.1. 학별(學別) 연구 현황

우선 역학서 연구의 총수는 1,315편(논문 및 저서 포함)으로, 참여학자는 487명이다. 이 가운데 사학(四學) 전체를 다룬 총론이 79편, 한학(漢學)이 653편, 몽학(蒙學) 109편, 왜학(倭學)이 565편, 청학(淸學, 여진학(女眞學))이 159편이었다.<sup>3)</sup> 전체 비율로는 한학의 연구가 가장 많았고(42%), 왜학(37%) > 청학(여진학)(10%) > 몽학(7%) > 총론(5%)의 순이었다([표 1], [그림 1] 참조). 이는 2016년의 통계와 약간 차이가 있다([그림 2]).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한학의 경우, 총론이 49편, 역주 및 해설이 22편(老乞大, 朴通事), 색인·자료가 8편을 차지했다. 개별 문헌의 연구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걸대(老乞大)』와 『박통사(朴通事)』의 연구(이하 「노박」)는 『노걸대』, 『박통사』의 총론을 다룬 연구(역주 포함)가 27편, 『노걸대』류<sup>4)</sup> 94편, 『박통사』류 20편, 『노박집람(老朴集覽)』이 20편이었다. 「노박」의 음운의 연구는 54편인데 『(번역)노걸대』·『(번역)박통사』의 연구가 23편, 『노걸대언해』·『박통사언해』에 대한 연구가 11편, 『중간노걸대언해』·『박통사신석언해』의 연구가 8편이었다. 이 가운데 성조에 대한 연구는 12편이다. 「노박」의 문법, 어휘 및 의미의 연구는 151편이다. 「노박」의 비교 대조 연구는 23편, 기타 연구가 14편이다. 「노박」 이외의 문헌 연구는 『오륜전비(伍倫全備)(언해(諺解))』의 경우, 역주가 12편, 관련 연구가 29편 있다. 『화음계몽(華音啓蒙)(언해(諺解))』의 연구는 26편, 『화어류초(華語類抄)』 2편, 『화음촬요(華音撮要)』 3편, 『니니귀성(你呢貴性)』 8편, 『역어유해(보)(譯語類解(補))』에 대한 연구가 41편이다. 『방언류석』의 한어 부분이 18편, 『어록해(語錄解)』 8편, 『이문(吏文)』류<sup>5)</sup> 관련 연구가 13편, 『경서정음(經書正音)』 7편, 기타 한어학습서에 대한 연구는 9편이다. 한학의 통사(通事) 및 역관(譯官)에 대한 연구는 6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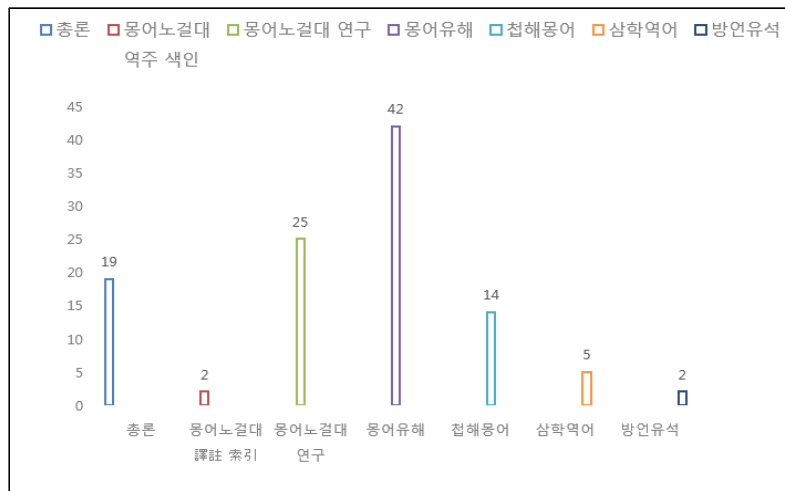


[그림 5] 한학서 연구 논저 총람

3) 각 학 연구의 합이 전체 1,315편보다 많은 이유는 주제별로 겹치는 논문이 있기 때문이다.  
 4) 여기서 『노걸대』류라 한 것은 『노걸대』의 원간본과 언해본, 신석본, 중간본을 포함한 것이다. 『박통사』류도 동일하다.  
 5) 『吏文』·『吏文輯覽』·『吏文續集輯覽』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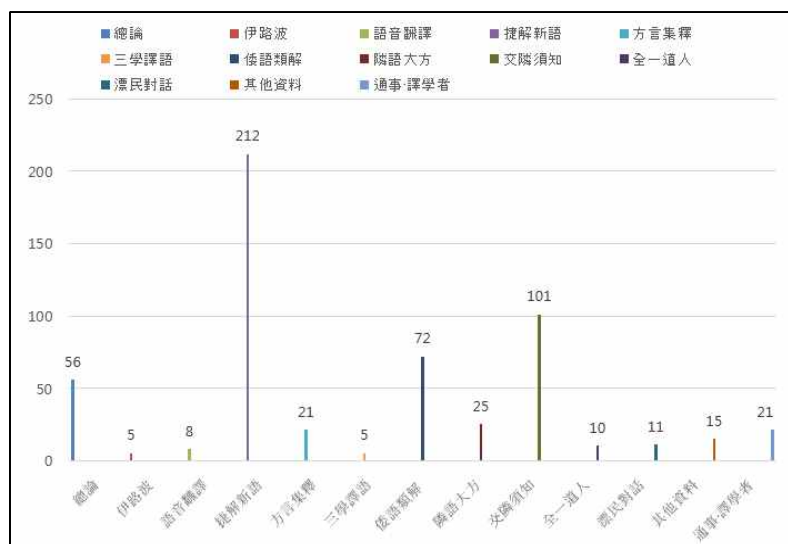


몽학의 연구는 총론 19편, 『몽어노걸대(蒙語老乞大)』를 대상으로 한 역주·색인이 2편, 관련 언어의 연구가 25편, 『첩해몽어(捷解蒙語)』 14편, 『몽어유해(蒙語類解)』는 42편, 『삼학역어(三學譯語)』 중 몽어 부분의 연구가 6편, 『방언류석(方言類釋), 방언집석』 가운데 몽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편이었다.



[그림 6] 몽학서 연구 논저 총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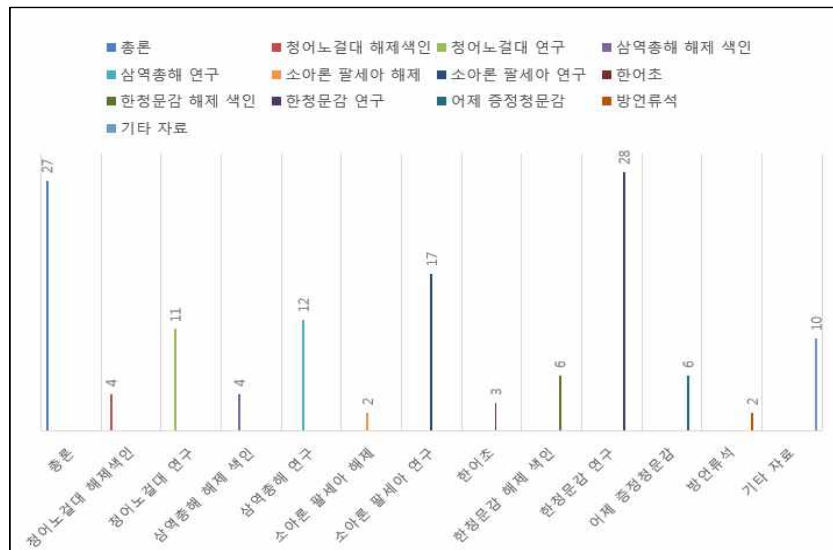
왜학의 연구는 한학 다음으로 많은 연구를 했는데, 총론이 56편, 통사·역학자(譯學者)에 대한 연구가 20편이다. 구체적인 자료의 연구로 들어가면, 『이로파(伊路波)』 5편,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의 「어음번역(語音翻譯)」 부분의 연구가 8편이다. 가장 많은 연구는 왜학서의 대표격인 『첩해신어(捷解新語)』이다. 역주·해제가 3편, 이에 대한 연구가 212편이나 된다. 이 가운데 일본어학 연구자들의 연구가 162편으로, 한국어학 연구자들보다 세 배 이상 많다.



[그림 7] 왜학서 논저 총람

『방언유석(方言類釋)』의 일본어 부분에 대한 연구는 27편, 『삼학역어』 중 왜학 부분의 연구가 5편, 『왜어유해(倭語類解)』는 72편이다. 『인어대방(隣語大方)』은 해제·색인이 1편, 관련 연구가 246한 연구도 많은데, 해제·자료가 3편, 관련 연구는 80편이나 된다. 일본어학자인 사이토 아케미(齊藤明美)(25편), 편무진(19편), 최창완(17편) 3인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일도인(全一道人)』에 대한 연구는 10편, 『표민대화(漂民對話)』는 해제가 1편, 연구가 10편이 있다. 기타 일본어 자료에 대한 연구도 15편이나 된다.

청학서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이다. 총론이 27편, 『청어노걸대(淸語老乞大)』는 해제·색인이 4편, 역주가 1편, 관련 연구가 11편이다. 『소아론(小兒論)·팔세아(八歲兒)』는 해제 2편, 연구 17편이고, 『동문유해(同文類解)』에 대한 연구가 24편, 『한청문감(漢淸文鑑)』은 해제·색인 7편, 관련 연구 28편이다. 최근에는 『어제(증정)청문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6편이 있다. 청학 통사에 관한 연구가 1편, 기타 자료에 대한 연구는 10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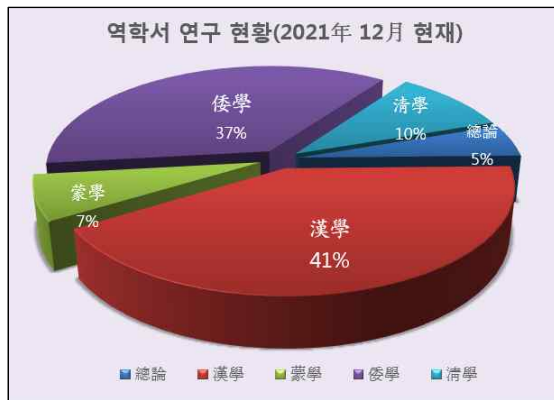


[그림 8] 청학서 논저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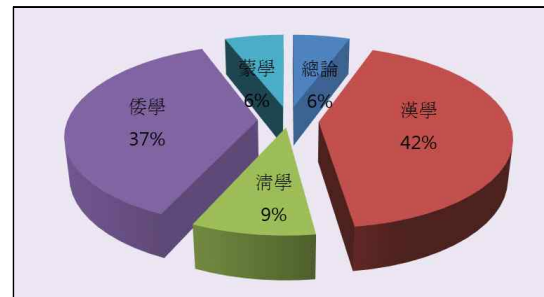
전체 역학서 연구 논저의 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分類	出刊 論文(著書)數	比率
總論	77	5 %
漢學	653	42 %
蒙學	109	7 %
倭學	565	37 %
淸學	159	10 %

[표 7] 역학서 연구 전체 현황(2021년 12월 현재)



[그림 10] 역학서 연구 현황(2021년 12월 현재)



[그림 9] 2016년 7월 당시 연구 현황

## 2.2. 연도별 연구현황

역학서의 연도별 연구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 또는 발견이 그 분야 연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학서는 원본 『老乞大』가 발견된 이후 『노걸대』류 관련 연구가 급격히 많아졌고, 왜학서는 『첩해신어(捷解新語)』 1차 개수본의 발견이 연구에 불을 당겼다. 또한 연구자들이 자료에 접근하기 쉽도록 새로운 자료가 영인되었을 때도 해당 자료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는 경향성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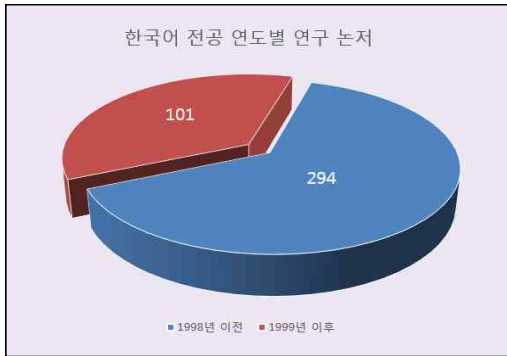
한학서 연구의 연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이 표에서 드러나는 특징적인 현상은 1990년대 이후의 연구가 그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1992년 8월부터 중화민국과 단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시작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 도	연구 논문(논저)
2010-2021	146
1998-2009	282
1990-1997	79
1980-1989	72
1970-1979	38
1960-1969	19
1935-1959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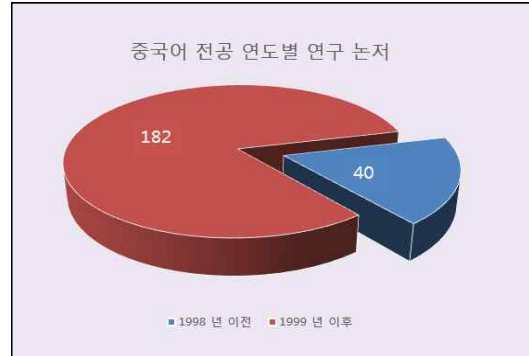
[표 8] 漢學書 研究論著(1935-2021.12)

한학서의 연도별 연구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사항은 1998년을 기점으로 연구성과가 크게 많아졌는데, 전공(학문)별로 연구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1998년은 원본 『노걸대』가 세상에 알려진 해이며,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원본 『노걸대』의 발견은 한학서 연구의 불을 당겼으며 중국어 학계에서도 역학서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관련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한국어 전공의 경우, 1998년 이전 182편, 1999년 이후 101편으로 큰 변동이 없으나([그림 7]) 중국어학 전공에서는 1998년 이전에는 중국어학 관련 논저가 40편인데 반해, 1999년 이후는 182편이다([그림 8]).



[그림 11] 한국어전공 漢學 연도별 연구논저



[그림 12] 중국어전공 漢學 연도별 연구논저

한학서의 연구는 어학 연구 분야만이 아니라 서지학, 역사학, 복식학, 식품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서 어학 외 연구가 21편이나 된다. 이는 역학서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문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학제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몽학서의 연구는 1989년 이전이 34편, 1990년 이후가 63편이다. 몽골은 과거 공산주의 국가였으므로 1980년대까지 대한민국과 미수교 상태였으나, 1990년 3월 26일 옛 공산권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수교하였다. 따라서 1990년을 기준으로 전후 연구 성과를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몽골인이 한국에서 쓴 (학위)논문이 2006년 이후에 5편인데, 이는 한국의 글로벌화로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의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다([그림 9]).



[그림 13] 연도별 몽학 연구

왜학서의 연구는 일본과의 국교가 정상화된 시기가 1965년이므로 일본과 교류가 활발해진 1965년을 전후로 하여 나누었다. 1965년 이전의 연구는 6편에 불과하지만, 이후 연구는 549편이나 된다([그림 10]). 또, 1988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연구 성과가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1987년까지가 44편, 1988년 이후가 511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1988년 『첩해신어』 1차 개수

본의 발견과 영인·출판, 한일 양국의 활발한 유학생 교류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그림 11] 참조).



[그림 14] 1965년 전후의 왜학서 연구현황



[그림 15] 1987년 전후의 왜학서 연구현황

왜학서의 전공별 연구에서는 한국어 전공자의 연구가 180편, 일본어 전공자의 연구가 342편, 그밖에 역사학, 서지학 등의 주변 학문에서 14편이 있다.

연도별로 보면 1988년 이전과 이후의 연구가 수적인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의 전공의 경우, 1987년 이전에는 26편이었던 것이 이후에는 154편(총 180편)으로 약 6배 늘어났다. 일본어 전공은 1987년 이전 16편, 1988년 이후 326편이다. 1988년 이후의 연구가 거의 20배나 늘어났다.

어학 관련 연구 외에 역사학에서는 역관이나 통사에 대한 연구, 한일 외교, 건축학 용어에 대한 연구 등이 눈길을 끈다. 왜학서, 특히 『첩해신어』는 조선통신사 여정 및 왜관에서의 역관들의 대화, 조일 외교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학제간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림 16] 한국어 전공자의 왜학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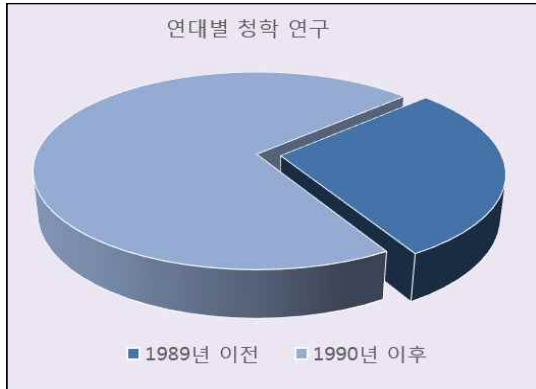


[그림 17] 일본어 전공자의 왜학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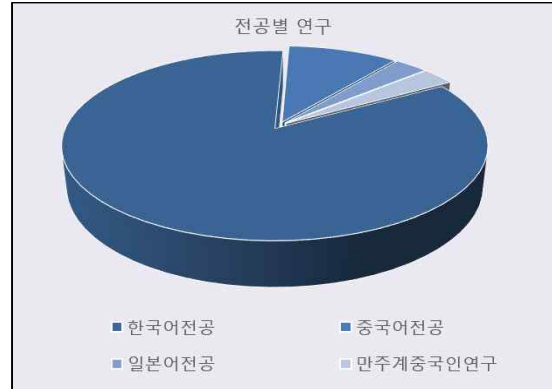
청학서 연구도 한학서 연구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초에 이루어진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수교 시작과 맥을 같이한다. 연대별로는 1989년이전과 1990년이후로 나누어 보았는데, [그림 14]와 같다. 전공별로 보면, 한국어 전공자가 쓴 논저가 123편, 중국어 전공자가 쓴 논저가 15편, 일본어 전공자가 쓴 논저가 4편, 한국에 유학 온 만주계 중국인이 참여한 연구가 4편이

있다. 그 비율은 [그림 15]와 같다. 일본어 전공자(특히, 일본인 연구자)가 청학 관계 글을 쓴 이유는 역학서 연구라는 큰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청학서의 연구는 특히 2010년 고려대학교의 만주학 연구소 창설 이후 만주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만주어에 대한 관심을 가진 젊은 학자들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한국에 유학중인 만주족 유학생의 연구도 이에 보탬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이후의 만주어 관련 연구가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그림 18] 연대별 청학 연구



[그림 19] 전공별 청학 연구

## 2.2. 연구자별 연구 현황

발표자가 조사한 역학서 연구 총수는 1,315 편(논문 및 저서 포함)으로, 연구자는 487 명이다. 이 가운데 일본어 전공은 대부분 학위논문을 쓰기 위한 전단계의 연구가 많다. 중국어 역주(「노박」 관련)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몇 개의 논문으로 나누어 출간되다가, 최종적으로는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 가운데 한 연구자가 10편 이상의 연구물을 낸 경우(공동연구 포함)는 모두 26명으로 전공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sup>6)</sup>

## 3. 역학서 연구 경향과 연구를 위한 제언

### 3.1. 한국의 역학서 연구 경향

한국에서의 역학서 연구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 따라 활성화되는 경향을 띤다. 한학서 원본『노걸대』의 발견과 왜학서 『첩해신어』 개수본의 발견을 들 수 있다.

소위 한류(韓流)와 GLOBAL화(化)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도 역학서 연구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논문의 주제로 해당 모국어의 역사적 자료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어민 화자, 중화권(中華圈)의 연구와 협력도 역학서 연구를 활발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6) 권董顯(일) 15, 金亮鎭(한) 12, 梁伍鎭(중) 23, 柳在元(중) 21, 李康民(일) 10, 李基文(한) 13, 李東郁(일) 11, 孟柱億(중) 10, 朴眞完(한) 10, 朴泰權(한) 10, 裴錫柱(일) 14, 成百仁(한) 11, 成疇慶(일) 15, 愼鏞權(중) 16, 延圭東(한) 17, 王霞(중) 12, 李陸禾(중) 14, 鄭光(한) 70, 鄭丞惠(한) 50, 鄭堤文(한) 11, 齊藤明美(일) 25, 趙瑯熙(일) 22, 崔彰完(일) 21, 片茂鎭(일) 29, 韓美卿(일) 11, 洪允杓(한) 11(이상 가나다순)

### 3.2. 역학서 연구를 위한 제언(提言)

위에서 살펴본 연구 경향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의 역학서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첫째, 자료 연구의 편향성을 극복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를 보면 몇 가지 자료에 연구가 치우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자료의 발굴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도 연구되지 않은 많은 자료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들을 발굴해 내는 것도 연구자들의 몫이다.

둘째, 역학서 자료의 역주 작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자료의 역주를 통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자료에 대한 연구가 수월해진다. 역학서의 역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승혜(20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에 이루어진 역주본들은 조선시대의 최세진이 행한 『노박집람』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이 얼마 되지 않는다. 정승혜(2011)에서 제시한 역학서 역주 작업의 문제점을 재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1) 외국어 통번역의 문제

역학서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해당 외국어의 통·번역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해당 외국어가 당시에 어떻게 쓰였는지와도 관련이 되며, 해당 언어의 언어사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

#### (2) 이중(二重) 주석의 문제

예를 들어 『번역노걸대』, 『번역박통사』, 『노박집람』의 경우, 현대에 역주본을 낸다고 할 때 매우 조심스럽다. 최세진의 주석에 대한 주석, 즉 이중 주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당시(조선시대)와 현대의 언어의 쓰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한 작업이다. 또한 가끔 보이는 최세진의 오역(誤譯)을 잡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

#### (3) 올바른 사관(史觀)의 정립 문제

역학(譯學)의 특성상 당시의 사회, 문화, 외교 등 전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지나치게 사대적인 사관(史觀)을 갖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국수적으로 흐르지는 않을지, 조심해야 할 것이다.

#### (4) 난이도 조정의 문제

역주서를 읽게 될 독자층도 고려해야 한다. 즉 역주서의 독서 대상이 일반인을 위한 것이라면, 매우 쉬운 말로 현대역을 중심으로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며, 전문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주서라면, 보다 고급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처음에 역주를 시작할 때 결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5) 공동작업의 문제

역학서의 역주 작업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공동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분담하여 집필할 경우에는 문체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시로 모여 서로의 원고를 돌려보아야 한다.

#### (6) 외국인의 참여 및 외국어 감수 문제

역학서는 해당 외국어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역학서의 특성상 역주 작업에는 반드시 해당 외국어에 대한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전문가의 감수를 받아야 한다. 한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 원어민 화자(Native Speaker)가 연구에 참여하면 더욱 좋겠다.

#### (7) 의역·직역의 문제

자료의 역주를 하게 되면 외국어 원문(原文)을 따라 축자번역(逐字翻譯)을 하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 그러나 직역(直譯)을 하다 보면 해당 외국어와 우리말의 구조상의 차이로 인해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 때는 의역(意譯)을 해야 하는데, 그 수준을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렵다.

역학서의 역주는 해당 언어의 원문과 언해문(간행 순서에 따른 이본(異本) 포함), 현대역, 언어학적 주석, 단락별 문화적 해설을 곁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인본은 별책으로라도 만들어 반드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단락별로 참고문헌을 따로 제시하여, 관련된 내용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좋다.

셋째, 역학서 자료에의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전체 역학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이다. 세종계획에 따라 이미 입력된 많은 자료들이 있고,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으로 완성된 <조선시대 외국어 학습서 DB>가 있으나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DB에는 『번역노걸대(上),(下)』, 『번역박통사(上)』, 『노걸대언해(평양판)』, 『첩해신어』, 『박통사언해』, 『역어유해(上), (下)』, 『삼역총해』, 『역어유해(補)』, 『오륜전비언해』, 『동문유해(下)』, 『박통사신석언해』, 『청어노걸대』, 『몽어유해(上),(下)』, 『몽어유해(補)』, 『소아론』, 『방언집석(방언류석)』, 『왜어유해(上),(下)』, 『몽어노걸대』, 『첩해몽어』, 『중간노걸대언해(上),(下)』가 출판연대순으로 원문 이미지와 함께 입력한 내용이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역학서 전체를 망라한 것이 아니고 내용은 기존의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입력 DB와 큰 차이가 없다. 보완이 필요하다.



7)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1-AAA-2101>



온라인상으로 접근이 어렵다면, 기존 자료의 선본을 골라 영인하는 방법도 있다. 자료를 소장한 기관별로 다르겠지만 고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따라서 좋은 자료를 선별하여 연구에 용이하도록 자료를 영인하는 것이 좋다.

넷째, **역학서의 연구 영역을 넓힌다.** 역학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왜학서인 『첩해신어』는 조선시대의 대일 외교와 관련된 내용과 통신사행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역사학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한학서인 『노걸대』와 『박통사』는 당시 중국에서의 생활사, 문화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으므로 경제사, 복식사, 식생활사, 제도사, 건축사 등 관련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역학서는 학제간 연구의 보고(寶庫)이다.

다섯째, **새로운 학문 세대의 연구 욕구 견인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역학서 연구는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후속 세대가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선배 연구자들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정승혜·엔도 미츠아키[遠藤光曉] 외(2009), 『譯學書文獻目錄』, 서울: 박문사.  
정승혜(2011), “譯學書類의 譯註 方法論 研究,” 『국어사연구』12. 국어사학회  
황선엽·이진호 외(2019), 『훈민정음을 활용한 외국어 표기의 역사적 연구 (1)』, 국립한글박물관 연구용역 보고서.

#### <참고 URL>

조선시대 외국어 학습서 DB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1-AAA-2101>  
DBPIA <http://www.dbpia.co.kr/>  
eArticle(學術教育院) <http://www.earticle.net/>  
KERIS (韓國學術情報教育院) <http://www.riss.kr/index.do>  
KISS (韓國學術情報) : <http://search.koreanstudies.net/>  
KSI Kiss (韓國學術情報) : <http://search.koreanstudies.net/>  
KyoboScholar(교보 스킨) <http://scholar.dkyobobook.co.kr/>



# 漢語 학습서의 국어학적 가치에 관하여

이준환(전남대 국문과)

## 차례

1. 들어가며
2. 음운 관련 자료로서의 가치
3. 어휘 자료로서의 가치
4. 단위성 의존 명사의 사용 실태 관찰 자료로서의 가치
5. 나오며

### 1. 들어가며

1443년에 訓民正音が 창제된 이후, 조선에서는 표음 문자인 이 문자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러 漢語 학습서를 편찬하여 중국과의 외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런 목적에 따라 편찬된 漢語 학습서에는 會話用으로 제작된 『翻譯老乞大』(1517) 등의 會話書를 비롯하여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한 어구에 관한 내용을 담은 『吏文輯覽』(1539) 등의 참고서가 있다. 전자는 司譯院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이고 후자는 承文院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이다. 여기에 『老乞大』와 『朴通事』의 난해 어구와 고유 명사 등에 관한 설명을 달아 텍스트에 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 참고서인 『老朴集覽』(1517) 등도 간행되었다. 이 외에도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譯語類解』(1690), 『譯語類解補』(1775), 『方言類釋』(1778) 등의 어휘 사전이 간행되어 학습서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되었다.

이런 한어 학습서에는 학습의 주체인 조선인들이 한어에 관한 여러 정보를 파악하고 지식을 두루 익힐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이용하여 음(발음)을 비롯한 여러 가지 표시와 기술이 적절히 되어 있다. 이로써 한자로 표기된 원문 및 한어 관련 제반 설명과 함께 한어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받고 학습자 혼자서도 한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런 한어 학습서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훈민정음이 이용되어 있고 기술된 내용 속에는 조선어와의 비교가 행해져 있거나 조선어와의 비교를 전제로 할 때 이해가 되는 것이 적지 않게 담겨 있다. 『翻譯老乞大』 등의 회화서의 번역문은 한어와 대비되는 국어의 모습을 가장 풍부하게 보여주는 경우이다.

이런 점에서 한어 학습서는 학습서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국어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성격을 지닌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이 글에서는 訓民正音を 이용하여 편찬된 漢語 학습서가 지니고 있는 국어학적 가치가 어떤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崔世珍이 펴낸 『翻譯老乞大』(1517)와 『翻譯朴通事』(1517), 『吏文輯覽』(1539), 『老朴集覽』(1517)을 검토 대상으로 하여 이들 학습서에 반영된 국어 관련 기술을 추출하고 이에서 볼 수 있는 국어 관련 내용을 살펴 국어학적 가치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한어 학습서가 지닌 국어학적 가치와 관련하여, 한어 학습서를 국어학적인 면에서 연구한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다.

『노걸대』, 『박통사』의 회화 학습어가 지닌 국어학적 가치에 관해서는 석주연(2001)에서 번역문이 보이는 문장상의 특징 및 번역에 동원된 국어 어휘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히 다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후자에 관한 고찰에서는 ‘진짓[眞的]’, ‘즈디~즈덕[紫的]’, ‘스염[耳掩]’, ‘바즈문[芭子+門]’, ‘고[斛]’ 등의 한어계 차용어가 다수 포함되어 논의가 전개되어 있다. 또한 ‘一部’의 ‘部’를 ‘흔 불’로 번역한 경우와 ‘흔 부’로 번역한 경우에서 보듯이 단어어들의 대응 관계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 이로써 한어 학습서의 한어 원문과의 대응에 맞추어 번역문에 제시된 차용어의 어원, 형태, 용법 등에 관하여 전체적인 양상을 개관하는 데에 기본적인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이어서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의 번역문에서 보이는 언어적인 특징에 관하여는 정광(2006)에서의 역주 내용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어진 바 있다. 대표적으로 한어 원문 ‘放着印子裏’를 ‘인 텃느니’로 번역한 것을 ‘印 티[押]-+-어+入-+-느니’로 분석하여 살핀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로써 원문과의 대응 관계를 고려하여 번역문에 관한 이해를 정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이해를 하는 데에 참고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노걸대』와 『박통사』의 한어 원문에 쓰인 난해어 또는 난해구 등의 어휘 등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찬된 『老朴集覽』에 관하여는 정광·양오진(2010)에서 상세하게 다룬 바 있다. 이곳에서는 모든 항목을 현대어로 옮기고 필요한 부분을 역주를 하여 해당 어휘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정보 및 심화 정보를 충실히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노걸대』와 『박통사』와 번역문 사이의 관계를 살피고, 번역문의 언어를 충실히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하겠다.

吏文 자료가 한어 학습서가 지닌 국어학적 가치에 관해서는 안병희(1988=2007: 126-137)에서 『吏文諸書輯覽』을 대상으로 한글 표기와 이두를 국어사 자료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다루어진 바 있다. 예를 들어 ‘주변’이 한어 ‘主便’에 대응하고 ‘당상’이 ‘長常’에 대응하는 것이며, ‘퇴회’가 한어 ‘胡靴’를 의역과 음역을 한 것이 복합된 혼종어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두 학습서에서 보이는 ‘다담’이 ‘倭音’, ‘아전’이 ‘向前’, ‘자하’가 ‘上下’, ‘자문’이 ‘尺文’, ‘테지’가 ‘帖字’, ‘픽지’가 ‘牌字’, ‘환자’가 ‘還上’에 각각 해당하는 것이며, 한어 ‘件數’에 국어 ‘불수’가 대응함을 볼 수 있고 ‘빅오로기’가 ‘빅+보로기’의 결합형이 음운 변화를 거쳐서 나타난 것임을 다룬 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업적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어 학습서가 지닌 국어학적 가치에 관하여 윤곽을 잡는 데에 충실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하지만 좀 더 파고들어 보면 한어와의 관련에서 중세 국어 및 근대 국어의 여러 가지 모습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한어 학습서는 한어 원문에 대응하는 언해문, 단어 및 구 등이 병기되어 있거나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구조적 특성에 따라서 원문과의 대응 관계를 통하여 국어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어원을 지니고 있고 어떤 눈에 띄는 점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다. 그러한바 이 글에서는 중세 국어 자료에 해당하는 16세기의 崔世珍 저작의 한어 학습서를 대상으로 삼아 이들이 지니고 있는 국어학적 가치에 관하여 기존 연구 성과를 계승하며, 필자가 추출한 내용을 추가해 가며 살펴보고자 한다.

## 2. 음운 관련 자료로서의 가치

### 2.1. 한자어에서의 음운 현상

한어 학습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중세 국어의 특징적인 음운 현상과 관련지어 이해해 볼 만한 예가 일부 관찰된다.

(1) /ㄷ/>/ㄹ/>/w/의 수의적 변화 관련 예

- ① 聽L팅/H팅說H설/R설佛H뵡/H부法H황/R바去H큐/H큐來L래/R래 ⇒ L불H웁 니르는 양 드르라 가져<<번박 상:74ㄱ-ㄴ>>
- ② 都H두/H두往R왕/L왕那H나/H나裏H리/L리聽H팅/H팅佛H뵡/H부法H황/R바去H큐/H큐 ⇒ 다 데 가 H불 H법 드르라 가리라 <<번박 상:75ㄴ>>
- ③ 開L개/H개場L장/R장說H설/R설法H황/R바裏R리/L리 ⇒ 법석 시작하야 H설H웁LㅎH리L러H라<<번박 상:75ㄱ>>
- ④ 說幾箇日頭 ⇒ 며츠를 H설H웁LㅎH리L러H노<<번박 상:75ㄱ>>

(1)을 보면 ‘佛法’이 번역문에서는 ‘불법’은 물론이고 ‘불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說法’이 번역문에서는 ‘설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法[咸合三入乏非(方乏切)]’의 한자음이 ‘법>웁’의 변화를 거친 것이 아니므로 한자음의 변화의 문제가 아니다. ‘법>웁’의 양상이 보이는 예들의 음운 환경을 보면 /ㄹ/과 모음 사이에서 /ㄷ/>/w/를 보여 주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바로 추출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환경에서 /ㄷ/>/w/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는데, 국어 음운사적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ㄷ/>/ㄹ/>/w/의 과정을 거친 결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②에서 볼 수 있듯이 앞에서는 ‘불웁’으로 나타났던 것이 뒤에서는 ‘불법’으로 나타나 음운 변화를 반영한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가 공존한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동일한 형태에 대해서도 /ㄷ/>/ㄹ/>/w/의 적용이 수의적으로 일어났음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을 『번역박통사』가 최세진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하여 이해해 본다면, 한 개인 내에서도 음운 변화를 거친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가 공존하면서 쓰이고 있음을 잘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자음에서의 /ㄹ/의 /ㄴ/로의 변동

- ① 彈的們動樂器 ⇒ H풍L뉴 흐리들히 H풍L뉴 흐라<<번박 상:6ㄱ>>
- ② 動細樂大樂 ⇒ 흐근 L풍L류H와 굴근 L풍L류H들 다 희이시며<<번박 상:71ㄱ>>
- ③ 如鼓瑟琴 ⇒ 풍뉴소리 화동흙과 굴다 흐여<<정속언해 5ㄱ, 6ㄱ>>(1518)
- ④ 茅모容용이 與여등輩티로 ⇒茅모容용이 동뉴엿 사름과<<번역소학 10:5ㄴ-6ㄱ>>

이어서 (2)②와 같이 ‘風流’에 해당하는 형태가 ‘풍류’와 ‘풍뉴’로 표기된 것이 나란히 나타남이 보인다. 한자어로 어원 인식이 명확하고, 한자, 한자음, 한자어 전문가인 최세진의 언어에서 이와 같은 ‘풍뉴’가 보인다는 것은 현실 언어에서 來母에 해당하는 한자음의 음운론적인 실현 실태를 살피는 데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존재라 하겠다.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이른 시기의 문헌으로 『정속언해』(1518)와 『번역소학』이 있다. 『번역소학』의 경우는 ‘等輩’를 ‘같은 무리의 사람’으로 이해하고 ‘같은 무리’를 ‘同類’로 판단한 결과라 하겠다.<sup>1)</sup> 『번역박통사』의 간행은 이보다는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거의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①과 ②에서 보이는 예는 가장 이른 자료로서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1) 중세 국어 문헌에서 ‘同類’의 쓰임은 널리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15세기 자료 중에 “凡과 聖과 同類와 異類에 自在解脫을 得호산 전츠로<<능엄경언해 8:26ㄱ>>(1461)”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양상이 나타난 원인이 치조 비음화에 있는 것인지 來母의 한자음이 수의적으로 泥母와 같이 대치되어 발음되는 것에 연유한 것인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현상적인 관찰에만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현실 국어 한자음을 반영한 문헌에서 이와 같이 비어두에서 來母가 泥母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 주는 이른 시기의 문헌으로서 『번역박통사』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2. 개별 한자음 관련 정보의 제시

한어 학습서에는 국어사 자료에서 볼 수 있는 통상적인 한자음과는 다른 음을 갖는 것이 보이거나 다른 국어사 자료에서는 한자음의 실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의 실제 한자음을 파악하는데에 의미 있는 예들이 관찰된다. 먼저 회화서에서 볼 수 있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蓼: 심, 麀: 기, 鎚: 쉼, 寺: 시

- ① 這蓼L순/H순是好麼 將些樣蓼L순/H순來我看 ⇒ 이 L심이 도흐냐 본볼 심 가져오라 내 보와지라<<번노 하:56ㄴ>>
- ② 這蓼是新羅蓼L순/H순也 ⇒ 이 L심은 新羅L심이라<<번노 하:56ㄴ>>
- ③ 這蓼L순/H순絶高 ⇒ 이 L심이 ㄹ장 도흐니<<번노 하:57ㄱ>>
- ④ 你這蓼多少斤重 ⇒ 네 이 L심이 몇 근 뜨키오<<번노 하:57ㄱ>>
- ⑤ 我這蓼L순/H순一百一十斤 ⇒ 내 이 L심이 일빅 열 근이라<<번노 하:57ㄱ>>
- ⑥ 這蓼L순/H순稱了 只有一百斤 ⇒ 이 L심을 드라 흐니 다몬 일빅 근이로다<<번노 하:58ㄴ>>
- ⑦ 這蓼L순/H순你來時節有些濕 ⇒ 이 L심이 네 올 저저 잇다가<<번노 하:58ㄴ>>
- ⑧ 這蓼L순/H순做了五分兒分了 ⇒ 이 심L을 다섯 모기 눈호와<<번노 하:58ㄴ>>
- ⑨ 有些人L신/R신蓼L순/H순毛施布 ⇒ 저기 人蓼과 모시뵈 잇다<<번노 하:2ㄴ>>
- ⑩ 我賣了這人L신/R신蓼L순/H순毛施布時 ⇒ 내 이 L신L습 모시뵈 풀면<<번노 하:56ㄱ>>
- ⑪ 商量人L신/R신蓼L순/H순價錢 ⇒ L신L습 값 의문호져<<번노 하:56ㄴ>>
- ⑫ 春L춘/H춘間L견/H견穿L원/H원白H짚/H좌麀L기/L기皮L뻘/R피靴L휘/H휘 ⇒ L봄L스H시H는L 거H문L기H즈L피L휘L시H노H덕<<번노 하:52ㄴ>>
- ⑬ 是R筮/H스浮L뿔/R부萍L뻥/H뻥蒲L뿌/R뿌棒R뿡/H방 ⇒ 머구리뻘과 부들 L방H취H오<<번박 상:70ㄴ>>
- ⑭ 大따/다뻘거/거是筮/스棒뿡/방鎚쥬/취 ⇒ 큰형은 이 방취오<<박언 상:36ㄱ>>
- ⑮ 咱H강/R자們H몬/H몬問H론/H론那H나/H나光L광/H광祿H릉/H루寺H승/H스裏L리/L리 ⇒ 우리 光祿寺에 가 무리<<번박 상:2ㄴ>>
- ⑯ 光L광/H광祿H릉/H루寺H승/H스裏L리/L리 ⇒ 光祿寺에란<<번박 상:3ㄱ>>

(3)의 ①~⑩의 예는 ‘蓼[深開三平侵B生(所今切)]’의 음에 ‘슴’ 이외에도 ‘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①~⑧을 보면 ‘蓼’에 대응하는 국어 형태가 단독으로 제시될 때는 ‘L심’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반면에 ‘人蓼’에 대응하는 국어 형태가 제시될 때에는 ⑨와 같이 ‘人蓼’이 보이거나, ⑩⑪과 같이 ‘L신L습’이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⑨에서와 같이 한자로 표기된 것이 먼저 제시된 후에 한글로 표기된 것이 나중에 제시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자어의 형태에 따라서 ‘슴’을 보이는 것과 ‘심’을 보이는 것이 나뉘어 볼 수 있다.

①~⑧에서 ‘蓼’에 대응하는 형태로 제시된 ‘심’은 ‘人參 심<<구급간이방 1:29>>(1489)’과 ‘人參 심<<동의보감 2:37>>(1610)’의 양상을 볼 때 ‘人蓼’과의 대응이 명확하며 ‘蓼’의 중세 국어 한자음인 ‘슴’과는 다른 한자음인 ‘심’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이 형태가 『번역도결대』에 집중적으로 출현하는데, 이로써 우리는 ‘蓼=參’의 또 다른 음으로 ‘L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sup> 그런

2) ‘參’은 ‘L습’으로 <<번역소학 9:105ㄴ>>, <<소학언해 4:20ㄴ, 6:98ㄱ>>, <<논어언해 1:35ㄴ, 3:8ㄴ>>, <<효경언해:1ㄱ, 1ㄴ, 22ㄴ>>에서 나타나며, ‘蓼’은 ‘더덕 L습<<훈몽자회 상:7ㄱ>>’, ‘인습~더덕 습<<신증유합 상:8

데 ‘蓼’이 深攝 侵韻에 속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 음은 중세 국어 한자음인 ‘습’과는 달리 深攝의 일반적인 대응 양상에 잘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국어 한자음의 층위를 논하는 데에 의미 있는 존재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하겠다.

중세 국어 한자음에서 侵韻 乙類에서 齒上音(正齒音 2등) 글자들은 ‘森습’, ‘參습’, ‘滲습’, ‘澁습’과 같이 모음이 /·/로 대응한다. 이처럼 /·/로 대응하는 것에 관해서는 여러 면에서 해석이 이루어져 왔다. 먼저 河野六郎(1968: 198)에서는 莊組의 ‘-음’은 河野六郎에서는 c층으로 하고, b층의 ‘-음’에 대해서 新層에 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이돈주(1995: 342)에서는 侵韻의 상고음이 /\*-əm/임과, 중고음 운복 /-ə-/를 /-/, /ɨ/, /·/로 반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古層의 음을 반영한 결과로 살핀 바 있다. 伊藤智ゆき(2002: 198-199)에서는 莊組字만이 新層의 字音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해석보다는 국어 한자음 자체가 莊組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후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김무림(2006: 217, 2007: 134-135)에서는 성모의 성격 변화와 연관된 핵모음의 변화와 관련지어 살펴 이 한자음에서의 /·/는 근대음적 층위를 보이는 것이라 하였다. 필자도 한어에서는 正齒音의 捲舌音化되면서 介音의 소실이 있었고 이에 따라 核母音이 /-rem/>/-əm/과 같은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런 변화에 따라 생겨난 /-ə-/에 국어 한자음의 /·/가 대응하게 된 것으로 보아 근대음적 층위의 한자음 반영 양상으로 판단한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L심’은 근대음적 층위를 반영한 ‘L습’으로 대체가 된 중고음에 대응하는 한자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이 둘의 성조가 모두 평성으로 일치한다는 것은 『訓蒙字會』를 기준으로 할 때 한어의 평성이 국어 한자음에서도 평성으로 나타나는 것의 비율이 97%를 넘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박병채 1971: 242) ‘L심’과 ‘L습’의 동일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이것은 ‘蓼’의 한자음이 ‘심>습’의 대체 과정이 있었음을 보여 줌과 동시에 深攝 侵韻의 齒上音字의 운모에서 보이는 /·/가 이와 같은 대체 과정을 거친 근대적 층위의 음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국어 어휘사 연구 자료와 한자음 연구 자료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존재라 평가할 만하다.

다음으로 ‘麀’에 관하여 살펴보면, ⑫에서 한어 원문 속의 ‘麀R기/L기’에 대응하는 언해문에서의 형태는 ‘L기H즈’이다. 이것은 ‘麀子’ 정도의 말이 아닐까 추정된다. 이 ‘麀子’는 중국어에서 단어로 쓰이는 것으로 사슴과 유사하며 잘 도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유동물을 말하는 것이다.<sup>3)</sup>

이 언해문의 제시 양상으로 판단하건대 ‘麀[止開三上旨見(居履切)]’의 한자음이 ‘기’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麀’의 한자음이 현대 국어 한자음 ‘궤’와는 달랐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간의 국어사 연구에서 ‘麀’의 중세 국어 시기의 한자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sup>4)</sup> 이런 면에서 『번역노걸대』의 한어 원문과 언해문과의 비교로써 얻은 이 ‘기’란 음은 국어사 자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 ‘麀’에서 보이는 ‘L기’란 음은 한어 上聲에 평성이 대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있지만 성모와 운모의 대응은 중세 국어 한자음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대응 양상과 잘 부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겠다.

이어서 ‘鎚’에 관하여 살펴보면, ⑬의 언해문에서 보이는 ‘방츄’는 ⑭를 볼 때 한어 원문 ‘棒鎚’에 대응하는 것임이 명확하다. ‘鎚[止合三平支澄(直追切)]’은 근대 국어 시기 운서 한자음에서 처음으로 ‘츄≪화동정음통석운고 상:9ㄴ≫(1747)과 ‘츄≪삼운성휘 상:16ㄱ≫(1751)’을 보이고, 그

ㄱ≫과 같이 ‘L습’으로 나타난다(권인한 2009 참고).

3) 『漢典』에서는 이 말의 기본 해석으로서 “哺乳动物の一属，像鹿，腿细而有力，善于跳跃，皮很软可以制革。通称“麀子”。”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생김새가 사슴과 유사하며 잘 도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언급이 보인다. <https://www.zdic.net/hans/%E9%BA%82>

4) 그간 구축되어 유통되는 국어사 말뭉치 자료나 권인한(2009)에서는 이 ‘麀’의 한자음을 전혀 볼 수가 없다.

이전에는 ‘L되’만을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언해문의 양상으로 보아 우리는 중세 국어 시기에 도 ‘츄’란 음이 쓰이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鎚’가 ‘츄’를 보이는 것은 성모가 澄母임을 고려하면 한어 舌上音의 正齒音化에 발맞추고 있는 근대 국어 운서 한자음의 ‘취’와 ‘츄’를 볼 때 ‘츄’는 근대음적 특색이 반영된 결과이다.

끝으로 ‘寺’에 관해서 살펴보면, ⑮와 ⑯에서 보듯이 원문에 쓰인 ‘光祿寺’에서 ‘寺’의 한어음은 ‘H슌/H스’와 같이 표시되어 있다. 이 ‘光祿寺’는 언해문에서는 한자 그대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 음을 알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光祿寺’로 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는 물론이고 『번역박통사』에서의 처격 조사의 교체 양상을 볼 때에는 ‘寺’는 ‘스’가 아닌 ‘시’임을 잘 보여 준다고 하겠다. ‘시’란 음은 《번역소학 3:16ㄴ, 10:3ㄴ》(1518)과 《소학언해 2:49ㄴ, 6:103ㄴ》(1588)에서 예가 보이기는 하나, 이처럼 『번역박통사』에서도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확인이 가능하다.

이어서 외교 문서 작성에 필요한 어구를 담아 놓은 吏文 관련 문헌에서 보이는 한자음 관련 정보의 제시 양상을 보고 주요한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4) 吏文 학습 자료 등에서 보이는 한자음 관련 정보

- ① 張得峪: 峪音欲<<이문 2:4ㄱ>>  
 ※ 峪: 谷又作峪 音H욕<<훈몽자회 상:2ㄱ>>
- ② ㄱ. 咱弟兄每: 咱音자.....<<이문 2:4ㄱ>>  
 ㄴ. 咱: 五音集韻<sup>5)</sup>子葛切 俗謂自己謂咱 免疑雜字音匣 兩書皆有咱們之文 們字初聲爲合口聲 鄉習以們字初聲 連咱字之終讀之 故咱字亦似合口聲之字 遂以咱字爲合口聲習以爲常誤也 又着於詞終則爲語助 今罕用也<<老朴集覽 單字解:3ㄱ>>
- ③ 背尙宜匣: 尙音向.....<<이문 2:5ㄱ>>
- ④ 後晌: 午後也 晌音尙上聲<<이문 2:5ㄴ>>
- ⑤ ㄱ. 另行: 另音令去聲別也<<이문 2:5ㄴ>>  
 ㄴ. 另: 音零去聲零也另的뽕것 吏語另行각벼리하다<<老朴集覽 單字解:2ㄴ>>
- ⑥ 撒酒: 撒音殺使酒也<<이문 2:7ㄱ>>
- ⑦ 風迅: 迅音信潮水也<<이문 2:8ㄱ>>
- ⑧ 扯毀: 扯上聲與捲同裂開也<<이문 2:10ㄱ>>
- ⑨ 當職: 通文同品衙門稱自己曰當職當去聲<<이문 2:10ㄱ>>
- ⑩ 寫遠: 寫音鈞杳遠也<<이문 2:10ㄴ>>
- ⑪ 發噉: 噉與喊同音陷<<이문 2:12ㄱ>>
- ⑫ 兩棧當床: .....床音次<<이문 2:13ㄱ>>
- ⑬ 挨: 音애平聲 俗語挨次謂循次 歷審無攙越之意흔즈니하다 又吏語挨究 挨捕<<老朴集覽 單字解:2ㄱ>>
- ⑭ 便將金聲那廝: 那去聲 那廝俗言더놈<<이문 2:14ㄴ>>
- ⑮ 教唆: 猶國俗云付屬也唆音梭<<이문 2:16ㄴ>>
- ⑯ 頭篷緯并包梳索: .....緯音律.....<<이문 3:17ㄱ-ㄴ>>
- ⑰ 胖襖: 胖當作胖音방去聲 胖襖綿絮衣也<<이문 3:17ㄴ>>
- ⑱ 偷拐栗色騾馬: 拐音괘上聲 誑人取物也<<이문 3:18ㄴ>>  
 ※ 拐괘<<훈몽자회 하:9ㄴ>>
- ⑲ ㄱ. 丟棄: 丟音뉘平聲 亦棄也<<이문 3:20ㄴ>><sup>6)</sup>

5) 흔히 말하는 『五音集韻』은 『改併五音集韻』을 줄여서 이르는 것으로 1208년에 나온 『廣韻』과 『集韻』의 각 小韻을 수정하여 만든 운서로, 각 소운마다 攝, 韻, 開合, 四等を 표기하여 등운도의 성질이 가미된 것이다(배규리 2021: 8).

6) ‘丟’는 『康熙字典』에는 “《篇海》丁羞切”과 같은 정보가 실려 있다. 여기에서 『篇海』는 『五音篇海』 또는 『四声篇海』라 부르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金나라 때 韓孝彦과 韓道昭 부자가 편찬한 字書이다. 정식 이름은 『改併五音類聚四聲篇』이며 36字母, 平上去入의 4성 체계에 따라 음이 분류되어 있으며 모두 54,595자가 실려 있다. ‘丟’는 현대 한어음은 /diu/로 설두음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ㄴ. 丟: 抛也 亦作彪音ㄴ 平聲《老朴集覽 單字解:5ㄴ》7)
- ㉑ ㄱ. 作歹: 歹音대 惡也《이문 3:21ㄴ》
- ㄴ. 歹: 惡也 雜也 又好歹 모로매 集韻作解《老朴集覽 單字解:6ㄱ》
- ㉒ 三岔兒: 地名岔音차 凡稱三歧路皆曰三岔《이문 3:22ㄱ》
- ㉓ 鄭村壩: 地名也 壩音霸 障水也 又堰也《이문 3:22ㄴ》
- ㉔ 見監: 見音現 監囚也《이문 3:22ㄴ》
- ㉕ 噴嚇: 噴即哄字 音禾 給人也 嚇恐喝也《이문 4:24ㄱ-ㄴ》
- ㉖ 坍塌: 音丹塔類毀也《이문 4:25ㄴ》
- ㉗ 投纜自盡: 纜音泫 結也 絡也 卽自經也《吏文續集輯覽:1ㄱ》
- ㉘ 胎膊肋下: 胎肱同音乞 胎膊卽上臂也 肋脅也《吏文續集輯覽:1ㄴ》
- ㉙ 漂淌: 淌音唱大波也 又與蕩同《吏文續集輯覽:2ㄱ》
- ㉚ 榻: 音昴《吏文續集輯覽:4ㄱ》

(4)를 보면 ㉑, ㉓, ㉔, ㉕-ㄱ, ㉖ 등의 'X音Y(聲調)', ㉕-ㄴ, ㉚, ㉛ 등의 '音Y(聲調)', ㉑ 등의 'X同音Y', ㉓ 등의 X與Y同, ㉔ 등의 'X聲調'와 같은 방식으로 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음 관계가 되더라도 성조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성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Y는 ㉑, ㉓, ㉔, ㉕ 등과 같이 한자로 표시한 경우와 ㉖-ㄱ, ㉗, ㉘-ㄱ, ㉙-ㄱ 등과 같이 한글로 표시한 경우로 나뉜다. 그리고 ㉕-ㄴ과 같이 운서의 反切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음운 정보를 보인 경우가 있다.

이런 기술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㉑ 峪=欲, ㉒ 咱: 자, =匝, 咱: 子葛切, 咱=匝, ㉓ 尙=尙, ㉔ 眇=尙(상성), ㉕ 另=令(거성), 另=零(거성), ㉖ 撒=殺, ㉗ 迅=信, ㉘ 扯(상성)=揸, ㉙ '當職'의 '當'은 거성, ㉚ 寫=鈞, ㉛ 喊=陷, ㉜ 康=次, ㉝ 挨: 애(평성), ㉞ '那廝'의 '那'는 거성, ㉟ 唆=梭, ㊱ 緯=律, ㊲ 胖: 방(거성), ㊳ 拐: 꺾(상성), ㊴ 丟: 두(평성), 丟=彪: 두(평성), ㊵ 歹: 대, 歹=解,<sup>8)</sup> ㊶ 岔: 차, ㊷ 壩=霸, ㊸ 見=現, ㊹ 噴=哄=禾, ㊺ 塌=丹, ㊻ 纜=泫, ㊼ 肱=乞, ㊽ 淌=唱, ㊾ 榻=昴와 같은 한자음 관련 내용을 추출할 수 있다. 이들은 거의 다 앞에 오는 한자의 음을 뒤에 제시한 한자의 음 또는 한글로 제시한 음으로 읽어야 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여기에 ㉙, ㊴와 같이 복수음자의 경우에 어떤 성조로 읽어야 의미에 걸맞은 음의 사용이 되는지를 보여 주는 것들이 같이 보인다.

(4)가 吏文 자료에서 제시된 것이니만큼 이곳의 한자음 정보는 일차적으로는 한어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가령 'X音Y'의 형태로 제시된 것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X의 음을 알기 위해서는 Y의 음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 전제가 됨을 생각하여 보면, Y가 한글이 아닌 한자로 표기된 경우 이를 한어의 음으로 읽는 것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㉓ '背尙宣匣: 尙音尙'의 예는 '尙[江開二平江曉(許江切)]'과 '尙[宕開三去漾曉(許亮切)] || 宕開三去漾書(式亮切)]'이 동음이 되는 것을 중고음으로도 국어의 전승 한자음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한어에서 江攝 江韻의 아음과 후음의 성모자가 근대음 단계에서 宕攝 陽韻과 하나가 되어 江陽韻 /-iaŋ/이 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면 동음 관계가 이해된다. 이를 보면 모르는 음 'X'를 우리에게 익숙한 음 'Y'로 설명하고 있고 이때 'Y'는 여러모로 국어 한자음으로 보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와 달리 ㉒ 咱: 자, =匝, 咱: 子葛切, 咱=匝의 경우를 보면 '咱'가 중세 국어 한자음에 '자'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免疑雜字』에서 '匝[咸開一入合精(子答切)]'을 동음 정보로 제시했는데, 이 '匝'의 국어 한자음은 'H잡《진언권공 56ㄴ》(1496), 잡《신증유합 하:52ㄴ》(1576)'으로

7) '彪'에 '두'에 해당하는 음운 정보는 보이지 않지만 현대 한어음에 /diu/란 음이 있는데, 投擲의 뜻일 때 이 음을 지닌다. <https://www.zdic.net/hans/%E9%A2%A9>

8) 이 '歹'은 다음과 같이 『번역노걸대』에서 쓰임이 보이는데 좌측음으로 'R대', 우측음으로는 'L대'가 제시되어 있다. “好R할/R화歹R대/L대等R등/R등你R니/L니來L래/R래: 모로매 너를 기들위사《번노 하:56ㄱ》”

‘咱’와 동음 관계를 보인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것은 脣內入聲이 소실한 한어의 음으로 이해해야 동음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해석의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난점이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국어 한자음에서의 동음 관계를 설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것은 한자음이 한자마다 개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모와 운모 체계 내에서 움직이는 성질을 갖는 점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바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체계적인 면에서 집단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이므로 이 틀이 깨지지 않는 한에는 한어로 보나 국어 한자음으로 보나 동음 관계가 설명될 수 있는 면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음주 자료의 언어적 가치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지만 ‘白[梗開二入陌並(傍陌切)]’의 입성의 소실이 반영되어 있는 ‘白菜’를 차용한 ‘빅치’가 “本草의 빅치를 ㄱㄴ리 ㄱㅅㅣ ㅅㅅㅣㄱㄱ ㅅㅅㅣㄱㄱ《分門癘疫易解方:9ㄱ》(1542)”에서 보임은 물론이고, “菘 빅치 송《훈몽자회 상:7ㄴ》”과 같이 16세기 전기의 자료에서 훈으로 쓰일 정도로 국어에서 이미 정착된 것임을 고려하면 입성의 소실을 반영한 한자음이 유입되어 유통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즉 문중되지는 않지만 중세 국어 시기에 ‘匪’에 ‘\*자’란 음이 유통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설상음 徹母 2등자인 ‘㉑ ㄱㅅ[假開二去禡徹(丑亞切)]’이 ‘차’란 음을 보이는 것은 “거리 L차《훈몽자회 상:3ㄴ》”과 일치하는 바라고 하겠는데, 같은 성모의 글자들 중에 ‘徹털’, ‘徹탕’, ‘抽뉘~뉘’, ‘撐팅’, ‘撤털’, ‘攄터’, ‘敕틱’, ‘暢탕’ 등과 같이 /ㄷ, ㅌ/으로 나타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것은 ‘ㄱㅅ’가 한어에서의 舌上音의 正齒音化를 선구적으로 반영하여 성모를 파찰음으로 대응시킨 결과이다. 이처럼 중세 국어 한자음에는 예외적으로 한어의 변화에 조응하여 전승 한자음이 신층의 음으로 바뀐 것들이 일부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이 국어사 자료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것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㉑의 ‘咱=匪’의 경우도 ‘匪’에 ‘\*자’란 음이 실제로 유통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게 된다. 여기에 吏文 자료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이런 한자음은 국어 화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음이라고까지 확대해서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최소한 吏文을 다루는 계층들에게는 ‘匪’에 ‘\*자’란 음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었던 것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여지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것은 한어의 음운 변화를 반영한 한자음이 유입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확산 양상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었을지를 생각하는 데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㉑에서 “峪音欲《이문 2:4ㄱ》”과 같은 吏文 자료에서의 제시 형식이 “峪: 谷又作峪音H욕《훈몽자회 상:2ㄱ》”과 같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자 학습서에서는 음을 직접 한글로 표시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 달라졌다는 점은 비례적으로 Y 자리에 오는 ‘欲’=‘욕’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훈몽자회』의 이런 한자음을 국어 한자음의 자료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吏文 자료에서 보이는 ㉑과 같은 것들도 국어 한자음 자료로 삼아 연구할 만한 가치는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3. 어휘 자료로서의 가치

#### 3.1. 고유어

한어 학습서에는 회화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문 학습 자료에 한어의 어휘와 대응하는 국어의

고유어를 보여 주는 경우도 상당히 보인다. 이에는 다른 문헌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서 국어 어휘 자료의 관찰과 확보라는 면에서 볼 때 중요성을 띠는 경우도 있다.

(5) 吏文 학습 자료 등에서 보이는 고유어 관련 정보

- ① ㄱ. 海菜: 卽本國鄉名메옥<<이문 2:3ㄱ>>  
 ㄴ. 이 메옥과 乾魚와 肉脯는 다 이 우리 집 太爺 | 朝鮮으로서 가져 온 거시매<<박통사신석언해 2:25 ㄴ>>(1765)
- ② 衣帶八條: 衣帶鄉言골홉 八條卽八箇也<<이문 2:3ㄱ>>
- ③ 責令: 責鄉言당부하다<<이문 2:4ㄴ>>
- ④ ㄱ. 根前: 鄉言그앞피<<이문 2:5ㄴ>>  
 ㄴ. 根前앞피<<老朴集覽 累字解:2ㄱ>>
- ⑤ ㄱ. 另行: 另音令去聲別也<<이문 2:5ㄴ>>  
 ㄴ. 另: 音零去聲零也另의 뜻 吏語另行각벼리하다<<老朴集覽 單字解:2ㄴ>>
- ⑥ 節次: 連次猶鄉言벽디검<<이문 2:7ㄱ-ㄴ>>
- ⑦ ㄱ. 一向: 猶俗言슬의여<<이문 2:11ㄴ>>  
 ㄴ. 不要只管的刮 슬의여 굽빚기기 말라<<籲朴:44ㄱ>>
- ⑧ 舵金: 凡船尾必有舵所以正船之具卽本國치也金以鐵裝舵也<<이문 2:13ㄱ>>
- ⑨ ㄱ. 抄造: 抄造히쓰다方言曰抄紙<<이문 2:13ㄴ-14ㄱ>>  
 ㄴ. 抄書來 글 벅겨 오다<<譯語下:50ㄴ>>  
 ㄷ. 抄紙 조히 쓰다<<방언유석 亥部方言2a>>  
 \* 설 초 抄<<백련초해 1ㄱ>>
- ⑩ ㄱ. 挨究: 挨俗言츤츤 究窮尋也<<이문 2:14ㄱ>>  
 ㄴ. 咳 徐忒細詳: 해 네 너므 츤츤하다<<변박 상:33ㄱ>>  
 ㄷ. 料着你那細詳時: 네 그리도록 츤츤흔 양을 해언든<<변박 상:64ㄱ>>  
 ㄹ. 挨: 音에平聲 俗語挨次謂循次 歷審無撓越之意 츤츤니하다 又吏語挨究 挨捕<<노박집람 單字解:2ㄱ>>
- ⑪ 便將金聲那廡: 那去聲 那廡俗言더눔<<이문 2:14ㄴ>> ⇒ 那廡
- ⑫ 先儘: 儘音盡鄉言다와다<<이문 2:15ㄱ-ㄴ>>
- ⑬ 使長: 卽國俗所謂노연<<이문 2:16ㄴ>>
- ⑭ 鎖繳: 勾鎖回繳也 鄉言마물오다<<이문 3:19ㄴ>>
- ⑮ ㄱ. 黑綠: 鄉言희무로<<이문 3:20ㄴ>>  
 ㄴ. 黑綠紵絲比甲: 희무로 비단 비계와 햅야<<번노 하:51>>  
 ㄷ. 黑黑綠: 희무로 비단<<역어 하:4>>
- ⑯ ㄱ. 綾襖子: 綾鄉言고로 襖子卽胖襖也<<이문 3:20ㄴ>>  
 ㄴ. 收買些絹子綾子緜子 깃과 고로와 소음덜 거두워 사<<번노 상:13>>
- ⑰ 裕連: 如本國겉망之類<<이문 3:20ㄴ>>
- ⑱ 刁蹬: 人之作威侵人者曰刁蹬言졸오다 蹬留難抑勤之義<<이문 3:23ㄱ-ㄴ>>  
 \* 졸오다: 賴我賴你<<사성통해 상:賴字註>>
- ⑲ 倒有七八百杠: 倒反也 鄉言도르혀 言私物反有店干杠之多<<이문 3:24ㄱ>>
- ⑳ 不徒尔: 鄉言우여니아니<<이문 3:24ㄱ>>
- ㉑ 各照: 照方言집채<<이문 4:24ㄴ>>  
 \* 照 ㅅ실 조<<훈몽자회 하:1ㄱ>>
- ㉒ 鈴束禁治: 卽約束禁戢也鈴與箝通俗乎鐵鈴卽집계<<이문 4:26ㄴ>>
- ㉓ 寶石頭面: 寶石方言날 頭面女冠也<<이문 4:28ㄱ>>
- ㉔ 木料: 料鄉言謂ㅁ슴如石料顏料之類<<이문 4:28ㄴ>>
- ㉕ ㄱ. 牙行: 牙즈름 行音杭 猶本國좌쥬<<이문 4:29ㄱ>>  
 ㄴ. 一箇是牙子 햅나흔 즈름이러라<<번노 하:7>>  
 \* 儻 즈름 회<<훈몽자회 중:3>>(1527)  
 \* 좌쥬는 쥬인이라 말이라<<明義卷首下 존현각일괴:59ㄱ>>(1777)
- ㉖ 高低唱價: 言任其高低唱定物價 猶本國俗語발내다<<이문 4:29ㄱ>>
- ㉗ 粃: 糗也 卽本國미시<<이문 4:29ㄱ>>

- ※ 麩 미시 초, 糶 미시 구, 糶 미시 후《훈몽자회 중:10ㄴ》(1527)
- ⑳ 竊礦: 偷取銀礦也 礦與鑛通鄉言들꺄《이문 4:29ㄴ》
- ㉑ 下套子處所: 下套子을모노타 盖謂達子田獵時下套子處所也《吏文續集輯覽:1ㄱ》
- ㉒ 值當: 猶言보라미라《吏文續集輯覽:1ㄱ》
- ㉓ ㄱ. 剝了屍: 剝서흐다《吏文續集輯覽:2ㄱ》
- ㄴ. 切的草細著 여믈 씨흘기를 ㄱ늘게 흐야《박통사언해 상:21ㄱ》(1677)
- ㉔ 簾: 音樓동주리《吏文續集輯覽:2ㄴ》
- ※ 提籃 드는 동주리《사성통해 하:79》, 簾 동주리 루《훈몽자회 중:7ㄴ》(1527), 도척를 알 안는 둠의 동주리 아래 드라 두면《언해태산집요 11ㄴ》(1608)
- ㉕ 備開詞訟勸合起數: ……起數猶鄉言닐수《吏文續集輯覽:3ㄱ》
- ㉖ 麻搭: 鄉言모스래 所以滅火者也《吏文續集輯覽:3ㄴ》

먼저 어휘의 형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존재가 보인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①, ⑥, ㉖ 등을 들 수 있다.

①의 경우는 다른 중세 국어 자료를 보면 “다스마 머옥 두 량을 시서 뿐 맛 업게 흐고《구급간이방 2:80ㄴ》(1489)”와 같이 ‘머옥’의 형태만 관찰되는 것과 비교할 때 ‘메옥’의 형태가 출현한다는 점에서 눈길이 가는 존재이다. ‘메옥’은 이처럼 중세 국어 자료에서 ‘머옥’만이 출현한다는 점과 더불어 중세 국어 자료에서 수의적으로 하향성 반모음 /l/의 첨가 현상이 보임을 고려할 때<sup>9)</sup> ‘머옥’에 하향성 반모음 /l/가 첨가되어 형성된 어형으로 보인다. 따라서 음운사 면에서의 자료로서의 가치도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⑥에서 ‘節次’에 대응하는 ‘벽디검’은 “迭 벽디글 𨮒《신증유합 상:3ㄴ》(1576)”과 같은 예를 볼 때 ‘벽디-’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게 하는 예이다. ‘迭’은 [번갈아들다, 이르다, 미치다]의 뜻을 지니는 말임을 생각하여 보면 어떤 순서에 따라 일이 이루어짐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次’도 [차례를 정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므로 ‘迭’과 의미적으로 유사성이 있다. 따라서 ‘벽디검’과 ‘벽디글’의 관련성은 믿어 의심스럽지 않다고 하겠는데, ‘벽디검’은 ‘벽디-+-엄’이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 명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㉓의 ‘서흐다’는 ‘씨흘다’와 초성의 음운론적인 양상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말임을 잘 보여 주는 예라 하겠다. ㄱ의 ‘서흐다’는 무엇인가를 잘라내는 ‘剝’와 비교하여 볼 때 ㄴ의 ‘切’에 대응하는 ‘씨흘기’와 같은 뜻을 지니는 말임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득네 몸으로써 ㄱ리와 ㅍ를 버히고 ㄴ플 서흘오디《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7:33ㄴ》(1617)”과 연결지어 이해해 볼 수 있는 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宰 ㅁ르서흘 직《신증유합 하:10ㄴ》”, “制財用之節: 직물 쓰는 ㅁ딕를 ㅁ르서흐러《소학언해 5:81》(1588)”과 같이 ‘서흘-’을 구성 요소로 하는 복합어로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주관하다, 주재하다, 제어하다]의 뜻을 지니는 동사 어간 ‘ㅁ르-’에 ‘서흘-’이 비통사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말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㉖의 ‘모스래’는 “苧麻扎十指尖針 모시뢰나 삼으뢰나 열 솟가락 그틀 ㅁ오 침으로 ㅼ어《구급간이방 2:47》(1489)”와 비교하여 볼 때 ‘모스래=모시뢰’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현대 국어의 ‘모시’는 15세기부터 ‘모시’란 형태만 쓰이는 것으로 다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나, 이 예를 통하여 ‘모스’란 형태도 쓰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모스래=모시뢰’에서 우리는 ‘모스’나 ‘모시’에 결합하는 ‘래=뢰’와 같은 후부 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 이것이 이문 자료에서는 ‘搭’에 대응하고 『구급간이방』에서는 ‘扎=札’에 대응하는데, ‘搭’에는 [걸다, 매달다]의 뜻이 있어서 이것은

9) 『훈몽자회』에 “猪 ㄷ ㄷ에《상 20ㄱ》”가 보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반해 『신증유합』에서는 “猪 猪 ㄷ ㄷ에《상:14ㄱ》”으로 나타나나 차이를 보인다. 『신증유합』은 이런 양상을 보이지만 같은 『유합』 계통에서 『칠장사유합』(1664)에서는 “ㄷ ㄷ 猪《9ㄱ》”가 보인다.

‘扎=札’의 뜻과 통한다. 따라서 [거는 것, 매다는 것]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로 ‘되~래’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어휘가 지닌 다의성을 이해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예들이 보인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⑦과 ⑩ 등이 있다.

⑦의 경우는 ‘一向’이 ‘只’와 같이 ‘슬의여’로 대응할 수 있는 말임을 보여 준다. 이것은 ‘슬의여’가 [한결같이]뿐만 아니라 [다만, 오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의미를 지님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남광우 선생의 『고어사전』(1997)에서는 ‘슬의여’를 [함부로]의 뜻으로 풀이하고 있으나, 이 ‘슬의여’가 ‘一向’과 ‘只’ 모두에 대응하는 것을 고려하고, 한어에서도 이 두 말이 각각 [줄곧, 내내], [오직]의 의미로 쓰임을 고려한다면 일차적으로는 [한결같이, 오직]의 의미를 지녔던 것이 아닌가 싶고, [함부로]는 이에서 파생한 의미이거나 문맥적 의미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⑩의 경우는 ‘촌촌’이 ‘挨’ 또는 ‘細’, ‘촌촌니’가 ‘挨(次)·循次’, ‘촌촌흐-’가 ‘細詳’에 대응함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挨’에는 [맞대다, 접근하다, 순서를 따르다, 차례, 차례로]와 같은 의미가 있다. 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루고,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하는 의미가 이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바 ‘詳細’와도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어와의 대응 관계는 국어 다의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⑩의 경우는 ‘值當’이 ‘보람’에 대응하는 것은 ‘值’가 [결맞다, 상당하다]의 의미를 지녀 후행하는 ‘當’과 함께 어떤 상황이나 행위에 부합하다 정도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보람’이 “幟는 보라미니<<월인석보 21:217>>(1459)”, “標는 보라미라<<금강경언해 48ㄴ>>(1461)”, “各安標記: 各各 보라물 두고<<원각경언해 하 2-2:41ㄱ>>”에서 보듯이 ‘標識’, ‘標’, ‘幟’에 대응하는 것으로 쓰인다. 여기에서 ‘標’는 ‘標’와 同字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值當’의 ‘值’에는 [결맞다, 상당하다] 의미 외에도 [꽃다] 또는 [세우다]의 의미로 지닌다. 이를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值當: 猶言보라미라”의 예는 중세 국어의 ‘보람’이라는 말에 [꽃음, 세움]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라고 하겠다.

그리고 끝으로 ④의 경우는 ㄱ과 ㄴ이 ‘그’의 존재 여부에서 차이가 있는데 ㄱ이 이문 자료이고 ㄴ은 회화서임을 고려할 때 ㄱ은 앞과의 관계에서 문맥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해석하고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 3.2. 한자어(한자, 한글, 이두의 사용)

한어 학습서를 보면 당시 국어에서 쓰이던 것으로 보이는 한자어 관련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다. 『번역노걸대』나 『번역박통사』에서 볼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예는 이를 잘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 (6) 한어 회화서에서의 한자어의 쓰임 양상

- ① 情L정/R청愿H원/H원立H립/H리約H약/R요 ⇒ L정H원H오H로 기약호야<<번박 상:60ㄴ>>  
 \* 情愿立約與某財主處 ⇒ 情愿으로 아모 財主 處에 立約호야<<박언 상:54ㄱ>>
- ② 京都樓L중/H중殿H던/H던西教場裏 ⇒ 서울 L중H던 셋녜 R사H녕의셔<<번박 상:59ㄴ>>  
 \* 教場: 猶本國射廳也<<이문 4:26ㄴ>>  
 \* 京都綜殿西教場裏 ⇒ 京都 綜殿西教場에<<박언 상:53ㄱ>>
- ③ 鑛鐵: 着H착/R조鑽L빈/H빈鐵H텅/R터打R다/L다 ⇒ H빙H털H로 밧글요되<<번박 상:16ㄱ>>  
 \* 著鑛鐵打 ⇒ 鑛鐵로 티이되<<박언 상:15ㄴ>>
- ④ 南L난/R난城L정/R청永R용/L용寧L녕/R녕寺H승/H스裏R리/L리 ⇒ 南城永寧寺더레<<번박 상:74ㄱ>>  
 \* 光祿寺裏 ⇒ 光祿寺에란<<번박 상:3ㄱ>>

(6)의 언해문에서 한글로 표시된 ① ‘정원’, ‘기약’, ② ‘종던’, ‘샤텡’, ③ ‘빙털’ 등을 통하여 각각 한어 원문과 부분 일치율을 보이면 ‘期約’, 전면 일치율을 보이는 ‘情願’, ‘樓殿’, ‘鑛鐵’, 한어 원문과의 형태적 연관성을 생각하기 어려운 ‘샤텡’을 확인할 수 있다. ‘샤텡’은 『吏文』의 기술로써 ‘射廳’에 해당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중세 국어 한자음에서 ‘射[假開三去禡船(神夜切)]’는 주로 ‘R샤’를 보이고 『훈몽자회』와 『소학언해 2』에서만 ‘H샤’를 보이며, ‘廳[梗開四平青透(他丁切)]’은 ‘L텡’을 보이는데 (6)의 성조는 이런 중세 국어 한자음의 것과도 잘 일치한다.

이처럼 한자로 표시되지 않고 한글로 표시된 한자어는 그만큼 이 예들이 국어 화자, 최소한 한어 학습자에게는 익숙한 어휘였음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① ‘정원’, ② ‘종던’, ③ ‘빙털’ 등을 이은 한자어로 추정되는 ‘정원’, ‘종전’, ‘빈철’ 등은 오늘날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예들은 지금은 그 쓰임을 보기 어려운 사라져 버린 한자어의 쓰임을 보여 주는 예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 예들은 『박통사언해』에서는 모두 ‘情願’, ‘綜殿’, ‘鑛鐵’과 같이 한자로 표시되어 나타난다. 이 중 ‘종전’은 『변연노걸대』에서는 ‘樓殿’에 대응하는 것이었으나 『박통사언해』에서는 ‘綜殿’으로 바뀐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이 한자 표기로 바뀐 것을 김주필·여정(2021)에서는 한어 원어를 파악하는 데에 필수적인 한자어로서의 성격을 드러낸, 중간 언어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고, 이들은 언해문에서도 한어로 읽었을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라 보았다.

④의 경우는 한어 원문의 “永寧寺裏”를 “永寧寺더레”로 언해하여 ‘寺’와 ‘덜’이 중첩되어 사용되어 이른바 의미가 중복된 쓰임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 요즘에도 “불국사절에는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다.”<sup>10)</sup>, “매년 석굴암에 갔지만 올해는 불국사절에 와서 아이들에게 추억 사진 한 장 남겨 보았다.”<sup>11)</sup>, “근처 불국사절이 버스로 10분이면 갈 수 있어 아이들 데리고 다니기에 딱 좋을 듯하다.”<sup>12)</sup>와 같은 의미 중복 표현이 널리 쓰임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검색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시기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는 달리 같은 문헌에서 “光祿寺裏”를 “光祿寺예란”으로 번역하고 있어서 ‘寺’가 절을 나타내는 ‘스’인 경우와 관청을 나타내는 ‘시’인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한자음이 엄밀하게 구분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절과 관청의 음이 단일하게 쓰일 수도 있는데 이처럼 의미 중복 표현이 사용되는 것과 사용되지 않는 것이 구별된다면 혼란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런 표현의 사용 동기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의미 중복 표현이 시야를 넓혀서 보면 언어적인 기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④의 예는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고 하겠다.

이문 학습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문에 쓰이는 한자어를 설명하는 데에 대비되는 국어 한자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꽤 보인다. 이들은 한어의 한자어와 국어의 한자어를 비교하여 가며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들이라 하겠다.

(7) 이문 학습서에 제시된 국어 한자어

- ① 里長: 猶本國里正<<이문 2:2ㄴ>>
- ② 將鍋做飯: 鍋音過炊飯之器猶本國小釜也<<이문 2:3ㄱ>>
- ③ 令史: ……如本國錄事之類<<이문 2:5ㄴ>>
- ④ 支用: 支猶本國俗言上下也<<이문 2:15ㄱ>>
- ⑤ 茶褐: 卽本國甘察色<<이문 3:20ㄴ>>
- ※ 茶褐暗花: 감찰빛채 스민 문 혼 비단<<변노 하:22>>

10) <https://blog.daum.net/hsu2927>, 2012년 9월 21일.  
 11) <https://blog.naver.com/bassen777/222357519457>, 2021년 5월 19일.  
 12) <https://blog.naver.com/heeya042>, 2021년 9월 24일.

- ⑥ 上班: 猶本國當番也《이문 3:23ㄱ》
- ⑦ 號三箇月: 號猶本國回示之稱釋見上《이문 4:29ㄴ》
- ⑧ 教場: 猶本國射廳也《이문 4:26ㄴ》
- ⑨ 月錢: 衛官私帶軍卒 每月納脚錢而退休 猶本國丘史債也《이문 4:27ㄱ》
- ⑩ 裕襪: 卽本國所謂加文羅《吏文續集輯覽:3ㄱ》
- ⑪ 擅便: 猶國俗云主便也《이문 3:17ㄱ》
- ⑫ 號令了: 猶國俗言回示也《이문 4:25ㄱ》
- ⑬ 招伏: 卽國俗所謂伏招也《이문 2:8ㄴ》
- ⑭ 價錢: ……方言價直通謂之價錢《이문 2:9ㄴ》
- ⑮ 自來: 猶言本來也《이문 2:15ㄴ》
- ⑯ 後晌: 午後也 晌音尙上聲《이문 2:5ㄴ》

(7)을 보면 ‘猶本國X’, ‘如本國X’, ‘猶國俗云X’, ‘猶國俗言X’, ‘方言X’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여 설명의 대상이 되는 한어 한자어를 국어 한자어로써 이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응 관계를 확인하여 볼 수 있다. ① 里長(한어): 里正(국어), ② 鍋(한어): 小釜(국어), ③ 令史(한어): 錄事(국어), ④ 支(한어): 上下(국어), ⑤ 茶褐(한어): 甘察色(국어), ⑥ 上班(한어): 當番(국어), ⑦ 號(한어): 回示(국어), ⑧ 教場(한어): 射廳(국어), ⑨ 月錢(한어): 丘史債(국어), ⑫ 號令(한어): 回示(국어), ⑬ 招伏(한어): 伏招(국어), ⑭ 價錢(한어): 價直(국어), ⑮ 自來(한어): 本來(국어), ⑯ 後晌(한어): 午後(국어), ⑩ 裕襪(한어): 加文羅(국어), ⑪ 擅便(한어): 主便(국어)가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에는 ⑩ ‘加文羅’, ⑪ ‘主便’과 같이 吏讀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加文羅’는 ‘加文刺’로도 쓰이는 것으로 ‘더글라’, ‘더그레’ 정도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主便’은 ‘주변’에 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吏讀로 한어 어휘를 설명한 것도 분명히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吏文을 학습하는 사람들이 吏讀를 주로 사용하는 계층임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7)을 보면 ① ‘里正’, ② ‘小釜’, ⑨ ‘丘史債’, ⑬ ‘伏招’ 등은 오늘날에는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이다. 따라서 국어 한자어의 역사적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 이 예들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중에 ‘伏招’은 한어의 ‘招伏’과 비교할 때 구성 요소의 결합 순서가 다르다. 오늘날에는 ‘招服’이 [죄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백함]의 의미로 쓰이는 것인데, ‘服’과 ‘伏’이 통하는 말임을 고려하면 결국은 ‘招伏=招服’이 중세 국어 이후에 국어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이런 점에서 이는 국어 한자어의 대치 과정을 살피고 한자어 구성 요소의 결합 순서를 살피는 데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겠다.

이어서 『吏文』의 기술을 통하여 ‘當番’, ‘甘察色’, ‘價值’, ‘本來’, ‘午後’의 쓰임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茶褐’이 “茶褐暗花: 감찰빛체 스민 문 혼 비단《번노 하:22》”와 같이 ‘감찰빛’으로 번역문에서 나타나고 있음은 ‘甘察’이 ‘色’이나 ‘빛’과 결합하여 선행 요소로 쓰이면서 한자어와 혼종어를 만들어 냈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흔히 일본어계 한자어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은 ‘午後’가 16세기 국어에서도 국어의 한자어로서 쓰이고 있다는 증언은 굉장히 주목되는 바라 하겠다.

다음으로 다음과 같이 한자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거나, 한자 사용 양상을 통하여 한자 사용 실태를 살피는 데에 도움을 받을 만한 것들이 있다.

(8) 한어 학습서의 한자 사용 관련 정보

- ① 關河: 關音雜字作牒《이문 2:4ㄴ》

- ② 漂洶: 洶音唱大波也 又與蕩同《史文續集輯覽:2ㄱ》⇒‘蕩’ 의미  
 ③ ㄱ. 狹皮靴: 狹H던/H던皮L뻘/R피靴L휘/H휘⇒R던L피L휘(→휘)《번노 하:52ㄴ》  
 ㄴ. 狹皮: 店H던/H던裏R리/L리買R매/L매狹H던/H던皮L뻘/R피去H규/H규來L래/R래⇒덤에 R던L피 사  
 라 가져《번박 상:31ㄱ》

①에서 ‘開[威開二入狎澄(直甲切: 篇海類編)]’은 ‘牒[威開二入洽崇(士洽切)]’과 통용될 수 있는 한자임을 보여 준다. 이것은 한자음 면에서는 澄母인 ‘開’이 正齒音化된 것과 관련하여 통용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즉 어느 경우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미를 고려하면서 통용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②에서 ‘洶’은 ‘蕩’과 같은 말로 되어 있다. ‘洶’은 현대 국어 한자음에서는 ‘창’만이 보이는 것으로 이것은 “尺亮切 音唱《集韻》”에 근거를 둔 음이라 하겠다. 그런데 현대 한어에서는 ‘tǎng’이란 음도 보이는데 이 음의 근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 이곳의 정보를 가지고 생각하여 본다면 ‘蕩’과 ‘洶’이 [큰 물결]이라는 의미로 통용되는 관계에서 한자음의 변화가 생겨나 ‘洶’이 ‘蕩’과 같은 음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끝으로 ③과 관련하여 원문에 ‘狹皮’란 한자어가 사용되어 있고 언해문에는 ‘R던L피’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狹’이란 한자가 중국과 조선에서 모두 유통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韓國漢字語辭典』(1996,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에서는 國字 즉, 한국 한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 ‘狹’은 현대 한어 사전에서는 보이지 않고 『漢典』에서도 정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면 중국에서 정통적인 과정으로 만들어진 한자인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곳 『번역노걸대』와 『번역박통사』의 양상으로 보아 ‘狹’이 과연 한어에서 전혀 쓰이지 않은 것인지는 충분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바 漢兒言語와 관련하여 중국의 북방에서 ‘狹’을 만들어 썼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며 이 한자의 기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3.3. 차용어

한어 학습서에는 많은 수의 한어계 차용어가 사용되는 양상이 보인다. 이에 해당하는 양상은 다음 (9)의 자료 제시에서 볼 수 있다.

#### (9) 한어계 차용어 사용 양상

- ① 鹿角: 鹿H룡/H루角H갈/R교⇒鹿角으로 멩근 고도리《번노 하:32ㄴ》 〓 鹿H룡/H루角H갈/R교⇒H로H각《번노 하:68ㄱ》 〓 鹿角口子⇒록각 부리에《번박 상:15ㄴ》 〓 鞍子是雪白鹿角邊兒⇒기르마는 눈마티 흰 H록H각 L변H스H엿《번박 상:30ㄱ》  
 ② 湯水: 湯L탕/H탕水R쉬/L쉬⇒R탕R쇠《번노 하:39ㄱ》  
 ③ 伴當: 下H하/H하頭L뜰/R투伴R뻘/H번當L당/H당們H믄/H믄⇒L아H랫H번H당《번노 하:39ㄴ》  
 ④ 茶飯: 茶L차/R차飯H반/H반⇒H차H반《번노 하:39ㄱ》 〓 茶L차/R차飯H반/H반也R여/L여飽R밭/L반了R랏/H랏⇒H차H반H도 비브르다《번박 상:7ㄱ》 〓 茶飯: 總稱食品之謂《老朴集覽 累字解:1ㄱ》  
 ⑤ 頂子: 金L긴/H긴頂R딩/L딩子R증/H증⇒L금L딩H증《번노 하:52ㄴ》  
 ⑥ 靴: 春L춘/H춘間L견/H견穿L훤/H훤皂H얇/H좌麀R기/L기皮L뻘/R피靴L휘/H휘⇒L봄L스H시H는L거H믄L기H즈L피L휘L시H노H딕《번노 하:52ㄴ》 〓 衣L히/H이裳L양/R상帽H말/H말子R증/L즈靴L휘/H휘子R증/L증⇒옷 고의 L감H토 L휘H들H호H란《번박 상:52ㄴ》  
 白麀皮靴: 白H뿔/R버麀R기/L기皮L뻘/R피靴L휘/H휘⇒H릭L기H즈L피H휘《번노 하:52ㄴ》  
 ⑦ 錢糧: 錢L전/R전⇒R천L량, R천《번노 하:54ㄴ》 〓 錢L전/R전⇒R천L량《번박 상:45ㄱ》  
 ⑧ 水精: 水R쉬/L쉬精L정/H정⇒R슈L청《번노 하:67ㄱ-67ㄴ》  
 ⑨ 條環: 條L탕/L토탄L환/R환⇒H토L환《번노 하:69ㄴ》 \*條 H세L툇 L토탄《훈몽자회 중:11ㄴ》



- ⑩ 貨：貨H휘/H호物H몽/H무 ⇒ H황H호 <<번노 하:66ㄱ>>
- ⑪ 辮帶：茶L차/R차褸辮L뽀/R뽀帶H대/H대-H황/L이百H빙/R머條L땡/R땡 ⇒ 감차할 L련H딴 일릭 도<<번노 하:69ㄱ>>
- ⑫ 床：白H뽕/R머玉H용/H유石H씽/R시玲L링/R링龍L룡/R룡龍L룡/R룡床L쥬/R쥬 ⇒ 빅옥석으로 룡을 설피에 사긴 H쥬 있고<<번박 상:69ㄱ>>
- cf) 西壁廂有太子坐的地石床 ⇒ 셋녀기는 太子 안즈시는 H석L상 있고<<번박 상:69ㄱ>>
- ⑬ 達達回回：我R어/L오又H일/H위不H봉/H부是R쑤/H스生L승/H승達H땅/R다達H땅/R다回L회/R회回L회/R회 ⇒ 내 쯤 새다 L다L대L회L회 이니어니쑤나<<번박 상:73ㄱ>> || 生L승/H승達H땅/R다達H땅/R다回L회/R회回L회/R회 ⇒ 새 L다L대L회L회도<<번박 상:73ㄱ>>
- ⑭ 腸子：飲R린/R인酒R질L주有R일/L위別H뽕/R머腸L쥬/R쥬 ⇒ 술 머기는 각별훈 H쥬H지 잇느니라<<번박 상:55ㄱ>>
- ⑮ 田禾：澇H랑/H렸R랑L랴田L뽀/R뽀禾L회/R회 ⇒ L뽀H회 다 쑤서<<번박 상:7ㄱ-ㄴ>> || 把R바/L바田L뽀/R뽀禾L회/R회都L두/H두收L실/H수割H경/H거R랑L랴時L쑤/R스 ⇒ L뽀H회H들 다 거두면<<번박 상:53ㄴ>>
- ⑯ 護膝：護H쥬/H후膝거싱/H시上H양/H양但H뽀/H단使R쑤/L스의H당/H디 ⇒ H후H시H에 몰릿 뽀 거슬<<번박 상:47ㄴ>> || 做H주/H주-H황/H이對H뒤/H뒤護H쥬/H후膝L싱/H시 ⇒ 훈 상 H후H시 뽀로매<<번박 상:48ㄱ>>
- ⑰ 利錢：別H뽕/R머人L신/R신便H뽀/H뽀-H황/H이兩R랑/L랑要R랑/H양-H황/H이兩R랑/L랑利H리/H리錢L전/R전借H저/H저饋R기/L기 ⇒ 녀느른 사르믄 훈 량의 L니R전H훈 량식 바도려 호야 위어거늘<<번박 상:34ㄱ>> || -H황/H이分H뽀/H본利H리/H리錢L전/R전也R여/L여不H봉/H부背R큰/H큰還L환/R환 ⇒ 훈 R폰 L니R전H도 갑포믄 즐겨 아니호느다<<번박 상:34ㄴ>>
- ⑱ 斜，皮邊兒，座兒：藍L린/R란斜L썸/R셔皮L뽀/R피邊L뽀/H뽀兒L승/R승의H당/H디座H쥬/H조兒L승/R승 ⇒ L청L셔 L피L뽀H승H엿 R안H좌L시H오<<번박 상:30ㄱ>>
- ⑲ 事件：銀L인/R인絲L승/H스事H쑤/H스件R견/H견 ⇒ 은 H입L스L훈 R스H견H이H오<<번박 상:30ㄱ>>
- ⑳ 邊兒：鞞L한/H안子R중/L즈是R쑤/H스雪H황/R썸白H뽕/R머鹿H룡/H루角H갑/R교邊L뽀/H뽀兒L승/R승 ⇒ 기르마는 눈마티 흰 H록H각 L뽀H승H엿<<번박 상:30ㄱ>>
- ㉑ 鞍座兒：……金L긴/H긴絲L승/H스夾H강/R가縫H뽀/H뽀의H당/H디鞍L한/H안座H쥬/H조兒L승/R승 ⇒ ……L금L스H로 L가H뽀H회H은 R안R좌L시H오<<번박 상:28ㄱ>>
- ㉒ 軟座兒：黃L황/R황狹H뽀/H뽀皮L뽀/R피軟L원/L원座H쥬/H조兒L승/R승 ⇒ 누른 R뽀L피로 R연R좌L스애<<번박 상:28ㄱ>>
- ㉓ 裹肚：裹R귀/L고肚R뽀/H두等R등/L등裏R리/L리衣L회/H이 ⇒ L고H두R류H엿 R속H오L스H란<<번박 상:27ㄴ>>
- ㉔ 印子鋪：我R어/L오今L긴/H긴日H일/H시印L린/H인子R중/H즈鋪L푸/H푸裏R리/L리儻H당/H당錢L전/R전去H규/H규 ⇒ 내 오늘 H인H즈H푸H에 볼모 드리고 천 내라 가노라<<번박 상:19ㄴ>>
- ㉕ 打緊：也R여/L여不H봉/H부打R다/R다緊R긴/L긴 ⇒ L다H긴H티 아니호도다<<번박 상:19ㄴ>>
- ㄱ. 매우 기웃 도호면 다 긴티 아니호도다<<번박 상:19ㄴ>>
- ㄴ. 몰 고티기 도호면 아모만도 다 긴티 아니호니<<번박 상:43ㄱ>>
- ㄷ. 물을 고터 도호면 多少는 다 긴티 아니호니라<<박언 상:39ㄱ>>(1677)
- ㄹ. 더는 ㅁ장 쉬오니 므서시리오 다 긴티 아니호다<<박언 상:44ㄱ>>(1677)
- ㉖ 喇唬：音라후卽光棍之稱<<吏文續集輯覽:4ㄱ>>
- ㉗ ㄱ. 靑沙驕馬：驄부로馬<<이문 3:21ㄱ>>
- ㄴ. 紅紗馬：부루뽀<<역어 하:28ㄴ>><<동문 하:37ㄱ>>

(9)를 보면 ①과 같이 차용어를 구성 요소로 지니고 있는 혼종어인 ‘로각’과 한자어로 간주되는 ‘록각’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나 ‘탕쇠’, ‘뽀당’, ‘차반’, ‘뽀즈’, ‘회’, ‘천량’, ‘슈청’, ‘토환’, ‘뽀호’, ‘련딴’, ‘쥬’, ‘다대회회’, ‘쥬지’, ‘후시’, ‘니천’, ‘셔’, ‘비뽀스’, ‘좌스’, ‘연좌스’, ‘안좌스’, ‘스견’, ‘뽀스’, ‘고두’, ‘인즈푸’, ‘다긴’, ‘라후’ 등과 같이 당시의 한자음과는 결을 달리하는 것들이 쓰이는 것 등을 근거로 이들이 차용어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 가운데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㉔ ‘印子鋪’와 같이 원문의 우측음과 음과 성조까지 모두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의 차

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하다.

한어 원문과의 대응을 볼 때 ②의 ‘湯水’는 한어의 한자음과 비교할 때 ‘쉬’가 ‘쇠’로 나타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이것은 ‘탕쉬>탕쇠’의 변화를 국어 내에서 겪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만큼 이 말이 들어와 쓰인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⑫의 ‘床’은 한곳에서는 ‘창’으로 한곳에는 ‘상’으로 나오는 것이 대비된다. 이것은 전승 한자음과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 전자는 차용어가 쓰이고 후자는 ‘석상’과 같은 한자어의 구성 요소로 쓰인 것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것은 전자가 “龍L룡/R룡床L장/R창”을 하나의 어휘로 그대로 번역을 하지 않고 풀어서 번역을 하고, 이 과정에서 ‘床’이 단독으로 쓰이게 된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겠다.

⑮ ‘打繫’은 ‘중요하다’, ‘긴요하다’의 뜻을 지닌 한어 어휘이며, 이것의 부정 표현으로 ‘不打繫’이 쓰이는 것과 관련지어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번역문에서도 ‘다긴헝다’라는 형용사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형용사가 한어에서 유래한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형용사는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두 한어 학습서의 번역문에서만 보이는 것들이다.<sup>13)</sup>

⑳에서 ‘驄부로馬’은 『역어유해』나 『동문유해』의 ‘부루말’과 비교할 때 ‘부루’의 선대형으로 ‘부로’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이 말은 몽골어 ‘buyural/buyurul’을 차용한 것이다(『蒙語類解』에도 “紅紗馬 부루말”이 실려 있음). 현대 국어에서는 ‘부루말’이 보이며, 한자를 빌린 표기로는 “形白雜毛 謂之駮 亦謂之赭白馬 俗名謂之夫老《星湖僞說 萬物門 馬形色》”(영조대)에서와 같이 ‘夫老(馬)’가 있다. 따라서 ‘부로>부루’로의 어형 변화를 거쳐 현대어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이문 자료는 ‘부로’란 선대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예라 하겠다.

#### 4. 단위성 의존 명사의 사용 실태 관찰 자료로서의 가치

한어 학습서에는 한어 원문과의 언해문의 대응 관계를 통하여 단위성 의존 명사나 명사 가운데에 이런 용법을 보이는 것들에 관한 정보를 상당량 수집할 수 있다. 따라서 단위성 의존 명사의 사용 실태 관찰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특히 『노걸대』와 『박통사』류의 언해서는 초간본이 간행되고 난 이후에 重刊되는 등의 여러 차례 개편 작업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언해문에 적지 않은 수정이 가해지면서 단위성 의존 명사의 쓰임에도 상당한 변화상이 관찰된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 주목하여 사적인 면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국어사 연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한어 학습서의 단위성 의존 명사의 실태의 관해서는 『번역노걸대』를 대상으로 하여 조미희(2015)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고, 정광(2006), 석주연(2001)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다. 그렇다면 한어 학습서에 제시된 단위성 의존 명사의 제시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0) 한어 학습서의 단위성 의존 명사의 사용 양상<sup>14)</sup>

- ① 兩~량[兩]: 대되 一百四十 兩 銀을 바도리라《번노 하:10ㄱ》 〓 네 一百四十 兩 銀을 바도려 흐거시니《번노 하:11ㄴ》 〓 이 다섯 도흔 물게논[這五箇好馬] 내 혜요른 예순 량이오[我筭的該六十兩] 이 열 사오나온 물게논[這十箇歹馬] 내 혜요른 여든 량이라[我筭的該八十兩]《번노 하:11ㄴ

13) 이런 판단에 따른다면, 그런데 ㉠ ㄱ, ㄴ, ㄷ, ㄹ에서와 같이 국어사 말뭉치에서는 ‘다 긴티’와 같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긴티’와 같이 붙여 쓰는 쪽으로 수정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14) 이곳에서 회화서의 원어는 [ ] 안에 넣어 언해문 뒤에 제시한다.



응하는 것이 한자어계 의존 명사로 쓰일 때에는 장기나 바둑이나 쌍륙을 세는 단위로서 ‘부’로 사용되나, 고유어계 의존 명사로는 ‘불’에 대응한다는 것을 ⑩에서처럼 책을 세는 단위로 ‘불’이 쓰임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즉 선행하는 명사가 어떤 성질을 갖는 것이냐에 따라서 어울리는 의존 명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한자어어계는 그 음상이 당시의 전승 한자음과 동일한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자음이 전승음과 차이를 보이는 것에는 ④ ‘푼’이 있는데, 이것은 ‘分’이 ‘분’으로 음이 유통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즉 어휘의 역할과 지위의 차이를 음의 차이로 구분됨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자음의 분화되는 것이 어휘의 역할이나 지위와 관련됨을 잘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차용어계의 ⑪ ‘하스’는 『역어유해』의 예들을 보아 ‘갑’을 나타내는 말로 한어 ‘匣兒’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즉 “분 일백 하스[面粉一百匣]”는 ‘분 일백 갑’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다.<sup>15)</sup> 즉 분통에 담긴 것이 100개에 달함을 나타낸 표현이다. 이는 “면분 一百 갑”과 같이 『노걸대언해』에서 ‘갑’으로 대체된 것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이를 보면 ‘하스’는 『번역노걸대』를 제외하고는 그 쓰임을 보기가 어려운 진귀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출현상의 모습은 말이 최세진에 의해 사용이 되기는 하였으나 국어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한자어계 의존 명사인 ‘갑(匣)’에 그 자리를 내어 주게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 5. 나오며

결론은 논의 내용을 보완하여 추후에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

---

15) 조미희(2015: 142-143)에서는 이것을 ‘하스’로 제시하고 있다. 정광(2006)을 인용하여 “綿臙脂一百箇”를 언해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面粉一百匣”을 언해한 것이며, ‘하스’의 ‘하’는 인쇄 부분이 약간 뭉쳐 있어서 ‘하’로도 보이기도 하지만 ‘匣’의 좌측음이 ‘향’, 우측음이 ‘하’임을 고려할 때 ‘하’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식진(1999), 「최세진의 번역 활동」, 『새국어생활』 9-3(특집: 최세진의 학문과 인간), 국립국어연구원, 30-54.
- 강신항(1975), 「15世紀文獻의 現實漢字音에 對하여: 訓蒙字會音과의 比較를 通하여」, 『동양학국제학술회의 논문집』 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01-132.
- 강신항(1978), 『李朝時代의 譯學政策과 譯學者』, 탑출판사.
- 강신항(1999), 「최세진의 음운 연구」, 『새국어생활』 9-3(특집: 최세진의 학문과 인간), 국립국어연구원, 55-68.
- 권인한(2006), 「중세국어 한자음」, 『國語史와 漢字音』, 박이정, 2006, 57-94.
- 권인한(2009), 『中世韓國漢字音訓集成』(개정판), 제이앤씨.
- 김무림(1999), 「崔世珍의 漢語 研究-『翻譯老朴』과 『通解』를 중심으로-」, 『崔世珍의 生涯와 學問』(韓國語文教育研究會 제131회 학술 연구 발표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7-43.
- 김무림(2006), 「한국 한자음의 근대성(1)」,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89-132.
- 김무림(2007), 「국어 한자음의 체계적 근대성」, 『한국어학』 34, 한국어학회, 113-139.
- 김주필·여정(2021), 「『박통사』류 언해서의 언해문에 나타나는 중국어적 특징과 언어 자료의 성격」, 『반교어문연구』 58, 반교어문학회, 15-56.
- 김하라(2020), 「조선후기 지식인의 ≪譯語類解≫ 수용과 한자 어휘 인식」, 『漢字漢文教育』 48,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41-68.
- 단국대 동양학연구원(1996), 『韓國漢字語辭典』,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 박병채(1971), 『고대국어의 연구-음운편』, 고려대 출판부.
- 박재연(1995), 「조선시대 중국어 사전」, 『중국어문논총』 8, 중국어문연구회, 381-410.
- 배규리(2021), 「『經世訓民正音圖說』과 『五音集韻』의 운모체계 비교」, 『동양학』 83,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1-24.
- 徐尙揆(1995), 『『翻譯老乞大』文脈付き語彙索引』, 筑波大學.
- 석주연(2001), 「『老乞大』와 『朴通事』의 諺解에 대한 國語學的 研究」, 서울대 박사 논문.
- 안병희(1988), 「崔世珍의 吏文諸書輯覽에 대하여」, 『주시경학보』 1, 탑출판사[재수록: 안병희(2007), 「최세진의 吏文諸書輯覽」, 『崔世珍研究』(국어학 총서 6), 태학사, 109-139.]
- 안병희(1999), 「崔世珍의 生涯와 學問」, 『崔世珍의 生涯와 學問』(韓國語文教育研究會 제131회 학술 연구 발표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13.
- 양오진(2002), 「이문과 이문제서집람의 언어」, 『중국언어연구』 14, 한국중국언어학회, 193-222.
- 양오진(2014), 「『吏文輯覽』과 吏文의 언어」, 『중국학보』 70, 한국중국학회, 3-21.
- 이기문(1971), 『訓蒙字會研究』, 서울대 출판부.
- 이기문(1999), 「訓蒙字會 小考」, 『崔世珍의 生涯와 學問』(韓國語文教育研究會 제131회 학술 연구 발표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5-25.
- 이돈주(1979), 「訓蒙字會 漢字音 研究」, 전남대 박사 논문.
- 이돈주(1995), 『한자 음운학의 이해』, 탑출판사.
- 이준환(2020), 「음운론적 면에서 살펴본 중세 국어 한자어의 성격」, 『국어사 연구』 30, 국어사학회, 5-39.
- 정 광(1999), 「최세진의 생애와 업적」, 『새국어생활』 9-3(특집: 최세진의 학문과 인간), 국립국어연구원, 5-18.
- 정 광(2002), 『역학서 연구』, 제이앤씨.
- 정 광(2006), 『역주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 신구문화사.
- 정광·양오진(2010), 『노박집람역주』, 태학사.
- 조미희(2015), 「『번역노걸대』의 수량사구 구성 연구」, 『우리말연구』 42, 우리말학회, 129-166.
- 한재영(1999), 「國語表記史 속의 崔世珍」, 『崔世珍의 生涯와 學問』(韓國語文教育研究會 제131회 학술 연구 발표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5-67.
- 伊藤智ゆき(2002), 「朝鮮漢字音研究」, 東京大學 博士論文.
- 河野六郎(1968), 「朝鮮漢字音の研究」, 天理: 天理時報社.



청학서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특히 만주어와 한국어의 시상체계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박상철(서울대학교 언어학과)

## 1. 서론

본 발표문의 목적은 청학서에 대한 연구 가운데 특히 만주어와 한국어의 시상체계와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그 의의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청학서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고려 시기 통문관 설립(1276)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국내의 만주어 연구사는 고동호(2015)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크게 ‘조선조 사역원’의 만주어 연구와 ‘20세기 이후의 연구’로 분류하고, 다시 후자의 연구 대상을 ‘청학서’와 ‘청나라 간행 만주문 자료’로 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청학서 연구에 대한 고동호(2015: 116)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본 발표문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

“청학서를 대상으로 한 만주어 연구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청학서에 기록된 만주어가 모어 화자가 기록한 언어도 아니고, 간노 히로오미(2001)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두 언어의 구조적 차이 때문에 원문과 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저본이 있는 청학서도 편찬과정에서 굴절이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 간행 자료와 구별하지 않고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청학서의 성격상 『한청문감』을 제외한 청학서들은 만주어 학습서이지 만주어 연구의 1차적인 자료라고는 할 수 없다. 한국의 만주어 연구가 청학서에 집중된 것은 청학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만주어 연구 자료로서의 청학서의 본질에 대한 반성이 적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간노 히로오미(2001)은 “사역원의 bilingual text는 어느 언어이든 중요하지만, 특히 문법적인 형태가 다양한 교착어인 만주어, 몽골어, 일본어의 bilingual text는 문법적인 대응 관계를 고찰하는 데 특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고 청학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역학서의 본문과 대역의 불일치 중에서는 만주어, 몽골어와 한국어의 언어 구조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 꽤 많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하 2절에서는 선행연구에 의지하여 조선조 사역원에서 간행한 6종의 판본 청학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주요한 선행연구의 목록을 제시한다. 3절에서는 이 가운데 특히 만주어와 한국어의 시상체계와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한국의 만주어 연구사 및 특정 문헌에 국한되지 않은 청학서 연구에 대해서는 아래에 목록으로 제시된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최신 청학서 연구사는 최계영(2020)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특히 선행연구를 ‘문헌 연구’, ‘훈민정음 주음 표기’, ‘어휘’, ‘문법’으로 분류하여 종합적인 목록을 제시하고 있어서 국내 청학서 연구의 대강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한편 이기문(1973), 정광(1988, 1990) 등의 연구에서는 본고에서 다루는 6종의 사역원 판본 청학서 이외의 국내의 청학 자료를 다루고 있다.

### 주요 연구

- 간노 히로오미[菅野裕臣](2001), 「사역원 청학서의 원문과 대역의 대응 관계에 대하여」, 『알타이학보』 11, 한국알타이학회, 139-147.
- 고동호(2015), 「한국의 만주어 연구 현황과 과제」, 김주원 외, 『알타이학의 어제와 오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91-137.
- 박상규(1993), 『朝鮮時代 清學書研究(I) (알타이 言語民俗學叢書 6)』, 한국인문과학원.
- 성백인(1984), 「譯學書에 나타난 訓民正音 使用-司譯院 清學書의 만주어 한글 표기에 대하여-」, 『韓國文化』 5,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1-63.
- 성백인(1994), 「現存 司譯院 清學書와 그 研究」, 『알타이학보』 4, 한국알타이학회, 1-20.
- 송기중(2000), 「朝鮮時代 女眞學/清學」, 『알타이학보』 10, 한국알타이학회, 105-116.
- 연규동(2014), 「청학서:선조들이 만난 만주어」, 『새국어생활』 24(1), 국립국어원, 39-60.
- 이기문(1973), 「十八世紀의 滿洲語 方言 資料」, 『震檀學報』 36, 震檀學會, 99-132.
- 정광(1988), 「朝鮮朝譯科 清學初試 答案紙에 대하여」, 『于亭 朴恩用 博士 回甲紀念論叢 韓國語學과 알타이語學』, 효성여자대학교출판부.
- 정광(1990), 『朝鮮朝 譯科 試券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최계영(2020), 「청학서 연구」, 『국어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0(1), 국어사학회.
- 菅野裕臣(2005), 「朝鮮司譯院の清學書のヘングル對音の性格について」, 『韓國語學年報』 1, 神田外語大學韓國語學會, 1-5.
- 池上二良(1951), 「滿洲語の諺文文献に關する一報告」, 『東洋學報』 33(2), 東京:東洋協會調査部, 223-244.
- 池上二良(1954), 「滿洲語の諺文文献に關する一報告(承前)」, 『東洋學報』 36(4), 東京:東洋協會調査部, 475-492.
- 池上二良(1963), 「ふたたび滿洲語の諺文文献について」, 『朝鮮學報』 26, 朝鮮學會, 94-100.
- Ikegami, Jiro(1990) Significance of Korean materials in the study of Manchu, *Altai Hakpo* 2, Altaic Society of Korea, 71-77.
- Seong, Baeg-in and Dongho Ko(1992), 「Manchu Studies in Korea」, 『民國以來國史研究的回顧與展望』, 臺北:國立臺灣大學.
- Song, Ki-Joong(2001), *The Study of Foreign Language in the Chosŏn Dynasty*, Seoul: Jimundang.

## 2. 판본 청학서 6종 및 주요 연구

이 절의 내용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분야 토대기초연구지원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수행된 연구과제 ‘만주어 및 만주문학자료 총서구축’의 결과물인 데이터베이스에 제시된 해제 및 고동호(2015)와 최계영(2020)을 참고한 것으로, 사역원에서 간행된 판본 청학서 6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각 문헌별 주요 연구의 목록을 제시한다.

토대연구DB ‘만주어 및 만주문학자료 총서구축’은<sup>16)</sup> 청과 조선에서 간행된 20종(<표1>)의 만주어 문헌을 대상으로, 주요 사전 자료와 만주번역문학 관련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것으로, 로마자로 입력된 만주어 자료를 ‘기본검색’ 및 ‘브라우징 검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주어에서 전언(heresay)을 나타내는 sere를 로마자로 검색하면 <그림1>과 같이 출처가 표시된 11,673건의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16) 웹페이지 [http://ffr.krm.or.kr/base/td037/intro\\_db.html](http://ffr.krm.or.kr/base/td037/intro_db.html) (2021년 12월 27일 접속)



<표 10> 토대연구DB '만주어 및 만주문학자료 총서구축'에 포함된 자료의 목록(박상철 2017: 16)

문헌명	간행년도	분량	비고
<滿漢同文類集>	간년미상	2권 4책(2책)	漢滿 유별사전
<大清全書>	1683	14권 14책	滿漢 십이자두순 사전
<滿漢同文全書>	1690	8권 8책	滿漢 십이자두순 사전
<同文彙集>	1693序	4권 4책	漢滿 유별사전
<新刻淸書全集>	1699序	5책	漢滿 유별사전
<滿漢類書>	1700	32권 8책	滿漢 유별사전
<御製淸文鑑>	1708	首1卷 20卷 總綱 4卷	滿文 유별사전
<淸文彙書>	1724	12권 12책	滿漢 십이자두순 사전
<同文類解>	1748	2권 2책	漢韓滿 유별사전 (조선 사역원)
<御製增訂淸文鑑>	1771序	46권 48책	滿漢 유별사전
<漢淸文鑑>	1779?	15권 15책	漢韓滿 유별사전 (조선 사역원)
<金瓶梅>	1708序	40권 100회	滿文 산문 (일부 단어에 한문 병기)
<滿漢西廂記>	1710년序	4권 4책	滿漢 산문
<三國志>	1722-1735	24권 48책	滿漢 산문
<淸語老乞大>	1765	8권 8책	滿韓 산문 (조선 사역원)
<三譯總解>	1774	10권 10책	滿韓 산문 (조선 사역원)
<小兒論>	1777	1권 1책	滿韓 산문 (조선 사역원)
<八歲兒>	1777	1권 1책	滿韓 산문 (조선 사역원)
<擇翻聊齋志異>	1848	24권 24책	滿漢 산문
<御製翻譯詩經>	1768序	8권 4책	滿漢 운문

<그림 25> 토대연구 DB '만주어 및 만주문학자료 총서구축'의 기본 검색 사용 예시

토대연구DB KOREAN RESEARCH MEMORY

만주어 및 만주문학자료 총서구축

결과 조선에서 간행된 20종의 만주어 문헌을 대상으로 주요 사전 자료와 만주번역문학 관련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DB소개 DB검색

기본 검색 브라우저 검색

좌측일치 sere 검색

검색 결과 리스트 (총 11,673건)

\* 결과목록에서 용례를 클릭하여 해당 용례를 포함하는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조건 "sere" 의 검색결과입니다.

번호	제목	참조표시	표시텍스트
1	御製淸文鑑 (어제청문감)	<16:32:a>	mociko,
2	御製淸文鑑 (어제청문감)	<16:32:a>	uthai waiku sere gisun,,
3	御製淸文鑑 (어제청문감)	<17:01:a>	funde weilembi,
4	御製淸文鑑 (어제청문감)	<17:01:a>	yaya orolome weilere yabure be, funde weilembi, funde yabumbi sembi, uthai oronde sere gvin,,
5	御製淸文鑑 (어제청문감)	<17:02:a>	kucung seme,
6	御製淸文鑑 (어제청문감)	<17:02:a>	guiung sere gisun de adali,,
7	御製淸文鑑 (어제청문감)	<17:03:a>	ka,
8	御製淸文鑑 (어제청문감)	<17:03:a>	yaya babe dali sere be, ka sembi,,
9	御製淸文鑑 (어제청문감)	<16:25:b>	debkejembi,
10	御製淸文鑑 (어제청문감)	<16:25:b>	uthai subkejembi sere gisun i adali,,

1 2 3 4 5 6 7 8 9 10

## 2.1. <동문유해(同文類解)> (2권 2책, 1748년)<sup>17)</sup>

1748년 2권 2책으로 조선 사역원에서 간행된 한어(漢語)-한국어-만주어 유별(類別) 대역(對譯) 어휘집으로,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淸語 類解類 譯學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4,797개의 항목이 分類(上卷 26類, 下卷 29類)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跋에 따르면 저본은 <御製淸文鑑>, <大清全書>, <同文廣彙> 등이다. 각 권의 앞에는 각 권에 실린 部類의 목록이 실려 있다. 본문의 각 항목은 한어를 표제어로 하여 그 밑에 우리말로 뜻을 적고 圈標를 표시한 후 아래에 해당하는 만주어를 한글로 전자 표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그림 2> 좌측). 하권의 본문 뒤에는 허사의 용법을 설명한 語錄解가 실려 있다.

(이상 토대연구DB '만주어 및 만주문학자료 총서구축' <동문유해> 해제에서 발췌 인용)

### 주요 연구

- 고동호(2013), 「同文類解 만주어의 한글 표기」, 『알타이학보』 23, 한국알타이학회, 23-44.
- 곽정애(2001), 『<同文類解>의 韓國語語彙研究』,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金成慇(1993), 『<同文類解>와 <蒙語類解>의 國語語彙 比較研究』,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소(1982), 『同文類解 滿洲文語 語彙(改訂版)』, 효성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유범·김미미(2013), 「<同文類解>의 滿洲語 한글 표기 체계에 대하여」, 『民族文化研究』 5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553-597.
- 김유범·김미미(2014), 「만주어 사전 구축을 위한 <同文類解>의 활용 가능성 모색」, 『民族文化研究』 6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81-208.
- 당천항(2017), 『<동문유해(同文類解)>에 나타나는 한국어 만주어 연어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閔瑤珪(1956), 「解題」, 『八歲兒·小兒論·三譯總解·同文類解』, 延禧大學校 東方學研究所, 1-10.
- 朴恩用(1968), 「同文類解 語錄解 研究(上)-李朝時代의 滿洲語 文法書에 對하여-」, 『研究論文集』, 曉星女子大學, 185-224.
- 朴恩用(1969), 「同文類解 語錄解 研究(下)-李朝時代의 滿洲語 文法書에 對하여-」, 『研究論文集』 5, 曉星女子大學, 29-106.
- 朴恩用(1970), 「同文類解語錄解의 出典에 對하여」, 『國文學研究』 3, 曉星女子大學, 39-73.
- 朴恩用(1988), 「“同文類解와 漢淸文鑑”에 대한 論評」, 『한국학의 과제와 전망 I (제5회 국제학술회의 세계한국학대회 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26-735.
- 박찬식(2005), 『類解類譯學書에 나타난 語彙의 研究』,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成百仁(1970), 「影印本 <同文類解>에 대하여」, 『明知語文學』 4, 명지대학 국어국문학회, 95-104.
- 성백인(1984), 「譯學書에 나타난 訓民正音 使用-司譯院 淸學書의 만주어 한글 표기에 대하여-」, 『韓國文化』 5,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1-63.
- 성백인(1988), 「<同文類解>와 <漢淸文鑑>」, 『한국학의 과제와 전망 I (제5회 국제학술회의 세계한국학대회 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10-726.
- 成百仁(1994), 「現存 司譯院 淸學書와 그 研究」, 『알타이학보』 4, 한국알타이학회, 1-20.
- 연규동(1995), 「同文類解와 蒙語類解의 비교-표제어를 중심으로-」, 『언어학』 17, 한국언어학회, 183-202.
- 연규동(1996), 『近代國語語彙集研究: 類解類 譯學書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7) 2021년 12월 27일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동문유해>, <삼역총해>, <팔세아>, <소아론>, <한청문감>(필사본)의 영인본(컬러 사진)은 서울대학교 규장각(<https://kyudb.snu.ac.kr/>)의 해당 도서 '원문검색서비스'에서, 프랑스동양언어문화학교 소장 <청어노걸대>와 <한청문감>의 영인본(마이크로필름)은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의 해당 도서 '원문보기'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연구동(1999), 「同文類解와 方言類釋 對譯滿洲語의 비교」, 『言語의 歷史』, 태학사, 381-423.
- 오민석(2017a), 「《同文類解》 만주어 한글 표기의 전산 입력 방안」, 『東洋學』 69,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원, 33-50.
- 오민석(2017b), 「《동문유해》 만주어 한글 표기와 만주 문자의 대응 관계 고찰 -구별 기호가 있는 한글표기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77, 477-51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477-515.
- 오민석(2017c), 「《同文類解》 滿洲語 한글表記의 轉字的 性格에 대하여」, 『語文研究』 45(4), 한국어 문교육연구회, 113-149.
- 趙健相(1968), 「同文類解의 國語史的 研究(1)」, 『忠北大論文集』 2, 충북대학교, 11-24.
- 趙健相(1971), 「同文類解의 國語史的 研究(2)」, 『忠北大論文集』 5, 충북대학교, 11-22.
- 洪允杓(1995), 「同文類解解題」, 『同文類解』, 弘文閣, 1-5.
- 竹越孝(2008a), 「翻字翻譯《同文類解·語錄解》(上)」, 『KOTONOHA』 71, 愛知縣立大學古代文字資料館, 10-14.
- 竹越孝(2008b), 「翻字翻譯《同文類解·語錄解》(中)」, 『KOTONOHA』 72, 愛知縣立大學古代文字資料館, 5-10.
- 竹越孝(2008c), 「翻字翻譯《同文類解·語錄解》(下)」, 『KOTONOHA』 73, 愛知縣立大學古代文字資料館, 4-9.

<그림 26> (좌)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同文類解>(청구기호 奎1822-v.1-2)와 (우) 프랑스동양언어문 화학교 소장 <漢淸文鑑>(국립중앙도서관 마이크로필름 청구기호 M古3-2002-122)



## 2.2. <한청문감(漢淸文鑑)> (15권 15책, 1779년?)

청나라에서 간행된 <御製增訂淸文鑑>(1771序)을 저본으로 하여 1779년경에 조선에서 편찬된 部·類別 분류 만주어 사전 겸 한어 사전이다. 漢韓滿 분류사전으로 13,668개의 항목이 部·類別로 배열되어 있으며, 正編(권1~14, 36부 292류)과 補編(권15, 23류)으로 구성되어 있다. 序, 跋, 刊記는 붙어 있지 않고 권1의 앞에 범례와 목록이 붙어 있다.

<한청문감>의 각 항목은 한어 표제어 밑에 한국어 대역과 만주어 대역을 제시한 다음, 저본인 <어제증정청문감>의 만주문 주석을 간추려 한국어로 전자한 만주어 풀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그림 2> 우측). 또한 한어 표제어의 밑과 만주어 대역의 우측에는 한글로 발음을 달아 놓았다. <어제증정청문감>을 <한청문감>으로 개편하면서, 補編에서 흔히 쓰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 3개의 類를 줄였고, 전체적으로 <어제증정청문감>의 항목 5,014개를 삭제하였다.

(이상 토대연구DB '만주어 및 만주문학자료 총서구축' <한청문감> 해제에서 발췌 인용)

### 주요 연구

고경재·남향림·문현수(2020), 「만주어 방언어의 의미 확장 연구 - 『어제증정청문감(御製增訂淸文鑑)』의 만주어 뜻풀이를 중심으로 -」, 『인문학연구』,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53-94.

고동호(2000), 「漢淸文鑑 ‘一云’ 만주어 語句의 통시 음운론적 특징」, 『알타이학보』 10, 한국알타이학회, 57-79.

高東昊(2014), 「한청문감의 구성에 대한 분석적 고찰」, 『朝鮮學報』 231, 朝鮮學會, 1-24.

곽충구(2017), 「동북방언에 잔존한 만주통구어와 몽골어 차용어」, 『국어학』 84, 국어학회, 3-32.

김명주(2016), 「『한청문감』에 나타난 一 표기와 그 변화 양상」, 『한글』, 한글학회, 45-77.

김영일(2001a), 「『한청문감(漢淸文鑑)』 속의 우리말 표기 문제」, 『한국학논집』 2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87-112.

김영일(2001b), 「한청문감(漢淸文鑑) 속의 우리말 난해어(구) 연구」, 『어문학』 73, 한국어문학회, 21-45.

閔泳珪(1956), 「解題」, 『韓漢淸文鑑』, 延禧大學校 東方學研究所, 1-13.

朴恩用(1971), 「初刊 漢淸文鑑에 對하여」, 『曉星女子大學 研究論文集』 8·9, 曉星女子大學, 145-156.

朴恩用(1988), 「『同文類解와 漢淸文鑑』에 대한 論評」, 『한국학의 과제와 전망 I(제5회 국제학술회의 세계한국학대회 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26-735.

朴恩用(1989), 「韓漢淸文鑑 語彙索引 滿韓篇」, 『韓國傳統文化研究』 5,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93-432.

朴恩用(1990), 「韓漢淸文鑑 語彙索引 滿韓篇」, 『韓國傳統文化研究』 6,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25-275.

朴昌海·劉昌惇(1960), 『韓漢淸文鑑索引』, 延世大學校出版部.

성백인 외(1998), 『韓國語索引』, 『漢淸文鑑』 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弘文閣.

성백인 외(1998), 『漢語·淸語索引』, 『漢淸文鑑』 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弘文閣.

成百仁(1983), 「『漢淸文鑑』에 대하여」, 『金哲俊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知識産業社, 867-887.

成百仁(1988), 「『同文類解』와 『漢淸文鑑』」, 『한국학의 과제와 전망 I(제5회 국제학술회의 세계한국학대회 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10-726.

成百仁(1998), 「『漢淸文鑑』 解題」, 『漢淸文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弘文閣, 1-17.

성백인(2000), 「『한청문감』」, 『정조대의 한글 문헌』, 문헌과 해석사, 243-267.

愼鏞權(1995), 「『漢淸文鑑』의 漢語音 表記에 대하여」, 『언어연구』 10·11·12, 언어연구회, 57-

80.

- 安相炳(1997), 『『漢清文鑑』의 國語에 對한 表記法·音韻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延圭東(1994), 「滿洲語의 計量言語學的 研究—漢清文鑑을 中心으로」, 『알타이학보』 4, 한국알타이학회, 67-96.
- 吳慇錫(2020), 「『한청문감(漢清文鑑)』의 이본(異本)과 關聯(關聯)된 몇 문제(問題) - 목판본(木版本)을 중심으로-」, 『口訣研究』, 구결학회, 233-269.
- 劉昌惇(1957), 「漢清文鑑 語彙考—文獻語와의 對比—」, 『國語國文學』 17, 국어국문학회, 3-14.
- 李得春(1999), 「『漢清文鑑』凡例考察」, 『한글』 245, 한글학회, 21-48.
- 李得春(2001), 「『漢清文鑑』에 對하여」, 『朝鮮語歷史言語學研究』, 도서출판 역락.
- 이효윤·최혜빈·여채려(2021) 「<청문감류>의 ‘질병’ 관련 어휘 부류의 연구」, 『民族文化研究』 9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31-171.
- 정운자(2016), 「장서각 소장 『한청문감』의 필사 방식과 국어학적 특징 고찰」, 『東洋古典研究』, 동양고전학회, 413-433.
- 최계영(2015), 「『漢清文鑑』의 滿文 註釋의 變개 양상」, 『언어학』 73,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81-110.
- 최계영(2016), 『『漢清文鑑』의 사전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崔鶴根(1969), 「影印本 『韓漢清文鑑』에 對하여」, 『文湖』 5, 건국대학교, 53-64.
- 최혜빈·이효윤(2020), 「<청문감>의 포백류(布帛類) 어휘 체계 연구」, 『인문학연구』,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95-138.
- 최희수(2021), 「『漢清文鑑』의 중국어 치음 표기법」, 『한국어사 연구』 7, 국어사연구회, 331-346.
- 추이짜이위[崔宰宇] 편저(1993), 『漢清文鑑 分類辭典』, 도서출판 리을.
- 추이짜이위[崔宰宇](1990), 「『漢清文鑑』의 文獻的 價値에 對하여」, 『어문연구』 18(3)(통권67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28-338.
- 황선봉(1993), 『韓漢清文鑑語彙研究』, 효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黃俊泰(1985), 『漢清文鑑의 漢語 한글 轉寫에 對한 音韻論的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今西春秋(1958), 「漢清文鑑解說」, 『朝鮮學報』 12, 朝鮮學會, 21-58.
- 崔宰宇(1997a), 「『漢清文鑑』簡論」, 『民族語文』 第5期, 中國社會科學院民族研究所, 66-75.
- 崔宰宇(1997b), 「『漢清文鑑』의 編排體例和 語音轉寫」, 『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期, 中央民族大學, 85-92.
- 崔宰宇(2003), 「『漢清文鑑』與『御製增訂清文鑑』의 比較」, 『民族語文』 第2期, 中國社會科學院民族研究所, 65-69.
- 崔宰宇(2005), 『漢清文鑑簡編』, 民族出版社.

### 2.3. <청어노걸대(淸語老乞大)> (8권 8책, 1765년)

1765년(영조 41)에 金振夏가 감수하고 箕營(=평양 감영)에서 간행하여 만주어 역관을 양성하기 위해 사용했던 책이다. 이 책의 내용은 물물을 매매하기 위하여 한양(=王京)을 떠난 조선의 상인이 베이징(=皇城)에서 200여리 떨어진 곳에서 요동성 출신의 왕씨 성을 가진 중국인 상인을 만나서 함께 베이징까지 이동하고, 베이징 및 그 주위에서 지내거나 물물을 매매하면서 주고받는 대화이다.

이 책은 각 행마다 왼쪽에 만주문을 적고 오른쪽에 그 음을 한글로 옮겨 적었으며, 문장이 나 구절이 끝나면 아래에 두 행의 우리말로 뜻을 풀이해 놓았다(<그림 3> 좌측). 만주문에는

간혹 권점이 누락된 것이 있으며 특이한 어형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기본적으로 구어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만주어 역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상 토대연구DB '만주어 및 만주문학자료 총서구축' <청어노걸대> 해제에서 발췌 인용)

### 주요 연구

- 권일우(2018), 「『清語老乞大』와 『蒙語老乞大』의 구문비교: 어법에 어긋난 『捷解蒙語』의 구문을 중심으로」, 『알타이학보』 28, 한국알타이학회, 161-188.
- 金東昭(1972), 「清語老乞大의 滿州文語 形態音素 記述(一)」, 『語文學』 27, 韓國語文學會, 41-57.
- 金東昭(1974), 「清語老乞大의 滿州文語 形態音素 記述(二)」, 『語文學』 29, 韓國語文學會, 29-52.
- 김정수(1973), 『청어 노걸대의 한글 전사법과 그 혼란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현수(2013), 「한국어 부정사 “못”에 대응하는 만주어 부정표현에 관하여」, 『民族文化研究』 5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579-604.
- 閔泳珪(1964a), 「引言」, 『人文科學』 11, 延世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13-114.
- 閔泳珪(1964b), 「老乞大辯疑」, 『人文科學』 12, 延世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201-208.
- 성백인(1984), 「譯學書에 나타난 訓民正音 使用」, 『韓國文化』 5, 서울대 韓國文化研究所, 21-63.
- 성백인(1994a), 「청어노걸대(清語老乞大)」,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1-202.
- 成百仁(1994b), 「現存 司譯院 清學書와 그 研究」, 『알타이학보』 4, 한국알타이학회, 1-20.
- 오민석(2013a), 「清語老乞大新釋 諸異本 간의 판본 비교 연구-선본 확정을 위한 기초 작업-」, 『국어사연구』 17, 국어사학회, 301-336.
- 오민석(2013b), 『18세기 국어의 시제체계에 관한 쟁점 연구 : 『清語老乞大新釋』에 나타난 한국어와 만주어의 대역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광(1998), 『清語老乞大新釋』, 태학사.
- 鄭光(2002), 「清語老乞大新釋과 清學四書」, 『譯學書 研究』, J&C, 595-638.
- 주수현·Otgontuul(2018), 「몽골어, 만주어의 의문첨사 비교 -몽어노걸대, 청어노걸대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70, 이중언어학회, 277-308.
- 최동권 외(2012), 『(譯註)清語老乞大新釋』, 박문사.
- 崔東權(1986), 「清語老乞大研究」, 『首善論集』 11,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學生會, 29-48.
- 황국정(2012), 「『清學四書』에 실현된 만주어의 시상법 연구(1) - 특이한 "-ha", "-habi" 구문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22,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423-440.
- Otgontuul, T.(2003), 『한국어와 만주어 격어미 비교 연구: 清語老乞大를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小倉進平(1964), 『增訂補註 朝鮮語學史(河野六郎 補註)』, 東京: 刀江書院.
- 津曲敏郎(1977), 「清語老乞大の研究-滿州語研究のための一資料-(1)」, 『論集』 21(人文篇), 札幌商科大學, 211-248.
- 津曲敏郎(1978), 「清語老乞大の研究-滿州語研究のための一資料-(2)」, 『論集』 22(人文篇), 札幌商科大學, 161-193.
- 季永海, 2007, 「清語老乞大 研究」, 『滿語研究』 45, 黑龍江省滿語研究會, 33-37.
- Baek, Eung-jin (2011), *A Colloquial Manchu Grammar*, Chuncheon: Hallym University Press.
- Ko, Dongho (2012), Aspects of writing Manchu in Hangeul in Joseon dynasty, *SCRIPTA* 4, 69-92, The Hunmin Jeongeum Society.

<그림 27> (좌) 프랑스동양언어문화학교 소장 <淸語老乞大>(국립중앙도서관 마이크로필름 청구기호 M古4-1-98)와 (우)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三譯總解>(청구기호 奎1529-v.1-10)



2.4. <삼역총해(三譯總解)> (10권 10책, 1774년)

1774년(영조 50)에 金振夏와 高師彦이 감수하고 사역원에서 간행하여 만주어 역관을 양성하기 위해 사용했던 만주어 학습서용 독본이다. 행별로 상단 좌우측에 각각 만주 문자와 그 한글 전사를 제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언해를 하단에 제시한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 우측). <삼역총해>는 키충거(祁充格 Kicungge)가 칙령을 받아서 한문본 <三國志演義>를 만주어로 번역한 <llan gurun i bithe> (24권 24책, 1650년[순치(順治) 7] 각본)의 일부를 발췌하여 만주문과 그 언해문을 나란히 제시한 책이다. 언해문은 부분적으로 한문본 <삼국지연의>를 참조하기도 하였다.

(이상 토대연구DB '만주어 및 만주문학자료 총서구축' <삼역총해> 해제에서 발췌 인용)

주요 연구

기시다 후미타카[岸田文隆], 『『三譯總解』底本考』, 『알타이학보』 2, 한국알타이학회, 87-103.  
 閔泳珪(1956), 『解題: 八歲兒·小兒論·三譯總解·同文類解』, 『影印本 八歲兒·小兒論·三譯總解·同文類解』, 延禧大學校 東方學研究所, 1-10.  
 박상규(2006), 『朝鮮時代 淸學書 三譯總解의 音譯과 語學的인 側面 考』, 『아시아문화연구』 10,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33-247.  
 박상규(2007), 『朝鮮時代의 淸學書에 대한 新研究-특히 八歲兒·三譯總解를 중심으로』, 역락.  
 박상철(2018), 『근대국어 과거 시제 '-었-'의 담화 내의 기능 - 청학서 『삼역총해』의 대역을 중심으로』

- ], 『언어학』 81,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243-264.
- 성백인(1996), 「삼역총해(三譯總解)」,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60-361.
- 송강호(2012), 「『삼역총해』의 한글 번역과 판본학적 고찰-‘사름을 인정하미 되느냐’ 어구를 중심으로」, 『奎章閣』 40, 서울대학교 奎章閣韓國研究院, 83-102.
- 원순옥(2011), 「『삼역총해』의 어휘 연구」, 『우리말글』 51, 우리말글학회, 73-94.
- 손재은(1977), 「三譯總解 語彙 索引(1·2권)」, 『어문논총』 11,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99-210.
- 조규태(1984), 「三譯總解 滿洲語 文語 研究(I)」, 『牧泉 俞昌均 博士 還甲紀念論文集』, 啓明대학교 출판부, 696-742.
- 최동권·강성춘·T. Otgontuul(2008), 『만문 삼국지: 三譯總解』, 한국학술정보.
- 洪允杓(1995), 「三譯總解 解題」, 『八歲兒 小兒論 三譯總解(三種合本)』, 弘文閣, 1-7.
- 岸田文隆(1997), 『三譯總解の滿文にあらわれた特殊語形の來源』, 東京: 東京外國語大學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 2.5. <소아론(小兒論)> (1권 1책, 1777년)

1777년(정조 1)에 金振夏가 감수하고 사역원에서 간행하여 만주어 역관을 양성하기 위해 사용했던 만주어 학습서이다. 부자(fudzy, 夫子)가 한나라 때 국가를 다스리며 각 성을 다니다가 장강성에서 만난 세 살배기 어린이에게 질문하고 그 아이가 대답하는 내용, 반대로 어린이가 질문하고 夫子가 대답하는 내용, 夫子的 대답의 문제점을 어린이가 지적하는 내용이다.

(이상 토대연구DB ‘만주어 및 만주문학자료 총서구축’ <소아론> 해제에서 발췌 인용)

### 주요 연구

- 문영준(2014), 『청학서 소아론의 출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閔泳珪(1956), 「解題: 八歲兒·小兒論·三譯總解·同文類解」, 『影印本 八歲兒·小兒論·三譯總解·同文類解』, 延禧대학교 東方學研究所, 1-10.
- 閔泳珪(1964), 「滿洲字 小兒論과 敦煌의 項託變文」, 『李相佰博士 回甲紀念論叢』, 乙酉文化社, 321-332.
- 박상규(2007), 『朝鮮時代の 淸學書에 대한 新研究-특히 八歲兒·三譯總解를 중심으로』, 역락.
- 성백인(1994), 「소아론(小兒論)」,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46.
- 成百仁(1994), 「現存 司譯院 淸學書와 그 研究」, 『알타이학보』 4, 한국알타이학회, 1-20.
- 연규동(2000), 「『八歲兒』와 『小兒論』」, 『정조대의 한글 문헌』, 문헌과해석사, 268-277.
- 鄭光(2002), 『譯學書 研究』, J&C.
- 조규태(1982), 「小兒論 滿洲語 文語 研究」, 『國文學研究』 6, 曉星女子대학교 國語國文學科, 63-84.
- 洪允杓(1995), 「小兒論 解題」, 『八歲兒 小兒論 三譯總解 (三種合本)』, 弘文閣, 1-5.

## 2.6. <팔세아(八歲兒)> (1권 1책, 1777년)

1777년(정조 1)에 金振夏가 감수하고 사역원에서 간행하여 만주어 역관을 양성하기 위해 사용했던 만주어 학습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날 한나라 황제가 글을 만들고 천하의 선비들 가운데 재능있는 사람에게 좋은 이름을 주겠다고 하니, 가난했던 ‘리무(Limu)’의 8세 된 아들이 장강성에 가서 5천이나 되는 선비들 뒤에 서 있었다. 황제가 이 아이를 불러 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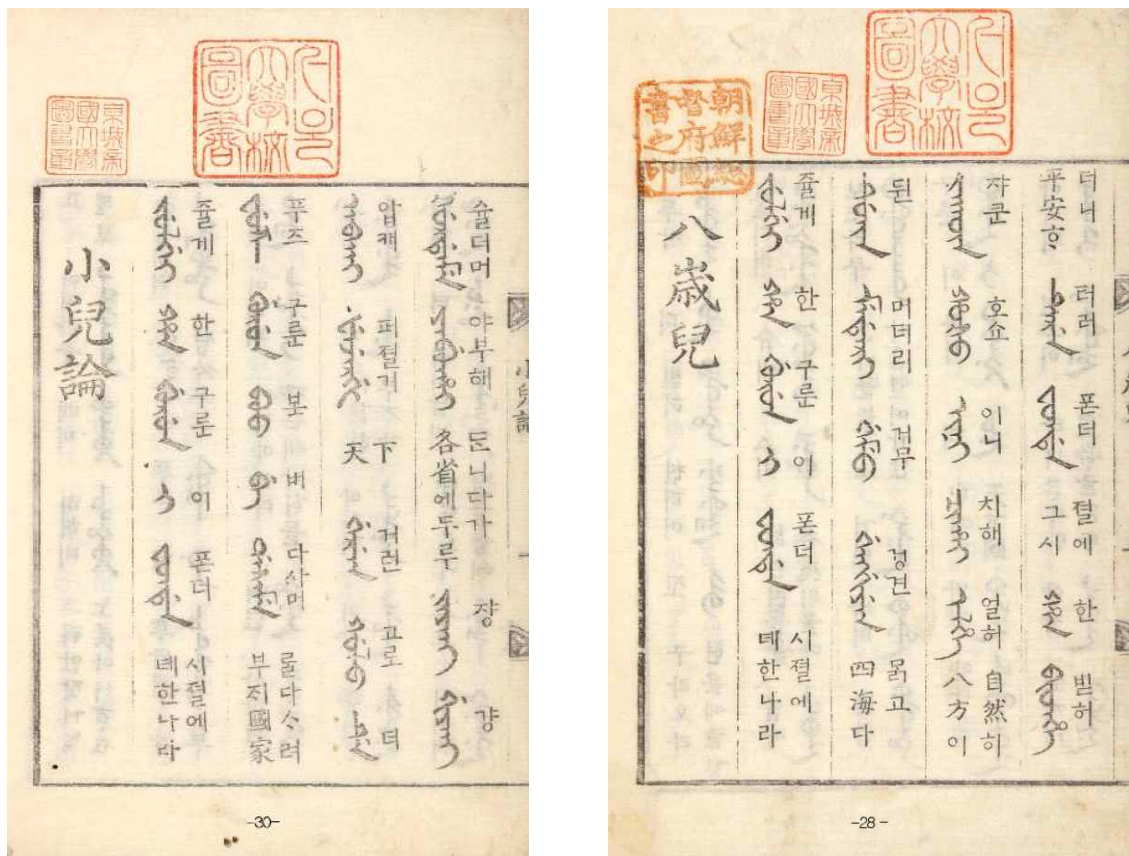
가지 질문을 했는데, 아이가 재치있는 대답을 하였다. 모여 있던 선비 가운데 더 재주 있는 자가 없어 이 아이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니, 나라가 태평해졌다.

(이상 토대연구DB '만주어 및 만주문학자료 총서구축' <팔세아> 해제에서 발췌 인용)

주요 연구

- 고려대학교 국문학회(1956), 「附錄 影印本 八歲兒」, 『국문학』 1, 고려대학교 국문학회 출판부, 1-24.
- 김광수·박은연(2021), 「18세기 문헌<팔세아>에서의 만주어와 조선어의 비교연구」, 『중국조선어문』 231, 길림성민족사무원위원회, 6-16.
- 김민수(1956), 「팔세아(八歲兒) 해제」, 『한글』 118, 한글학회, 44-47.
- 閔泳珪(1956), 「解題: 八歲兒·小兒論·三譯總解·同文類解」, 『影印本 八歲兒·小兒論·三譯總解·同文類解』, 延禧大學校 東方學研究所, 1-10.
- 박상규(2007), 『朝鮮時代의 淸學書에 대한 新研究-특히 八歲兒·三譯總解를 중심으로』, 역락.
- 성백인(1994), 「팔세아(八歲兒)」,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79-380.
- 연규동(2000), 「『八歲兒』와 『小兒論』」, 『정조대의 한글 문헌』, 문헌과해석사, 268-277.
- 鄭光(2002), 『譯學書 研究』, J&C.
- 조규태(1981), 「八歲兒 滿洲語 文語 研究」, 『국어교육연구』 13,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회, 27-53.
- 洪允杓(1995), 「八歲兒 解題」, 『八歲兒 小兒論 三譯總解 (三種合本)』, 1-5, 弘文閣.

<그림 28> (좌)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소아론>(청구기호 奎3234)과 (우) <팔세아>(청구기호 奎1471)



### 3. 만주어를 이용한 국어학 연구

청학서 연구사를 종합한 최계영(2020)은 선행연구를 ‘문헌 연구’, ‘훈민정음 주음 표기’, ‘어휘’, ‘문법’으로 분류하여 종합적인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국어학 연구에 크고 작은 기여를 한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인해, 이들 연구를 모두 다루지 않고 주로 만주어와 한국어의 시상체계를 분석한 몇몇 연구에 한정하여 그 의의와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러한 비교 및 대조 연구에서는 특히 만주어의 철저한 기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1절에서 인용한 간노 히로오미(2001), 고동호(2015), 최계영(2020) 등의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지적하였듯이, 청학서를 대상으로 한 만주어 연구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학서의 만주어를 국어사 연구의 자료로 사용할 때에는 매우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청학서의 만주어가 정확한 직관을 반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나라에서 작성된 만주어 문어를 우선적으로 연구하여 그것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만주어 문법은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학서 이외의 청나라 간행 만주어 자료 연구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4절에서 살필 최근의 연구 동향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의 최신 만주어 연구는 다행히도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연구들은 만주어의 시상체계(tense and aspect system)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한국어 대역과 비교하고 있다. 모두 국어학적 연구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훌륭한 연구이지만, 이하에서는 아쉬운 점을 위주로 기술하고자 한다.

#### 3.1. Baek, Eung-jin (2011), *A Colloquial Manchu Grammar*, Chuncheon: Hallym University Press.

이 연구는 제목 그대로 만주어 구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청어노걸대>(1765)를 자료로 분석한 문법서이지만, 이 문헌에 반영된 만주어가 <만문노당> 등의 문어 자료와 문법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만주어 문법서로 분류할 수 있지만, 한국어 대역을 이용하여 만주어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국어학 연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Baek (2011)에서는 만주어의 현재 시제(present tense)를 가리키는 형태소로 -mbi와 -ra/re/ro(이하 -rA로 표기)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1) Baek (2011: 344-345)에 제시된 만주어 현재 시제 예문

a. bi nikan i gisun be majige bahanambi (1-2)

내 漢말을 적어 아노라

‘I know the Chinese language a little.’

b. meni gucu be okdome genere (4-25)

우리 벗을 마즈라 가노라

‘I am going to meet my companion.’

(1a)와 (1b)의 만주어 종결어미 -mbi와 -rA는 언해문에서 ‘-노라’에 대응하므로 일견 -rA를 ‘현재 시제’로 분류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b)와 같이 -rA를 종결어미로

가지는 평서문의 경우는 <청어노걸대>에서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Baek (2011: 345)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Traditional Manchu grammarians usually describe the imperfective verb noun '-ra/re/ro' as a present tense marker. However, it is mysterious that '-ra/re/ro' occurs as a present tense marker only twice in the text of the *Chengeonogeoldae*.”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청어노걸대>에서 -rA 종결어미는 대체로 약속문으로 대역되었다.

<표 11> <청어노걸대>에 나타나는 -rA 종결형의 대역(박상철 2017: 166)

-rA (27례)	ume ... -rA (38례)	의문사 ... -rA (6례)	sere (3례)
약속문	금지문	수사의문문	전언(hearsay)
-마(22); -니; -노라; -르 거시니; -고	말라; 말고	-리오; -가	허더라

다른 형태 없이 -rA 종결형만 나타나는 경우, 27례 가운데 22례가 한국어의 약속문을 이루는 어미인 ‘-마’로 대역된 것을 볼 수 있다. (2)에서 예외로 보이는 다른 대역들도 모두 ‘-마’를 가지는 약속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청어노걸대>에 나타난 -rA 종결형의 대역(박상철 2017: 166-167)

- a. bi booha udame genere (2:3b) 내 반찬 사라 가마
- b. suwende ilan moro hiyase be bure (4:4a) 너희게서 되를 주니 (너희 적다 말고 아직 훈 재 粥 쑤어 부르도록 먹으라)
- c. uttu oci meni gucu be okdome genere (4:25a) 이러하면 우리 벗을 마즈라 가노라
- d. bi tondo hūda be sinde alara (5:17b) 내 고든 갑슬 네게 알일 거시니 (너희 돌히 내 말을 조차 흥정흠이 엇더호뇨)
- e. beyei ulin be hairandarakū tede jalgiyame bufi baitalabure (7:17a) 이녁 貨物을 앗기지 아니하고 저의게 더러 주어 쓰게 호고 (벗들이 만일 訟詞호는 일 잇거든 뜻을 극진이 호여 말려 그치게 호고)

(2a)는 일반적인 대역인 ‘-마’로 나타난다. 일견 예외로 보이는 (2b-e)의 예들 또한 모두 ‘-마’로 대역한다고 해도 의미상 문제가 없는데, 문맥에 따라 만주어에는 없는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접속문을 만들거나(2b, d, e), 약속문이 아닌 평서문으로 표현하였다(2c). 따라서 <청어노걸대>의 종결어미 -rA는 현재 시제로 분류하기보다는 약속문 어미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 만주어 문어를 반영하는 자료인 <滿文老檔>의 시상체계를 검토한 박상철의 일련의 연구(2016, 2017, 2019)에서는 이러한 -rA가 종결어미로 사용될 때 시제가 아닌 양태(modality)의 문법 범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는, -rA가 종결어미로 사용될 때 반드시 1인칭 주어를 가지며, ‘약속’을 의미한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포와 의미의 제약은 박상철(2016)에서 최초로 보고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박상철(2017)에서는 만주어 문어의 종결형 시상체계에서 -rA를 배제하고, 이를 양태의 문법 범주에 포함시켰다.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발견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박상철(2019: 72)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검토한 3종의 만주어 문법서 가운데 河內良弘·清瀨義三郎則府(2002)만이 불완전하게나마 -ra의 주어 제약을 언급하였고, 나머지 2종의 문법서들에서는 -ra의 주어 제약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문법 기술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 문법서가 다루는 자료의 시간적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河內良弘·清瀨義三郎則府(2002)은 주로 17~18세기의 만주어 문어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다른 문법서들은 여기에 더해 19세기 이후의 만주어 문어 자료와 시버어 자료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통시적으로 점차 사용이 줄어든 -ra의 분포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 만주어 문법 기술의 불일치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Baek (2011)의 예는 청학서에 병기된 만주어와 한국어와 같이 두 언어를 비교 또는 대조할 때, 기준이 되는 언어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Baek (2011)에서 박상철(2016, 2017, 2019)에서 기술한 -rA의 분포와 의미 제약을 알고 있었다면 만주어 genere에 대한 ‘가노라’ 대역을 -rA의 ‘현재 시제’ 용법의 예시로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하의 예에서도 드러나겠지만, 만주어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서구 언어들과는 달리, 그 연구사가 짧지 않음에도 문법적으로 불충분하게 기술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선행연구라고 할지라도 항상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판적 검토 이후에, 비로소 만주어를 이용한 한국어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상철(2016), 「만주어 종결어미 -re와 -mbi의 분포와 의미: <滿文老檔>을 중심으로」, 『언어학』 75,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43-68.
- 박상철(2017), 『만주어 문어의 시제와 양상 연구 - <滿文老檔>의 용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상철(2019), 「만주어 문어의 문법 변화: 종결어미 -ra의 분포와 의미를 중심으로」, 『알타이학보』 29, 한국알타이학회, 49-74.
- 河內良弘·清瀨義三郎則府(2002), 『滿洲語文語入門』,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 3.2. 황국정(2012), 『『淸學四書』에 실현된 만주어의 시상법 연구(1) - 특이한 "-ha", "-habi" 구문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22,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423-440.

이 논문은 “청학사서에서 실현된 만주어의 시상법에서 미래의 일어나지 않은 미연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화자가 과거 상황만큼이나 기정적이거나 확정적인 사실로 파악할 경우는 과거의 ‘-ha’나 ‘-habi’가 시제가 아닌 미래완료, 현재완료의 상의 기능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고찰” 하였다.

황국정(2012)에 제시된 예문이 과연 ‘특이한’ -ha (이하 -HA)와 -habi(이하 -HABi)의 쓰임 인지를 살피기에 앞서, 박상철(2017)에서 제시된 초기 만주어 문어의 시제(tense)와 양상(aspect) 대립을 검토하겠다.

<표 12> 만주어 문어의 시제와 양상 대립(박상철 2017: 147)

a. 비종결형

과거(past)	비과거(non-past)
-HA	-rA

b. 종결형

	과거	비과거(현재)
완망상(perfective)	-HA	-mbi
비완망상(imperfective)	-mbihe	
완료(perfect)	-HA bihe	-HAbi

박상철(2017)에 따르면, 만주어 문어의 시상 체계는 비종결형과 종결형을 구별하여 살피는 것이 효과적이다. 비종결형에서 (상대적) 과거 시제 -HA와 (상대적) 비과거 시제 -rA가 정연하게 대립하며, 종결형에서는 -HA의 유무에 따라 과거와 비과거가 대립한다. 어떤 언어가 시제 언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과거 상황과 비과거 상황이 필수적으로 구분되어 표시되는지 여부인데, 만주어는 -HA 형태가 사용되는 경우 대부분 과거 상황을 가리키며, 과거 상황을 가리키기 위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도 -HA이기 때문에, 과거/비과거의 구분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황국정(2012)에서 특이한 -HA와 -HAbi의 쓰임으로 본 것은, 대개 다른 노걸대류 판본의 영향에 의한 것이거나, 만주어와 한국어의 구조적인 차이로 인한 의역에 의한 것이지, 그 자체만으로는 -HA나 -HAbi의 본질적인 의미로 볼 수 없는 것들이다.

(3) <청어노걸대>에 나타난 baha에 대한 ‘어들러라’ 대역

- a. wang ging de gamame uncaha de majige aisi be baha <청어노걸대 1:18a>  
王京에 가져 가 풀면 적이 利息을 어들러라
- b. jai bodoci aisi be ambula baha <청어노걸대 1:20b>  
다시 해니 利息을 크게 어들러라

(3)의 예에 대해서 황국정(2012: 429)는 “언해의 ‘어들러라’는 ‘얻-으리-러-라’로 분석될 수 있는 구조로 미래 시제의 ‘-으리’가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응되고 있는 만주어는 ‘baha’로 과거의 ‘-ha’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라고 기술하면서, 일부 -HA는 문맥상 ‘완료’로 기술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오민석(2013: 86)에서는 이를 ‘노걸대류 이본의 영향’으로 보았다. 즉, <청어노걸대>에 2차례 등장하는 baha ‘얻었다’에 대한 ‘어들러라’ 대역은 만주어와 관련이 없는 <老乞大新釋諺解>(1763)의 대역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만주어 baha의 직접 대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 예에서 만주어의 wakalambi와 wakalaha가 모두 언해문의 ‘그릇 너기느니’로 대역된 것에 대해, 황국정(2012: 429-430)에서는 “-mbi와 ‘-ha’의 기능이 기능면에서 서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님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표 3>에서 -HA와 -mbi를 과거와 비과거로 분류한 것과 어긋나는 사실이다.

(4) 황국정(2012: 430)에서 제시한 예

- a. wang yun hendume jiyangjiyūn ai turgunde mini sakda niyalma be wakalambi  
王允이 니로되 장군이 므슴 일로 나 늙은 사름을 그릇 너기느니 <삼역총해 1:01b>
- b. taisy ai turgunde fung siyan be wakalaha  
太師 | 므슴 일로 奉先을 그릇 너기느니 <삼역총해 1:10b>

그런데, 초기 만주어 문법을 반영하는 <만문노당> 태조편에서 wakalambi와 wakalaha는 각각 4회와 22회 나타나는데, 이들은 정연하게 비과거와 과거 사실을 구별한다.

(5) <만문노당>에 나타나는 wakalamabi와 wakalaha (김주원 외 2019에서 발췌 인용)

a. han be geli ambula wakalambi seme geleme, <만문노당 태조 14:21b>

‘한(汗)은 또 크게 책망할 것이다’라고 하며 두려워하여

b. simbe inu abka wakalambi dere, <만문노당 태조 28:14b>

당신을 또한 하늘이 책망할 것입니다.

c. abka inu wakalambi, ama inu ibiyambi, <만문노당 태조 58:21b>

하늘도 책망할 것이며, 아버지도 싫어할 것이다.

d. tuttu dain deribuhe hūlun be abka wakalaha, <만문노당 태조 6:12a>

그렇게 전쟁을 시작한 Hūlun을 하늘이 책망했다.

e. mimbe abka urulehe, nikan be abka wakalaha, <만문노당 태조 9:10a>

나를 하늘이 옳다고 하고, 명을 하늘이 책망했다.

f. bujantai tumen cooha be abka wakalaha, <만문노당 태조 1:3a>

Bujantai의 군사 1만 명을 하늘이 책망했다.

이렇게 만주어 문어에서 과거와 비과거 사실을 문법 형태소로 정연하게 구별하는 것은 17-18세기의 만주어 문어에 공통된 현상이며, 이는 <삼역총해> 만주어의 저본이 되는 순치년간의 <llan gurun i bithe (三國志)>(1650)에도 해당되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4)에 나타나는 -mbi와 -HA의 교체는, 만주어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언해문의 의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일 것이다. (4b)의 경우, 지난 날 여포를 책망한 동탁에게 책사인 이유가 그 까닭을 묻는 상황인데, 문맥적으로 ‘(태사께서 무슨 일로 봉선을) 그릇 여기셨습니까(≒책망했습니까)?’와 ‘그릇 여기십니까?(≒책망하십니까?)’의 의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릇 여기는(책망하는)’ 행위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그러한 상태가 발화 순간까지 이어진다면 현재 시제(-ㄴ-)로 대역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청학서의 만주어와 한국어 대역에는 다른 판본의 대역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언어 외적인 요인이 작용하거나, 두 언어의 구조적 차이에 의해 문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의역하였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만주어 또는 한국어 연구에 이용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김주원 · 고동호 · 최계영 · 박상철 · 도정업 · 이형미 · 김혜 · 심재홍 역주(2019), 『만문노당(滿文老檔) 태조(太祖) 1,2』,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상철(2017), 『만주어 문어의 시제와 양상 연구 - <滿文老檔>의 용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민석(2013), 『18세기 국어의 시제체계에 관한 쟁점 연구 : 『淸語老乞大新釋』에 나타난 한국어와 만주어의 대역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3. 오민석(2013), 『18세기 국어의 시제체계에 관한 쟁점 연구 : 『淸語老乞大新釋』에 나타난 한국어와 만주어의 대역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 연구의 목적은 “<청어노걸대신석>(이하 <청어노걸대>)에 출현한 만주어 시제 형태소를 분류하여 언해문의 시제 형태소와의 대역관계를 살펴보고 근대국어 시제 형태소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점검해 보는 것”으로, 드물게 청학서의 만주어를 이용하여 한국어의 문법을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어사 연구를 위해 청학서의 만주어를 이용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추정할 수 있다.

“게다가 근대국어 시제체계에 대한 논의들은 그 견해가 다양하고 논란이 많다. 이에 반해 만주어의 시제체계는 비교적 논란이 적고 한문과 달리 시상 범주를 담당하는 접미사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만문과 언해문의 대응관계를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특히 <청어노걸대신석>의 만문과 언해문은 모두 당시의 조선 사람이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현대국어 화자의 해석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18세기 국어의 시제체계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오민석 2013: 2)

오민석(2013: 15)에서 선행연구의 논의를 참고하여 제시한 만주어의 시상체계는 -HA와 -HAbi를 공통되게 “완망상적 과거시제(perfective past)”로 기술하고 있는데, 초기 만주어 문어를 검토하면 이는 정확한 기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앞 절에서 언급한 박상철(2017)의 분석에 따르면(<표 3>), 만주어 문어의 -HA는 ‘과거 완망상(past perfective)’, -HAbi는 ‘현재완료(present perfect)’라는 다른 문법 범주에 속하는데, 이는 영어의 단순과거와 현재완료의 차이와 유사하다.

(6) 영어에서 단순과거(=과거 완망상)와 현재완료의 차이(Comrie 1976: 52)

- a. I lost my penknife.
- b. I have lost my penknife.

단순과거 형태(lost)가 사용된 (6a)의 경우 그 결과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완료 형태(have lost)가 사용된 (6b)의 경우 “(그래서) 현재 주머니칼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함의를 문법적으로 표현한다. 河內良弘.清瀨義三郎則府(2002: 74)에서 -HAbi의 의미를 “과거의 동작이 종결된 상태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음”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재 관련성’은 영어의 ‘현재완료’와 공통된 의미이다. 아래 절에서 언급할 박상철(2018)에서 살핀 바, <삼역총해>의 만주문에 나타나는 종결어미 -HA와 -HAbi는 언해문에서 각각 부정법(∅) 과거 시제와 ‘-엇-’으로 대역되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들은 담화 내에서 전경과 배경으로 달리 기능한다. 이는 최동주(1995)에서 지적한 중세국어 부정법(∅) 과거 시제의 전경으로서의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엇-’이 중세국어에서 결과 지속을 나타내던 ‘-어 잇-’에서 발달하였음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오민석(2013)으로 돌아오면, 만주어와 한국어 사이의 “대응관계”와 “대역관계”를 구별하고 있는데, “완망상적 과거시제 -habi”의 전형적인 한국어 대역(=2차 대역)은 ‘-엇-’임을 보이고, 그밖에 ‘-엇-’ 또는 ‘-∅-’(부정법)을 가능한 대역관계(=3차 대역)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HAbi에 대응하는 현재시제 ‘-느-’에 대해서 “단순 대응관계”로 보았는데, 이는 -HAbi를 “완망상적 과거시제”로 기술하였으므로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박상철(2017)과 같이 -HAbi를 ‘완료(perfect)’로 분류한다면, -HAbi가 현재 시제로 대역된 것을 납득할 수 있

다. 앞서 살폈듯이 ‘완료(perfect)’의 의미에는 과거의 동작이 종결된 상태가 현재에도 지속되는 ‘현재 관련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7) <청어노걸대>에서 -HAbi가 현재 시제로 대역된 경우(박상철 2017: 198)

- a. bi liyoodung hoton dorgi de tehebi <1:10b> 내 遼東城 안히 사노라
- b. sini muke tatarengge umesi urehebi <2:24b> 네 물 깬 거시 7장 낙으니
- c. ere muke komso ohobi <2:25b> 이 물이 적으니
- d. te tuwaci ere morin oforo mangginahabi <6:4b> 이제 보니 이 물이 코에 신코지니
- e. yara mentuhun hülhi dabanahabi kai <7:24a> 과연 어리고 흐림이 과흙이라

<청어노걸대>에서 -HAbi가 현재 시제로 대역된 13개의 용례 가운데 9개가 (7a)와 같이 tehebi가 ‘사노라’ 또는 의문문 ‘사는다’로 대역된 것이다. 이는 원래 ‘있다(정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te-를 한국어에서 ‘살다’라는 동사를 이용하여 대역하는 과정에서 비롯한 문제로, 만주어 tehebi에 대하여 ‘(어디에) 정착하였다/산다’는 가능한 번역이지만 ‘(어디에) 정착한다/살았다’로 번역하면 의미가 달라짐을 볼 수 있다. 이는 만주어 te-와 한국어 ‘살다’의 어휘상 차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7b-e)는 모두 상태 동사 또는 형용사로 대역된 것인데, 동사 어간에 -HAbi가 붙어서 과거 상황의 결과 상태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7a)와 동일하지만, 그 결과 상태가 주어의 속성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HAbi의 용법은 최초의 만주어-만주어 사전인 <御製清文鑑>(1708序)의 표제어에서 많이 나타나는데(박상철 2015), (8c-e)는 모두 부류(部類) 사전인 <어제청문감>에서 ‘인부(人部)’의 ‘용모류(容貌類)’ 아래 등재된 것으로, 사람의 속성을 묘사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예에서 -HAbi를 “완망상적 과거시제”로 기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 주어가 가지는 속성의 변화를 함의하는 -habi(박상철 2017: 123)

- a. coohai morin turgalahabi, olji morin macuhabi, niowanggiyan orho de morin tarhübuki, <만문노당 9:23> 군마가 야위었고 노획한 말도 초츠헌졌다. 푸른 풀로 말을 살찌우자.
- b. hecen inu sakdakabi, <만문노당 26:32> 성 역시 넓었다.
- c. šan kamcime banjihabi / 耳振 / 귀 젓붓다 / šan amasi latumeliyan banjija <어제청문감 6:6a> 귀가 뒤로 붙어서 태어났다.
- d. kerkenehebi / 稠麻子 / 만히 엷다 / derei mase umesi labdu <어제청문감 6:2b> 얼굴에 마맛 자국 매우 많다.
- e. makjanahabi / 矍矍的 / makjan niyalma be hendumbihede makjanahabi sembi <어제청문감 6:8b> 난쟁이(makjan)를 일컬을 때 makjanahabi라고 한다.

#### 참고문헌

- 김주원 · 고동호 · 최계영 · 박상철 · 도정업 · 이형미 · 김혜 · 심재홍 역주(2019), 『만문노당(滿文老檔) 태조(太祖) 1,2』,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상철(2015), 「『御製清文鑑』 동사류 표제어의 상 부류」, 『언어학』 73, 133-156.
- 박상철(2017), 『만주어 문어의 시제와 양상 연구 - <滿文老檔>의 용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상철(2018), 「근대국어 과거 시제 -었-의 담화 내의 기능 - 청학서 <삼역총해>의 대역을 중심으로 -」, 『언어학』 81, 243-264.
- 최동주(1995), 『국어 사상체계의 통시적 변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3.4. 박상철(2018), 「근대국어 과거 시제 -엇-의 담화 내의 기능 - 청학서 <삼역총해>의 대역을 중심으로 -, 『언어학』 81, 243-264.

이 논문은 근대국어 시기에 간행된 청학서 <삼역총해>의 만주문과 언해문을 자세히 대조하고 그 대역의 경향성을 살핌으로써 근대국어의 부정법(∅)과 ‘-엇-’의 의미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초기 만주어 문어를 반영하는 역사기록인 <만문노당(滿文老檔)>의 만주어를 분석한 박상철(2017)에 의지하여 만주어 과거 시제 -HA와 완료 -HAbi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였다(앞 절 참조). 이어서 <삼역총해>의 만주문에 나타나는 종결형 -HA와 -HAbi의 모든 예를 찾고, 거기에 대응하는 언해문의 시상형태를 분류하여 수치화하였다(<표 4>)

<표 13> <삼역총해>에 나타나는 종결형 -HA와 -HAbi의 대역 (박상철 2018: 256)

	-HA (종결형)	-HAbi	합계
종결_부정법	90	4	94
종결_나머지	30	31	61
연결_부정법	50	25	75
연결_나머지	14	56	70
합계	184	116	

<삼역총해>의 대역 양상을 살핀 결과 -HA는 ‘부정법(∅) + 종결어미’와, 반대로 -HAbi는 ‘부정법(∅)이 아닌 선어말어미(주로 -엇-) + 연결어미’와 결합하는 뚜렷한 경향성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두 형태소가 의미 및 담화 내의 기능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즉, 범언어적으로 과거 시제 또는 완망상은 서사(narrative contexts)에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데 반해 완료는 이러한 서사에 거의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만주어의 완망상 과거 시제 -HA와 완료 -HAbi의 담화 내의 기능에서도 잘 드러난다.

(9) <삼역총해>의 한 장면 <1:12> (박상철 2018: 257)

배경: dungdzo uthai lioi bu i gida be durire jakade  
 董卓이 즉시 呂布의 창을 아스려 훔 제

전경: lioi bu uthai burla-ha  
 呂布 | 즉시 드라나다

배경: dungdzo amcara de lioi bu sujure hūdun  
 董卓이 쫓을 제 呂布 | 드름이 급하니

전경: dungdzo targū ofi amcaci amburakū jafaha gida be amcame makta-ha  
 董卓이 술디매 쫓오되 밋지 못히여 잡은 창을 밋쳐 더지니

전경: lioi bu gida be ashūra jakade orho i dolo tuhene-he  
 呂布 | 창을 바으니 플 속에 찌러지다

배경: dungdzo geli gida be tomsome gaijara sidende  
 董卓이 쫓 창을 주어 가지려 훔 스이에

전경: lioi bu susai okson i dubade goro o-ho  
 呂布 | 원 거름 숫히 멀리 되니

배경: dungdzo amcame yafan i duka be tucire de  
 董卓이 쫓아 동산 문을 내려 훔 제

배경: tulergi ci emu niyalma deyere gese sujume jime

밧그로셔 훈 사롬 이 느논 드시 드라와

전경: dungdzo i tunggen de karcafi dungzo na de tuhe-ke

董卓이 가슴에 마초여 董卓이 짜히 씨러지다

(9)의 예문은 초선과 여포가 밀회하는 것을 발견한 동탁이 여포에게 창을 던지며 쫓는 긴박한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시키는 전경(foreground)에 해당하는 사건의 서술어에는 어김없이 -HA가 결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때 <삼역총해> 언해문에서 -HA의 전형적인 대역은 ‘부정법(∅) + -다’로 나타나는데, 전경을 나타내는 중세국어 부정법(∅) 과거 시제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HAbi의 전형적인 대역인 ‘-어시니’의 경우 -HA의 전형적인 대역인 ‘부정법(∅) + -다’ 또는 ‘부정법(∅) + -으니’와 담화 내의 기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

(10) <삼역총해>에 나타나는 -HAbi의 전형적인 대역: ‘-어시니’ (박상철 2018: 259)

a. (초선이 창 밖을 보니)

cencileme tuwaci lioi bu omoi dalin de ili-habi <1:06>

7만이 보니 呂布 | 7의 셔시니

b. (동탁이 어제 여포를 꾸짖은 것을 사과하며)

simbe wakala-habi si ume ehe gūnire <1:12>

너를 그릇 너겨시니 네 사오나이 심각지 말라

c. (요화가 자신의 지난 행적을 돌이켜 보고하며)

enculeme sunja tanggū niyalma isabu-habi <2:17>

스스로 오백 사롬을 모화시니

d. (관우가 유비의 부인들을 돌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banjici buceci sasa seme gashū-hebi <2:21>

살며 죽기를 훈 가지로 헝자 헝고 밍세헝여시니

e. (제갈량이 손권에게 조조의 군세를 설명하며)

te jing jeo i cooha be geli orin gūsin tumen ba(ha)-habi <3:07>

이제 荊州 | 군스를 또 이삼십만을 어더시니

(10)에 제시된 -HAbi의 용례들은 모두 과거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은 맞지만, -HA와는 담화 내의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 완망상 과거 시제 -HA가 가리키는 상황들은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전경으로서 일련의 사건들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배치되었다면, -HAbi는 그러한 시간적 순서에서 벗어나서, 이야기를 전개시키기보다는 배경지식(background)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0b)에서 동탁이 여포를 어제 ‘그릇 여긴’ 사건을 언급한 것은 담화 내에서 사건의 전개를 서술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사과하는 이유에 대한 배경지식으로서 과거 상황을 회고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만주어 완망상 -HA와 완료 -HAbi가 담화 내에서 각각 전경과 배경으로 기능한다는 사실로부터 착안하여, 근대국어 시기에 공존한 두 시상 형태소의 의미 차이를 밝혔다는 점에서, 청학서의 만주어를 이용한 국어학적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박상철(2017), 『만주어 문어의 시제와 양상 연구 - <滿文老檔>의 용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 결론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청학서를 이용한 국어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만주어의 정확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동호(2015)에서 지적한 대로, “청학서의 성격상 『한청문감』을 제외한 청학서들은 만주어 학습서이지 만주어 연구의 1차적인 자료라고는 할 수 없”으며, “한국의 만주어 연구가 청학서에 집중된 것은 청학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만주어 연구 자료로서의 청학서의 본질에 대한 반성이 적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최근 학계의 흐름을 보면, 고동호(2015)의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동호(2015) 이후 최근 6년(2016-2021) 동안 ‘만주어’를 주제로 게재된 학술지 및 학술대회논문집 수록 논문을 살펴보면(아래 목록 참조), 연구 주제와 자료가 매우 다양해졌음을 실감할 수 있다. 여전히 사역원 청학서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적으로 <만문노당>과 <어제청문감>을 위시한 청나라 간행 만주어 자료를 직접 연구한 논문이 더욱 많아졌다. 자료의 성격도 다양한데, 어문학 자료뿐 아니라 역사, 정치, 종교, 예술, 건축에 이르기까지 만주어 연구의 범위가 풍부해졌다. 또한 국내 학계에서는 매우 드물게, 현지조사에 의해 수집된 만주어 구어에 대한 연구(김주원·김혜·고동호 2020)가 발표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다방면의 연구는 만주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힐 것이며, 만주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될 청학서 연구가 국어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부록: 최근 6년간(2016-2021) 국내 학술지 및 학술대회논문집에 게재된 만주어 관련 논문 목록<sup>18)</sup>

고경재·남향림·문현수(2020), 「만주어 방향어의 의미 확장 연구 - 『어제증정청문감(御製增訂淸文鑑)』의 만주어 뜻풀이를 중심으로 -」, 『인문학연구』 45, 53-94.

곽충구(2017), 「동북방언에 잔존한 만주통구스어와 몽골어 차용어」, 『국어학』 84, 3-32.

곽충구(2019), 「북부방언의 漢語 차용어」, 『방언학』 29, 119-149.

권일우(2018), 「『淸語老乞大』와 『蒙語老乞大』의 구문비교: 어법에 어긋난 『捷解蒙語』의 구문을 중심으로」, 『알타이학보』 28, 161-188.

김광수·박은연(2021), 「18세기 문헌『팔세아』에서의 만주어와 조선어의 비교연구」, 『중국조선어문』 231, 6-16.

김명섭(2017), 「네르친스크조약의 국제정치학 : 1689년 러·청 국제조약에 관한 연구」, 『國際政治論叢』 57(4), 7-44.

김명주(2016), 「『한청문감』에 나타난 표기와 그 변화 양상」, 『한글』, 한글학회, 45-77.

김미성(2020), 「소프트파워 관점에서 본 만주어의 소퇴 과정과 소퇴 원인 고찰」, 『동아인문학』 53, 79-101.

김수경(2017), 「『金瓶梅』의 만주어 번역과 그 의의」, 『世界文學比較研究』 61, 5-24.

김수경(2019), 「『滿漢西廂記』 연구 -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滿漢合璧西廂記』를 중심으로」, 『中國小

18)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만주어’ 및 각 청학서의 이름으로 검색한 연구 가운데 연도순으로 2016년 이후의 연구 100건의 목록을 종합한 것으로, 필자의 과문함으로 인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에 주의하기 바란다.

- 說論叢』 58, 181-208.
- 김수경(2020), 「'귀신이 해준 이야기'의 기원과 전파」, 『世界文學比較研究』 73, 87-114.
- 김양진(2016), 「만주어 조어법 연구 - 『어제청문감(御製淸文鑑)』의 어휘를 중심으로」, 『民族文化研究』 73, 1-22.
- 김양진(2020), 「『용비어천가』 소재 지명의 지리학」, 『지명학』 33, 95-148.
- 김양진·신상현(2017), 「『同文類解』 語錄解 譯註」, 『인문학연구』 35, 175-209.
- 김은희(2016), 「조선(朝鮮) 후기 청(淸)나라 만주어(滿洲語) 수용의 정치 문화적 함의 - 역관(譯官) 교육을 중심으로 -」, 『호남문화연구』 60, 335-358.
- 김은희(2017), 「淸學四書의 漢字語에 대한 한글 轉寫에 나타난 漢語語音의 특징」, 『中國人文科學』 66, 67-93.
- 김은희(2018), 「淸明 시기 중국에서 활동한 서양 선교사들의 자료를 통해 본 언어관 小考」, 『東方學』 39, 101-120.
- 김일권(2021), 「장서각 소장본 『태상감응편』 언해서의 판본 비교와 권선서의 선복(善福) 인과 윤리사상 고찰」, 『道敎文化研究』 55, 157-219.
- 김주원(2017), 「만주어의 자료와 문법 연구」, 『人文論叢』 74(3), 9-10.
- 김주원·김혜·고동호(2020), 「만주어 구어의 재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최후의 화자가 말한 자신의 삶과 언어-」, 『알타이학보』 30, 1-33.
- 金鉉哲·金雅瑛(2020), 「冽雲 張志暎의 『滿洲語講座』 小考」, 『중국어문학논집』 125, 7-29.
- 김혜(2017), 「만주어 표기에 반영된 만주어와 한어의 구개음화」,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2017(12), 43-51.
- 김혜(2018), 「만주어 표기에 반영된 만주어와 한어의 구개음화」, 『언어학』 80, 53-73.
- 김혜(2019), 「『滿文原檔』의 한자음 표기에 대하여 -聲母의 표기 체계를 중심으로-」, 『알타이학보』 29, 1-25.
- 나카미 다쓰오(2016), 「김구경과 한국의 만주어 문헌 연구의 요람」, 『알타이학보』 26, 2-12.
- 남향림·문현수·고경재(2021), 「『만독사전』(2007)의 만주어 혼성어 분석 오류 고찰 -『어제증정청문감』의 뜻풀이를 중심으로-」, 『民族文化研究』 92, 41-84.
- 당천향(2021), 「만주어 'n형 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알타이학보』 31, 1-25.
- 당천향·김양진(2021a), 「『御製增訂淸文鑑』 만주어의 형태 분석 1 -동사형을 중심으로-」, 『民族文化研究』 92, 11-40.
- 당천향·김양진(2021b), 「한국어 동사 '타-'와 만주어 동사 'fithe-' 간의 상관성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61, 45-78.
- 도정엽(2016a), 「만주어 격 표지 be의 분포와 기능」,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2016(6), 279-290.
- 도정엽(2016b), 「만주어의 대격 주어화 현상 연구」,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2016(12), 59-67.
- 도정엽(2017a), 「만주어 격 표지 be의 분포와 기능」, 『언어학』 77, 181-206.
- 도정엽(2017b), 「만주어 복합문의 대격 주어 현상 연구」, 『人文論叢』 74(3), 49-80.
- 도정엽(2018a), 「만주어 격 표지 be에 대한 청학서의 만주문과 대역문 연구」, 『알타이학보』 28, 1-31.
- 도정엽(2018b), 「만주어 대등 접속문 구성에서 분사 어미의 분포와 특성 - 滿文老檔의 용례를 중심으로 -」, 『언어학』 82, 165-190.
- 도정엽(2018c), 「만주어 접속문 구성에서 분사 어미의 분포와 특성」,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2018(6), 132-144.
- 도정엽(2019a), 「만주어 구어와 시버어 구어의 문법 대조 - 격 표지와 어미를 중심으로 -」, 『東洋學』 77, 185-206.
- 도정엽(2019b), 「만주어 첨사 nikai와 의외성의 관계」, 『알타이학보 29』 27-47.
- 도정엽(2019c), 「전언 표지로서의 만주어 첨사 sere의 특성」, 『러시아학』 18, 59-80.
- 도정엽(2020a), 「만주어 구어 원망법 어미 변화의 한 양상 -시버어 구어와 대조적 관점에서-」, 『알타이학보 30』, 35-53.

- 도정엽(2020b), 「만주어 추측 표현의 분포와 특성 - 『滿文老檔』의 용례를 중심으로-」,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2020(8), 41-53.
- 도정엽(2020c), 「비논항 성분에 붙은 만주어 명사화소 -ngge의 기능 - 滿文老檔의 용례를 중심으로」, 『人文論叢』 77(1), 321-355.
- 도정엽(2021a), 「만주어 복합 시제 형태 분석 - 만주 - 통구스 언어의 복합 시제 형태와 관련하여」, 『東洋學』 84, 85-112.
- 도정엽(2021b),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만주어 첨사 dere의 추론 증거성 표지로서의 특성」, 『人文論叢』 78(1), 187-220.
- 도정엽·정한별(2017a), 「만주어 내포문에서 나타나는 seme에 대한 새로운 해석」,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2017(6), 83-93.
- 도정엽·정한별(2017b), 「만주어 내포문에서 나타나는 seme의 문법적 지위」, 『東洋學』 69, 13-31.
- 박상철(2016a), 「만주어 종결어미 -re와 -mbi의 양태 의미」,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2016(6), 267-277.
- 박상철(2016b), 「만주어 종결어미 -re와 -mbi의 분포와 의미: 《滿文老檔》을 중심으로」, 『언어학』 75, 43-68.
- 박상철(2016c), 「청학서에 나타난 만주어 시상 형태소 -habi와 -ha의 대역 양상」,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2016(12), 53-57.
- 박상철(2017), 「만주어 문법서에서 기술한 -ra와 -ha의 의미 - 시제(時制)인가 양상(樣相)인가」, 『人文論叢』 74(3), 81-104.
- 박상철(2018), 「근대국어 과거 시제 '-엇-'의 담화 내의 기능 - 청학서 <삼역총해>의 대역을 중심으로 -」, 『언어학』 81, 243-264.
- 박상철(2019), 「만주어 문어의 문법 변화: 종결어미 -ra의 분포와 의미를 중심으로」, 『알타이학보』 29, 49-74.
- 박상철(2020a), 「지역언어학의 관점에서 본 만주어 -rA와 몽골어 -QU의 유사성」, 『언어학』 86, 3-29.
- 박상철(2020b), 「만주어 문어 -me bi의 의미 변화」, 『언어학』 87, 35-62.
- 박상철(2021), 「만주어 문어 tuwaci '보니' 구문의 특이성」, 『알타이학보』 31, 27-50.
- 박서연(2016), 「滿文『金剛經』의 내용과 특징」, 『韓國佛敎學』 79, 65-97.
- 박서연(2020), 「19세기 유럽에서 발행된 만문(滿文) 『금강경』에 관한 연구」, 『韓國佛敎學』 95, 217-249.
- 박준영(2019), 「18세기 이후 淸의 賀表式 반포와 朝鮮 賀表의 변화」, 『古文書研究』 55, 57-81.
- 백상엽 (2016), 「지역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통구스어족의 부동사어미 \*-mi와 \*-rAki-」, 『民族文化研究』 73, 31-59.
- 성우철·김유범·정은진·오민석(2021), 「『어제증정청문감(御製增訂淸文鑑)』의 만주어 한자 주음 연구 -삼합절음(三合切音)의 원리 및 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民族文化研究』 92, 85-129.
- 성우철·오민석·김유범(2020), 「淸文鑑類 만주어 사전의 성립과 전파, 그리고 동아시아적 변용」, 『인문학연구』 45, 7-51.
- 송강호(2020), 「조선시대 청학(靑學)과 만주어 서적의 수입」, 『문헌과 해석』 86, 97-118.
- 심영환(2016), 「淸學四書 滿洲語의 한글 轉寫 연구」, 『역사와실학』 60, 187-225.
- 沈永煥(2018), 「『만주원류고(滿洲源流考)』 「김사성씨고(金史姓氏考)」의 만주어(滿洲語) 복원(復元)」, 『한국계보연구』 8, 225-255.
- 沈永煥(2019), 「藏書閣 소장 滿漢合璧文書의 滿洲語 轉寫」, 『泰東古典研究』 42, 227-256.
- 여채려·김양진(2020), 「'-子'계열 한자어에서 기원한 만주어 '-se'계열 단어에 대한 연구 - HMB(『御製淸文鑑』)에 등재된 어휘를 중심으로 -」, 『인문학연구』 45, 139-173.
- 연규동(2016a), 「유해류 역학서의 종합적 검토」, 『국어사연구』 22, 7-45.
- 연규동(2016b), 「만주어학의 어제와 오늘」,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2016(6), 103-118.

- 오민석(2016), 「清語老乞大新釋 諸異本 간의 판본 비교 연구 -선본 확정을 위한 기초 작업(2)-」, 『우리말연구』 46, 1-27.
- 오민석(2017a), 「『동문유해』 만주어 한글 표기와 만주 문자의 대응 관계 고찰 -구별 기호가 있는 한글 표기를 중심으로-」, 『民族文化研究』 77, 477-515.
- 오민석(2017b), 「『同文類解』 만주어 한글 표기의 전산 입력 방안」, 『東洋學』 69, 33-50.
- 오민석(2017c), 「『同文類解』 滿洲語 한글表記의 轉字的 性格에 대하여」, 『어문연구(語文研究)』 45(4), 113-149.
- 吳愨錫(2020), 「『한청문감(漢淸文鑑)』의 이본(異本)과 關聯(關聯)된 몇 문제(問題) -목판본(木版本)을 중심으로-」, 『口訣研究』, 구결학회, 233-269.
- 翁連溪·이경민(2018), 「청대 내부의 대장경 간행」, 『石堂論叢』 70, 501-535.
- 윤옥(2020), 「청의 변경 통제 실상의 흔적: 『琿春副都統衙門檔』의 朝淸關係 滿文 史料 小考」, 『동방학지』 193, 327-356.
- 이효윤·신상현(2016), 「『御製淸文鑑』 「時令部」 校勘 및 譯註 研究」, 『인문학연구』 30, 83-119.
- 이효윤·최혜빈·여채려(2021) 「<청문감류>의 ‘질병’ 관련 어휘 부류의 연구」, 『民族文化研究』 9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31-171.
- 이희재(2016), 「청대(淸代)의 궁중 무속, 살만교(薩滿教)의 위상」, 『한중인문학연구』 50, 219-239.
- 임경준(2021), 「謝遂 職貢圖의 제작배경과 아무르 강 유역 부족민의 묘사: 滿文圖說의 譯註를 통한 毛皮의 채취·가공과進貢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미술문화연구』 19, 201-227.
- 정여진(2020), 「만주어에 보이는 건축 관련 어휘에 대한 고찰」,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20(11), 21-24.
- 정윤자(2016), 「장서각 소장 『한청문감』의 필사 방식과 국어학적 특징 고찰」, 『東洋古典研究』 64, 413-433.
- 정재남(2018), 「만주어 언어교체(소멸)의 역사적 과정 및 원인 분석 試論」, 『동아시아고대학』 49, 137-178.
- 주수현·T. Otgontuul(2018), 「몽골어, 만주어의 의문조사 비교 -몽어노걸대, 청어노걸대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70, 277-308.
- 최계영(2016), 「『漢淸文鑑』의 뜻풀이 유형」,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2), 105-118.
- 최계영(2016), 「On the passive or causative suffix -mbu- in Manchu: Focused on the headwords in dictionaries」, 『알타이학보』 26, 45-62.
- 최계영(2016), 「『漢淸文鑑』 체재의 사전학적 연구」,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2016(6), 291-309.
- 최계영(2016), 「만주어 결합이동동사의 방향성」,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2016(12), 43-52.
- 최계영(2017), 「『어제증정청문감(御製增訂淸文鑑)』 신규 표제어 연구」, 『알타이학보』 27, 25-50.
- 최계영(2020), 「한국어와 만주어의 직시 결합 동사 구문에 대한 대조 연구」, 『알타이학보』 30, 55-80.
- 최계영(2021), 「만주어 직시 이동 동사의 특성」, 『언어학』 89, 29-60.
- 최계영·김주원(2019), 「『滿文老檔』 한·일 번역본의 표기와 번역 차이 : 저본으로 인한 차이를 중심으로」, 『알타이학보』 29, 115-138.
- 최향란·박흥수(2017), 「중국어의 만주어 차용어 연구」, 『중국학』 60, 141-157.
- 최형섭(2016), 「청대 만주어로 번역된 중국소설」, 『중국학』 54, 85-114.
- 최형섭(2019), 「滿文 일기 『閒窓錄夢』을 통해 본 보오이(booi)의 삶과 정체성」, 『中國文學』 99, 21-40.
- 최형섭(2021), 「보오이 목제현(穆齊賢)과 『요재지이(聊齋志異)』 만문본(滿文本)에서의 그의 역할」, 『인문사회』 21, 12(5), 2847-2860.
- 최혜빈·이효윤(2020), 「<청문감>의 포백류(布帛類) 어휘 체계 연구」, 『인문학연구』,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95-138.
- 최희수(2021), 「『한청문감(漢淸文鑑)』의 중국어 치음 표기법」, 『한국어사 연구』 7, 국어사연구회,

331-346.

한재영(2019), 「훈민정음 체계의 확장성과 개방성」, 『국어국문학 187』 179-218.

황옥림(2018), 「한국에서 출간된 만주어 사전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2), 93-114.

황옥림(2019), 「BnF 소장 滿漢 주음 자료 『千字文』의 주음 방식에 대하여」, 『한중인문학연구』 65, 357-379.





## 1. 머리말

근대적인 한국어사 연구가 시작된 이래, 司譯院에서 간행된 譯學書는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러나 그런 관심이 四學, 즉 漢學·蒙學·倭學·淸學에 고르게 주어졌던 것은 아닌 듯하다. 漢學書는 가장 많은 자료가 남아 있는 만큼 연구가 많은 것도 자연스러우나,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의 주제인 倭學書의 경우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면, 필자의 전공과 관련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 한국어학의 관점에서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단적으로 漢學書인 『老乞大』와 『朴通事』의 한국어 역주서는 한국어학계와 중국어학계에서 몇 차례 나온 반면, 대표적인 倭學書인 『捷解新語』는 한국어학계와 일본어학계에서 한 차례씩만 한국어 역주서가 간행되었고, 연구서 또한 일본어학계에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관심의 편중은 오히려 앞으로 연구할 것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지금은 차분히 연구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전반적인 연구사를 간략히 검토한 뒤, 이제까지 이루어진 왜학서의 국어학적 연구를 분야별로 되짚어 본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왜학서의 국어학적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다만 본 학술대회의 주제가 ‘사역원 간행 역학서의 국어학적 연구’인 만큼, 원칙적으로 사역원에서 간행되어 과시용(科試用)으로 쓰였거나 사역원 관계자가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 즉 『伊路波』·『伊呂波』, 『捷解新語』, 『倭語類解』와 추가적으로 『方言類釋』, 『三學譯語』(의 일본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이제까지 이루어진 한국어학 관점에서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기로 한다.<sup>1)</sup>

## 2. 전반적인 연구사

근대적인 한국어학 연구가 외국인에게서 비롯하였으므로, 왜학서 연구 역시 일본인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를 비롯한 초기의 연구는 서지적인 사항과 한국에서 이루어진 일본어 교육을 다루는 데 그쳤다.

본격적인 연구는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다. 이 시기에는 하마다 아쓰시(濱田敦)과 야스다 아키라(安田章)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 없다. 하마다 교수는 1950년대부터 교토(京都)대학 문학부 국어학국문학 연구실 명의로 『捷解新語』를 비롯하여 수많은 왜학서를 영인하고 색인을 붙여 펴냈다. 일본의 일본어사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로서 왜학서(이른바 ‘朝鮮資料’)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두 사람의 공이 가장 크다(이강민 1996: 14). 하마다 교수가 1957년에 처음 영인 간행한 왜학서는 『捷解新語』였는데, 공교롭게도 이 해에 한국에서도 왜학서와 관련한 기념비적인 논문인 김완진 교수의 「捷解新語에서의 日本語 轉寫에 대하여」가 출판되었다.

1970년에는 조승복 교수의 『A Phonological Study of Early Modern Japanese: on the

1) 이하에서 선행연구를 인용할 때에는 遠藤光曉 외 편(2009)에 수록되어 있는 저작은 연도와 제목을 제시하고, 이 글 뒷편에 참고문헌에 실려 있는 것만 이름(연도) 형식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Basis of the Korean Source materials』가 간행되었다. 『捷解新語』의 음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근세 일본의 음운 체계를 정립하고자 한 것이다. 일본어학의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지만 이후의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sup>2)</sup> 1970년대부터는 일본에서 쓰지 세이지(辻星児) 교수가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고노 로쿠로(河野六郎)의 제자로, 『捷解新語』를 중심으로 왜학서 연구에 업적을 남겼다.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은 1997년에 펴낸 『朝鮮語史における『捷解新語』』이다. 1988년에는 정광 교수의 『司譯院倭學研究』가 간행되었다. 사역원 내에서 왜학의 위상과 학습 내용을 왜학서와 그 변천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정광 교수의 연구는 왜학서에서 출발하여 역학서 전반으로 뻗어나갔으며, 그 집대성은 정광(2014, 2017)이라고 할 것이다.

1980년대 이후로 한일 양국에서 왜학서와 관련된 연구가 쏟아져 나왔는데, 특히 일본어학계에서 『捷解新語』와 관련해서 나온 연구가 가장 많다.<sup>3)</sup> 이는 金英玉(2009: 17-18)에서도 지적하였듯이 1970년대 이후 일본어 관련학과의 증설과 함께 일본에 유학한 연구자들이 귀국하여 국내 대학에 취직하게 되면서 왜학서 연구가 활발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일본어학의 측면에서만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한국어학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진해진 것이 사실이다. 한국어학계에서는 199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정승혜 교수가 『捷解新語』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연구의 폭을 넓혀갔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타카(岸田文隆) 교수가 1990년대 후반부터 『漂民對話』·『隣語大方』·『朝鮮語譯』 및 한일 역관-통사 간의 한글 편지 등 다양한 한국어 관련 자료를 발굴하여 학계에 제공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어학 분야에서 사노 미에코(佐野三枝子) 교수의 학위논문 「日本資料에 나타난 近代 韓國語의 研究」(2001)과 박기영 교수의 학위논문 「開化期 韓國語의 音韻研究: 日本에서 간행된 韓國語 學習書를 중심으로」(2005)가 나왔다. 두 연구자 모두 음운론의 관점에서 각각 근세와 근대의 일본 자료를 연구하였다. 일본어학계에서는 미노와 요시쓰구(箕輪吉次) 교수가 「江戸時代通俗書における朝鮮語假名書き」(2011)로 대표되는 에도시대의 다양한 한국어 자료를 발굴하여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진남택 교수의 「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と韓國語の音韻史研究」(2003)가 왜학서를 비롯한 한일 양국의 자료를 함께 다루어 전사자료를 이용한 음운사 연구의 새 장을 열었다. 2005년에는 박진완 교수의 「『朝鮮資料』의 新研究」가 음운이 아닌 문법 측면에서 『捷解新語』를 중심으로 한국어사적인 연구를 하였다. 이들은 왜학서를 비롯하여 일본인의 한국어학습서와 관련된 논문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로 한국어학계에서는 꾸준히 이 분야를 공부하여 박사논문까지 제출하는 연구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전산 입력된 역사자료 코퍼스가 널리 보급되면서 왜학서 또한 다른 한글 자료와 마찬가지로 코퍼스의 한 부분으로서만 다루어지고, 외국어 학습서로서의 특성이거나 왜학서 자료 자체에 주목하는 연구는 점차 줄어들었다고 생각된다. 한국어학계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전사자료를 전반적으로 다룬 허인영(2021a), 일본어학계에서는 조선후기 문헌에 나타난 일본어를 정리한 金恩淑(2013), 근세 일본의 자료인 『韓牘集要』·『韓語覺書』를 다룬 金文姬(2018)이 눈에 띈다.

연구가 축적되면서 연구사를 정리한 논문이나 연구업적 목록도 간행되었다. 왜학서뿐만 아

2) 조승복 교수는 일제강점기 만주국에서 태어나 일본, 미국을 거쳐 스웨덴으로 가 스톡홀름대학교의 초대 일본학 교수가 된, 파란만장한 삶을 산 한국인 연구자이다. 남과 북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았던 그의 정치적 태도 때문에 한국에서는 거의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할 인물이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조승복(2004), 변광수(2014) 참조.

3) 정승혜(2016: 180)에 따르면 2016년 7월 현재 『伊路波』의 연구는 4편, 『捷解新語』 연구는 182편, 『倭語類解』 연구는 50편, 『方言類釋』 연구는 19편, 『三學譯語』 중 왜학 부분 연구가 4편이었다.

나라 역학서 전반에 대한 문헌 목록으로 현재까지 가장 완비되어 있는 것은 遠藤光暁 외 편(2009)이다. 다만 보완할 점도 없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는 Osterkamp(2011)에서 매우 자세히 지적하였다. 해당 서평의 왜학서 부분에서 지적한 사항 가운데 핵심 내용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海東諸國記』(1471)와 30년 뒤 그 부록으로 수록된 「語音翻譯」(1501)을 다루는 2차 문헌을 구별하는 것이 좋았을 듯하다.
- ② 『重刊捷解新語』의 서지사항에서 부록인 『伊呂波』의 수록 여부가 전본에 따라 다르므로 이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捷解新語文釋』의 필사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청구기호는 古33-3이며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 ④ 『方言類釋』은 왜 일본어 부분에만 들어가 있는가?
- ⑤ 『伊呂波』와 『倭語類解』는 필자가 유럽에서 새로운 전본을 발견하였다(후술).
- ⑥ 일본판 『隣語大方』과 『交隣須知』에 대해 한국과 중국 연호만 사용하고 일본 연호는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 ⑦ 『訂正隣語大方』(1882)의 필사본이 교토대학 濱田文庫에 하나 더 있다. 『講話』와 『隣語大方』을 발췌 필사한 『講話隣語大方拔書』도 있다. 『隣語大方』의 조선간본 가운데 고마자와(駒澤)대학 도서관에 있는 것이 빠져 있다(청구기호 濯足/361-1).
- ⑧ 『全一道人』의 작성연도는 1781년이 아니고 1729년(서문 작성연도)이고, 『勸懲故事』는 1669년에 간행되었다.
- ⑨ 기타 자료 중에는 더 들어가야 할 것이 많이 있다. 에도(江戶)시대 이전에는 『二中歷』도 있고, 에도시대에는 다양한 한국어 관련 자료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책 전체를 꼼꼼히 훑어본 뒤 작성한 서평으로, 遠藤光暁 외 편(2009)을 참조하는 역학서 연구자들은 필독해야 할 글이다. 이후 金英玉(2009)에서 한국에서의 왜학서 연구의 현황이 정리되었고, 鄭丞惠(2016)에서 遠藤光暁 외 편(2009) 이후 역학서 전반의 연구목록이 추가되었다. 이 글의 참고문헌은 왜학서 분야에서 鄭丞惠(2016)의 후속 작업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 3. 이제까지의 倭學書 연구

#### 3.1. 서지

역사적인 연구는 언제나 자료에서 출발하고, 언어사 연구도 예외는 아니다. 새로운 한국어사 자료는 근현대에 들어와서도 상당히 많이 발굴되었는데, 역학서 분야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 완전히 사라진 줄로만 알았다가 1998년 대구에서 발견되어 많은 연구자들을 흥분시킨 舊本 『老乞大』가 그러한 예일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새롭게 발굴된 자료나 발견된 서지적 사항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왜학서와 관련된 서지적 발견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捷解新語』의 서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주로 성립 및 개수의 시기와 관련된 연구가 많았다. 자료의 발견과 관련해서는 먼저 安田章(1987), 「捷解新語の改修本」을 통해 프랑스 파리 동양

어학교에 소장된 것이 알려진 『改修捷解新語』가 있다.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倭語類解』는 安田章(1986), 「韓國國立中央圖書館藏『倭語類解』」를 통해 알려졌다. 최근에는 李仙喜(2013, 2016)에서 면밀한 실물조사를 통하여 『捷解新語』 원간본의 계통과 선후관계를 검토하는 한편, 『改修交隣須知』의 서지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辻星児(2008)는 일본과 한국에 있는 『重刊捷解新語』의 여러 傳本을 조사하고 서지적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조선간본 『隣語大方』과 관련하여 정승혜(2009)에서는 奎章閣의 『西庫書目』을 근거로 왜학역관 현계근(玄啓根)에 의해 1774~1776년경에 편찬되었음을 밝혔다.

한편 2010년 독일 보훔 루르 대학(Ruhr-Universität Bochum)의 Sven Osterkamp 교수는 유럽에서 왜학서 자료를 발견하여 학계에 보고하였다(Osterkamp 2010, 2011: 316-317). 이탈리아에 있는 『伊呂波』와 영국에 있는 『倭語類解』가 그것이다.

본래 『伊呂波』는 15세기 말에 일본어 문자 학습서로 쓰인 책인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 이 책을 새롭게 개편한 『伊呂波』가 만들어진다. 『伊呂波』는 『重刊捷解新語』의 몇몇 傳本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別卷으로 존재하는 『伊呂波』가 발견된 것이다.<sup>4)</sup> 이 책은 이탈리아의 Biblioteca Apostolica Vaticana의 Borgia Cinese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으며 청구기호는 'Borg.cin.400'이다. 舊藏者인 Stefano Borgia(1731~1804)는 이 책을 로무알드(Romuald Kocielski, 중국명 羅機洲(淑), 1750~1791)라는 프란치스코회 수도사로부터 구입했는데, 로무알드는 燕行使를 수행한 역관으로부터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자료는 한국인이 남긴 것이 틀림없는 한문 주기가 많아 당시에 일본어의 한글 표기를 어떻게 발음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한국에서 인쇄되어 서양으로 건너간 (아마도) 최초의 역학서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Osterkamp 2011: 316).

『倭語類解』는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沢庄三郎, 1872~1967)의 구장본으로 현재 일본 고마자와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것 외에, 1987년에 야스다 아키라·정광 교수에 의해 알려진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본이 있었다. 그런데 영국 맨체스터대학에도 하나의 傳本이 더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본래 독일의 의사이자 일본학자인 지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의 舊藏本이다. 나가사키를 거쳐 인도네시아의 바타비아(지금의 자카르타)에서 영국 선교사 메드허스트(Walter Henry Medhurst)가 『倭語類解』를 번역한 『朝鮮偉國字彙』를 만들 때 臺本이 되었가 독일로 전해졌다. 지볼트 사후에 영국의 백작가로 팔려갔다가 현재의 도서관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Osterkamp 2011: 317).<sup>5)</sup>

한편 최근 허인영(2021b)에서는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倭語類解』가 18세기 후반에 활동한 왜학 역관 이명화(李命和, 1728~?)의 舊藏이었다가 부산 왜관을 통해 쓰시마의 하시베(橋邊) 집안에 넘어간 뒤, 19세기 말부터 서울에 살았던 하시베 도요조(橋邊豊藏, 1868~?)가 가지고 있다가 패전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서적중개상 송신용(宋申用, 1884~1962)을 거쳐 국립중앙도서관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밝혔다.

### 3.2. 표기·음운

왜학서의 표기 및 음운과 관련된 한국어학적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4) 이 자료의 流傳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Osterkamp(2010) 참조. 이후 鄭光(2014)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5) 해당 傳本의 流傳과 『朝鮮偉國字彙』의 관계에 대한 한국어 연구로는 허인영(2017)을 참조.

- 河野六郎(1952), 『伊路波』의 諺文表記に就いて」
- 金完鎭(1957), 「捷解新語에서의 日本語 轉寫에 대하여」
- 俞昌均(1959), 『倭語類解』 譯音考」
- 文璇奎(1963), 「兩日語書略攷: 特히 子音에 關心을 가지고」
- 文璇奎(1963), 「漢字音上의 口蓋音化: 特히 倭語類解에 나타난 것에 對하여」
- 南基卓(1983), 「隣語大方의 國語學的 研究」
- 안종복(1986), 「유해서류에 나타난 국어의 표기법 연구」(석사)
- 李熙元(1988), 「『捷解新語』 終聲表記에 관한 研究」
- 권인한(1990), 「왜학서류의 음절말 ‘스’, ‘ㄷ’ 표기법 연구」
- 권인한(1991), 「유해류 역학서의 음절말 ‘스’, ‘ㄷ’ 표기법 일고찰」
- 鄭丞惠(1992), 『捷解新語』의 表記法에 對한 一考察」
- 沈保京(1997), 「捷解新語 表記法 研究(I)」
- 강희숙(1999), 「‘오>우’ 변화의 수행과 확산: 『訂正隣語大方』과 『再刊交隣須知』를 중심으로」
- 小泉和生(2001), 「『捷解新語』에 나타난 地域性에 대하여: 한국어 대역문의 음운현상을 중심으로」
- 辻星児(2001), 「『倭語類解』의 한국어에 대하여: 음운사·표기사의 관점에서」
- 이근영(2001), 「교린수지(交隣須知)의 음운론적 연구」(석사)
- 齊藤明美(2001), 『交隣須知』의 刊本三種의 表記法」
- 趙垺熙(1999/2001), 『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音声・音韻の研究』(박사)
- 진남택(2002), 「한국어의 구개음화에 관한 일고찰: 일본자료를 이용하여」
- 陳南澤(2003), 『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と韓國語の音韻史研究』(박사)
- 大塚忠蔵(2003), 『交隣須知』에 나타난 한국어 연구」(석사)
- 진남택(2004), 「일본자료를 통해 본 ㄷ의 변천과정」
- 홍수아(2005), 『交隣須知』의 明治刊本における 韓國語의 表記法에 關する 研究」(석사)
- 沈保京(2005), 『交隣須知』의 서지와 음운론적 특징」
- 中島仁(2006), 「隣語大方의 朝鮮語: 표기, 음운, 형태를 중심으로」
- 김정현(2006), 『交隣須知』의 표기와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석사)
- 이형미(2007), 「隣語大方의 이본에 나타난 한국어의 변화」(석사)
- 金周弼(2008), 「司譯院 倭學書에 나타난 音韻變化의 過程과 特性: 口蓋音化와 圓脣母音化 現象의 擴散 過程을 중심으로」.
- 李東郁(2004/2008), 『近世日本語の音声・音韻研究: 朝鮮時代の日本語学習書を中心に』(박사)
- 小泉和生(2009), 「筑波大本 『인어대방(隣語大方)』 비교연구(I)」
- 小泉和生(2010), 『인어대방(隣語大方)』의 국어학적 고찰」
- 정승혜(2010), 「왜학서에 나타나는 일본어주음표기에 대하여」
- 이준환(2011), 「日本漢字音과의 비교를 통한 /·/의 音價 考察」
- 沈保京(2012), 「開化期 韓國語學習書 『交隣須知』 表記 研究: 明治14年本 『交隣須知(1881)』 와 『校訂交隣須知(1904)』 比較」
- 최지미(2015), 「한국어 학습서 『交隣須知』의 국어학적 연구」(석사)
- 이옥희(2020), 「倭學書 『捷解新語』와 『改修捷解新語』의 표기·음운현상 연구」
- 허인영(2021a), 「전사 자료를 통해 본 한국어 전설모음의 형성 과정」(박사)
- 許仁寧(2021), 「転写資料を活用した韓国語音韻史の研究: 近世日韓の語学書を中心に」

음운 연구는 초기에 河野六郎(1952)을 필두로 개별 자료에 나타나는 일본어의 한글 표기를 정리하여 같은 시기 한국어의 음운 체계를 고찰하는 연구가 한동안 이어졌다. 2000년대 이전의 연구 가운데 白眉로 꼽을 수 있는 것은 金完鎭(1957)과 권인한(1990)이다. 두 연구 모두 한글 표기를 한국어사의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당시 일본어의 음운사적 특성을 파악하여 한글 표기와 연결지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왜학서와 일본인의 한글 전사 자료를 모두 다룬 진남택(2002, 2003, 2004)의 일련의 연구와 일본인의 한국어 학습서를 바탕으로 /·/의 음가를 추정한 송민(1986), 이준환(2011)은 왜학서를 비롯한 일본 자료를 자료로 삼아 한국어의 음운 변화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허인영(2021a), 許仁寧(2021)에서는 왜학서와 일본인의 한국어 표기 자료를 함께 다루어 한국어의 전설모음 형성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내놓기도 하였다.

2000년대 이후로는 개별 자료에 대해 국어학적으로 접근하는 석사논문과, 여느 한국어 자료와 마찬가지로 한글 표기만을 가지고 음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근대에 가까운 시기의 자료인 『隣語大方』과 『交隣須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는 개별 자료에 대한 분석은 물론이고, 일정 시기의 자료들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3.3. 문법

왜학서의 문법과 관련된 한국어학적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辻星児(1992), 「捷解新語の朝鮮語に見られる丁寧体終止語尾: その変遷と前半部の用法を中心に」
- 辻星児(1992), 「捷解新語の朝鮮語に見られる丁寧体終止語尾: 後半部の用法を中心に」
- 朴眞完(2000), 「『捷解新語』의 場面성과 相對敬語法: 格式性과의 關聯을 中心으로」
- 朴眞完(2000), 「『捷解新語』 경어법의 대조언어학적 고찰」
- 小泉和生(2001), 「『隣語大方』에 나타난 복수접미사에 대하여」
- 정승혜(2001), 「『첩해신어』의 장면분석을 통한 근대국어 경어법의 再考」
- 大塚忠蔵(2003), 「『交隣須知』에 나타난 한국어 연구」(석사)
- 이형미(2007), 「『隣語大方』의 이본에 나타난 한국어의 변화」(석사)
- 차윤정(2007), 「조선어 학습서에 나타난 한국어의 변화: 『全一道人』, 『講話』, 『漂民對話』를 중심으로」
- 김선효(2010), 「교린수지 에서의 조사 ‘의’와 ‘에’의 분포와 특성」
- 김선효(2013), 「日本 近代 韓語 資料에서의 副詞格 ‘의’의 過剩 樣相과 그 要因」
- 최지미(2015), 「한국어 학습서 『交隣須知』의 국어학적 연구」(석사)
- 서근화(2016), 「근대국어 청자경어법의 교체 사용에 관한 연구: 《첩해신어》의 이본 비교를 중심으로」(석사)
- 윤혜영(2017), 「18세기 후기 외국어 학습서에 나타난 인용구조 연구: 『인어대방』과 『중간노걸대언해』를 중심으로」
- 박진완(2019), 「東京外大本 『交隣須知』(1881)의 교정 양상을 통해 본 19세기말~20세기초의 상대경어법 체계」
- 이용규·황선엽(2021), 「주격 조사 ‘-가’의 일본어 차용설 검토」

한국어 역사자료의 일부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학서 자체에서 드러나는 한국어 문법상의 현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출발 시기도 늦을 뿐만 아니라 편수도 많지 않았다. 그나마도 『捷解新語』의 경어법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는 『隣語大方』, 『交隣須知』 등 다른 자료의 문법에 대한 연구와, 차윤정(2007), 김선효(2013)과 같이 복수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양상이나 변화를 검토하는 연구도 보인다. 눈에 띄는 것은 최근에 발표된 이용규·황선엽(2021)인데, 주격조사 ‘-가’의 기원과 관련하여 왜학서의 예를 비중 있게 다루는 한편 당시의 사회적 상황까지 고려하여 일본어의 영향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앞으로는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왜학서 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범위를 근대의 한일어 학습서까지 확장하여 각 자료들에 반영된 한국어 문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4. 어휘

왜학서의 어휘와 관련된 한국어학적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항희영(1977), 「原刊捷解新語의 한국말 造語考」  
 정광(1978), 「유해류 역학서에 대하여」  
 이철용(1983), 「유해류 역학서의 국어학적 고찰」(석사)  
 이진환(1984), 「十八世紀國語의 造語法研究: 「方言類釋」을 중심으로」(석사)  
 연규동(1987), 「〈方言集釋〉의 우리말풀이 研究」(석사)  
 片茂鎮(1991), 「『交隣須知』의 한국어에 대하여」  
 이태영(1994), 「〈捷解新語〉의 漢字語 研究」  
 홍사만(1994), 「자석어의 변천 연구: 『왜어유해』와 『일어유해』의 비교」  
 심보경(1995), 「『교린수지(明治14年版)』에서의 비한국어적 표현 몇 가지 考」  
 연규동(1996), 「근대국어 어휘집 연구: 유해류 역학서를 중심으로」(박사)  
 정승혜(1999), 「『捷解新語』에 나타나는 韓·日 양어의 상호 語彙 借用」  
 배석주(2000), 「『方言集釋』의 국어어휘에 대하여」  
 小泉和生(2001), 「『捷解新語』 地名考」  
 오만(2002), 「교토대학본 『交隣須知』의 어휘 연구」  
 林昌奎(2004), 「『捷解新語』의 漢字 翻譯について」  
 김영옥(2005), 「捷解新語의 韓國語 對訳文에 나타나는 日本語 單語에 대하여」  
 김영옥(2006), 「捷解新語의 韓國語 對訳文에 나타나는 漢字語에 대한 一考察」  
 연규동(2016), 「유해류 역학서의 종합적 검토」.  
 김문기(2009), 「『교린수지(交隣須知)』의 어휘와 표현 연구」  
 조강희(2009), 「『捷解新語』의 對譯 韓國語에 대하여」  
 조강희(2009), 「捷解新語의 對譯 韓國語 改修에 대하여」  
 고명균(2011), 「韓·日 漢字語의 同意關係 研究: ‘隣語大方’(1882年刊)을 中心으로」  
 片茂鎮(2011), 「『交隣須知』 筆写本과 刊行本の 한국어 어휘의 비교: 한일 근대어 연구자료로서의 가치성을 중심으로」  
 허재영(2012), 「한국어 학습서 『교린수지』의 분류항과 어휘 선정·배열 연구」  
 片茂鎮(2013), 「근대 한일어 대역자료 『交隣須知』를 통한 한일 양국어의 통시적 연구(1): 한

### 국어를 중심으로」

어휘 연구는 대체로 한학·몽학·청학 등 다른 三學의 類解書류 자료와 함께 『倭語類解』를 묶어서 다루거나, 각 자료별로 특징적인 어휘를 뽑아서 다루는 연구가 많았다. 기존 연구에서도 대역을 아예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주로 한자(중국어)로 된 표제어와 한국어 표현 간의 대응 관계나 부문의 수립 및 자료별 차이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捷解新語』에서 한일 양국어의 상호 차용을 한 어휘들을 검토한 정승혜(1999)이다. 최근에는 김영옥(2005, 2006), 조강희(2009), 片茂鎮(2011, 2013)과 같이 일본어학 연구자들도 對譯에 초점을 두고 한국어의 어휘까지 다루는 경향이 보인다. 한국어학 연구자들도 분발하여 왜학서의 어휘를 정리하고 기술할 필요가 있다.

### 3.5. 교육 관련

왜학서의 교육과 관련된 한국어학적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정광(1988), 『사역원 왜학 연구』  
김유정(2000), 『『捷解新語』에 나타난 言語教育의 諸相』  
鄭光(2004), 「韓半島における日本語教育とその教材」  
차윤정(2004), 「근대 조선어 학습서에 나타난 오류 표현과 원인 분석: 『全一道人』, 『講話』, 『漂民對話』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5-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77-294.  
김유정(2006), 『『捷解新語』의 언어교재로서의 특징과 언어기능 분석』  
정승혜(2006), 「日本에서의 韓語 教育과 教材에 대한 概觀」  
정승혜(2006), 「對馬島에서의 韓語 教育」  
박진완(2011), 「나에시로가와본(苗代川本) 「석음담(惜陰談)」에 대하여」  
박진완(2012), 「나에시로가와(苗代川) 조선어 학습서의 계통 재고」  
허재영(2012), 「한국어 교육사의 관점에서 본 교린수지(交隣須知)와 사과지남(辭課指南) 비교 연구」  
김유정(2013), 『『교린수지(交隣須知)』의 종결어미 분포에서 나타나는 언어 교재로서의 특징 연구』  
金周弼(2013), 「조선어 교재로서의 『隣語大方』과 일본어 교재로서의 『隣語大方』」  
김주필·이민아(2014), 「일본 外務省藏版 19세기 말 조선어 교재의 언어 사용 양상과 특징: 『교린수지』와 『인어대방』을 중심으로」  
정광(2014), 『조선시대의 외국어 교육』  
정광(2017), 『역학서의 세계』  
남준우(2019), 「일본의 한국어 학습 교재 변천에 대한 연구: 『교린수지』와 일본인 경찰을 위한 교재의 비교를 중심으로」(석사)

가장 늦게 연구가 시작된 것은 교육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정광(1988)의 선구적인 연구 이후, 오류 표현 분석이나 자료별 검토, 복수의 자료를 비교하여 교육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최근의 남준우(2019)는 왜학서는 아니지만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교재의 변천을 다루고 있어 눈길을 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과 관련된 연



구도 왜학서뿐만 아니라 근대의 자료까지 시야에 넣어야 할 것이다.

### 3.6. 『捷解新語』 관련

『捷解新語』는 가장 양이 많고 2번에 걸쳐 개수된 만큼 통시적으로 연구할 내용이 많은 자료이다. 한국어사적 입장에서 『捷解新語』 한국어 번역문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룬 연구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원간본 辻星児(1975), 「原刊『捷解新語』の朝鮮語について」  
王汶鎔(1981), 「捷解新語의 國語資料에 대하여」  
개수본 李太永(1990), 「〈捷解新語〉改修1次本の 국어학적 고찰」  
중간본 辻星児(1982), 「『改修捷解新語』の朝鮮語について」

원간본·개수본·중간본 간의 한국어학적 비교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李潤珪(1987), 「捷解新語와 改修捷解新語의 對比研究」  
鄭丞惠(1991), 「捷解新語의 對譯國文研究」(석사)  
小泉和生(1996), 「『捷解新語』諸異本對譯文의 比較研究」  
鄭丞惠(2000), 「『捷解新語』의 刊本 對照」  
鄭丞惠(2000/2003), 『조선후기 왜학서 연구』(박사)  
朴眞完(2002), 「『捷解新語』對譯文을 통해 본 근대 한국어 변천의 특성」  
朴眞完(2005), 「『朝鮮資料』의 新研究: 中·近世日韓語의 對照から」(박사)

### 기타 연구

- 李太永(1997), 「『捷解新語』의 翻譯樣相과 口語的特徵」  
辻星児(1997), 「『捷解新語』に見られる文法意識: 対訳朝鮮語の配置を通して」  
辻星児(1997), 『朝鮮語史における『捷解新語』』

첩해신어와 관련된 연구는 이제까지 많이 축적이 되어 왔으나, 아직 충분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捷解新語』는 왜학서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인 만큼, 앞으로는 판본별, 판본 간 연구를 넘어서 한국어와 일본어 양 측면 모두에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역주서가 간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어학계의 수많은 성과를 섭렵하여 주석을 달기 위해서는 일본어학 전공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4. 앞으로의 倭學書 연구

이제까지의 왜학서 연구는 각 자료를 중심으로, 또는 자료의 판본들을 비교·대조하여 특징을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물론 하나의 자료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앞으로의 왜학서 연구가 더 깊고, 넓고, 길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4.1. 더 깊게: 범위와 객관성을 고려한 용어 사용

“‘왜학서’를 “司譯院에서 倭學 譯官들의 일본어를 학습하기 위하여 사용한 교재이며 國典이나 『通文館志』에 譯科·取材·院試·考講 등의 출제서로 등재된 것”으로 규정한다면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왜학서가 될 수 없을 것”(정광 1993: 306)이다. 이제는 역학서, 왜학서라는 한정된 명칭을 사용하기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한국어사에 적합한 명칭과 체계를 찾아야 할 것이다. 사역원에서 간행된 왜학서, 그중에서도 공식적으로 출제서로 이름이 알려진 것만 다룬다면 『伊路波』와 『捷解新語』를 제외하고는 다룰 수 없게 된다.

일본에서는 일본어사에 사용되는 자료를 국내자료와 외국자료로 나누고, 외국자료는 다시 ‘기리시탄자료’, ‘서양자료’, ‘조선 자료’와 같은 식으로 분류해 왔다. 그러나 ‘조선자료’는 우리의 왜학서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국어 학습서까지도 포괄하여 지칭하는 명칭으로 쓰이므로, 한국어사의 입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매우 곤란한 명칭이 되어 버린다. 최근 許仁寧(2021: 24)에서는 언어사 자료를 다음과 같이 나눌 것을 제안한 바 있다.

##### (1)

- a. 국내자료: A어 화자가 A어 또는 A어에 관한 정보를 표기한 자료
- b. 외국자료: 非A어 화자가 A어 또는 A어에 관한 정보를 표기한 자료
- b'. 대역자료: A어의 표현을 대응하는 B어의 표현과 함께 제시한 자료
  - ① A어의 표현을 A어·B어의 문자로 함께 표기한 자료 (예: 捷解新語)
  - ② A어의 표현을 B어의 문자만으로 표기한 자료 (예: 倭語類解)
  - ③ A어의 표현을 A어의 문자만으로 표기한 자료 (예: 隣語大方(조선간본))

물론 이 분류가 모든 경우에 다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고, 체계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제는 왜학서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의에 사용되는 개념이 많을수록 포괄할 수 있는 범위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안과 밖, 나와 너를 나누면 객관적이 되기 어렵다. ‘역학서’가 아닌 ‘제2언어 학습서’, ‘왜학서’가 아닌 ‘일본어 학습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보다 객관적이게 되고, ‘역학서’라는 말을 들으면 ‘易學書’를 떠올릴 정도로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도 무엇을 가리키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4.2. 더 넓게: 연구 대상 시간과 공간의 확장

현대 이전 한국인에게 중국어·몽골어·만주어는 전적으로 학습의 대상이었고, 따라서 해당 언어 화자들은 한국어를 학습할 필요가 없었다. 즉, 중국인·몽골인·만주인들이 한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교재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어는 사정이 다르다. 고대부터 일본인들은 한국과 깊은 관계를 맺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본인도 한국어를 학습하며 한국어 교재를 편찬했던 것이다. 전근대 시기에는 거의 쓰시마(對馬)를 중심으로 학습서 편찬과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근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일본인이 편찬한 한국어 학습서와 한국인이 편찬한 일본어 학습서가 편찬되고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 자료들은 모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까지를 포괄하는 한국어사 자료로 쓰일 수 있다.

다행히도 지난 20년 사이에 근대 자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일본어학계에서는 『交隣須知』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交隣須知』를 필두로 19세기 말~20세기 초에 편찬된 수많은 한국어/일본어 학습서 자료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어학계에서도 근대/개화기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19세기 말~20세기 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일본어와 관련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이제까지의 근대 한국어/일본어 학습서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근세 및 근대 일본의 한국어 학습자료 총서’는 현재까지 40권에 달하는 근대의 한국어 학습서를 영인하고 해제를 붙여 간행한 것이고, 앞으로도 근세 자료를 계속 간행할 예정이므로 이 분야 연구에 큰 토대를 닦았다고 평할 수 있다.

- 山田寛人(1997). 「朝鮮語学習書辞書から見た日本人と朝鮮語: 1880年~1945年」  
 片茂鎮(2001). 「『韓国資料』의 기초적 연구(1): 韓國人을 위한 日語學習書を 중심으로」  
 山田寛人(2004). 『植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語奨励政策: 朝鮮語を学んだ日本人』  
 박기영(2005). 「開化期 韓國語의 音韻 研究: 日本에서 간행된 韓國語 學習書を 중심으로」  
 齋藤明美(2009). 『明治時期 日本의 韓語 學習書 研究: 『交隣須知』와의 關係를 중심으로』  
 김명주(2014). 「20세기 초 일본어 학습서의 국어 음운 연구」(석사)  
 成玟娥(2008/2014). 『近代朝鮮語會話書に関する研究: 明治期朝鮮語會話書の特徴と近代日本語の諸相』(박사)  
 이강민(2015). 『근대 일본의 한국어 학습서』  
 黃雲(2015). 「韓國開化期における日本語教育に関する研究」(박사)  
 진남택(2018). 「메이지(明治)기 한국어 학습서의 연구 현황」  
 이강민 엮음(2019-2020). 『근세 및 근대 일본의 한국어 학습자료 총서 1-40』

또한 기시다 후미타카 교수와 미노와 요시쓰구 교수 등의 노력으로 일본에서 한국어와 관련된 정보를 기록한 많은 자료가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이 자료들은 학습서뿐만 아니라 조선인 표류민을 취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대중 판매용으로 간행된 것 등 다양하다. 아직까지는 서지적인 소개와 해제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많아서, 앞으로 연구할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진남택(2003), 「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と韓國語の音韻史研究」와 허인영(2021)에서는 기존에 연구 자료로 활용되던 학습서 자료에 더하여 조선인 표류민 관련 자료나 에도시대 통속서까지 아울러 한국어 음운사적인 연구를 하었는데, 앞으로 더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나올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이제까지의 근세 한국어 관련 자료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辻星兒(1997). 『朝鮮語史における『捷解新語』』 중 제1부(朝鮮語史における日本資料)  
 辻星兒(1997) 「『朝鮮資料』の研究 (回顧と展望編)」  
 佐野三枝子(2001). 「日本 資料에 나타난 近代 韓國語의 研究」  
 李康民(2004). 「近世 日本의 韓國語學習書: 言語史研究資料書の 系譜와 性格」  
 箕輪吉次(2011). 「江戸時代通俗書における朝鮮語假名書き」  
 金文姬(2018a). 「近世期日朝対訳資料の研究: 「隣語大方」を中心に」(박사)  
 김문희(2020). 「근대 일본의 한어학습서 개관: 한일대역자료를 중심으로」

#### 4.3. 더 길게: 학문후속세대 양성 - 역주서의 간행과 학제적 연구

鄭丞惠(2016: 185)의 지적대로 글로벌화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늘어나면서 역학서 분야에서도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성과가 늘어났는데, 이러한 현상 자체는 고무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捷解新語』의 일본어학적 연구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고, 한국어학적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捷解新語』라는 자료가 두 학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배출한 연구자의 양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어학계에서도 일본어학계와 같이 왜학서 관련 분야를 깊이 공부한 연구자가 대학에 자리를 잡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문학 분야 전반이 위기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두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역학서는 외국어 학습서라는 특성상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좋은 측면이 있으나, ‘맛보는’ 단계를 넘어 연구의 수준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언어의 장벽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는 역학서의 역주와 학제적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역학서의 역주는 연구자가 자료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역주 작업의 결과물은 관련 분야 연구자뿐만 아니라 역학서를 접하는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을 준다. 왜학서만 놓고 보더라도 『捷解新語』의 역주서는 李太永(1997), 민병찬(2020)이 있을 뿐인데,<sup>6)</sup> 모두 각 분야의 연구자가 혼자서 작업한 것이다. 앞으로는 두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풍부하고 깊이 있는 주석이 달린 번역서를 낼 필요가 있다. 『倭語類解』는 어휘집이므로 역주서가 나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자료도 일반인 또는 초학자에 맞춰서 쉽게 풀이한 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때에도 일본어학 전공자와의 공동 작업이 바람직하다. 문학 작품도 많은 번역본이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듯이, 역학서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역주가 나올 수 있다. 특히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대의 한일어 학습서 자료 중에서도 역주가 필요한 것이 적지 않다.

왜학서의 학제적 연구는 여러 방면에서 가능하다. 이미 복식사의 관점에서 역학서의 복식명칭을 다룬 김은정·강순제(2006), 『倭語類解』의 건축 관련 어휘를 다룬 한동수·서동천(2016)이 나온 바 있다. 최근에 제출된 학위논문인 하세가와 사오리(2021)은 조선 후기 한일 간의 의학 교류를 다루면서 한일 통역사의 기여와 함께 번역서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交隣須知』·『酉年工夫』·『倭語類解』·『隣語大方』 등 다양한 학습서 자료를 의학적 맥락에서 꼼꼼히 다루고 있다. 이처럼 전문분야의 용어사를 살피는 데에 있어서 역학서의 의의는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대의 한일어 학습서 중에는 우편·철도·경찰 등 분야별 특성을 지닌 학습서가 존재하고 박기영(2012, 2013)과 같은 연구가 나온 바 있으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학제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면 보다 풍부한 연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역주 작업 또한 학제적 연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져서 제반 환경이 개선되면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 5. 맺음말

(생략)

6) 이와 별개로 정승혜 교수는 鄭丞惠(1997), 『改修捷解新語 序文 譯註』를 비롯한 여러 역학서의 서문을 『문헌과 해석』을 통해 번역해 왔다.

참고문헌<sup>7)</sup>

- 박기영(2012). 「일제 식민지 시기의 한국어 회화서 『日鮮 遞信會話』와 『朝鮮語遞信會話』에 대한 일고찰」. 『인문연구』 64.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24.
- 박기영(2013). 「개화기 한국어 회화서 <韓語會話>에 대한 일고찰」. 『국어국문학』 163. 국어국문학회. 103-132.
- 변광수(2014). 「반전평화 운동과 한국인: 유럽의 한국학자 조승복의 삶」. 『국제한국사학』 2. 국제한국사학회. 1-35.
- 李康民(1996). 「『捷解新語』와 日本語史」. 『한양일본학』 4. 한양일본학회. 13-28.
- 李康民(2004). 「近世 日本의 韓國語學習書: 言語史研究資料書의 系譜와 性格」. 『日本學報』 58. 한국일본학회. 175-192.
- 이강민(2015). 『근대 일본의 한국어 학습서』. 역락.
- 이강민 역음(2019-2020). 『근세 및 근대 일본의 한국어 학습자료 총서 1-40』. 역락.
- 李太永(1997). 『(譯註) 捷解新語』. 太學社.
- 정광(1993). 「『倭學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역음,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安秉禧先生 回甲紀念論叢). 서울: 문학과지성사. 297-308.
- 齋藤明美(2009). 『明治時期 日本의 韓語 學習書 研究: 『交隣須知』와의 關係를 중심으로』. 제이앤씨.
- 조승복(2004). 『분단의 한(恨): 과거와 미래 (상·하)』. 케리그마.
- 진남택(2018). 「메이지(明治)기 한국어 학습서의 연구 현황」. 『比較日本學』 43.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39-54.
- 片茂鎮(2001). 「『韓國資料』의 기초적 연구(1): 韓國人을 위한 日語學習書を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11. 한국일본문화학회. 299-325.
- 齋藤明美(2015). 『明治期の日本における韓語學習書研究: 『交隣須知』との關係を中心に』. 인문사.
- 成玟娥(2014). 『近代朝鮮語會話書に関する研究: 明治期朝鮮語會話書の特徴と近代日本語の諸相』. 제이앤씨.
- 辻星兒(1996) 「朝鮮語史における日本資料」. 『岡山大学文学部紀要』 26. 91-106.
- 辻星兒(1997) 「『朝鮮資料』の研究 (回顧と展望編)」. 『日本語と朝鮮語 上』(日本語と外國語との対照研究4). 東京: 国立国語研究所. 81-100.
- 中村雅之(2006). 「対音資料とは?」. 『いろいろな概説』. 古代文字資料館.  
(<https://www.for.aichi-pu.ac.jp/museum/pdf/nakamura-taion.pdf>)
- 山田寛人(1997). 「朝鮮語學習書辭書から見た日本人と朝鮮語: 1880年~1945年」. 『朝鮮學報』 169. 朝鮮學會. 53-83.
- 山田寛人(2004). 『植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語奨励政策: 朝鮮語を学んだ日本人』. 不二出版.

7) 遠藤光曉 외 편(2009)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제외하였다. 鄭丞惠(2016)에는 2009~2016년의 연구성과가 추가되었으나 접근성이 낮아 제외하지 않았다. 좁은 의미의 역학서에 해당하지 않거나 한국어학과 관련되지 않은 연구 성과도 수록하였다.

- 한국어학

- 고경민(2018). 「근현대 일본인 대상 한국어 학습서의 총체적 접근과 분석」. 『겨레어문학』 61. 겨레어문학회. 243-270.
- 고명균(2011). 「韓·日 漢字語의 同意關係 研究: ‘隣語大方’(1882年刊)을 中心으로」. 『언어와 문화』 7-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9-45.
- 고완린(2018). 「『漢語抄』의 표제어와 뜻풀이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方言類釋』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이즈미 가즈오(2009). 「筑波大本 「인어대방(隣語大方)」 비교연구(Ⅰ): 「조선간본」 한국어 음운을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13-1.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97-121.
- 고이즈미 가즈오(2010). 「『언어대방(偃語大方)』의 국어학적 고찰: 「츠크바대본」과 「조선간본」을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11. 국어사학회. 123-168.
- 곽재용(1994). 「유해류 역학서의 ‘신체’부 어휘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명주(2014). 「20세기 초 일본어 학습서의 국어 음운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주(2015). 「20세기 전기 일본어 학습서의 일본어 한글 표기 연구」. 『어문학』 128. 한국어문학회. 1-31.
- 김문기(2009). 「『교린수지(交隣須知)』의 어휘와 표현 연구」. 『우리말연구』 24. 우리말학회. 115-139.
- 김선호(2010). 「교린수지 예서의 조사 ‘의’와 ‘에’의 분포와 특성」. 『개신어문연구』 31. 개신어문학회. 33-54.
- 김선호(2013). 「日本 近代 韓語 資料에서의 副詞格 ‘의’의 過剩 樣相과 그 要因」. 『國語學』 67. 국어학회. 223-250.
- 김성주(2012). 「역학서 언해와 조선의 외국어 교육」. 『한국어문학연구』 58. 한국어문학회. 51-93.
- 김유정(2013). 「『교린수지(交隣須知)』의 종결어미 분포에서 나타나는 언어 교재로서의 특징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8.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9-65.
- 金周弼(2008). 「司譯院 倭學書에 나타난 音韻變化의 過程과 特性: 口蓋音化와 圓脣母音化 現象의 擴散 過程을 中心으로」. 『語文研究』 36-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3-71.
- 金周弼(2013). 「조선어 교재로서의 『隣語大方』과 일본어 교재로서의 『隣語大方』」. 『語文研究』 15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7-66.
- 김주필(2016). 「《왜어유해》의 간행 시기와 국어사 자료로서의 성격」. 『언어학』 15.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87-112.
- 김주필·이민아(2014). 「일본 外務省藏版 19세기 말 조선어 교재의 언어 사용 양상과 특징: 『교린수지』와 『인어대방』을 중심으로」. 『언어학』 70.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45-69.
- 김철준·고완린(2020). 「대역어휘집 『漢語抄』와 『方言類釋』의 어휘 분류체계에 대하여」. 『어문론총』 85. 한국문학언어학회. 9-26.
- 남준우(2019). 「일본의 한국어 학습 교재 변천에 대한 연구: 『교린수지』와 일본인 경찰을 위한 교재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완(2010). 「『조선어역(朝鮮語譯)』의 모음 표기 고찰」. 『한국어학』 48. 한국어학회. 131-155.
- 박진완(2011). 「나에시로가와본(苗代川本) 「석음담(惜陰談)」에 대하여」. 『한국어학』 52. 한국어

- 학회. 121-148.
- 박진완(2012). 「나에시로가와(苗代川) 조선어 학습서의 계통 재고」. 『한국어학』 54. 한국어학회. 171-207.
- 박진완(2019). 「東京外大本 『交隣須知』(1881)의 교정 양상을 통해 본 19세기말~20세기초의 상대경어법 체계」. 『한국어학』 82. 한국어학회. 31-72.
- 박찬식(2008). 『유해류 역학서 연구 1: 천문, 시령, 지리, 친속·인륜, 신체, 용모, 동정, 기식, 궁실, 언어, 인품부』. 서울: 역락.
- 서근화(2016). 「근대국어 청자경어법의 교체 사용에 관한 연구: 《첩해신어》의 이본 비교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沈保京(2012). 「開化期 韓國語學習書 『交隣須知』 表記 研究: 明治14年本 『交隣須知(1881)』와 『校訂交隣須知(1904)』 比較」. 『語文研究』 40-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9-89.
- 심소희(2005). 「조선시대 외국어 한글표기법의 고찰」. 『中國語文學誌』 17. 중국어문학회. 665-683.
- 연구동(2016). 「유해류 역학서의 종합적 검토」. 『국어사연구』 22. 국어사학회. 7-45.
- 유경민(2010). 「분류 어휘집의 ‘사람(人)’ 관련 표제항 연구」. 『한국어어미학회』 32. 한국어어미학회. 169-191.
- 윤혜영(2017). 「18세기 후기 외국어 학습서에 나타난 인용구조 연구: 『인어대방』과 『중간노걸대언해』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46. 한말연구학회. 83-114.
- 이근영(2001). 「교린수지(交隣須知)의 음운론적 연구」. 『한말연구』 8. 한말연구학회. 107-138.
- 이용규·황선엽(2021). 「주격 조사 ‘-가’의 일본어 차용설 검토」. 『國語學』 99. 국어학회. 319-347.
- 이옥희(2020). 「倭學書 『捷解新語』와 『改修捷解新語』의 표기·음운현상 연구」. 『우리어문연구』 68. 우리어문학회. 333-373.
- 이준환(2011). 「日本漢字音과의 비교를 통한 /·/의 音價 考察」. 『國語學』 61. 국어학회. 323-465.
- 정광(2014). 『조선시대의 외국어 교육』. 서울: 김영사.
- 정광(2017). 『역학서의 세계: 조선 사역원의 외국어 교재 연구』. 서울: 박문사.
- 鄭光(2021). 「朝鮮 司譯院의 문자 교육과 교재: 여진학서 『千字文』의 女眞 문자와 왜학서 『伊路波』의 假名 문자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어사연구』 7. 국어사연구회. 205-258.
- 정승혜(2010). 「왜학서에 나타나는 일본어주음표기에 대하여」. 『최명옥선생정년퇴임기념국어학논총』. 태학사. 631-656.
- 정승혜(2015). 「조선후기 朝日 兩國의 언어 학습과 문자에 대한 인식」. 『한국실학연구』 29. 한국실학학회. 81-117.
- 鄭丞惠(2016). 「韓國의 譯學書 研究: 回顧와 展望」. 『譯學과 譯學書』 7. 國際譯學書學會. 177-250.
- 鄭丞惠(2020). 「『通文館志』와 司譯院 四學」. 『震檀學報』 134. 진단학회. 363-403.
- 최지미(2015). 「한국어 학습서 『交隣須知』의 국어학적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片茂鎮(2009). 「일본 명치시대의 한국어학습서에 보이는 한국어 가나(假名) 표기에 관한 고찰: 명치 이전 한국어학습서류와의 비교를 통하여」. 『일본문화학보』 43. 한국일본문화학회. 83-104.
- 片茂鎮(2011). 「『交隣須知』 筆写本과 刊行本の 한국어 어휘의 비교: 한일 근대어 연구자료로

- 서의 가치성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49. 한국일본문화학회. 119-133.
- 片茂鎮(2013). 「근대 한일어 대역자료 『交隣須知』를 통한 한일 양국어의 통시적 연구(1): 한국어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58. 한국일본문화학회. 99-122.
- 한영균(2015). 「『朝鮮偉國字彙』의 국어사 자료로서의 가치」. 『코기토』 77.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13-135.
- 허인영(2014). 「『全一道人』의 한국어 복원과 음운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인영(2015a). 「『全一道人』 가나 전사의 교정에 대하여」. 『民族文化研究』 67.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167-214.
- 허인영(2015b). 「『全一道人』과 『朝鮮語譯』의 한글 표기에 대하여」. 『韓國語學』 69. 韓國語學會. 395-426.
- 허인영(2016). 「18세기 초 假名 전사 자료에 반영된 한자음 韻母의 음성적 특징」. 『口訣研究』 37. 口訣學會. 195-233.
- 허인영(2021a). 「전사 자료를 통해 본 한국어 전설모음의 형성 과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재영(2012). 「한국어 학습서 『교린수지』의 분류항과 어휘 선정·배열 연구」. 『한국어어미학』 38. 한국어어미학회. 193-214.
- 허재영(2012). 「한국어 교육사의 관점에서 본 교린수지(交隣須知)와 사과지남(辭課指南) 비교 연구」. 『한말연구』 31. 한말연구학회. 361-383.
- 鄭光(2013). 「草創期における倭学書の資料について」. 『일본문화연구』 48. 동아시아일본학회. 369-394.
- 鄭光(2014). 「朝鮮司訳院の倭学における仮名文字教育: バチカン図書館所蔵の『伊呂波』を中心に」. 『朝鮮學報』 231. 朝鮮學會. 35-87.
- 鄭光·裴聖祐·金裕正 著, 金京淑 譯(2016). 『倭語類解研究』. 京都: 臨川書店.
- 許仁寧(2021). 「転写資料を活用した韓国語音韻史の研究: 近世日韓の語学書を中心に」. 『比較日本學』 53.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1-40.

- 일본어학

- 강태규(2009). 「현대적 교재론의 관점에서 본 『捷解新語』」.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명균(2010). 「근대 조선어 학습서 '인어대방(隣語大方)' 연구: 연체형 표현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6-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18.
- 김문희(2020). 「근대 일본의 한어학습서 개관: 한일대역자료를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30. 국어사학회. 239-280
- 김영옥(2008). 「왜학서 학습서류의 공통 어휘에 대하여」. 『日本語學研究』 22. 한국일본어학회. 109-121.
- 金英玉(2009). 「한국에서의 왜학서 연구에 대하여」. 『日本語學研究』 26. 한국일본어학회. 15-34.
- 김영옥(2017). 「왜학서에 나타난 チ・ツ 음에 대하여」. 『일본어교육연구』 39. 한국일어교육학회. 39-52.
- 金恩淑(2013). 「朝鮮後期 文獻에 나타난 日本語; 조선왕조실록, 첩해신어, 사행록」. 경희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 민병찬(2020). 『역주 첩해신어(원간본·개수본)의 일본어 上·中』. 시간의물레.
- 박재환(2021). 「朝鮮通信使와 『捷解新語』」. 『일본근대학연구』 73. 한국일본근대학회. 85-102.
- 박해인(2012). 「조선간본 『인어대방』의 일본어 복합동사 고찰: 전향동사와 후향동사의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朴喜南(2006). 「『捷解新語』의 改修에 대한 고찰」. 『인문과학논문집』 41. 대전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25-146.
- 朴喜南(2016). 「『捷解新語』의 이유표현: 「ほどに」와 「により」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69. 한국일본문화학회. 133-152.
- 裴錫柱(2000). 「方言類釋의 倭語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石塚令子(2013). 「개화기 일본인 대상 한국어 학습서 연구: 명사 어휘의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成嘒慶(2008). 「朝鮮資料에 보이는 近世·近代의 日本漢字音의 讀書音에 관하여: 『倭語類解』와 『兒學編』의 清濁音 比較를 中心으로」. 『日本語文學』 43. 일본어문학회. 59-80.
- 成嘒慶(2009). 「『일어유해』의 일본어 기재방법에 대하여: 『왜어유해』의 일본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20. 동북아시아문화학회. 83-101.
- 成嘒慶(2010). 「『日語類解』의 일본어 표기와 음운에 대하여」. 『동북아문화연구』 24. 동북아시아문화학회. 61-76.
- 成嘒慶(2011). 「『日語類解』의 일본어 語法에 대하여: 동사·형용사·형용동사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28. 동북아시아문화학회. 435-450.
- 成嘒慶(2012). 「『日語類解』의 표제어 한자에 대하여」. 『동북아문화연구』 32.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27-245.
- 송경주(2007). 「“첩해신어”의 한글音注 표기에 관하여」. 『일본학논집』 22. 경희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16-30.
- 신충균(2010). 「아스톤本 『隣語大方』의 漢字語 對譯: 外國語 學習書의 對譯形態 傾向分析」. 『일본어문학』 47. 한국일본어문학회. 101-120.
- 申忠均(2012). 「아스톤本 『隣語大方』의 特異 漢字 表記語 考察」. 『일본연구』 17.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117-140.
- 이강민(2011). 「『倭語類解』와 『日語類解』(1): 上卷의 대조분석을 중심으로」. 『日本學報』 89. 한국일본학회. 87-102.
- 이강민(2012). 「『倭語類解』와 『日語類解』(2): 下卷의 대조분석을 중심으로」. 『日本學報』 90. 한국일본학회. 51-63.
- 이동욱(2014). 「『朝鮮偉國字彙』 「倭語類解」의 일본어 연구: 한글·로마자 표기를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88. 한국일어일문학회. 53-74.
- 이동욱·한원형(2018). 「『捷解新語』 단정표현 연구」. 『일본어문학』 83. 일본어문학회. 243-264.
- 이명희(2003). 「명치시대의 조선어학습: 『교린수지』의 시대별 배경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회 연구』 44. 한국일어일문학회. 205-227.
- 李鍾姬(2005). 「『捷解新語』의 「疑問要素와 呼応하는 副詞」에 대하여」. 『일본어학연구』 13. 한국일본어학회. 115-129.
- 李幸娟(2001). 「明治期 『交隣須知』에 나타나는 近代 日本語: 『日韓通話』와의 대조를 중심으로

- 」.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齊藤明美(2009). 「明治14年本『交隣須知』と明治37年本『校訂交隣須知』の日本語と文化」. 『인문과학연구논총』 30.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39-157.
- 조래철(2012). 「朝鮮資料における終声字-ス,+-ctと促音表記-ct-について」. 『일본어교육』 59. 한국일본어교육학회. 95-106.
- 최창완(2002). 「한일대역자료에 나타난 존경어 연구」. 『일본연구』 19.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302-324.
- 최창완(2003). 「한일대역자료에 나타난 겸양어 연구」. 『인문과학연구』 25.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61-89.
- 최창완(2006). 「『交隣須知』에 나타난 親族·官職名稱에 관한 研究」. 『日本語文學』 35. 일본어문학회. 145-164.
- 최창완(2009). 「『交隣須知』에 나오는 「お(ご)~동사」형태의 존경어에 대하여」. 『일본연구』 40.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455-475.
- 최창완(2010). 「『교린수지(交隣須知)』에 나타난 친족명칭의 변화에 대하여」. 『일어일문학연구』 72. 한국일어일문학회. 299-315.
- 최창완(2011). 「한일대역자료에 나오는 「お(ご)~동사」형태 존경어의 변천에 대하여」. 『일본연구』 48.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43-261.
- 최창완(2012). 「『交隣須知』에 나오는 「お(ご)~동사」형태의 겸양어에 대하여」. 『일본연구』 32.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199-213.
- 최창완(2013). 「『交隣須知』에 나타난 인칭대명사의 변천에 대하여」. 『언어와 언어학』 58.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 최창완(2013). 「『交隣須知』의 존경어에 대하여」. 『일본연구』 35.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111-125.
- 최창완(2014). 「『交隣須知』의 겸양어에 대하여」. 『일본연구』 36.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141-157.
- 최창완(2017). 「『교린수지(交隣須知)』에 나오는 미화어에 대하여」. 『日語日文學研究』 100. 한국일어일문학회. 49-65.
- 최창완(2018). 「『交隣須知』에 나오는 ニゴザル에 대하여」. 『日語日文學研究』 104. 한국일어일문학회. 163-181.
- 최창완(2019). 「『교린수지(交隣須知)』에 나타나는 ソウニゴザル에 대하여」. 『일어일문학연구』 111. 한국일어일문학회. 83-100.
- 최창완(2021). 「『交隣須知』에 나타나는 コウニゴザル에 대하여」. 『일어일문학연구』 118. 한국일어일문학회. 3-18.
- 편무진(2009). 일본 명치시대의 한국어학습서에 보이는 한국어 가나(仮名) 표기에 관한 고찰, 『일본문화학보』 43. 한국일본문화학회. 83-104.
- 片茂鎮(2010). 「『交隣須知』筆寫本과 刊行本の 일본어 어휘 비교: 初刊本에서의 어휘 수용 과정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45. 한국일본문화학회. 47-66.
- 片茂鎮(2014). 「『交隣須知』를 통한 일본어의 통시적 연구(1)」. 『일본문화학보』 61. 한국일본문화학회. 63-81.
- 片茂鎮(2015). 「『交隣須知』를 통한 일본어 통시적 연구(2): 尊敬表現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66. 한국일본문화학회. 63-82.

- 호규진(2014). 「조선시대 왜학서 연구: 일본어 어휘교육의 관점에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호규진(2016). 「첩해신어(捷解新語)의 수록어휘」. 『일본언어문화』 34.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55-278.
- 호규진(2017). 「왜어유해 어휘의 성격: 첩해신어 개수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日本學報』 112. 한국일본학회. 87-106.
- 홍사만(2010). 「『인어대방(隣語大方)』의 부사 연구(1): 정도 부사를 중심으로」. 『국학연구론총』 5. 택민국학연구원. 33-63.
- 홍사만(2011). 「『倭語類解』와 『日語類解』 親字의 대역 일본어 교체형 비교 분석」. 『국학연구론총』 8. 택민국학연구원. 47-92.
- 홍사만(2012). 『왜어유해와 일어유해의 어휘 연구: 표기형 교체를 중심으로』. 박이정.
- 池田ひろみ(2012). 「『捷解新語』における 漢語を用いた表現の改修に関する考察」.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泉文明(1996). 「ソウル大學校藏 『方言類釋』 倭語彙の諸問題」. 『일본어교육』 12. 한국일본어교육학회. 103-121.
- 大西恵梨子(2020). 「『捷解新語』における副詞の改修について」.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金銀姬(2010a). 「『方言類釋』と『倭語類解』についての研究: 共有する見出し語について」. 『語学教育研究論叢』 27. 大東文化大学語学教育研究所. 121-137.
- 金銀姬(2010b). 「『方言類釋』における倭語の表記に関する研究」. 『指向』 7. 大東文化大学大学院外国語学研究科日本語文化学専攻. 145-158.
- 金銀姬(2010c). 「『方言類釋』の日本語語積の部分に関する研究」. 『外国語学研究』 11. 大東文化大学大学院外国語学研究科. 159-170.
- 金銀姬(2011d). 「『方言類釋』の日本語語積の部分についての研究」. 『水門: 言葉と歴史』 22. 水門の会.
- 金銀姬(2011a). 「『譯語類解』と『方言類釋』の比較: 朝鮮語の注記に関して」. 『語学教育研究論叢』 28. 大東文化大学語学教育研究所. 429-446.
- 金銀姬(2011b). 「『譯語類解』, 『倭語類解』, 『方言類釋』の比較」. 『外国語学研究』 12. 大東文化大学大学院外国語学研究科. 111-119.
- 金銀姬(2012). 「『方言類釋』を主とする対訳語彙集の日中朝比較研究」. 大東文化大学 박사학위논문.
- 金文姬(2018a). 「近世期日朝対訳資料の研究: 「隣語大方」を中心に」. 大阪大学 박사학위논문.
- 金文姬(2018b). 「『韓牘集要』と『隣語大方』: 「韓牘集要」年代考證と兩書の關係について」. 『일본어문학』 77. 한국일본어문학학회. 213-237.
- 扈圭珍(2014). 「『日葡辭書』との對比から見た『倭語類解』の語彙の性格」. 『일본연구』 62.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357-380.
- 扈圭珍(2018). 「『倭語類解』の日本語音注表記」. 『日本語文學』 80. 일본어문학학회. 267-288.
- 申忠均(1997). 「朝鮮資料における条件表現の一特性: 朝鮮語対訳との關係から」. 『語文研究』 83. 九州大学国語国文学会. 1-11.
- 成嘒慶(1988). 「『倭語類解』に於ける日本漢字音の性格」. 岡山大学 석사학위논문.
- 丁鋼徹(2009). 「朝鮮資料における授受表現の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鄭昌鎬(1987). 「移動動作の表現における「へ」と「に」の使い分けの法則: 『捷解新語』、『天草本平家物語』、『大蔵虎明本狂言集』を資料として」. 岡山大学 석사학위논문.
- 東ヶ崎祐一(2013). 「『隣語大方』朝鮮刊本における仮名遣いについて」. 『日語日文學研究』 84. 한국일어일문학회. 485-507.
- 東ヶ崎祐一(2013). 「『隣語大方』朝鮮刊本に現れる仮名表記の2区分」. 『日本言語文化』 26. 한국일본언어문학회. 375-394.
- 東ヶ崎祐一(2015). 「『隣語大方』朝鮮刊本頭註の片仮名表記について」. 『日語日文學研究』 93. 한국일어일문학회. 181-205.
- 東ヶ崎祐一(2016). 「倭学書の日本語にみられる傍線表記」. 『日本言語文化』 37. 한국일본언어문학회. 37-56.
- 朴真完(2014). 「『三学訳語』の日本語に関する考察: 引用書との関係を中心に」. 『京都産業大学日本文化研究所紀要』 19. 京都産業大学日本文化研究所. 508-535.
- 黃雲(2015). 「韓国開化期における日本語教育に関する研究」. 麗澤大学 박사학위논문.
- 松上文子(2014). 「『捷解新語』における形式名詞の意味と用法」.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箕輪吉次(2011). 「江戸時代通俗書における朝鮮語假名書き」. 『일어일문학회연구』 76-1. 한국일어일문학회. 39-65.
- Osterkamp, Sven (2010). 新発見の欧州所在倭学書とその周辺. 日韓言語学会議: 韓国語を通じた日韓両国の相互理解と共生 (conference proceedings; Reitaku University, 12.-13.XI.2010). 361-378.
- 서지·기타
- 李仙喜(2013). 「『捷解新語』原刊本 5種の先後關係」. 『奎章閣』 4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3-96.
- 李仙喜(2016). 「『改修捷解新語』의 書誌事項」. 『震檀學報』 127. 진단학회. 193-216.
- 李賢熙·河崎啓剛(2011). 「奎章閣韓國學研究院 所藏 「校訂交隣須知原稿」에 대하여: 明治三十七年(1904)本 前間恭作·藤波義貫 共訂, 『校訂交隣須知』의 원고」. 『書誌學報』 37. 한국서지학회. 5-26.
- 정승혜(2009). 「『隣語大方』朝鮮刊本の 成立과 撰者에 대하여: 奎章閣 韓國本 書目 『西庫書目』에 據하여」. 『국어사연구』 9. 국어사학회. 239-268.
- 허인영(2017). 「『朝鮮偉國字彙』의 서지와 자료적 성격」. 『국어사연구』 25. 국어사학회. 167-206.
- 허인영(2021b). 「『倭語類解』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서적의 유통과 변용」. 『2021년 민족어문학회 추계 학술대회: 타자(他者)의 시선에 비친 한국어문학』(발표집). 민족어문학회. 208-228.
- 김은정·강순제(2006). 「조선시대 외국어학습서를 중심으로 본 복식명칭 연구」. 『服飾』 56-6. 한국복식학회. 72-86.
- 하세가와 사오리(2021). 「조선 후기 한일 의학교류사: 통역사들의 기여와 번역서 검토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동수·서동천(2016). 「조선시대 역관의 학습서 《왜어유해(倭語類解)》에 보이는 건축 관련 어

휘에 대한 고찰』.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117-122.

柴田昭二(1993). 「弘治五年朝鮮板伊路波について」. 『としょかんだより: 香川大学附属図書館報』 15. 香川大学附属図書館. 5-7.

辻星児(2008). 「重刊改修捷解新語の諸本とその板木」. 『文化共生学研究』 6. 137-147.

Osterkamp, Sven (2011). [review of] Endō Mitsuaki 遠藤光暁 et al. (eds.) (2009). *Yōkhaksō munhōn mongnok* 譯學書文獻目錄. *Bochumer Jahrbuch zur Ostasienforschung* 34 (2010). 311-321.



# 『蒙語類解』 몽골어 표기에 대하여

- 장모음과 모음 사이의  $v/g$  탈락을 중심으로 -

을지마트(한국외대 몽골어과)

## 1. 서론

조선 정조14년(1790)에 방효언(方孝彦)이 엮어 펴낸 몽골어 학습서 蒙學三書는 근대 국어 연구에서 중요한 문헌 자료이고 몽골어에 있어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귀한 자료이다. 그만큼 오랫동안 몽골어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17-18세기 몽골어의 특징, 특히 구어체의 특징을 상당히 반영한 자료로서 그 당시의 몽골어 음운론적 특성과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蒙學三書에 나타나는 몽골어는 대체로 고전몽골어(古典蒙古語)<sup>1)</sup>와 유사하지만, 칼카(Khalkha) 혹은 오르도스(Ordos) 등의 현대 몽골어와 유사한 성격도 다소 발견된다.<sup>2)</sup> 또한 사역원(司譯院) 간행 蒙學書는 몽골어 학습의 실제적 필요에 의하여 당시 통용되고 있던 몽골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sup>3)</sup> 蒙學三書에 나타나는 몽골어의 언어적 신빙성(信憑性)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이성규1998:1)

1600년 직후 립단(林丹) 칸의 명을 받들어 티베트 대장경(大藏經)인 감주이(甘珠爾), 단주이(丹珠爾)를 몽골어로 번역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고전몽고어 표기법이 재정립되었다.<sup>4)</sup> 이 표기법은 문어체를 바탕으로 정립된 표기법이며 그 당시 구어체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sup>5)</sup> 특

- 1) 17세기에 재정립된 위구르-몽고문자의 문어체 표기법.
- 2) 송기중(1985:375)에 따르면 18세기 몽고어의 구어체 양상을 소상히 볼 수 있는 자료가 아직까지 발견된 것이 없어서, 몽어유해에 반영된 언어가 몽고어의 어떤 방언인지 확정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선조의 역관들이 몽학서를 편찬·수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서적들이 乾隆年間의 발행서들이었고, 북경에서 몽고인들과 접촉·질의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몽어유해(몽어노걸대, 첩해몽어도 마찬가지로)에 등장하는 몽고어는 淸文鑑類에 수록된 몽고어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이것은 당시 청조(淸朝)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주요 몽고부족들의 방언을 반영한다고 추측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 3) 사역원 간행 몽학서가 당시 몽골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사실은 몽학서의 서(序), 발문(跋文)에서 확인된다.(이기문1964:375-382)
- 4) 서구의 학자들은 13-16세기의 자료들에 기술된 몽골어를 ‘中世蒙古語’(Middle Mongolian) 혹은 ‘先古典蒙古語’(Pre-Classical Mongolian)라고 불러 왔다. 17세기에 재정립된 위구르-몽고문자의 절차법이 시현하는 몽고어 형식들은 그 이전 단계인 중세몽고어보다 더 古形을 시현하는 어형들이 있기 때문에 蒙古語史에서 그 언어는 ‘신간 개념’에 의한 분류가 아닌, 즉, ‘中世’에 상응하는 용어가 아닌 ‘古典蒙古語’(Classical Mongolian) 혹은 ‘蒙古文語’(Written Mongolian/Script Mongolian)라고 불러왔다.
- 5) 몽골인들의 언어생활, 문자사(文字史)를 살펴보면 어문불일치(語文不一致)를 극복하고자 했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예로 토드문자(1648), 소음보 문자(1686), 바긴드라 문자(1905) 등을 제정하고 사용했으며 라틴문자(1930년대), 키릴문자(1941) 등을 차용해서 사용하였다. 한편으로 고전몽골어문어는 佛經을 번역하는 데에만 국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히, 17-18세기 몽골어는 그의 앞뒤 시기의 몽골어와 음운론적인 면에서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그 변화 과정을 밝히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시기에 간행된 몽학삼서에는 몽문(蒙文) 표기(表記)와 몽문 표기에 대한 한글 발음표기가 부기(附記)되어 있어 당시 몽골어의 실제 파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발음 표기는 당시 몽골인들의 실제 독법(讀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이기문1964:371)

몽골어사에 있어 아직까지 학자들 간에 이견을 일으키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음의 탈락으로 인한 장모음, 이중모음 형성 그리고 모음동화 현상 등이다. 대표적인 예가 ‘qayan>qa:n’의 변화이다. 이와 관련하여 Poppe, N.(1965:140)에서는 기원적인 장모음(즉, 알타이 共通祖語에서 弱勢가 되던 音節) 앞에 위치한 弱位置 g/v/y/ŋ 등이 탈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6)</sup> 그러나 D. Tomortogoo(2002:78-79)에서는 따르면 두 모음 사이의 자음(v/g/y/b)이 탈락된 후 두 모음이 동화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고대 몽골어의 V<sub>1</sub>CV<sub>2</sub> 구조에서 후행 모음이 처음부터 강세를 가진 초분절 음소이었다가 장모음으로 변화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모음 간 자음은 이 과정에서 탈락했다고 보았다.

송기중(1985:388)에서는 『蒙語類解』에서 g와 v의 탈락·불탈락 환경을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서로 상반되는 oyočimui>očimui: 오치뫼, 오고치뫼 ‘들여마시다’(上49a, 2형이 나란히 있음); qayariyul>qariul: 하리날 。 ‘인두’ (下13b) 등의 예들을 제시하면서, 동일한 어간에서 파생된 단어인데도 동사에서는 v/g가 탈락되지 않았는데 명사에서는 탈락된 예들이 나란히 수록되어 있어, 어떤 음운적 환경을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sup>7)</sup>

본고에서는 18세기 문헌인 『蒙語類解』를 대상으로 g와 v의 탈락·불탈락에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게 될 것이다. 첫째, 『蒙語類解』에 반영된 언어에 관한 것이다. 『蒙語類解』가 문어의 반영인가 아니면 당시 몽골어 구어를 반영해서 집필되었는가? 그리고 구어라면 어떤 방언인지에 대해 논해 볼 것이다. 둘째, 표기법에 관한 것이다. 표기는 轉字(글자 그대로)한 것인지 아니면 轉寫(소리 나는 대로)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셋째, 『蒙語類解』에 반영된 언어의 시기에 관한 것이다. 『蒙語類解』에 반영된 몽골어가 이 텍스트가 편찬된 시기인 17-18세기의 언어인지의 여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넷째, 『蒙語類解』가 몽골어 연구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잘 알다시피 몽골어에 관한 역사 자료는 많지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蒙語類解』는 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도 기술해 볼 필요가 있다.

## 2. 중세몽골어 장모음화

몽골어사에서 학자들 간에 중세몽골어의 장모음화에 대하여 여전히 의견을 일치할 보지 못하고 있다. N. Poppe(1965:140)에서는 기원적인 장모음(즉, 알타이 共通祖語에서 弱勢가 되던 音節) 앞에 위치한 弱位置 g, v, y, ŋ 등이 탈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송기중1985:388) 이렇게 보는 경우 VCV에서의 앞 모음이 어떠한 음운변화를 걸쳐 약화되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아무리 약화된

6) 송기중(1985:388)에서 재인용.

7) 송기중(1985:388)에서는 이들은 淸文鑑類에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모음일지라도 바로 탈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신에 중간 자음이 탈락되고 장모음이 형성되는 동시에 선행모음 동음화 과정도 같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봐야 한다. 선행모음은 장모음과 동일한 모음일 경우 별문제 없지만 서로 다른 모음일 경우 순행동음화가 먼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본다.<sup>8)</sup>

- (1) PM.<sup>9)</sup>\*dayun > AM. dayun > MM. dawun > daun > du'un > du: (노래)  
 PM. \*qayan > AM. qayan > MM. qahan > qa'an > .....> qa:n (왕/王)

D. Zayabaatar(2011:94)에서는 몽골어 장모음에 대해서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 먼저  $V_1CV_2$  구조에서  $V_2$ 가 강세를 가지는 초분절 음소이었는데 점차 장모음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초분절 음소가 장모음으로 변화함에 따라 그 음소를 선행하는  $\nu/g$  자음이 약화하여 마찰음 h, w, y로 변화하였고 결국에는 탈락하고 만다. 그런 마찰음 앞에 있던  $V_1$ 이  $V_2$ 와 동화하여 장모음이 형성된 것으로 봤다.

D. Tomortogoo(1995:220-222)에서는 보다 진전된 연구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nu/g$ 탈락과 장모음 형성은 고대몽골어 후기부터 시작하여 중세몽골어 시기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면서 그 환경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즉,  $\nu/g$  탈락은 주변에 어떤 모음군이 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봤다. 예를 들어,  $V_1CV_2$ 에서  $V_2$ 가 순음 u:, ü:인 경우에는 중간 자음이 약화하면서 양순마찰음 w가 되고 다음 단계에서 탈락된다.

- (2) AM. dayu:n > MM. dawu:n > Mo.M. du: (노래)  
 AM. sibayu:n > MM. sibawu:n > Mo.M. suwu: (새/鳥)  
 AM. jegü:n > MM. jewü:n > Mo.M. jü:n (좌/左)

$V_2$ 가 i:인 경우에는 중간 자음이 약화하면서 치경마찰음 y가 되고 다음 단계에서 탈락된다.

- (3) AM. \*sayi:n > MM. sayi:n > Mo.M. sain (좋다)  
 AM. \*oyi:ra > MM. oyi:ra > Mo.M. oir (가깝다)  
 AM. \*ügi:le > MM. üyi:le > Mo.M. üil (행위)

$V_2$ 가 ai:, e:인 경우에는 중간 자음이 약화하면서 성문마찰음 h가 되고 다음 단계에서 탈락된다.

8) S. Batkhishig(2009)에서는 이것을 완전동화와 불완전동화로 양분해서 보기도 하였다.

9) PM. (Proto Mongolian) 상고몽골어, AM. (Ancient Mongolian) 고대몽골어, MM. (Middle Mongolian) 중세몽골어, Mo.M (Modern Mongolian) 현대몽골어, CM. (Classical Mongolian) 고전몽골어.

- (4) AM. qaya:n > MM. qaha:n > Mo.M. qa:n (왕/王)  
 AM. baya:tur > MM. baha:tur > Mo.M. ba:tar (영웅)  
 AM. gegege:n > MM. gegehe:n > Mo.M. gege:n (밝은)

한편, S. Batkhishig(2009:166-168)에서는 17-18세기 몽골어 자료인 게세르서사시와 토드문자 자료, 蒙學三書 등에 나타나는 몽골어의 장모음화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상고몽골어		고대몽골어		중세몽골어		17-18세기 몽골어		현대몽골어
a.	aγǎ	>	aγā	>	a'ā	>	aa	>	aa~ii
b.	aγī*	>	aγī*	>	aγā*~a'ā	>	ai~ya	>	ai~ya
c.	īγǎ*	>	īγǎ	>	i'a*	>	ia~ya~ā/ō	>	ia/ya~aa/io~ō
d.	uγǎ*	>	uγā	>	u'ā	>	aa	>	aa~oo*
e.	egě	>	eyē	>	e'e	>	ee	>	ee
f.	egī	>	*eyī	>	e'ī	>	ei	>	ee~ii
g.	igě	>	iyē	>	i'e	>	ye	>	öö~ye
h.	aγū	>	aγū	>	a'ū	>	uu~au~ou~ao~aa	>	uu~oo
i.	aγī	>	ayī	>	a'ī	>	ai~ii	>	ai~aa~ī
j.	uγū	>	uγū	>	u'ū	>	uu	>	uu
k.	īγū	>	īγū	>	i'ū	>	uu	>	uu
l.	oγū	>	oγū	>	o'ū	>	o'ū~oo	>	oo
m.	oγī	>	oyī	>	o'ī	>	oi~oo	>	oi~oo
n.	egū	>	eyū	>	e'ū	>	eū, öü, üü	>	üü
o.	egī	>	eyī	>	e'ī	>	eī~ee	>	ii~ee
p.	ügě	>	üyē	>	ü'e	>	üü, öö	>	öö
q.	ügī	>	üyī	>	ü'ī	>	üi	>	üi~ii
r.	ügū	>	üyū	>	ü'ū	>	üü	>	üü
s.	igī	>	igī~iyī	>	i'ī	>	ii	>	ii

(5)에서 보면 17-18세기 몽골어에서 자음 사이의  $\gamma/g$ 가 완전히 탈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부 방언에서는  $\gamma/g$ 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어 주의를 끈다.

- (6) PM. debel > AM. dewel > MM. de'el > kh. de:l (칼카 방언) (델-웃)  
 > tor. dewel (토르코드 방언)  
 CM. tayalal > bur. tagaalal(부리야드 방언), kh. ta:lal (섭리(攝理))  
 CM. ilegebe > bur. elgeebe(부리야드 방언), kh. ile:v (지내다)  
 CM. quruyu > bur. qurgan(부리야드 방언), kh. xuru: (손가락)

S. Batkhishig(2009:162)은 17-18세기 몽골어 장모음 특징으로 VCV 구조에서 자음이 탈락되어 모음동화가 이루어졌다고 봤다. 그 당시 탈락된 자음의 양쪽 모음이 동일한 모음인 경우 어렵지 않게 동화되어 장모음 (a+a>a:, e+e>e:, i+i>i:, u+u>u:, ü+ü>ü:)이 되었던 반면 양쪽 모음이 서로 다른 모음인 경우에는 이중모음을 형성하기도 하였으며 방언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7)	CM. ayula	>	da. aula (다구르 방언)	kh. u:l (산/山)
	CM. nayur	>	da. naur (다구르 방언)	kh. nu:r (호수)
	CM. segül	>	da. seül (다구르 방언)	kh. sü:l (꼬리)
(8)	kh. mogoi	<	oir. mogoo (오이라드 방언) (뺨)	
	kh. toxoi	<	oir. toxoo (오이라드 방언) (팔꿈치)	
	kh tu:lai	<	oold. tu:la: (얼드 방언) (토끼)	
	kh. sain	<	tsah. sa:n (차하르 방언) (좋다)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몽골어 VCV 구조의 자음 탈락, 또는 모음 약화가 중세몽골어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v/g$  자음 탈락은 그의 환경에 따라 즉  $V_2$ 가  $V_1$ 과 같은 음운인가, 다른 음운인가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였다. 게세르 영웅서사시나 토드문자 자료 등을 보면 17-18세기 몽골어에서 완전히  $v/g$  탈락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일부 방언에서 유지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고전몽골어 표기법은 수트라언어(Sutra language) 즉 불경을 번역하는 문어체로 봐야 하며 그 당시의 구어체를 반영하지 않고 아니라 자기만의 서법과 독법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대중의 문어생활에서 語文不一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일부 지역에서 자기 방언에 알맞은 문자를 제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게세르, 장가르 등의 문학 자료들이 구어체를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이렇게 봤을 때 외국에서 집필된 蒙學三書 등의 학습서는 수트라언어가 아닌 그 당시의 일상생활에서의 어휘와 표현을 중심으로 한 구어체를 반영해서 편찬된 것은 당연한 일로 판단된다.

### 3. 『蒙語類解』 모음 사이에 나타나는 $v/g$ 탈락·불탈락

몽골 학자들에 의한 蒙學三書 연구 그리 많지 않다. B. Sumiyabaatar(1976), Ts. Shagdarsuren(2005), S. Batkhishig(2009)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으나 소개에만 그쳤다. 언어적 장벽 때문이다. 몽골어 어휘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는 『蒙語類解』에 대한 연구는 P. Erdenetuya(2011) 석사학위 논문이 전부이다. P. Erdenetuya(2011)에서 『蒙語類解』의 음운론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나 오기가 다소 눈에 띈다.

반면,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김방한(1962), 이기문(1964), 송기중(1985), 이성규

(2002) 그리고 최근에 大井秀明(2006), 심영환(2014) 등의 논문이 줄을 이루면서 대표적인 연구로 알려져 있다. 특히 송기중(1985)은 『蒙語類解』의 음운적 특징을 심도 있게 연구하였으며 모음 간의  $\gamma/g$ 의 탈락·불탈락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다.

『蒙語類解』에 나타나는 장모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9) 가. CM.  $\gamma ad\mathbf{aya}du$  > 『蒙類』 가다가두/ $\gamma ad\mathbf{aya}du$  ㅃ편 (상8a)
  - 나. CM.  $sin\mathbf{a}$  > 『蒙類』 시나/ $sin\mathbf{a}$  보쵸개 (상10b)
  - 나'. CM.  $ayulan-u\ sin\mathbf{a}$  > 『蒙類』 아구란 ㄸ 시나가/ $ayulan-u\ sin\mathbf{aya}$  ㅃ부리 (상3b)
  - 다. CM.  $dalb\mathbf{aya}$  > 『蒙類』 달바/ $dalb\mathbf{a}$  빅스돏 (하13a)
  - 라. CM.  $q\mathbf{ayarimui}$  > 『蒙類』 하가리뫼/ $q\mathbf{ayarimui}$  인도질헝다 (하13b)
  - 라'. CM.  $q\mathbf{ariyul}$  > 『蒙類』 하리늘 / $q\mathbf{ariul}$  인도 (하13b)
- 
- (9') 가.  $aya$  >  $aya$  (9가, 라)
  - 나.  $a$  >  $a$  (9나)
  - 다.  $a$  >  $aya$  (9나')
  - 라.  $aya$  >  $a$  (9다, 라')

(9)는 몽골어 장모음 [a:]가 등장하는 예문들이다. 고전몽골어에서는 주로 'aya'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 『蒙語類解』에서는 'aya'(9가, 라), 'a'(9다, 라')로 나타난다. 단모음 a로 표기하는 (9.나')의 sina는 'aya' 형태가 있는 sinaya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aya > a'로 나타나는 것은 당시에 이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임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5)에 드러난 몽골어의 음운변화를 고려할 때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 'aya > a'의 변화는 이미 이전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장모음을 'aya'로 쓰는 당시의 고전몽골어 표기법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모든 장모음을 'aya'(9나')로 표기한 것이 아니라 몇몇 단어에만 국한해서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표기가 일어난 것은 『蒙語類解』를 펴낸 편찬자가 음의 변화를 반영한 轉寫를 하면서도 고전몽골어 표기법에 대한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9라, 라')에서 동일한 어간으로 되어 있는 '하가리뫼/ $q\mathbf{ayarimui}$  인도질헝다'와 '하리늘 / $q\mathbf{ariul}$  인도'가 서로 다르게 표기하였다. 송기중(1986:388)에서는 동일한 어간에서 파생된 단어들에서 동사에서는  $\gamma/g$  탈락되지 않았는데 명사에서는 탈락된 예들이 나란히 수록되어 있어, 어떤 음운적 환경을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사에서의  $\gamma/g$  탈락 여부가 품사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같은 예로 '다루굴/ $darayul$ >다루늘 / $daruul$ (補21b)', '하라군/ $qalayun$ >하로고한/ $qaluuqan$ (상4b)' 등을 들 수 있다. 송기중(1986)의 견해는 동일한 어간에서 파생된 단어들을 제외하면 명사와 동사를 막론하고 'aya>a'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채고의 여지가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蒙語類解』의 편찬자가 실제 언어 현실과 변화와는 동떨어지기는 했지만 품사에 따른 구분을 했다. 다만 이렇게 한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힘들다.

- (10) 가. CM.  $naran\ k\mathbf{uriyelebe}$ >『蒙類』 나란 쿠려러버/ $naran\ k\mathbf{uriyelebe}$  헝긱모로헝다(상1a)

- 나. CM. serege > 『蒙類』 서러/serye 삼지참(상10b)  
 다. CM. ebkegesü > 『蒙類』 업커수/ebkesü 실우리 (하20a)  
 라. CM. Bürkügesü > 『蒙類』 불커수/bürkesü 가마두에 (하10a)  
 마. CM. Bürküger > 『蒙類』 불컬/bürker 시르(하10b)  
 바. CM. eregelemüi > 『蒙類』 어러너러뫼/ereolemüi 逼迫헛다(상24b)

- (10') 가. ye > ye (10나)  
 나. ege > ye (10나)  
 다. ege > e (10다)  
 라. üge > e (10라, 마)  
 마. ege > eo (10바)

(10)는 몽골어 장모음 [e:]가 나타나는 예문들이다. 고전몽골어에서 주로 ege, üge, eyi로 나타나는 반면 『蒙語類解』에서는 (10가, 나) ye, (10다, 라, 마) e, (10바)에서는 eo로 나타난다. ege, üge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같은 시기 문헌 자료인 게세르 서사시 등의 자료에서도 e:는 terete, dege, ujele(Batkhisig, S.2009:41)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고전몽골어 표기를 따르지 않고 당시의 현실음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sup>10)</sup>

- (11) 가. CM. kereg siidgümüi > 『蒙類』 커럭 싯커뫼/kereg sidkemüi 일 출호다(상38b)  
 나. CM. nisü nigimüi > 『蒙類』 니수 니뫼/nisü nimüi 코 푸다(상12a)

- (11') 가. ii > i (11가)  
 나. igi > i (11나)

(11) 몽골어 장모음 [i:]가 나타나는 예문이다. i:는 고전몽골어에서 igi, iyi, ii, eig, eyi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蒙語類解』에서는 단모음 i로 표기되었다.

- (12) 가. CM. doluyan odun > 『蒙類』 도로간 오돈/doluyan odun 복두성 (상2a)  
 나. CM. toyuya > 『蒙類』 토고/toyo 가마 (하10a)  
 다. CM. qoyulai > 『蒙類』 호고라/qoyula 목구무 (상12b)  
 다'. CM. qoyulai > 『蒙類』 호고래/qoyulai 목구무 (상12b)  
 라. CM. touurai > 『蒙類』 토뢰/toroi 兒豬 (하33가)

- (12') 가. uya > uya (12가)  
 나. uya > o (12나)

10) Batkhisig, S.(2009:45)에서는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설명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이한 기록으로 일컬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17-18세기의 있었던 장모음화를 반영한 기록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다. oyu > oyu (12다, 다')

라. ou > o (12라)

고전몽골어에서 주로 uya, oyu, ou로 나타나는 [o:]는 『蒙語類解』에서 (12가) uya, (12나) o, (12다) oyu, (12라) o로 나타난다. 한편, (12다, 다') 동일한 어휘 qoyulai에 대한 전사는 호고라 /qoyula>호고래/qoyulai로 서로 다르게 표기되었다.

- (13) 가. CM. ayula > 『蒙類』 아구라/ayula 山(상18b)  
 나. CM. asayumui > 『蒙類』 아사구뿔/asayumui 뿔다(상18b)  
 다. CM. qalayunqan > 『蒙類』 하로고한/qalayunqan 드스헛다(상4b)  
 라. CM. quruyun > 『蒙類』 후루구/quruyun 손가락(상12b)  
 바. CM. daruyuly-a > 『蒙類』 다롤가/daruyulya(補27a)  
 사. CM. uyur > 『蒙類』 오고늘 /uyur 확(하2a)  
 아. CM. noluur > 『蒙類』 노로늘 /noluur 소음 치짓(하29b)  
 자. CM. ceceg-ün yuursu > 『蒙類』 치칙군 고늘 수/cicig-ün yuursü(하38a)  
 차. CM. burcay > 『蒙類』 불착/burcay(하2b)

- (13') 가. ayu > ayu (13가,나)  
 나. ayu > uu (13다)  
 다. uyu > uyu (13라)  
 라. uyu > u (13바)  
 다. uyu > uyuu(13사)  
 라. uu > uu (13아, 자)  
 다. u > ü (13차)

장모음 [u:]는 고전몽골어에서 ayu, uyu, iyu, uu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에, 『蒙語類解』에서는 a yu, uyu, uu, u로 나타나며 그 대응이 불규칙하다. ayu>ayu/uu, uyu>uyu/uyuu/u, uu>uu, u>u로 나타난다. 불착/burcay(하2b)처럼 ü로 표기한 예도 나타난다.

- (14) 가. CM. cardayul > 『蒙類』 찰다늘 /cardayul 니풀(상44a)  
 나. CM. qajayun > 『蒙類』 하자고/qajayun ㄱ(상8a)  
 다. CM. ayudam > 『蒙類』 아담/ayudam 광활헛다(補3a)

- (14') 나. ayu > au(yau)(14가,나,다)

(14)와 같이 au, yau 등으로 표기된 어휘도 나타난다. 이것은 (7)에서 살펴봤던 다구르 방언 양상(ayula > da. aula, nayur > da. naur)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임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

다.

- (15) 가. CM. örügei > 『蒙類』 우루굴/örügüi 입시울 (상12a)  
 나. CM. dörügebci > 『蒙類』 두릅치/dürübci 지게 (하12a)

- (15') 가. üge > ügü (15가)  
 나. üge > ü (15나)

장모음 [ö:]의 경우 고전몽골어에서는 üge로 정리되어 있지만 이런 형태가 『蒙語類解』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ügü나 ü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 (16) 가. CM. ilegüü saran > 『蒙類』 이러구<sub>ᠤ</sub> 사라/ilegüü saran (상3b)  
 나. CM. jegüü > 『蒙類』 저<sub>ᠤ</sub> /jegü 바늘 (하13b)  
 다. CM. öbcigüü > 『蒙類』 업치구/öbcigü 가슴 (하13a)  
 라. CM. iligür > 『蒙類』 이러<sub>ᠤ</sub> /ileir 달이울이 (하13b)

고전몽골어에서는 [ü:]는 주로 egü, ügü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어휘에 따라 egüü 형태도 흔히 나타난다. 『蒙語類解』에서는 특히 egüü에 대한 표현 egüü, yeü, egü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ügü는 주로 단모음 ü로 표기하였다.

- (17) 가. CM. büdügün saran > 『蒙類』 부둔/büdün (상20a)  
 나. CM. kökө türügü > 『蒙類』 커쿠 투루/kökө türü (하35b)

- (17') 가. üü > üü (16가)  
 나. üü > (y)eü(16나)  
 다. igüü > igü (16다)  
 라. igü > eü (16라)  
 마. ügü > ü (17가,나)

장모음 [ü:]에 대한 변화를 (5)에서 다시 확인하면 'PM.egü>AM.eyü>MM.e'ü>17-18.M.eü, öü, üü', 'PM.ügü>AM.üyü>MM.ü'ü>17-18.M.üü'의 양상을 보여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결론

지금까지 근대국어 자료 『蒙語類解』의 몽골어 장모음과 장모음을 표기하는  $\gamma/g$ 의 탈락·불탈락

양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몽골어 장모음화 과정은 고대몽골어부터 중세몽골어까지 이어져 왔으며 그의 변화된 모습이 17-18세기 문헌에서 확실하게 확인된다. 그 자료로는 『蒙語類解』등의 외국에서 편찬된 학습서의 가치가 중요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고전몽골어는 수트라언어(Sutra language)이다. 즉 불경을 번역하는 데에 사용된 문어이다. 따라서 당시의 구어체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고유의 서법과 독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蒙語類解』를 비롯한 학습서들은 당시의 구어체를 반영하면서 편찬되었다. 표기는 轉字(글자 그대로)가 아닌 구어를 轉寫(소리나는 대로)한 것이다. 17-18세기 문헌자료들을 살펴보면 구어체를 기반으로 서술된 자료들을 흔히 볼 있다. 게세르, 잔가르영웅서사시나 토드문자 자료가 바로 그 예이다. 한편으로 문어생활에 있어서의 語文不一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蒙學三書を 펴낸 편찬자는 고전몽골어의 표기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9.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로 표기하는 일부 단어에 대하여 'aya'로 인식하고 고전몽골어 표기법대로 기록한 흔적도 보인다.

2) 이번 연구에서 『蒙語類解』를 펴낼 때 정확히 어떤 방언을 중심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못했다. 이기문(1964)에서 칼카(Khalka) 혹은 오르도스(Ordos) 등의 방언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고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17세기 당시의 몽골어 방언 자료와 대조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7)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구르방언 장모음화 ayu>au 모습이 『蒙語類解』에서 나타나는 일부 (14)단어와 일치한다.

3) 시대 반영에 있어 『蒙語類解』 언어의 특성상 17세기 언어, 특히 구어체 반영한 것으로 판단한다. Batkhisig, S.(2009)에서 연구한 17-18세기 문헌 자료 게세르서사시와 토드문자 언어 특성과 대조해봤을 때 당시의 언어 성격과 일치한 부분이 많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4) 마지막으로 몽골어 연구에서의 『蒙語類解』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판단하자면 특히나 자료가 많지 않아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7-18세기 몽골어를 외국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蒙語類解』를 비롯한 蒙學三書 아주 귀하고 중요한 자료로 여겨진다. 더욱이 문어가 아닌 구어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그 몽골어 변천사 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또한 蒙學三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상인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중심으로 하였고 관련된 낱말들이 수록되어 있어 더욱 흥미 있는 자료로 사료된다.



### <참고 문헌>

- 宋基中(1985), 「蒙語類解 研究」, 『歷史言語學』, 전예원.
- 심영환(2014), 「蒙學三書 몽골어의 한글 轉寫 연구」, 『역사와 실학』 54, 역사실학회.
- 연구동(1995), 「同文類解와 蒙語類解의 비교」, 『언어학』 17, 한국언어학회.
- 李基文(1964), 「“蒙語老乞大”研究」, 『震壇學報』 25-27 합병호, 震壇學會.
- 李聖揆(2002), 『蒙學三書의 蒙古語研究』, 단국대학교출판부.
- Batkishig, S.(2009), 『17-18세기 몽골어의 음운론적 연구』, 단국대학교 몽골학과 박사학위논문.
- Erdenetuya, P.(2011), 『<蒙語類解>의 음운론적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Sumiyabaatar, B.(1976), 『Korean historical accounts on Mongolia-Korean relations in the 13th-14th centuries』, Ulaanbaatar.
- Tomortogoo, D.(1995), 「A Study on Occlusion Fricative among Two Vowels in Medieval Mongolian」, 『몽골학』 제3호, 한국몽골학회.
- Shagdarsuren, Ts.(1996), 「Correlation Between Korean and Mongolian Scripts」, 『몽골학』 제4호, 한국몽골학회.
- Zayabaatar, D.(2011), 『Phonetic and Morphological system on the Mongolian script monuments of the XIII-XVI centuries』, Ulaanbaatar.



# “한국의 역학서(譯學書) 연구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

연구동(경성대)

## ①

1315편에 이르는 역학서 연구 성과를 조사하고 일일이 확인하여 유형별로 정리한 발표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발표문을 통해서 그동안의 역학서 연구의 현황과 경향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었으며, 특히 문헌별, 전공별, 시대별 통계와 이들간의 연관성에 관한 기술 등은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그래프가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어서 역학서 연구 규모나 수치의 흐름을 시각적으로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토론자의 몫을 다하고자 합니다.

## ②

발표자께서는 역학서 연구 경향의 원인을 대체로 자료 발굴이나 연구 주체로 잡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헌 자료를 기반으로 한 통시적 연구는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연구자의 관심사에 따라 주제가 정해지는 것은 어쩌면 가장 우선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와 관계 깊은 나라의 문헌이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는 우선 선정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언어학의 하위 주제에 따른 역학서 연구 경향이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 되면 후학이나 다른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즉, 지금까지 선호된 연구 경향이나 주제는 무엇이었는지, 이러한 연구 주제 중 편향되는 부분과 소외된 부분은 어떤 것인지, 각각의 의의나 한계 등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연구 성과에 대한 분석이 보다 더 세밀하게 이루어지면 좋을 듯합니다. 물론 현재의 글에서도 이러한 기술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다소 소략하여 큰 흐름을 잡기에는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국내에서의 역학서 연구의 전통은 오래되었으나, 아직도 편중되거나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발표자께서 오래 고민하고 연구해 오신 주제인 만큼 역학서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말씀하시기에 가장 적임자일 듯합니다. 의의와 한계가 분명해야 과제나 전망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발표자께서 과제로 제언한 내용들 저 역시 크게 공감합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도 줄곧 과제로 제시되어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잘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도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등 이제는 조금 더 실제적인 고민을 해 보아야 할 시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천여 편이 넘는 연구 성과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표자께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 연구 성과나 인상 깊은 연구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꾀대를 세운다는 뜻으로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④

역학서 연구에는 해당 외국어의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발표자의 의견에 적극 동감하며, 역학서의 본연의 가치가 해당 외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와 관련이 있다는 예를 한두 가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兒馬(아질개말, <역어유해> 하28b), 俗稱兒馬 아질개말(<훈몽자회> 상10)  
cf. 兒馬(수말, <동문유해> 하36b; <몽어유해> 하30b; <방언유석> 사13b; <화어유초> 54b)

<역어유해>, <훈몽자회>에 제시된 ‘아질개말, 아질개말’의 의미는 “망아지” <큰사전>, “새끼말”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4>로 되어 있지만, 다른 유해류 역학서의 동일한 표제어에는 ‘수말’이 대응되어 있어 의미에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대역되어 있는 만주어의 ‘ajirgan’과 몽골어의 ‘ajirga mori’는 ‘망아지’가 아니라 ‘수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만주어 표제어를 만주어로 풀이한 <어제증정청문감>의 뜻풀이를 보면 “morin lorin i jergi ulha i haha ningge be ajirgan sembi(말 노새 등 가축의 수컷을 ajirgan이라고 한다)” (31:32a)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전에서 ‘망아지, 새끼말’이라는 풀이는 한자 兒에 경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細點的(세가탈, <역어유해> 하29a), 細點\*(세가탈, <방언유석> 사14a)  
cf. 小走(준거름흐다, <몽어유해> 보31b), 點的馬(가탈흐는말, <역어유해> 하29a)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4>와 <우리말샘>에는 “세가탈: 심하지 아니한 가탈”로 풀이되어 있고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가탈: 1. 일이 순조롭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조건. 2. 이리저리 트집을 잡아 까다롭게 구는 일 / 가탈가탈 : 사람이 타거나 신기 불편할 정도로 말이 비틀거리며 걷는 모양”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하지

만 <방언유석>에서는 만주어 saiburu, 몽골어 saibur로 대역되어 있는데, saiburu의 의미가 “小走. morin lorin i jergi ulha okson ci hūdukan joran ci elheken i yabure be saiburu sembi(말 노새 등 가축의 걸음걸이가 신속하고 크게 걷는 것보다는 다소 느리게 가는 것을 saiburu라고 한다)” (<어제증정청문감> 31:42a), 馬牲口的亂插步比達漢步畧步快比大走畧慢(<청문총휘> 5:28)이라는 것을 참고하면 ‘세가탈’은 “빠르지 않은 걸음걸이”를 의미하는 단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주어 “快步, 速步”를 의미하는 ‘katarambi’, 몽골어 “qatarimui”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장들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다 맛당티 아니하니 세 官人의 틀 세 ㄱ장 쟈 웃썸 물을 가져오고 伴當 틀 다숫 세가탈흐는 물을 가져오고 나 틀이란 ㄱ장 잘 걷는 물을 가져오라(三個官人的馬, 將三個半分緊躡的頭馬來, 伴當騎的, 五個細點的馬來, 我騎的十分快走的馬將來)<박통사언해> 중7a)

이 ㄱ 가져온 말이 느는드시 재고 잘 걷는 이와 세가탈흐는 이 다 이세라 (這的恰將來的馬, 飛也似緊躡, 快走的, 點的都有了)<박통사언해> 중8a)

예를 장황하게 들었습니다만, 결국 국어사에 대한 탄탄한 기초 위에 해당 외국어에 정통한 연구자들이 역학서 연구를 새롭게 이끌어 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학문적 수준이 그렇게 할 준비도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할 능력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 국어사학회 2021 겨울학술대회 토론문

신용권(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본 발표는 조선 중기 漢學의 대가인 최세진이 漢語 및 吏文의 학습을 위하여 편찬한 문헌들을 대상으로 이들에 반영된 국어 관련 기술을 추출하고 이들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국어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그 국어학적 가치를 논의한 것입니다. 저는 주로 漢語 학습서에서 漢語 관련 부분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이번 토론은 漢語 학습서의 국어학적 가치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발표문 중에서 의문이 있는 부분이나 발표자에게 추가로 의견을 듣고 싶은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漢語와 吏文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 언어 자료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고, 漢語와 吏文의 학습 과정과 함께 학습하기 위한 책도 구분되어 있는데, 본 발표에서 이 둘을 함께 묶어 漢語 학습서라는 범주로 논의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의문의 연장선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2절에서는 吏文 학습 자료에서 보이는 한자음 관련 정보의 제시 양상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吏文 자료는 독특한 자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자음 자료와 관련하여 漢語 학습서와 같은 차원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를 국어한자음 자료로 활용하려면 吏文 학습서에 나타난 한자음 자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최세진이 편찬한 『老乞大』와 『朴通事』의 諺解書 및 『老朴集覽』은 간행과 관련된 정확한 기록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간행한 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전의 여러 연구들에서 간행 시기와 관련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쪽에서는 1517년으로 확정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③ 2.1절 한자어에서의 음운현상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음운현상은 다른 중세 국어 자료에서도 관찰되는 것인데, 漢語 학습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국어학적 가치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음운현상이 漢語 학습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거나 또는 통계적으로 볼 때 다른 종류의 문헌들에 비하여 漢語 학습서에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거나 또는 다른 종류의 문헌들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漢語 학습서에서 보이는 경우 등이라면 漢語 학습서가 가진 독특한 국어학적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음운현상이 이러한 경우들에 해당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④ 2.2절 개별 한자음 관련 정보의 제시 부분은 특히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은 ‘人蔘’의 ‘蔘’이 한자어의 형태에 따라 ‘L심’과 ‘L습’으로 나뉘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하여 발표자께서 漢語에서 나타난 正齒音의 권설음화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근대음적 층위의 한자음 반영 양상이라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人蔘’의 ‘蔘’에 제시된 한자음 ‘L습’은 근대음적 층위를 반영하여 중고음을 대체한 것이고 단독으로 제시된 ‘蔘’의 한자음 ‘L심’은 대체된 중고음에 대응하는 한자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는 해석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당시 北方漢語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권설음화와 이에 따른 韻母의 변화가 바로 한국한자음에 반영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近代漢語에서 발생한 구개음화 문제를 연구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구개음화가 발생한 한국어, 만주어와의 연관성

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세 언어의 구개음화 사이에 영향 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 명확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추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漢語에서 진행 중인 음운변화가 바로 한국한자음에 반영된 것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⑤ 3.2절에는 漢語 학습서의 諺解文에 나타난 한자어에 대하여 한자로 표시되지 않고 한글로 표시된 한자어는 이 예들이 국어 화자 최소한 漢語 학습자에게는 익숙한 어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漢語 학습서의 諺解文에 나타난 특정한 한자어가 漢語의 해당하는 어휘를 외국어 어휘로 인식하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었는지 아니면 국어 화자들에게 어느 정도 수용되어 외래어로 간주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인지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2절의 한자어 부분과 3.3절의 차용어 부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있는데, 발표자의 견해를 추가로 듣고 싶습니다.

⑥ 본 발표의 논의에서는 빠져 있는데, 漢語 학습서를 구성하는 부분 중에서 漢語 원문의 각 한자 아래에 한글로 표기한 漢語 주음은 처음 漢語를 배우는 사람에게는 특히 어려울 수 있는 漢語 발음 학습을 위하여 편찬자들이 가장 공들여서 만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國語音韻史 연구의 측면에서 보면 漢語 학습서의 이 漢語 주음은 당시의 한글 음가를 추정하는 데 일정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처음 훈민정음으로 漢語音 표기의 방식을 제시한 『洪武正韻譯訓』이나 『四聲通解』 등 초기 韻書에서의 漢語 주음은 國語音韻史 연구에 가치가 있지만 이를 답습한 漢語 학습서의 漢語 주음은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문 <청학서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특히 만주어와 한국어의 시상체계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최계영(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이 발표는 청학서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를 주제로 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만주어와 한국어의 시상체계에 초점을 두고 기존 연구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발표에서 세심하게 개관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 초기에는 문헌 연구에 다소 치중해 있었으나 최근의 연구는 언어 그 자체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어 있으며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성장을 거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내의 이러한 연구실적들을 상세한 논저 목록으로 함께 제시해 주어 본 토론자를 포함한 많은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더하여 발표에서 청학서의 언어 자료를 다루는 데 주의할 사항으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청학서의 만주어를 1차 언어자료로 여기거나 만주문과 언해문을 단순 비교 대상으로 접근하는 태도에 대한 우려에 십분 공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상체계라는 구체적인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세부적인 사례들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줌으로써 본 토론자에게도 이후 청학서를 연구하며 경계해야 할 지점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발표의 내용에 대해 다른 이견이나 덧붙일 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궁색하게나마 고민을 나누어 보자는 취지에서 작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술대회의 취지에 맞게 국어학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청학서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의 내용으로는 청학서에 접근하기 위한 문턱이 높아 다소간의 좌절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주어를 대단히 잘 알아야지만 청학서를 연구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청학서의 국어학적 연구에는 어떤 과제가 있으며 어떠한 전망을 살필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좀더 의견이 있으시다면 듣고자 합니다.

+사족:

학술대회 주제에 맞게 만주어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싶었습니다마는, 발표에서 제시하셨던 예문 (3)에 대해서만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 bi **duleke aniya** emu nikan i gucu be dahame (중략) wang ging de gamame uncaha de majige aisi be **baha**

내 前年에 훈 漢벗을 조차 (중략) 王京에 가져가 풀면 적이 利息을 어들러라 <청노01:18a>

내 전년의 漢벗 조차 (중략) 王京의 가져가 풀라 저기 니천 어드라 <老乞上12a>

내 그히에 中國사람을 썩라 (중략) 王京에 도라가 풀니 썩 저기 利錢을 어들러라 <老新1:16a>

b. si tere ceceri suberi kubun be da bade udu hvda de udafi wang ging de genefi udu hvda de uncambi

네 저 깃과綾과 소음을 본 짜히셔 언머 갑세 사셔 王京에 가서 언머 갑세 푸는다 <청노 01:18b>

네 더 능과 깃과 소음을 밋짜히셔 언멧 갑스로 사 王京의 가 언멧 갑시 푸는다 <老乞上 12a>

네 저綾과 깃과 소음을 밋짜히셔 언머 갑스로 사 온 거시며 王京에 가 언머 갑스로 푸는 거시뇨 <老新1:16b>

(중략)

jai bodoci aisi be ambula **baha**

다시 헤니 利息을 크게 **어들러라** <청노01:20b>

또 혀직온 니천을 **어들러라** <老乞上13b>

또 혀직온 利錢을 **어들러라** <老新1:18a>

발표문에서는 만주어의 ‘과거’와 국어의 ‘미래’가 대응되는 것이 노걸대의 다른 이본인 <노 걸대신석언해>의 대역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이라는 견해에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만주어의 ‘과거’와 국어의 ‘미래’가 잘못 대응되어 있다는 것에는 같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먼저 <老新>의 언해문은 <청노>가 그대로 이용했다고 하기에는 차이가 다소 확연하며, 구문의 다른 부분은 제외한 채 ‘어들러라’만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게다가 ‘어들러라’는 ‘-으리-’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미래표현이 아니라 과거시점에서의 추정표현일 것입니다. 즉 기준 시점이 과거이기 때문에 만문과 언해문의 시제 대응에는 차이가 없는 예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학서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토론문

박기영(서울시립대)

(별지 참조)



## “『蒙語類解』 몽골어 표기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

이용(서울시립대)

선생님의 발표 감사합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2장에서 중세몽골어에서 일어난 모음 간 ‘y/g’의 탈락과 그 결과로 생긴 장모음 또는 이중모음의 형성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3장에서 이것이 『몽어유해』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 『몽어유해』의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결론에서 『몽어유해』는 17-18세기 몽골어 구어를 반영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몽골어의 어떤 방언을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대구르 방언의 장모음화 ay u>au 모습이 『蒙語類解』에서 나타나는 일부 단어와 일치한다고 하여 새로운 가능성의 일면을 제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몽고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 주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자료를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 주고 있어서 이 발표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몽골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음운론 역시 어두워 이 글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읽으면서 의문도 생겼습니다. 이에 두세 가지를 간단히 여쭙고자 합니다.

1. 2장은 한국의 유성후두마찰음과도 관련이 있어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모음 사이에서 ‘y/g’가 탈락하고 장모음 또는 이중모음이 된 것을 ‘장모음화’라는 제목 아래 다루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읽으면서 장모음화라는 용어가 약간은 의아한 면이 있었다가, 결론에서 “장모음화 ay u>au”라는 기술이 나와 장모음화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중모음화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장모음화라고 하는 이유가 달리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예문 (9)를 설명한 자리에서 “흥미로운 것은 모든 장모음을 ‘aya’(9나)로 표기한 것이 아니라 몇몇 단어에만 국한해서 표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장모음을 ‘aya’로 표기한다는 사실이 전체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표기는 언어의 변화에 비하여 표기가 보수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와 유사한 표기가 이 예 말고도 더 있는지, 그리고 『몽어유해』의 편찬자가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궁금합니다.

3. 예문 (11)를 설명한 자리에서 고전몽골어에서 ‘igi, iyi, ii, eig, eyi’ 등으로 나타나는 몽골어 장모음 [i:]가 『몽어유해』에서는 단모음 ‘i’로 표기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당시의 몽골어 자료에는 표기법에 장모음 [i:]를 표기하는 수단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몽어유해』의 편찬자가 장단을 알고 있으면서 표기에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있어서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알고 있으면서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것은 한글로 표기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추정해 봅니다.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연구윤리 규정>

## 국어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국어사학회 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사학회 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연구에 관한 윤리 및 그에 대한 위반 시의 제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논저자의 연구윤리

제3조(표절 금지) 논저자는 논문이나 저술에 사용된 연구 자료, 내용, 방법 등에서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은 것을 자신이 행한 것처럼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연구 자료, 내용, 방법 등을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 업적의 인정과 기여도 표시)

1. 논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자신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저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순수하게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논저자 중에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제1저자로 하거나, 연구 및 저술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음에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려서는 안 된다.
3. 논저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연구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의 금지) 논저자는 이미 간행되었거나 게재 예정 또는 심사 중인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전재 또는 개정 및 번역하여 출판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편집자나 발행인에게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

제6조(인용 및 참고 표시의 의무)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비공개 자료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 또는 아이디어를 인용 또는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 제3장 학회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 제7조(공정성의 의무) 학회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자의 성별, 연령, 출신 지역 및 학교, 소속과 지위 등과 관련한 선입견이나 친분관계와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 제8조(심사위원 선임 조건) 투고자와 사적인 친분이 많거나 그와 반대로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은 선임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편집위원회 관련당사자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출판이사, 출판 간사 등 편집위원회 관련당사자가 학회지에 투고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 의뢰 및 게재 여부 등을 의결할 때에는 관련당사자를 꺾지 않는 가운데 행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학회지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와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의 인적사항, 투고 내용, 심사 결과 등 심사와 관련된 일체 사항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1조(심사 부적합 통지의 의무) 선임된 심사위원이 자신이 심사자로서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성실 심사의 의무)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논지를 충분히 이해한 후 평가를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의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대상 논문을 저평가하거나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제13조(평가 근거의 명시 의무) 심사서에는 심사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정중한 표현)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과 독자성을 존중하여 심사서에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피하고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제15조(심사 논문 유출 금지) 심사위원은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여서는 안 되며, 심사 논문이 학회지에 수록 출판되기 전까지 논문의 내용을 유출해서는 안 된다.

### 제4장 윤리규정의 시행 및 제재

- 제16조(윤리규정의 준수 의무) 학회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7조(윤리규정 위반 행위의 제보) 학회 회원 또는 학회지 투고자나 심사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 사실을 인지한 제보자는 학회의 사무소 또는 임원



에게 직접 또는 전화나 서면,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의 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제보할 때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제보의 접수) 학회의 사무소 또는 임원이 윤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으면 지체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장은 보고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윤리위원회의 소집으로써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윤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한다.

제20조(윤리위원회의 조사) 윤리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윤리위원회가 소집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하여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사안이 이미 발행한 학회지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게재와 관련된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이 편집위원회에 제보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 논문에 대한 조사 및 사후조치를 위임한다.

제21조(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판정 및 통보) 윤리위원회는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윤리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판정한다. 판정이 이루어지면 윤리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때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피조사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회장은 판정 결과를 보고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판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피조사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회장과 윤리위원은 해당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4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보고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 제5장 학회지 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심사 및 조치

제25조(투고 논문의 제재)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이 표절 또는 중복 게재로 판단될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제보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때로부터 7일 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사후심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 및 중복 게재로 의심되어 윤리위원회에 제보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사후심사를 한다.

제27조(사후심사의 절차) 윤리위원회에서 논문의 사후심사를 의뢰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의뢰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사후심사는 다음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1.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표절 및 중복 게재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예비 결정을 내린다. 예비 결정은 심사를 의뢰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편집위원장은 예비 결정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논문 필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논문 필자는 통보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필자가 기한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비 결정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편집위원장은 소명서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표절 및 중복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장에게 알린다.

제28조(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회에서 사후심사한 논문이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최종 판정된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학회 홈페이지 및 차호 학회지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
2. 학회지 전자판 및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3. 해당 논문 필자에 대하여 제명 조치를 하며, 이로 인해 제명된 자는 향후 5년간 학회에 재가입할 수 없고, 학회지에도 투고할 수 없다.

## 부칙

제1호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호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3호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